

런데도 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은, 유교를 믿는 데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희(儒會)와 향교(鄕校)의 이름과 재산을 가지고 길러서 육성한다면, 그 사람이 유자(儒者)가 됨이 아주 명백하여서 대부분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夫子)께서는 만고의 사범(師範)이십니다. 지금의 향교는 옛날의 학교입니다. 학교 이면서도 반드시 문묘(文廟)를 받드는 것은, 이것을 사범(師範)으로 삼아 여러 학생들이 보고서 느끼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과가 모두 부자의 도에 마땅하지 않은 것이 없기는 하지만, 오직 사범과가 부자의 가르침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바라건대 유희(儒會)에서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사범과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사범학교나 경성제국대학의 학생은 자본이 있으면 파견하여 양성할 수 있으나, 재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학생을 파견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보통사범학교는 학비가 그에 비하여 아주 싸며, 숫자 역시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범과는 관(官)에서 운영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교의 재산은 관청의 감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즉 이러한 따위의 시설은 유럽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지사 각하(知事閣下)가 임하여 있는 자리에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도(道)를 근심하는 간절함과 유학을 장려하는 부지런함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교육이 착착 보급되고 있어 공립보통학교가 매년마다 증설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원들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역시 교사의 숫자가 부족할 것이 걱정됩니다. 비록 국고(國庫)로써 양성한다 하더라도 숫자를 충분히 채우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관청과 민간이 협의한 것을 각하께서 채택하여, 시골의 인재를 양성한다면, 거의 걸림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거듭하여 말하는 것은, 한 훈도(訓導)가 복무하는 연한 동안에 가르치는 아동들의 숫자가 몇 백이나 몇 천이 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배우면서 덕에 들어가는 것은 빈 집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과 같으므로, 실로 유교의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현들께서는 잘 참작하시고, 지사 각하께서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모임에 참석해서는 단지 예나 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도 감히 저의 속마음을 말씀드려 외람되어 참람한 짓을 하게 되었는데, 몹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유도를 진흥시키는 바탕에 채택되게 된다면, 몹시 다행이고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출전 : 金完鎭, 「時代之儒教」, 『經學院雜誌』 제24호, 1923년 12월 25일, 81~88쪽〉

## (2) 유가의 자위책

귀도<sup>457)</sup>의 지사 각하(知事閣下)께서 귀회(貴會)의 총회를 여는 날에 맞추어 강사(講師)를 파견해 강

457) 전라남도.

연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도에 거주하고 있는 본 경학원(經學院)의 강사(講士)인 심선택(沈璿澤) 씨께서 명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경학원의 일원으로서 성대한 모임을 참관하고 겸하여 경하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이제 심 선생을 따라서 와, 남쪽 지방의 명사들을 한 장소에서 마주하게 되었는데, 몹시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경학원에서 파견한 강사는 바로 심 선생입니다. 저는 본디 경학(經學)에 어두워서 강연을 하는 것은 본디 잘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에 오직 한 마디만 말을 하여 예모를 차리는 뜻을 대충이나마 펴고자 합니다.

경학원과 각 지방의 향교(鄕校) 및 서원(書院)은 바로 옛날의 관립(官立)과 공립(公立)과 사립(私立)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교육(社會教育)을 하는 기관으로 변하여, 선성(先聖)과 선사(先師)를 제사하고 경학(經學)을 연구하여 이륜(彝倫)을 부식하고 풍화(風化)를 돕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즉 보통학교나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와는 그 지향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연원(淵源)의 유래로 말씀드리면, 유교의 본당(本堂)이 됨에 있어서는 어긋나는 점이 없습니다.

유교라는 것은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도를 강명하여 이를 실천하면서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신(修身)과 제가(齊家)로부터 시작해서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정신계(精神界) 및 육신계(肉身界)를 통괄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교법(教法)에 저촉되는 몇 가지의 형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리 유교로부터 말미암은바, 조금도 서로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인의(仁義), 예지(禮智), 효제(孝悌), 충신(忠信) 등과 같은 덕목에 속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조선은 성인이신 기자(箕子)께서 가르침을 베푸시니 이래로 예의(禮義)를 숭상하면서 문명(文明)을 크게 천양하였습니다. 신라와 고려 시대 이래로 유현(儒賢)들이 배출되어 국정(國政)을 주도해 왔으며,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에 인륜은 위에서 밝아지고 교화는 아래에서 행해져 일대 문화의 융성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도가 점점 낮아지게 됨에 이르러서는, 풍속이 나빠져 슬금 슬금 어둡고 침체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왕왕 우리 유교의 폐단을 말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개 큰 강물이 멀리까지 흘러가면 말류에서는 정체됨이 없지 않은 것이며, 대중들이 의지하면 견해 역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는 형세상 참으로 면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치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도가 쇠해지고 배움이 느슨해진 것이지, 가르침이 어긋나거나 도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상태를 보면, 옛날의 도덕은 이미 쇠해졌고 오늘날의 새 풍조는 진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마치 농사짓는 집의 팔월과 같아서, 지난해의 쌀은 이미 썩었고 새 곡식은 아직 익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과도기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교가 오늘날에 취할 자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미리 장마에 대비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른바 유가의 자위책이라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진달드릴 것인데, 이는 늙은이가 항상 하는 얘기로, 별로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파(敎派) 간에 서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오로지 우리 유교만을 숭상하여 민심이 일치됨으로써 난적(亂賊)을 성토하고 이단(異端)을 배척하면서 수천 년간의 통치를 전적으로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종교가 들어와 각자 문호를 열어놓고는 각 유파별로 나누어지거나 모이면서 서로 다투어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갑작스럽게 그들을 배척하면서 강제로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유교로 귀일시키고자 한다면, 비단 서로 희생되는 것이 염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마도 실제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억만 명이나 되는 창생들을 한 집 안에 수용한다는 것은 형세상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에서 각자 자유롭게 종교를 택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들어가는 문은 비록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착한 마음으로 도를 닦으면서 세상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유가의 법도는 가는 자는 뒤쫓지 않고 오는 자는 막지 않는 것을 요체로 삼고 있는 데이겠습니까.

동양이나 서양에서 전쟁이 일어난 역사를 상고해 보면, 교파 간의 분쟁에서 말미암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사나운 말과 과격한 의논으로 못사람들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거나 사회를 뒤흔들어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현인의 교훈을 실행하면서, 스스로 힘쓰고 스스로 가다듬어 세상 사람들에게 규범을 수립하기를 도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사회가 서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집안이 여기에 있어서 3대가 함께 살 경우, 할아버지는 고서(古書)를 읽어서 의리로 속을 채우고, 손자는 새로운 기예를 배워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 하며, 아버지는 윗사람을 받들고 아래 사람을 거느리는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한 가로이 집안에 있으면서 손자와 더불어 바둑을 두다가 끝내 서로 다투게 되어 서로 간에 버티어서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손자를 꾸짖으며 억지로 양보하게 하였을 경우, 할아버지는 웃고 손자는 울게 됩니다. 이것으로 논해보자면, 아버지가 처리한 바가 마땅함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손자가 승복하지 않는 것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상은 대개 이와 비슷합니다. 예전 풍조와 새로운 사조가 서로 부딪치면서 비비대고 있는바, 이를 조화시키고 소통시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고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처해 있을 경우, 윗사람을 잇고 아랫사람을 접하여 집안의 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그의 책임입니다. 그런즉 예전에 늘 하던 방식을 가지고 이미 죽어버린 법만 고수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조용하게 지내며 자신의 도리만을 지키면서 방임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바람을 타고 시세에 영합하면서 쫓아가거나 선동해서는 안 되며, 팔뚝을 치켜들고 격론을 주장하면서 급격하게 공격하거나 사납게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널리 듣고 깊이 생각하여 분명하게 판단하고 힘써 행하면서 몸소 선훈(先訓)을 실천하여 유속(流俗)의 모범이 되어, 후진을 잘 계도하여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古今(古今)을 절충하고 동서(東西)를 참작해, 한 시대의 신문명(新文明)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 산업(産業)을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이곳 호남(湖南) 고을은 기름진 들판이 천리에 뻗어 있고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어, 물산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런데다가 뽕나무를 심고 목화를 재배하여 거두어들이는 이익도 또한 아주 큼니다. 그런 즉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 다른 도보다 한결 낫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데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듯합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논에 피와 가라지가 수북하게 자라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의지하는 바는 오직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장차 먹을 식량이 없게 될 것이며, 땅이 잘 길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장차 입을 옷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날로 불어나는 때에 미처서는 토지를 이용하는 것도 역시 배는 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어찌 한 줄기의 피라도 좋은 논 가운데에서 자라나 비료를 축내고 지력을 떨어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한 백년의 행복을 생각하여 당국의 지도를 잘 따라, 근본이 되는 농사에 힘써서 부력(富力)을 늘려, 공공(公共)의 사업에 공급(供給)하고 문명의 세계를 꾸며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는 이곳이 낙토가 되어 런던이나 파리 등은 비길 바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 교육(教育)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종전부터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운데에는 신교육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진보와 교육의 보급을 뒤 따라서, 새 풍조와 옛 관습을 점차 융화되는 데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기뻐할 만한 현상인 것입니다. 사회 교육의 기관이 되고, 지방의 어른의 지위에 처해 있을 경우, 교육을 장려하고 후진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천직(天職)입니다. 그런데 이 천직을 일삼지 않은 채 한가로이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소년배들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귀도의 각 군에는 이미 모두 교육회(教育會)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여기에서 출선수범하고 분발하여, 사회의 토대를 만들고 백년의 대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능히 다하여야지, 스스로 해이하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역시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실정은 헤아려보지 않은 채 헛된 곳으로만 내달리는 것이 실로 오늘날 지방 청년계의 잘못된 풍조입니다. 모름지기 지방의 사정 및 경제 상태를 생각해서 자본과 능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실업가(實業家)들로 하여금 수용하게 해, 지식을 길러 주고 기능을 전수해 주어, 온건하게 발달시키기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 재력(財力)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지방의 경제 상태를 보면, 금융은 경색되고 산업은 진흥되지 못해, 도처에서 공황 상태가 되어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 방향을 돌아보면, 재산이 있는 자들이 호화와 사치를 부리면서 제멋대로 굴어, 사회에 여러 가지 유감을 쌓고 있고 자손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모름지기 근검절약하여 유학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사업을 진흥시키고 일세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교나 서원 및 기타 사우(祠宇)를 숭봉하는 일에 이르러서도 능히 옛 예를 준수하여 그 예법을 실추시키지 말아야 하나, 새로 짓고 다시 행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혹 선덕

(先德) 가운데 아직도 사전(祀典)을 행하지 않고 있어서 추가로 올리는 것이 합당하여 혹 새로 제향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함부로 거행하지 말고 백대 뒤의 공론을 기다려서 해야만 합니다. 한 지방에서 돈을 각출하여 계를 조직한 다음, 땅을 빌려 나무를 심어, 유희(儒會)의 자금을 조성하고 향교의 재산을 보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임시로 지출하는 비용을 향교에서 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어찌 아주 편안하면서도 성사될 가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유학자도 역시 죽는 것이며, 돈이 없으면 일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비록 세속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실로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정신을 기르고 힘을 비축한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해 나간다면, 처음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면 작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 가 바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 인재(人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향교재산관리규칙(鄕校財産管理規則)을 개정할 이래로 그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대학(孔敎大學)을 나라 안에 설립해야 한다고 하고, 경의강습소(經義講習所)를 각 군의 명륜당(明倫堂)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신서적(新書籍)을 구입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하고, 관광단(觀光團)을 조직해야 한다고 하고, 강연회(講演會)를 열어야 한다고 하고, 백일장(白日場)을 개최해야 한다고 하고, 제구(祭具)를 새로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 도에 있는 향교의 재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살펴보면, 일 년의 총액이 2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350여 곳에 있는 문묘(文廟)에서 봄가을로 올리는 제사의 제수 비용과 기타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그 나머지 액수로는 대학을 유지하는 비용을 대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설립하는 비용이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각 군에 있는 보통학교(普通學校)의 경비를 충당하던 때를 되돌아보면, 지방의 유림들이 재산을 빼앗겼다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대었습니다. 지금 이 돈을 모두 모아서 한쪽 방면에 쏟아 부을 경우, 다른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 유림의 사업이 발전하기를 기다려서 의논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강습소를 설치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한갓 향교의 재산만 낭비하게 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제구를 갖추는 일에 이르러서는, 해마다 적당히 나누어서 보수하는 이외에 한꺼번에 새로 갖춘다는 것은, 그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의 경우에도 모두 무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역시 으뜸으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오직 이것으로 학자금(學資金)을 삼아 학생을 뽑아 보내어 그로 하여금 보통사범 및 고등사범, 제국대학의 사범학과를 이수하게 해, 교사가 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해 듣건대, 귀도에서는 이미 학자금을 대준 전례가 있기는 하나, 아직 학과까지 지정해서 준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사범과에 한해서 학자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 유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공부자(孔夫子)께서는 만고의 스승이십니다. 그 학문을 배우고 그 뜻을 뜻으로 삼아, 배우면서 실증 내지 않고 가르치면서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유자(儒者)의 천직인 것입니다. 그

리고 향교라는 것은 옛날의 학교이며, 오늘날의 문묘입니다. 향교의 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의 공공의 재산으로서 지방비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롭게 써서 교육을 발달시키고 유도를 진흥시킨다면, 검하여 하면서 치우치지 않게 되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의 원래 성질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각지에서 공립보통학교를 증설하고 있는데, 교원이 부족할 것이 걱정됩니다. 비록 관공(官公)의 비용으로써 기른다고 하더라도, 역시 교원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사에 이르러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겨우 몇 명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향교의 재산을 떼어 내어 군마다 각각 보통사범학교의 학생 한 사람씩을 양성한다면, 한 회에 배출되는 자가 장차 200여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다 각각 고등사범학교나 제국대학 학생을 몇 명씩 양성한다면, 한 회에 배출되는 자가 적어도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이 향교의 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교육계에 공헌을 하고 부족한 교원을 보충한다면, 이 역시 우리 유가의 일대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른바 유가의 자위책(自衛策)이란 것은, 이상에서 말한 몇 가지 일에 지나지 않는데, 번다하게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니 들을 만한 내용은 없으면서 한갓 시간만 허비하셨을 것으로, 몹시도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다행히 이 뒤에 심 선생께서 경학(經學)에 대해 강론할 것이니, 귀를 씻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전 : 金完鎭 「儒家之自衛策」, 『經學院雜誌』 제25호, 1924년 12월 25일, 53~58쪽〉

### (3) 유시(儒是)

#### 강설(講說)

저 김완진은 바로 이곳 충남 사람입니다. 이 고을에 사는 여러 분들은 옛 친구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에 제가 이웃 군에 군수(郡守)로 와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죄를 얻고 옛 친구들에게 수치를 끼친 것도 대개 적지 않습니다. 이에 마음속으로 항상 여러분들의 덕을 그리워하면서 감사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간 헤어져 있다가 다행스럽게도 이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저의 기쁜 마음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단지 저 오하(吳下)의 아몽(阿蒙)<sup>458)</sup>은 특별히 괄목상대(刮目相對)<sup>459)</sup>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군수 각하께서 멀리에서 저를 초청하여 오게 하신 것은,

458) 오하(吳下)의 아몽(阿蒙) : 학식이 없고 진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하는 지명이고 아몽은 여몽(呂蒙)을 말한다. 손권(孫權)이 여몽과 장흥(張欽)에게 학문을 권장했는데, 그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였다. 뒤에 노숙(魯肅)이 여몽과의 대화에서 여몽의 진보에 놀라 “그대는 이제 어리석었던 오하의 아몽이 아닐세.” 한 데서 연유한 말이다. 『三國志』 吳志 呂蒙傳.

459) 괄목상대(刮目相對) :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학문이 크게 진보되었음을 뜻하는 말이다. 옛말에 “선비가 서로 작별한 지 사흘 만이면 눈을 닦고 서로 대한다.(士別三日刮目相對)”는 말이 있다.

예전에 저를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에 불과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 무당은 영험함이 없고 촌스런 사람의 말 역시 졸렬하여, 여러 대가(大家)들께서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옛 친구에게 거듭 수치를 끼치게 되었는데, 몹시 부끄럽습니다.

저 김완진이 경학원(經學院)에 재직하고 있는 것은 사유(師儒)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고비(臯比)의 자리<sup>460</sup>에 높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성묘(聖廟)를 청소하는 일개 하역자(下役者)로서, 한갓 일반 사무나 보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에 본디 경학(經學)에 어두우니, 어찌 능히 강연(講演)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향교(鄕校)와 경학원(經學院)의 일에 관계됨으로 인하여, 멀리에서 초청해 주신 성대한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에, 억지로 달려와서 외람되어 여러분들의 모임에 끼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미천한 저의 분수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이 어찌 비단옷을 입고 흰 대낮에 돌아온 것만 같을 뿐이었습니까. 강연을 하는 것은 본디 본도를 순회하는 강사(講士)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저로서는 감히 입을 놀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단지 답례하는 뜻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경학원(經學院)이라는 것은 옛날의 태학(太學)이고, 향교(鄕校)라는 것은 지방의 학교입니다. 대개 옛날의 학제(學制)는 중국에서 규범을 취해 와 도성에는 국학(國學)을 설치하고, 고을에는 향교(鄕校)를 설치한 다음, 양곡을 비치하여 선비들을 양성해 이 세상의 쓰임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향교를 거치지 않고는 태학에 올라갈 수가 없었음이 오늘날의 보통학교(普通學校)와 고등학교(高等學校)의 제도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 향교의 안에는 문묘(文廟)를 세워 대성(大聖)을 제사지내고 명현(名賢)을 배향(配享)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러러 볼 바를 높이어 사림(士林)이 모범으로 삼을 바를 만들고, 이로써 덕성(德性)을 함양하고, 이로써 이륜(彝倫)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교화(教化)가 행해지는 것이 아주 아름다워 불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교육을 베푸는 것입니다.

학제(學制)를 신식(新式)으로 고친 이후에는 별도로 학교를 설치하여 학교의 교육을 베풀었으며, 이어 향교도 그대로 보존하여서 사회교육의 기관으로 갖추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와 문묘가 나뉘지게 되어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이 각각 그 업을 구분하였습니다.

대개 옛날에 사장(詞章)을 기송(記誦)하던 학문은 천하의 대세에 대항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대에 부응하고 형세를 따라서 법학, 경제학, 의학, 농학, 공학, 상학 등의 과목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功)을 이루고 업(業)을 성취하여 격물(格物)과 치지(致知)와 궁리(窮理)와 진성(盡性)에 이름에 미쳐서는 모두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강하(江河)를 만회하여서 세도(世道)를 융성하게 하고 인심(人心)을 착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 도덕(道德)의 본원인 옛 학문을 내버려두고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문묘를 그대로 봉안하여 해마다 거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갓 그 귀신에게 제사만 지내면서 성인의 학문을 강구하지 않으며, 한갓 그 책만 읽으면서 그 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유자(儒者)가 될 수 없으며, 일삼을 바가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에 경학원의 규정 제1조에 크게 써서 게시하기를, “경학을 강구하여 교화를 돕는다.(講究經學 裨補教

460) 고비(臯比)의 자리 : 고비는 호피(虎皮)로, 옛 사람들이 호피를 깔고 앉아서 강학(講學)하였으므로, 후대에는 사석(師席)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化)”고 운운한 것입니다. 무릇 향교와 경학원은 한 몸이어서 실로 나아가는 바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향교와 경학원은 모두 경학을 강구하는 곳이며, 교화의 사업을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 자리에 처해 있으면서 이런 기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임무가 역시 중하고도 크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이 제도를 쇠신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학원의 관원과 향교의 교원들이 마치 잠에 취해 있는 것과 같아서 사회사업을 이루었다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가 과도기에 속하고 풍기(風氣)가 떨쳐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역시 쌓여온 폐습이 고질화되어서 묵은 폐단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반드시 강령(綱領)을 먼저 세우고 기치를 분명히 세워, 못사람들의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못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법입니다. 가령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서도 오히려 능히 반대편의 기슭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법<sup>461)</sup>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유림사회(儒林社會)가 뿔뿔이 흩어져서 시들시들한 채 투덜대며 흐물흐물해져 한 가지 일도 조처하지 못하고, 한 가지 사업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다른 이유에서이겠습니까. 오로지 유시(儒是)가 일정하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삼가 오늘날의 유림계의 상태를 보건대, 모두가 같은 유자(儒者)인데도 행하는 바는 서로 간에 아주 판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체인데도 주장하는 것은 서로 어긋납니다. 이에 진짜와 가짜가 서로 뒤섞여 있고, 붉은 색과 자주색이 서로 어지럽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옳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통일되지 못하여 억만 사람이 억만 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실패한 경험을 내버려둔 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끝내는 군자다운 유자는 꼬리를 끌고 날마다 물러가고, 소인 같은 유자는 빈틈을 엿보면서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명목(名目)이 좋으면 표방(標榜)을 하고, 재료가 좋으면 판매를 하면서, 유자의 옷을 입고 유자의 관을 써서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꾼 다음, 요(堯) 임금을 칭하고 순(舜) 임금을 칭하면서 다른 사람을 헐박하고 자신을 살찌웁니다. 유교가 제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다른 종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학의 앞날을 생각하매, 어찌 걱정과 탄식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일반사회의 현상을 보건대, 지난날의 덕은 이미 쇠하였고, 새로운 풍조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종교와 학문은 여러 갈래로 나뉘져 나아갈 바를 정할 수가 없고, 법과 기강은 날로 치밀해지지만 사기와 거짓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실은 본받지를 않고, 악한 행실에만 감염되어, 남자는 부랑한 데로 빠져들고, 여자는 사치스러운 데에 몰들었습니다. 풍속과 기강이 날로 문란해지고, 이륜은 날로 무너져, 자제들은 제멋대로 굴면서 정상적인 법도를 벗어나고, 부형들은 어둑해져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런 말류의 폐습은 도도히 흘러 서로 이끌고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자들은 이러한 때 완전히 그 기능을 잃은 채, 시골로 물러가 모른 척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고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세를 쫓아 부화뇌동하고 바람을 타고 선동하면

461) 오(吳)나라……법 : 사이가 아주 나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뜻으로, 원수끼리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함께 서로 힘을 합친다는 뜻이다.



서, 태연히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도(世道)에 대해 생각해 봄에 있어서 통탄스러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유교는 실로 도덕(道德)의 본원이 되며, 향교와 경학원은 이에 유림(儒林)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유함에는 역사(歷史)가 있으며, 옹위함에는 대중(大衆)이 있습니다. 참으로 능히 향교와 경학원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서 유시(儒是)를 분명하게 정하고 방향을 제시해 준 다음, 성심으로 인도하여 이끌면서 강론을 하여 밝히고, 닦으면서 거행한다면, 풀잎 위로 부는 바람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날랜 수레가 익숙한 길을 가듯, 길을 가는 것이 절로 배는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륜(彝倫)을 부식하고, 그렇게 하여 세도(世道)를 유지한다면, 사문(斯文)에다가 해와 달을 내걸어 만대토록 영원할 태평시대를 열고,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진 가운데에서 구제하여 함께 태평스러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로부터 차례대로 시행될 것으로, 역시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보건대, 세도는 날이 갈수록 낮아져서 군자의 도가 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말하기를, “왕도(王道)는 오활하고, 유교는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지 않고서 단지 한때의 현상만 보고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치란(治亂)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보고 원칙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사람의 상정은 추우면 입을 것을 생각하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런즉 궁함을 인하여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로 그러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천도(天道)는 순화하는 법으로, 가지 않으면 돌아옴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만대토록 뻗치고 천지가 다하도록 실추됨이 없는 것은 이 도(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곡식이나 피륙 따위와 같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도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먼 곳에서 구하며, 일은 쉬운 데 있는데도 어려운 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도를 구하는 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도에서 어긋나는 것이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서 자포자기(自暴自棄)하지도 않고 또 벼 싹을 뽑아 올리지도 않으며,<sup>462)</sup> 편안한 집에 거처하고 똑바른 길을 통해서 가면서 효제(孝悌)로 들어가고 충신(忠信)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럴 경우 처음에는 한 사람이나 한 집에서 인(仁)에 흥기하고 예(禮)에 흥기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끝내는 능히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온 나라 안에 교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른바 경학원과 향교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특별하게 결속하거나 특별하게 친밀한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군자의 사귄은 담담하기가 물과 같은 법입니다. 오직 성심으로 서로 믿음이 있어야만 신의의 도가 이로써 도타워지게 되어, 덕(德)을 서로 같이 하고 업(業)을 서로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회고해 보건대, 경학원이 향교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고요했으며, 뜨겁지 않고 차가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 사람들의 두터운 소망을 저버리고, 유림들 사이에 미혹됨을 불어나게 한 것이 많았습니다.

462) 벼 싹을……않으며 : 빨리 성과를 이루고자 하여 억지로 조장(助長)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 송(宋)나라 사람 중에 벼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벼 싹을 뽑아 놓은 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달려 나가 보니 벼 싹이 바짝 말라 죽어 있었다고 한다. 『孟子』 公孫丑章句上.

그러나 경학원의 행동과 시설 역시 자본과 힘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는 데에서 뛰어오르는 것은, 바로 망령되이 날뛰는 것일 뿐입니다. 저 향교의 재산을 엿보고 지방의 행정에 간섭하는 것과 같은 것은, 실로 경학원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바이고, 역시 경학원에서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더구나 유학자들의 습속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아직도 냄새를 피우는 자가 있는 데야 더 말해 뺏하겠으며, 여러 모임이 많이 결성되어서 향교에서 그들의 명을 따르기에 피곤한 데야 더 말해 뺏하겠습니까.

경학원에서는 항상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여, 일찍이 향교에 대해 일이나 물품을 가지고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개 폐단의 근원을 막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자 해서인 것으로,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다는 기롱쯤은 돌아볼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 년 동안이나 수절(守節)하는 것이 어찌 마음속으로 즐거워서 하는 바이겠습니까? 그리고 삼 년 동안 울지 않는 것은 역시 무언가 크게 해보고자 해서인 것입니다.<sup>463)</sup> 바라건대 귀 향교의 제현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양해하고자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학원의 직임에 있는 사람들과 제휴하여 더욱 도타이 연결되고, 엄정하게 스스로 서고 온건하게 자중하시면서, 제(齊)나라와 초(楚)나라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해도 동요하지 말고, 바람과 물결이 뒤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림계의 중심에 서서 거센 물결의 가운데에 선 지주(砥柱)<sup>464)</sup>가 되어, 분발하고 가다듬어 교화의 사업을 일으키고, 물을 주고 잘 북돋아서 유림의 좋은 인재들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크게 하고 싶어 하는 바이며, 바로 이른바 유시(儒是)를 정하며 유치(儒職)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화사업(教化事業)이라는 것은 바로 이른바 사회교육입니다. 그 의의(意義)에 대해 말해 보면, 성현(聖賢)을 숭배하고, 후진(後進)들을 장려하고, 선행(善行)한 자를 표창하고, 빈궁한 자를 구휼하는 등의 일이다. 그 종류를 말해 본다면, 문묘(文廟)를 유지하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진흥회(振興會)나 교풍회(矯風會), 장학회(獎學會) 등의 사업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러한 것들은 의당 시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 없는데, 참으로 우리 유림의 능력으로 경영하고 성취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특별히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유림장학회를 특별히 설립하여 사회교육의 비용을 적립하고 가난한 집의 뛰어난 자제들을 거두어 길러, 학계가 처해 있는 현재의 곤경을 풀어주고, 유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말을 많이 늘어놓아 시간을 허비하였는바, 몹시 죄송합니다. 못 다한 말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 金完鎭, 「儒是」, 『經學院叢誌』 제27호, 1926년 12월 25일, 62~66쪽)

463) 삼 년……것입니다 : 삼 년 동안 울지 않는다는 것은 삼 년 동안 날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은인자중하며 뜻을 기르다가 원대한 포부를 펴는 것을 말한다. 춘추 오패(春秋五霸)의 한 사람인 초 장왕(楚莊王)이 자신을 새에 비유하여 “3년 동안 날지 않은 것은 날개의 힘을 기르기 위함이었으니, 날지 않으면 몰라도 한번 날기만 하면 하늘 위로 솟구칠 것이다.(三年不翅 將以長羽翼 此鳥不飛則已 一飛冲天)”라고 말한 고사가 있다. 『韓非子』 喻老.

464) 지주(砥柱) : 삼문협(三門峽)을 통해 흐르는 황하의 한 복판에 있는 산 이름으로, 황하의 거센 물결에도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난세(亂世)에 절조를 지킨다는 뜻으로 쓰인다.

#### (4) 백곡(百穀)을 씨 뿌리고 오교(五敎)<sup>465</sup>를 편다

이번에 귀군(貴郡)<sup>466</sup>의 군수(郡守) 각하께서 멀리에서 저를 불러 주었는바,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 역시 문묘(文廟)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향교의 여러 동료들 및 유림의 여러 현자들과 더불어 오래도록 서로 접하면서 서로 간에 이택(麗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사를 서로 소통하고 방침을 서로 협정하여, 사업을 일으키고 유도(儒道)를 진작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본인이 해야 할 바이고 원하는 바여서, 감히 하루라도 마음속에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한 당 안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찮은 저의 소견을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사리 얻을 수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못난 저 자신을 돌아보건대, 이미 평소애 학문을 쌓은 것이 부족하여 여러 분들의 기대에 만분의 일조차도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제(齊)나라의 국문(國門)에서 비파를 뜯는 것<sup>467</sup>과 같아서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말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인바, 몹시도 부끄럽고 몹시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의 도가 쇠미해지고 경전의 가르침이 해이해졌는데, 시대가 과도기에 속하여 서정(庶政)을 다스릴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이륜(彝倫)은 무너졌고 풍속(風俗)은 퇴폐해졌습니다. 부자(父子)의 친함은 자유로움을 찾는 데에서 빼앗겼고, 부부(夫婦)의 구별은 이혼(離婚)하는 데로 돌아갔으며, 봉우(朋友) 간에는 믿음이 없어져 문서를 작성해 계약을 맺으며, 장유(長幼) 간에는 질서가 없어서 서로 간에 인격(人格)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와 같이 되어 나가다스 오륜(五倫)이 비로 쓴 듯이 모두 없어져서 모두 휩쓸려 나가 서로 간에 이끌면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폐해가 어찌 단지 홍수가 나고 맹수가 설치는 피해 정도에만 그치겠습니까. 홍수가 난 물이 하늘에 닿더라도 이러한 천재(天災)는 오히려 막을 수가 있으며,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더라도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면서도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어, 서로 간에 잡아먹는 지경에 이른다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니,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귀군의 향교에 계신 여러 동료들과 유림의 여러 현자들께서는 이런 점을 걱정하여 마음을 떨쳐 한꺼번에 일어나, 단체를 결성하고 크게 써서 표방하여 ‘명륜회(明倫會)’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급급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풍기(風紀)를 진작시키고 엄숙하게 하며, 이륜(彝倫)을 부추겨서 세우는 것을 우리들의 임무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애달프고 그 사업은 중합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 어찌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인륜이 밝지 않은 것을 밝게 하고자 하였는바, 여기에서 이 명륜회도 역시 쇠퇴한 세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65) 오교(五敎) : 삼강 오륜(三綱五倫)의 오륜을 말한다.

466) 충청북도 충주군.

467) 제나라……. 것 : 남우(濫竽)의 고사와 같은 말로,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척하는 것을 말한다. 제나라 선왕(宣王) 때 남곽(南郭)이란 사람이 여러 악사(樂士) 틈에 끼어서 잘못 부는 큰 생황(笙)을 잘 불었으나 민왕(瞽王) 때에 이르러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쳤다는 고사가 있다.

그러나 ‘인륜을 밝힌다. 인륜을 밝힌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하늘이 인륜을 밝혀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인륜이 저절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인륜을 밝힌다. 인륜을 밝힌다.’ 하는데, 인륜을 밝히고자 한다면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역시 시설(施設)이 있는 다음의 일인 것이며, 돈이 있는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창고가 꽉 찬 다음에야 예절을 알고, 의식(衣食)이 풍족한 다음에야 영욕(榮辱)을 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제가 오늘 강론의 제목을 정한 것도 오직 ‘백곡을 씨 뿌리고 오교를 편다.’고 한 것입니다.

곡식을 씨 뿌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장차 굶어죽는 것을 구제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한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자 하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맹자(孟子)가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에서 왕도(王道)를 말하면서도 특별히神通한 묘술(妙術)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섯 묘(畝)를 가진 집에 뽕나무를 심고, 닭과 돼지와 개 등의 가축을 기름에 새끼 칠 때를 놓치지 않게 하며, 백 묘의 밭에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한다.’ 하였으며, 또 ‘도끼와 자귀를 때에 따라서 산림에 들어가게 하며,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못에 넣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을 뿐입니다.<sup>468)</sup>

곡식을 씨 뿌리면 백성들은 이에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여유롭게 되는 것이 이에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하면서도 일정한 업(業)이 없으면, 부형들은 교만하고 사치스럽게 되어 화려한 집에 고운 침을 들고 한 끼 식사에 만전(萬錢)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유한데도 가르치지 않으면, 자제들은 부랑한 데 빠져서 술집이나 기생집을 돌면서 한 번에 백만 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패가(敗家)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끝내는 반드시 망신(亡身)하고서야 말게 됩니다. 부(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회에 해독을 끼치고, 조상들에게 욕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리어 지난날에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도리에 대해 마음을 쓰던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배불리 먹고 따스한 옷을 입어서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禽獸)에 가까워진다.” 하였습니니다. 무릇 금수에 가까워지는 것은 그 폐해가 단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데에서만 그치는 바, 폐해가 오히려 크지 않습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참으로 혹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고 한들 내가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니다. 이것은 사람이면서 윤리(倫理)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죽으며, 윤리가 없어도 역시 죽습니다. 그 죽는 것은 똑같으나, 윤리가 없어서 죽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자는 굶주려서 죽는데, 이는 무능(無能)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가 없는 자는 어지러워져서 망하는 것으로, 이는 무도(無道)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반드시 구분해야만 할 경중(輕重)과 선악(善惡)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이미 부유하게 되었으면 가르쳐야 한다.” 하였으며, 맹자가 말하기를, “상(庠)과 서(序)와 학(學)과 교(校)를 설치해서 가르친다.” 하였습니니다. 상과 서와 교는 모두 향학(鄉學)이며, 학(學)

468) 맹자(孟子)가……뿐입니다 : 맹자가 양혜왕(梁惠王)을 만났을 때 한 말로, 『맹자』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 상(上)에 나온다.

은 국학(國學)입니다. 이는 모두가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강제(講題)에서 말한 ‘오교(五敎)를 편다.’는 것입니다.

오교를 펴자면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편다는 것은 펴서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미 부유하게 되고나서는 더욱더 근검절약을 하여, 생활의 수준을 높이지 말고, 공익의 사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남으면 이를 저축하여 자본(資本)을 만들어, 그 자본을 가지고 기관(機關)을 설치하여 교육을 널리 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교육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도시와 향촌에 학교가 없는 곳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태어나 8세가 되면 모두 소학(小學)에 입학하여 사람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게 해서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정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그 직(職)을 전수해 주어서 각자 자신들의 생업에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모든 일이 다 빛나게 되고, 백성들이 모두 화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로는 영웅호걸이 마구 날뛰면서 발호하는 일이 없게 되고, 아래로는 필부필부가 제 살 곳을 잃는 일이 없게 됩니다.

지금 천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천 년 전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 상고하고, 이미 지나간 자취를 인하여 다스려지고 혼란해진 이유를 찾아보면, 다스림이 오래 되면 어지러워졌고,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면 다스려졌는바, 흥성하고 피폐함과 언고 잃는 것은 그 단서가 똑같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요체는, 다스림은 올바른 도를 인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어지러워짐은 그릇된 도를 인하지 않은 경우가 없음은 아주 분명하고도 분명하여 어긋나지가 않음이 마치 나누어진 부절(符節)을 서로 합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일찍이 옛날과 오늘날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언제나 늘 구학문(舊學問)이니 신교육(新教育)이니 하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는 학문과 교육에 있어서는 원래 신교육과 구학문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른 것입니다. 이는 정치(政治)나 법률(法律)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잘하느냐 못하느냐,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옛날에는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을 설치하였는데, 지금에도 역시 이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쇄소(灑掃)와 응대(應對)와 진퇴(進退)하는 절차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도를 가르쳤는데, 지금에도 역시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세도(世道)가 낮아지고 제도가 미비 됨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는 자들은 구학문과 신교육을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른 제도로 만들고서는 함께 나아가며 아울러 시행하여, 구학문으로는 예전 것을 보존하게 하고, 신교육으로는 신지식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하여 오래도록 끌고 나간다면, 묵은 벽에 새로운 흙을 바르는 것과 같아, 그 형세가 고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구학문은 신교육을 배척하고, 신교육은 구학문과 반대로 하는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늙은이와 젊은이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반목하는 데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와 같이하여 각자 따로따로 서게 된다면, 교육기관을 어느 날에 통일 시킬 수 있겠으며, 우리들의 정신을 어느 때에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의 소견으로는, 구학문을 새 교육기관에 전수해 주고, 신지식을 옛 사회(社會)에 수입해 들여서, 구학문을 하는 자는 능히 새롭게 변할 줄을 알고, 신학문을 하는 자도 역시 옛 학문에서 배울 줄 알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럴 경우 늙은이에게는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게 되며, 우리 유학은 열려지고 계승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늙은이와 젊은이가 협조하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살면서, 그 재용을 절약하고 그 마음과 힘을 일치시켜, 덕을 닦고 업을 닦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마지않아 모두가 함께 밝은 문명 속에서 태평스럽게 사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유자(儒者)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유자들로 인해 조선이 완고하게 되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화(世界化)하고, 시대화(時代化)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세계화하지 않으면, 깊은 골짜기 속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전철(前轍)을 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시대화하지 않으면,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고수하면서 발전할 가망이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 유자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두 '양반노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평등화(平等化)하고 소년화(少年化)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평등화하지 않으면, 동반자가 없이 혼자서 길을 가게 되어 우리 유학이 더욱더 고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소년화하지 않으면, 우리 늙은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유도 역시 그에 따라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무릇 변화한다는 것은 없던 데에서 있게 되고, 작은 데에서 크게 되고, 약한 데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만약 있는 데에서 없게 되고, 큰 데에서 작게 되고, 강한 데에서 약하게 되는 것은, 바로 뒤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질되는 것이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유학자들이 날마다 더욱 분발하여, 진보만 하고 퇴보는 하지 않으며, 변화는 하되 변질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보하고 변화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표준(標準)을 세우고, 미리 계획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용감하게 나아가면서 힘써 전진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일러 자력(資力)을 준비하고, 사업(事業)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유림(儒林)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단체를 이른 것입니다. 유림으로서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참으로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교육을 말미암지 않고서 유도를 진흥시킨다는 것은 역시 근본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림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은 교육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범하게 교육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이외에도 역시 반드시 가정과 사회가 있어 학교의 짝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교육의 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림은 이 세 가지 가운데에 마땅히 어떠한 것을 담당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사회교육인 것입니다.

오늘날 향교와 경학원(經學院)은 바로 옛날의 소학과 대학입니다. 학교 교육을 여기에서 실시하여 선비를 기르고 인재를 양성해서 이 세상의 쓰임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회교육 역시 여기에서 행하여 문묘를 세우고 석전제(釋奠祭)를 지내어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학제(學制)를 개선한 뒤로는 별도로 학교(學校)를 설립하여 학교의 교육을 하고, 향교를 그대로 보전하여 사회교육의 기관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와 문묘가 분리되어서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각각 그 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개 예전에 사장(詞章)을 외우던 학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대세에 대항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서 제도를 정하여 법학, 경제학, 의학, 농학, 공학, 상학의 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공(功)을 이루고 업(業)을 성취하여 격물(格物), 치지(致知), 궁리(窮理), 진성(盡性)의 경지에 이룸에 있어서, 한 곳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하(江河)와 같은 흐름을 만회하여 세도(世道)를 높이고 인심(人心)을 착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이 도덕(道德)의 본원이 되는 유학을 버려두고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문묘를 그대로 받들면서 거르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갓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기만 하고 그 학문을 강구하지 않으며, 한갓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유자(儒者)가 될 수가 없고, 이것을 일삼을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학원의 규정 제1조에 분명하게 게시하기를, “풍교(風敎)와 덕화(德化)를 돕는다.”고 한 것이며, 또한 향교의 재산 관리 규칙 제4조에도 교화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무릇 향교와 경학원은 일체인 것으로, 실로 그 뜻을 같이하며 함께 교화사업을 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 지위에 있으면서 이 기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임무가 역시 중하고도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화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른바 사회교육인 것입니다. 그 종목 역시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그것을 대략 거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문묘(文廟)를 숭봉(崇奉)하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석진제(釋奠祭)를 거행하여 우리러보는 바를 높이고, 건물을 수선하여 영구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 2) 경전(經傳)을 번역하고 저술하며 발간하는 것입니다. <성현들의 경전 뜻을 만약 한문을 충분히 강습하여 이해하기를 기다린다면, 보급할 기약이 없습니다.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 『시경(詩經)』, 『서경(書經)』의 글을 언문으로 번역하고 속어(俗語)로 풀어서, 부녀자나 어린이들도 이해하고, 나무꾼이나 목동들도 송독할 수 있게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 3) 도서관(圖書館)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서적과 과학(科學) 도서 및 신문과 잡지를 비치하고서 돌아가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 4) 강연회나 강습회, 전람회를 열거나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취지를 선전하고, 실물을 널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 5) 선행(善行)을 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효열(孝烈), 자선(慈善), 공익(公益) 등에 특별한 행실이 있는 자를 식을 열고서 상을 주어 표창하고, 그 대장(臺帳)을 비치하여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 6) 인재(人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의 총명한 자제를 선발한 다음, 학자금을 주어서 인재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과 같은 풍속을 흥기시키는 모든 사업이 모두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덕성(德性)을 함양하고, 풍속(風俗)을 개량하고, 지식(智識)을 계발하고, 시세(時勢)에 통달하고, 후진(後進)을 장려하고, 성학(聖學)을 잇는 것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는 학교 교육이 겸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있으며, 그 공효 역시 어찌 한 학교를 설립하여 한 학급을 가르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지금 노성한 유학자들은 소학교 아동들의 행실과 예의가 어긋나고 패만한 것에 화를 내고, 향교와 유림이 직임을 잃고 흩어진 것을 답답하게 여겨, 향교의 재산을 가지고 한문학교(漢文學校)를 명륜당

(明倫堂) 안에 설립하여, 경전의 뜻을 강론하고 유학의 맥을 길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뜻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시설로서, 읍내에 한 서당(書堂)을 설치하는 데 불과할 뿐으로, 먼 시골의 유생들은 그 혜택을 입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한갓 향교의 재산만 허비할 뿐, 그 비용을 계속해서 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아는 자들은 공립학교에 보내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단지 시골의 가난한 학구(學究)가 조금 성장한 아이 5, 6명과 아직 어린 아이 6, 7명과 더불어 남아 있으면서 중얼중얼 대며 글이나 읽으며 세월을 허송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소원해져서 세상과는 더욱 멀어지고, 우리 유학은 날로 좁아져서 발달할 가망이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조항의 시설과 활동에 미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향교의 재산을 투자해서 유회(儒會)의 자금을 보충한 다음, 향교의 안에 서책을 진열하고, 명륜당 안에 공회(公會)를 설치해, 사회에 가르침을 베풀고 청년들에게 도를 전하여, 각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감화하고 스스로 믿어 우러르게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그 범위와 효과가 어찌 넓으면서도 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일러 시대화(時代化)라 하고 소년화(少年化)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전 : 金完鎭 『播百穀敷五教』, 『經學院叢誌』 제28호, 1927년 12월 25일, 58~63쪽〉

### 3) 박상준(朴相駿)

#### (1) 대동아전쟁과 국체본의의 투철(권두언)

대제학 박택상준(朴澤相駿, 호우사외)<sup>469)</sup>

고이소(小磯)총독 각하가 그 동안 대명을 받자옵고, 취임 당초부터 국체본의의 투철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절규하시며, 또한 도지사회의의 훈시에서는 “시정일체의 뿌리를 여기에 두고, 관민이 일치협력 함으로써 도의(道義)조선을 동요하지 않게 건설하고, 또 할 수 있다면 황국일본의 한 테두리 중에서, 국체의 본의를 기조로 하는 도의지역은 조선으로써 제일 가게 하는 것을 염원한다.”고 말했다. 대동아 경륜 중의 현하에서, 반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장차 또한 정전(征戰)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참으로 국체본의의 투철보다 더 급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작년 12월 8일, 선전(宣戰)의 대조(大詔)<sup>470)</sup>가 환발(渙發)된 이래, 1억의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정전(征戰) 완수에 일로 매진할 것을 맹세하지 않았던 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체 명징(明徵)이 부르짖어지고 있고, 몇 번이나 교학(敎學)의 쇄신도 주창되어 왔으나, 아직도 구미사상(歐米思想)

469) 박상준(朴相駿)의 창씨명.

470) 일왕 쇼와의 선전포고.



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시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혹은 신질서 신체제의 본질과, 그것을 건설하는  
방책 등에 관한 의식에서, 아직도 불(不)명징한 자가 반도 서민층에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대동아신질서의 중핵이 되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반도의 우리 스스로가, 아직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욱이 미영(米英)사상을 처부수지 못했거나, 시국에 대한 불명징한 점이  
일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공영권(共榮圈)의 주민에게 황도를 선포하고, 일본정신을 이해시키는 것은, 먼저 우리 반도 민중이  
국체본의에 투철하고, 이것에 의하여 황도를 반도에 구현시켜서 그 모범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경제·사회·문화·정치 등의 각 분야에서, 미영적인 색채가 강한 민족에게 황도를  
선포하고, 일본정신을 이해시키는 것은 물론 쉬운 사업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아무리 곤란하다고 해도, 아무리 지난(至難)일지라도 꼭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의 세계적인 대  
사명인 것이다.

우리 일본인이 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고,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을 철저히  
게 향상시키고, 황도에 대한 자각을 강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황도가 참으로 고금불류(古今不謬)이며, 중외불괘(中外不悖)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이 있다면 이것  
을 선포하고자 하는 일본의 대 사명 관에 반드시 불타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이 대 사명 관에 불타오르  
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인(體認)하는 것이야 말로 이번 대동아전쟁의 출발점인 것이다.

황국일본의 궁극적인 대 사명인 팔굉위우(八紘爲宇)의 세계 신 질서건설을 위해서는, 반도민중은 국  
체본의에 보다 투철하고, 황도실천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현하 우리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을 통감하는 바이다. (1942.10.1. 기록)

〈출전 : 朴澤相駿(經學院 大提學), 「大東亞戰爭と國體本義の透徹」(卷頭言), 『經學院雜誌』 제47호,  
1943년 1월 25일, 1~2쪽〉

#### 4) 박제민(朴齊斌)

##### (1) 강사시찰견문소기(講士視察見聞所記)

전(傳)에 이르기를, “인한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인이라고 하고, 지자는 그것을 보고서 지라고 한다.(仁  
者見之 謂之仁 知者見之 謂之知)” 하였다.<sup>471)</sup> 인(仁)과 지(智)는 덕(德)은 같으면서도 일은 다른 것이다.  
이미 일에 다름이 있다면 판연히 두 가지가 되는바,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무릇 한 가지 물건이나 한 가지 일을 보면, 큰 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은 큰 것이 아니며, 동  
쪽은 서쪽이 아니고 서쪽은 동쪽이 아니다. 한 가지 물건이나 한 가지 일인데도 보는 것에는 각각 차이  
가 있어, 각각 나뉘어져서 두 가지 물건이나 두 가지 일이 되며, 나아가서는 천만 가지 물건이나 일로

471) 전(傳)에……하였다 : 전은 『역경(易經)』 「계사 상(繫辭上)」을 말한다.

나뉘지게 된다. 어찌 이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아아, 이것은 우리 성인(聖人)의 문호(門戶)에서 물(物)을 체로 삼고, 사(事)를 비유하면서 광대하게 유통하는 큰 도리인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사(山寺)에 올라가 글을 읽었는데, 뇌산(雷山)으로 이루어진 소과괘(小過卦) 한 괘를 삼년 동안 읽어서 역학(易學)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에 하산을 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중로에서 한 풀과 한 나무를 만났는데, 눈에 보이는 바와 귀에 들리는 바가 뇌산으로 이루어진 소과괘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런 뒤에 『주역(周易)』에 대한 공부가 크게 이루어져 64괘에 대해서 칼날을 자유자재로 놀리듯이 환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에 읽지 않은 것에 이르러서도 다 통달하게 되었으며, 점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게 되어, 드디어 『주역』의 대가(大家)가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총독부(總督府)에서 중외(中外)에 있는 여러 강사(講士)들을 내지(內地)<sup>472)</sup>의 동경(東京)과 서경(西京) 등 각지에 파견하면서 ‘대정박람회시찰단(大正博覽會視察團)’이라고 이름 하였다. 무릇 이른바 박람회라는 것은 병농(兵農)과 공가(工賈)의 물품과 재산을 제1박람회장과 제2박람회장에 모두 모아 놓고서,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국력(國力)과 민지(民智)의 융성과 발달을 알게 하고, 임동(臨潼)의 투보(鬪寶)<sup>473)</sup>와 파사(波斯)의 진화(陳貨)<sup>474)</sup>로써 나라를 높이고 백성을 가르치는 주의(主義)를 붙인 것이다.

총독부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해를 다 보내는 조선의 가난한 유생과 궁한 백성들이 안목이 작아 트이지 않는 것을 깊이 진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학(經學)을 깊이 연구하는 이외에도 많고도 큰 일과 공이 있어, 옛 성현의 육부(六府)와 삼사(三事)의 정사(政事)<sup>475)</sup>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

여러 강사들은 이미 목탁(木鐸)<sup>476)</sup>을 잡는 임무를 각 경내(境內)에서 맡고 있다. 그런즉 지난날에 힘 쓰던 바가 바로 경학(經學)과 유행(儒行)이다. 요컨대 그들로 하여금 시계(視界)를 새로운 곳으로 열고 가슴 속을 한번 새롭게 한 뒤에 이 많고도 큰 사업으로써 목탁을 잡은 속에 섞어 넣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깊은 산골짜기와 외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계를 함께 개척하고 가슴속을 함께 일신시킨 연후야야, 비로소 그들과 더불어 크게 변하여 유신(維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릇 그렇게 하면 경학과 유행이 이 많고도 큰 사업과 더불어 판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이 되어, 함께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 대개 병사(兵事)를 가지고 논해 본다면, 공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려

472) 일본을 가리킴.

473) 임동(臨潼)의 투보(鬪寶) : 임동은 섬서성(陝西省)에 있는 지명이다. 원문에는 ‘臨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옛날에 주(周)나라 목공(穆公)이 이곳으로 17국의 제후(諸侯)들을 불러 모은 다음, 각자 전국(傳國)의 보물을 한 가지씩 내놓게 한 일이 있다. 여기에서 전하여 아주 사치스러운 물품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474) 파사(波斯)의 진화(陳貨) : 파사는 나라 이름으로, 페르시아를 음역한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많이 나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진화는 오래된 물품으로, 아주 값진 골동품을 뜻한다.

475) 육부(六府)와 삼사(三事)의 정사(政事) : 육부는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 곡(穀)이고, 삼사는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을 말한다.

476) 목탁(木鐸) : 성인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옛날에 정교(政教)를 베풀 때 목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에서 울려 백성들에게 고한 데서 온 말이다.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이르기를, “하늘이 장차 부자으로써 목탁을 삼을 것이다.(天將以夫子爲木鐸)” 하였다.

(軍旅)에 대한 일은 일찍이 배운 적이 없다.”고 하였고, 농사를 가지고 말해 본다면, 공부자께서 말하기를, “소인이로구나, 변수여. 하필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묻는구나.” 하였다. 물품을 만들고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논해 본다면, 모두가 부자께서 일찍이 당실(堂室)에 있는 여러 현인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판연히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이 되는가? 그것은 아닌 것이다.

공부자께서 노(魯)나라 임금을 협곡(夾谷)의 회합(會合)에서 배행(陪行)하였을 적에, 큰소리로 말하기를, “문(文)을 일삼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무비(武備)를 갖추는 법입니다.” 하고는, 이에 좌우의 사마(司馬)를 갖추어 따르게 하여, 그 위세를 펴고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sup>477)</sup> 부자께서는 또 일찍이 젊어서는 신분이 천하여 비천한 일에 대해서도 대부분 능하였다. 이에 비록 낚시질하고 사냥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찍이 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니 어찌 흑시라도 천하의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리가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안연(顔淵)이 밭고랑을 지키면서 조정에서 나가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자, 부자는 학문하기를 좋아하기로 첫 번째 가는 사람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공(子貢)이 조(曹)나라와 노(魯)나라 사이에서 물자를 쌓아두기도 하고 팔기도 하여 재산을 모으자, 부자께서는 ‘천명(天命)을 받지 않고서도 능히 재물을 늘린다.’고 하였으며, 또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사<sup>478)</sup>를 얻어서 앞에서는 빛이 났고 뒤에서는 광채가 있었다.” 하였다. 이는 대개 수레를 돌려 돌아올 적에 자공이 항상 곁에서 모시면서 재물과 식량을 대는 일을 전적으로 떠맡아서 공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경학(經學)과 유행(儒行)이 어찌 일찍이 많고도 큰 사공(事功)과 더불어 한 가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통달한 유학자로서 실제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은 병학(兵學)이 극도에 달한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경학이 정신을 분발하고 의기를 양양시키며, 널리 알리고 치욕을 막는 데에 붙은 것이다.” 한다. 그리고 농학(農學)이나 공학(工學)이나 상학(商學)이 극도에 달한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경학이 사민(四民)들로 하여금 각각 제 살 곳을 얻어 각자 그 생업을 다하게 한 것이다.”라고 한다. 염제(炎帝)가 밭 갈고 장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황제(黃帝)가 군대와 공장을 쓴 것이 어찌 일찍이 성인의 학문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여러 강사들이 3주일 간 시찰하면서 본 것과 들은 것은 모두가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을 날마다 보았고, 귀로는 들은 적이 없는 것을 날마다 들었는데, 적이 생각하기를, “경학을 하는 자가 보면 그것을 일러 경학이라 하는 것이 인자(仁者)와 지자(智者)가 보고서는 그것을 일러 인(仁)이라고 하고 지(智)라고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본 바와 들은 바의 병농(兵農)이나 공가(工賈)의 많고도 사공(事功)은 모두가 산사(山寺)에서 글을 읽고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본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뇌산(雷山)으로 이루어진 소과괘(小過卦)로서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략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바를 기록하여 같이 갔던 사람들의 안목을 함께 하는 바이다.

477) 노군(魯君)이……있었다 : 노군은 노나라 정공(定公)을 가리키며, 협곡은 노(魯) 나라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지명이다. 노나라에서 공자를 등용하여 정치가 잘 되자, 이웃나라인 제(齊)나라에서 그것을 억제하려고 협곡에서 두 나라 임금이 회합하기를 요청하였는데, 이때 공자가 군사들을 시위하게 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노나라의 위세를 높이었다. 『史記』 卷47 孔子世家.

478) 賜 자공의 이름.

4월 16일. 바다를 건너갔다.

4월 17일. 엄도(嚴島)에 도착하여 시찰하였다.

광도(廣島)에서 엄도를 바라다보니, 큰 바다의 물이 흘러들어서 작은 항구가 되었는데, 양쪽 해안의 거리가 대략 2후(垺) 정도 되었다. 하얀 돌과 맑은 시냇물 및 붉은 난간과 금빛 기둥이 여러 겹의 산과 숲 사이에서 언뜻언뜻 아스라하게 보였다. 한 줄기의 시냇물이 잔잔하게 흘렀으며, 아름다운 배가 끊임없이 오갔다. 이에 마치 은하수에 오작교(鳥鵲橋)를 만들어 놓아 한 순간에 건너갈 수 있는 것과 같았는데, 바람을 타고 봉영(蓬瀛)<sup>479</sup>에 닿았다가 되돌아오는 것과는 달랐는데, 몸은 이미 신선 세계에 있었다.

도내(都内)에 이르러서 시찰해 보니, 정당(正堂)에는 대신사(大神社)<sup>480</sup>의 패방(牌榜)<sup>481</sup>을 봉안하였는데, 앞면에는 일본말로 '새가 사는 곳(鳥居)<sup>482</sup>'라고 쓰여 있었다. 회랑(回廊)이 사방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신좌(神座)를 모시고 있었으며, 채번(綵幡)<sup>483</sup>과 향화(香火)가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신선 세계에 제새(祭賽)가 있는 것이다. 박물관(博物館)에는 황가(皇家)에서 역대로 쓰던 물건으로서 손때가 묻은 보기(寶器)와 서화(書畫)를 많이 모아 놓았다. 숲 안에는 무지개다리가 있었는데, 천황(天皇)이 탄 어가(御駕)가 엄여하기를 기다리는 탓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열지 않았으며, 경비하는 것이 특별히 엄하였다. 이것은 신선 세계에 조정(朝廷)이 있는 것이다.

천첩각(千疊閣)<sup>484</sup>에 이르자, 벽에 걸려 있는 나무 국자나 숟가락 등이 아주 많아 수천 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을 나갈 때 군사들이 모여 맹서를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선 세계에 사율(師律)이 있는 것이다. 또 즐지어 있는 시가지는 삼거리가 되거나 오거리가 되어 곁으로 뻗어나가고 옆으로 뻗어나갔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구름처럼 쌓여 있으며, 높다란 지붕의 가게들이 죽 늘어서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신선 세계에 시정(市井)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신선 세계와는 털끝만치도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이곳에는 대략 구비되어 있다. 옛날에 신선술(神仙術)을 배우던 자들은 속세를 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고요히 앉아서 쓸 데 없는 학문을 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새(祭賽)를 인하여 나라의 풍속을 보존하고, 어용(御用)을 인하여 나라의 복을 기원하고, 사율(師律)을 인하여 변방의 방비를 신중하고, 시정(市井)을 인하여 재용을 통용시키고 있는바, 유용한 학문을 익히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도 신선 세계의

479) 봉영(蓬瀛) :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하는 신선이 사는 산인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을 말한다.

480) 대신사(大神社) : 히로시마에 있는 이즈쿠시마 신사를 말한다. 이 신사는 593년에 창건되었으며, 그 이후 타이라노키모리(平清盛)에 의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481) 패방(牌榜) : 간판과 같은 작은 표판(標板)을 말한다.

482) 새가 사는 곳 : 오오토리이(大鳥居)를 말한다.

483) 채번(綵幡) : 채번(綵幡)이라고도 하는데, 오색 종이나 비단을 잘라서 만든 작은 깃발로, 일종의 장식물이다. 이는 흔히 봄을 맞이하는 데 쓰는 장식물인데, 여기서는 기복(祈福)을 하면서 올리는 신물(神物)을 의미하는 듯하다.

484) 천첩각(千疊閣)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으로 짓다가 그가 죽자 미완으로 남아 있는 전각이다. 이곳에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서 천첩각이라 불리며, 안에는 각자의 소원을 적어 놓은 나무판이 가득 차 있다.

경치가 그 속에 있음에 걸끄럽지 않는 것이다.

공자가 위(衛)나라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부유하구나, 이 백성이여. 이미 부유한데다가 또 가르쳤구나.” 하였다. 그러니 어찌 진(秦)나라 시황(始皇)이나 한(漢)나라 무제(武帝)처럼 약초(藥草)를 채집하여 불로장생(不老長生)하기를 구한 자들의 식견이 미칠 수 있는 바이겠는가. 여기에서 실제적인 학문이 외도(外道)를 익히면서 오래 살기를 구하는 무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월 18일. 경도(京都)에 이르러서 시찰하였다.

천만궁(天滿宮)<sup>485</sup>을 시찰하였다. 이 궁은 관원도진(菅原道眞)의 혼령을 모신 곳이다. 옛날 제호 천황(醍醐天皇)<sup>486</sup> 때에 관원도진이 문장과 도덕으로 집정대신(執政大臣)이 되었는데, 명망이 한 시대에 중하였으나, 하루아침에 참소를 입고 비명횡사하였다. 그 뒤에 이 궁을 창건하였는데, 혹 북야신사(北野神社)라고 부르기도 한다. 돌비석을 가운데뜰에 세워놓았는데, ‘계왕계래(繼往啓來)’<sup>487</sup>라는 네 글자를 전자(篆字)로 새겨 놓았는데, 실로 후세 사람들이 경모(景慕)하는 곳이다. 관원도진은 문학(文學)을 창설한데다가 겸하여 충절(忠節)까지 있어서 본방(本邦) 학문가들의 개산초조(開山初祖)로 떠받들어졌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양쪽 회랑(回廊)이 만난 곳에 특별히 크게 제사를 올리는 자리 하나를 마련해 놓는다. 그리고 문묘(文廟)의 옛 제도는 지키기를 엄하게 하여 신사(紳士)나 유생(儒生) 이외의 한산(閑散)한 사람은 감히 대문을 넘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에 드디어 여항에 사는 부녀자나 어린이들이 성현의 학문을 보기를 마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없는 하늘과 같이 보아, 유학의 대도(大道)가 사람들과 더불어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본방(本邦) 일본을 가리킴의 제도는 유(儒)와 신(神)을 아울러 높이는바, 이는 대개 선왕(先王)께서 신도(神道)를 가르침을 베풀고 여러 백성들로 하여금 경모하게 하는 아름다운 전례(典禮)인 것이다.

천만궁의 앞에는 우러러보면서 절을 하며 참배하는 자들이 날마다 시장판을 이루어 도인(道人)이나 속인(俗人) 및 승려나 젊은이나 여인네들이 어깨를 마주칠 정도로 많이 몰려들기를 지금까지 몇 천 년이 지나도록 하루 같이 한결같이 하는데, 모두들 말하기를, “우리 관원 선생(菅原先生)”이라고 한다. 이것은 온 천하의 성현을 떠받들면서 모모(廟貌)를 높이려는 자들이 제도(制度)를 헤아려서 법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화미술학교(書畫美術學校)를 시찰하였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는 나가서는 서예(書藝)나 미술(美術)의 대가가 된다. 학과(學課)의 제도는 실기시험(實技試驗)을 가장 중요시한다. 무릇 꽃이나 새 및 일상생활용품을 그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짜 물품을 가져다가 앞에 놓고 사방에서 바라보면서

485) 천만궁(天滿宮) : 오오사카(大阪)에 있는 궁으로 스가와라미찌자네(菅原道眞) : 헤이안시대의 대표적인 학자로, 학문의 신(神)으로 받들어짐을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486) 제호천황(醍醐天皇) : 우다 천황(宇多天皇)의 태자로, 이름은 둔인(敦仁)이다. 원년은 정사년(897, 신라 효공왕(孝恭王) 원년)이고, 아들에게 선위한 해는 경인년(930, 신라 경순왕(景順王) 4)로, 재위한 기간은 34년이고, 수는 46세이다. 후궁 11인으로부터 아들 36명을 낳았다. 사위한 주작 천황(朱雀天皇)은 제호 천황의 열한 번째 아들이라고도 하고, 혹 장자(長子)라고도 한다.

487) 계왕계래(繼往開來) : 전 시대 성현들의 사업을 뒤에서 잇고, 후세대의 후생들이 나아갈 길을 앞에서 띄워주는 것을 말한다.

본떠 그려 진짜의 참 모습을 그리기를 힘쓰는바, 대충 그림자만을 본떠 그리는 것이 비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전신(傳神)<sup>488</sup>의 배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에게 옷을 차려 입고서 의자 위에 소상(塑像)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시선이나 움직임을 모두 자연스럽게 하게 한 다음, 그림을 그리는 자로 하여금 그에 따라서 그리게 한다. 그리하여 고니를 바라보면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이 해 반드시 적중되게 하기를 힘쓴다. 그러니 비록 고장강(顧長康)<sup>489</sup>으로 하여금 아도(阿堵)<sup>490</sup>를 찍고 이마와 머리털을 그리면서 그 의장(意匠)<sup>491</sup>을 운용하여 아주 흡사하게 그리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 그림보다는 훨씬 뒤쳐질 것이다.

이를 말미암아 추론해 나아가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있다. 대개 서화(書畵)는 문(文)의 여사(餘事)이고, 문은 또 도덕(道德)의 여사이다. 문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는 자가 아울러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써서 익힌다면, 비단 유학을 하는 자들이 속히 유학을 이루는 성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문의 구체적인 바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국대학(帝國大學) 문과부(文科部)를 시찰하였다. 서책을 쌓아둔 곳을 보니 40여 만 질이나 되었으며, 3층으로 이루어진 집에 보관해 두었다. 가장 위층에는 동양의 고서적을 보관해 두었고, 중간층과 아래층에는 일본의 서적과 태서(泰西)<sup>492</sup>의 양장(洋裝) 책자를 보관해 두었다. 고서적만 가지고 논하더라도, 위로는 육경(六經)과 제자백가(諸子百家)로부터 아래로는 역대의 서적에서 명청(明清)의 작가에 이르기까지를 구비해 놓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청조(淸朝)의 근일의 조탐(詔撰)과 등초(謄草)도 거의 몇 백 권이나 되었다. 조선(朝鮮)의 경우에는 위로 신라(新羅)로부터 근세(近世)에 이르기까지 열조(列朝)의 장고(掌故)와 각가(各家)의 전집(全集)에 이르기까지를 역시 갖추어 놓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본방(本邦)<sup>493</sup>의 사람들이 일찍이 보거나 듣지 못한 것들도 모두 구비되어 있었으며, 찌를 뽑아서 찾아볼 수 있게 하기를 오직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가 있게 해 놓았다. 그 이외에도 단경(丹經)과 내전(內典)과 기문(奇文)과 벽서(僻書) 등 이 세상에서 자취가 없어진 책들도 모두 이 안에는 보관되어 있었다.

각 교사(教師)가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풀줄기로 종을 치는데도<sup>494</sup> 소리가 울려 답하는 것은 막힘이 없게 한다. 그러다가 혹 어려운 문제에 마주치게 되면 반드시 연구실로 들어가는데, 한편으로는 널리 상고해 보고, 한 편으로는 깊이 생각해 보아, 생도들에게 응답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488) 전신(傳神) : 정신을 전한다는 뜻으로, 문장이나 그림 등으로 인물의 진수(真髓)를 묘사해 내는 것을 말한다.

489) 고장강(顧長康) : 진(晉) 나라의 이름난 화가인 고개지(顧愷之)로, 장강은 그의 자(字)이다. 고개지는 당시에 재절(才絶), 화절(畫絶), 치절(癡絶)의 3절로 일컬어졌다. 『晉書』 卷92.

490) 아도(阿堵) : 이것이라는 말인데, 눈이나 혹은 눈동자를 가리키며, 혹 돈을 가리키기도 한다. 진(晉) 나라 고개지(顧愷之)가 인물화를 그려 놓고는 몇 년 동안이나 눈동자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누가 그 이유를 묻자 “그림 속에 혼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바로 이것 속에 있다.(傳神寫照 正在阿堵中)”고 한 고사가 있다. 『晉書』 文苑傳 顧愷之.

491) 의장(意匠) : 작문(作文)이나 회화(繪畫) 등에 있어서의 구상(構想)을 말한다.

492) 태서(泰西) : 극서(極西)의 뜻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지칭한다.

493) 우리나라를 가리킴.

494) 풀줄기로 종을 치는데도 : 제주와 지식이 얇은 사람이 고명한 사람을 향해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학과 가운데 문과(文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남화경(南華經)』<sup>495)</sup>과 『한비자(韓非子)』인데, 2, 3학년생은 모두 능히 이것들을 잘 알아서 말을 한다. 그러니 어찌 다른 나라가 미칠 바이겠는가. 이로 인해서 논해 보면, 병농(兵農)과 공가(工價) 등 일체의 신학문 및 천구(天球)와 지운(地運) 및 이화(理化)와 동식(動植), 기관(機關)과 제조(製造) 등의 학술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며, 한 머리는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즉 오래 묵은 진부한 학문을 가지고 스스로 평생토록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여겨 대를 이어 서로 전수하는 자들이 바라볼 경우, 마치 하백(河伯)이 바다를 바라보는 것<sup>496)</sup>과 같으니, 어찌 부끄럽고 민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조선인의 공통된 병통은 옛것에만 푹 빠져서 헤쳐 나올 줄 몰라 그 본래의 면목(面目)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 이에 『시경(詩經)』을 읽어 초목(草木)과 조수(鳥獸)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조차 이르러서도 역시 대부분 끝까지 궁구하지 못한다. 이런 점은 우리 조선의 유학자들이 더욱더 맹렬하게 반성하면서 다시금 공부해야 마땅한 것이다.

4월 21일. 도산(桃山)의 어릉(御陵)을 참배하였다. 나량(奈良)에 이르러서 시찰하였다.

도산의 어릉을 보니, 목석(木石)과 화훼(花卉)와 당무(堂廡)와 담장을 건축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아주 크고도 커서 오랜 시일이 걸쳐서야 완성할 수 있을 듯하였다. 능을 지키고 있는 관리에게 물어보니, “부역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 충성을 바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라서 공임을 받지 않는다. 서민(庶民)으로서 와서 일하는 자도 있는데, 그 기상이 의연하다. 그리고 장사를 마친 뒤에는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 이는 손을 잡고 먼 길에 짐을 짊어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오는데,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와서는 멀리 울타리 밖에서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물러나는 자들이 매일처럼 몇 만 명이나 된다.” 하였다. 오늘 날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이 적게 올 경우에도 몇 천 명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 산골짜기의 길이 거의 시장판처럼 되었다.

무릇 이른바 성인의 학문이란 것은, 마땅히 어버이에게 호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을 강령(綱領)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삼고 있다. 그런데 나라에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집에서 효도하므로,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을 구하라는 것이 옛날의 훈계이다. 공자(孔子)의 문인은 『효경(孝經)』을 지었고, 한(漢)나라의 마계장(馬季長)은 『충경(忠經)』<sup>497)</sup>을 지었는데, 이를 읽으면서 실천하는 자는 대개 유술(儒術)을 익히거나 경학(經學)을 익히는 선비들이고, 어리석은 일반 백성들은 이를 익히지 않는다. 지금 이 공장이나 노동자들과 시골에 사는 우매한 무리들 가운데에는 의당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몇몇한 천성은 하늘로 뻗어나가고 땅에 세워져서 사람들이

495) 남화경(南華經) : 『장자(莊子)』를 말한다.

496) 하백(河伯)이……것 : 자기 자신의 재주나 인품이 다른 사람만 못한 것을 탄식하는 것이다. 옛날에 장마철이 되어 모든 물이 황하로 흘러들어 오자, 황하의 신인 하백(河伯)이 천하의 아름다움이 모두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서 흐뭇해하였는데, 강물을 따라 동쪽으로 가 바다에 도착하여 바다를 바라보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득하기만 하였다. 이에 바다의 신인 해약(海若)을 우러러보면서 자신의 소견이 작은 것을 탄식하자, 해약이 말하기를,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여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 받고 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에게 겨울에 대해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莊子』 秋水.

497) 충경(忠經) : 한(漢)나라 마용(馬融)이 지은 책으로, 『효경』을 본떠서 지은 것이다. 마용은 자가 계장(季長)이다.

모두 코끼리가 땅을 갈고 새가 풀을 김을 매는 정성<sup>498</sup>)을 본받고 있다.

이것으로 논해 본다면, 경술(經術)이란 것은 오직 충효(忠孝)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백성들이 날마다 쓰는 것으로, 각자 갖추고 있는 충효의 성품은 배우지 않고서도 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바로 사람마다 저절로 경학(經學)을 한다고 해도 괜찮은 것이다. 이런 점은 의당 그 이치를 자세히 궁구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조정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진작시키는 교화가 있을 것이고, 향당(鄉黨)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술이 있어서 능히 여기에 모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에 충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학문하기를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 의당 속히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량(奈良)은 최초로 도읍을 세웠던 곳이다. 소나무와 잣나무와 삼나무와 회나무가 뻗뻗하게 우거져 있었는데, 모두 천년 이상 묵은 나무들이다. 혹 아주 크면서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나무도 있었는데, 길을 가는 사람들이 혹 밤에 그 속에서 머물렀다가 가기도 한다. 노루와 사슴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서 사람에게 다가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 영유(靈囿)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sup>499</sup>)이 있었다.

춘일신사(春日神社)<sup>500</sup>)에는 이상한 나무 하나가 있는데, 등나무와 동백나무와 남천나무와 육영나무와 앵두나무와 단풍나무가 한 뿌리에 몸을 의탁하고 있어 마치 한 나무인 것처럼 보이었다. 옛날에 서구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나무를 보고는 어루만지면서 찬탄하기를, “오주(五洲)의 인종들로 하여금 모두 이 나무와 같게 한다면 대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고 한다. 이는 비유하자면, 행단(杏壇)<sup>501</sup>)의 문정(門庭)에 사과(四科)의 백행(百行)이 각각 그 체(體)를 갖추고 있어서 다함께 성인께서 부식해 주는 교화를 입어 한쪽 기운만 편중됨이 없는 것과 같으니, 아주 귀한 것이다.

동대사(東大寺)<sup>502</sup>)의 대불(大佛)을 보았다. 길이는 5장 3척 5촌으로, 조선의 금산사(金山寺)에 있는 입불(立佛)이나 송광사(松廣寺)에 있는 좌불(坐佛)보다도 훨씬 더 크다. 지난 신해년(1911)에 관광단이 이곳을 거쳐 갔을 때 정부에서는 특별히 탕은(幣銀) 수만 원(圓)을 하사하여 그 누각을 개축해 대불(大佛)을 덮었는데, 이 역시 수천 년 된 옛 유적이다.

498) 코끼리가……정성 : 민심이 순박하여 요순시대의 유풍(遺風)이 있는 것을 뜻한다. 전설에 의하면 순(舜)임금을 창오(蒼梧)에 장사지낼 적에 코끼리가 땅을 갈았고, 우(禹) 임금을 회계(會稽)에 장사지낼 적에 새들이 와서 김을 매었다고 한다.

499) 영유(靈囿)에서……모습 : 영유는 황제가 휴식하거나 사냥을 하는 원유(園囿)를 말한다. 『시경』 「영대(靈臺)」에 이르기를, “왕이 영유에 계시매, 사슴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있도다. 사슴들은 살피고 운택하기를, 백조는 깨끗하고 희도다.(王在靈囿 麀鹿攸伏 麀鹿濯濯 白鳥嚶嚶)” 하였다.

500) 춘일신사(春日神社) : 나라에 있는 가스카타이사(春日大社)를 말한다. 768년에 창건된 신사이다. 일본 헤이안(平安)시대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던 후지와라(藤原) 가문의 씨족신을 모신 것에서 유래했다. 후지와라 집안의 용성과 함께 확대되어 헤이안시대 전기에 현재와 같은 규모가 되었다. 화재로 여러 차례 소실되고 복구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경내에는 사슴이 많으며, 수백 개의 석등이 있는데, 이 석등들은 모두 신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 기부한 것이다.

501) 행단(杏壇) :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공자의 묘(廟) 앞에 있는 단으로, 공자가 이 단 위에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였다.

502) 동대사(東大寺) : 나라에 있는 절로, 높이 16.2m의 청동불상인 대불로 유명하다. 대불이 안치된 금당은 세계 최대의 목조물로 8세기 중엽에 세워진 본래의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1709년에 재건되었다. 금당의 북서쪽에는 쇼소인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중요한 미술, 공예품, 각종 문서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문화재들이 소장되어 있다.



불교는 역시 동양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종교로, 유교나 도교와 더불어 정립(鼎立)하고 있다. 이에 역대의 제왕 가운데 양(梁)나라 무제(武帝)나 당(唐)나라 헌종(憲宗)과 같이 높여서 떠받든 임금도 있고, 혹 당나라 무종(武宗)이나 주(周)나라 세종(世宗)과 같이 배척하여 금지한 임금도 있다. 그에 따라 그 가르침 역시 흥성하고 쇠함이 일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왕신건(王新建)<sup>503</sup>의 논(論)에 이르기를, “부처는 이적(夷狄)들 가운데 성인(聖人)이다.” 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풍속을 인하여 가르침을 베풀어 악을 제거하고 선을 따르는 큰 요체가 피차간에 서로 다름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송(宋)나라 유학자가 산사(山寺)에 가서 승도들이 예양(禮讓)에 법도가 있는 것을 보고는 위연히 탄식하기를, “삼대(三代)의 예의(禮儀)가 모두 이곳에 있다.” 하였다. 더구나 부처는 수천 년이나 된 종교의 교주로서 누대 동안 공양을 받아 백성들에게 스며들어 풍습이 되다시피 한 것을 어찌 옛 자취가 없어지도록 하여 수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역사가 장구한 나라에서는 옛 자취와 제사하는 예법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바, 이 또한 강학하는 사람들이 불가불 법도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4월 22일. 산전(山田)에 이르러서 시찰하였다.

천조대신(天照大神)<sup>504</sup>은 제국민족(帝國民族)의 시조(始祖)이다. 옛말에 전하기를, “천조대신이 일찍이 일본 사람의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산전(山田)에 살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사당을 세워 제사지낸다고 한다.” 하였다. 이것을 내궁(內宮)이라고 부른다. 또 별도로 그 근처에다가 사직(社稷)의 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것을 외궁(外宮)이라고 부른다. 이 두 궁에는 모두 궁을 지키는 관리가 있다. 정전(正殿)은 대개 띠풀로 지붕을 해 있었으며, 기둥은 모두 옛날의 제도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예를 올리며 향을 피우는 사람들은 모두 정문 밖에서 참배한다. 제사를 올리는 당(堂)에 전(奠)을 진설함에 이르러서는, 악사(樂師)와 어린 무녀(舞女)가 곡조에 맞추어서 합쳐서 하는데, 옛날에 비파의 구멍을 성글게 뚫고, 한 사람이 창하면 세 사람만이 화답하는 뜻<sup>505</sup>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러러보면서 머뭇거리며 떠나지 못하던 자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물러나 나간다.

4월 23일. 명고옥(名古屋)에 이르러서 시찰하였다.

4월 24일. 동경(東京)에 도착하여 10일간 머물렀다.

정국신사(靖國神社)<sup>506</sup>를 관람하였다. 정국신사는 아홉 계단으로 된 축대 위에 있었는데, 건국한 이

503) 왕신건(王新建) : 명(明)나라의 유학자로 신진백(新建伯)에 봉해진 왕수인(王守仁)을 가리킨다. 왕수인은 절강(浙江) 사람으로, 호가 양명(陽明)이며,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과 치양지설(致良知說)을 주장하여 주자학파(朱子學派)와 서로 다투었는데, 세상에서는 그의 학파를 요강학파(姚江學派)라 불렀다.

504) 천조대신(天照大神) :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으로,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 최고의 신이다.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늘에서 빛나다.’라는 뜻이다. 천황과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아마테라스의 혈통을 이어 받았다고 주장한다.

505) 옛날에……뜻 : 유창한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이르기를, “청묘에서 연주하는 비파는 붉은 줄을 마전하고, 비파의 구멍을 성글게 뚫었으며, 한 사람이 창하면 세 사람만이 화답하여 남은 음이 있다.(淸廟之瑟 朱絃而疏越 壹倡而三歎 有遺音者矣)” 하였다.

506) 정국신사(靖國神社) :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로, 천황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신으로 모

래로 공이 있는 장사(將士)와 잘 삼가서 충절을 다한 자의 혼령을 향사하는 곳이다. 또 초혼사(招魂社)라고도 한다. 사면 벽에는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모두가 그 당시에 공을 세우고 충절을 지킨 사람들의 사적을 그려 놓았으며, 그들이 평생에 착용하던 갑옷이나 창칼 및 손때나 입 때가 묻은 자질구레한 도구들까지 갖추어 놓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에 바라보는 자들은 마치 훈신(勳臣)의 당(堂)에 오르고 충신(忠臣)의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부녀자나 어린아이들로서 무지한 자들까지도 감탄을 하면서 고무되어, 모두들 자신들이 그들과 같은 행실을 하면서 죽음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와서 배알하자는 자들이 날마다 새로운 느낌을 가진다.

가장 말단의 자리에는 남녀 두 사람의 초상 및 일체의 집안에서 늘 쓰는 물품을 봉안해 두었는데, 이는 바로 근일에 아래에서 올린 것을 따라주어서 설치한 것으로, 바로 목공(木公) 부부를 모신 것이다. 옛 전례(典禮)를 보면, 나라를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우면 제사지내고, 나라의 일에 목숨을 바치면 제사지내며, 어린 아이가 나라를 위하여 죽자 공자가 특별히 명하여 상례(喪禮)로 장사지내지 말라고 명하였다.<sup>507)</sup> 이것은 비단 높이 보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권장하는 의리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신사(神社)와 같이 초상을 설치해 놓은 것이 굉장하고 커서 분명하게 눈앞에 있는 듯한 경우는 없었다.

삼월오복점(三越吳服店)을 관람하였다. 삼월오복점은 동경(東京) 내에서 가장 큰 상점으로, 세 개의 층에 물품을 진열해 놓았는데, 없는 물품이 없다 오복(吳服)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단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일 뿐이다. 원점(原店)의 곁 가까운 곳에 또 새로 3층 집을 짓고 있는데, 크기가 원점에 비해 두 배는 되며,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원점의 현재 임원과 직원은 거의 몇 천 명이나 되며, 물품을 파는 자가 매일처럼 물품을 사는 자 수만 명을 상대하여 물품을 판다. 임원 가운데에는 청인(淸人)도 있고 양녀(洋女)도 있어 함께 일을 하는데, 이들은 모두 많은 월급을 받는다. 이 상점은 거의 동양에서 가장 크다.

『명자』에 이르기를, “관문과 시장에서 기찰하기만 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천하의 장사치가 모두 기뻐하면서 그 시장에서 물품을 매매하고자 한다.” 하였다. 또 중고(中古) 시대에는 백성들의 근본이 되는 농업을 중시하여, 장사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중하게 매겨 곤욕스럽게 하였다. 이 두 가지의 일은 서로 상반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옛 가르침이다. 대개 정령(政令)과 법제(法制)는 옛날과 지금의 마땅함이 다르다. 나라에 장사꾼이 없으면 부유하게 할 수가 없고, 교역(交易)을 할 수가 없다. 요컨대 장사치들로 하여금 모두가 와서 물품을 교역하게 하고자 하면, 역시 세금을 가볍게 매기어서 권장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

술과 담배 두 가지 물품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그 값이 배는 되는데, 이는 청나라가 아편(阿片)으로 인해 화를 불러온 것에 경계되어서 법을 세운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옛날을 잘 법 받으면서도 옛날

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일본에 있는 신사 가운데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507) 어린 아이가……명하였다 : 어린 아이는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동자 왕기(汪錡)를 가리킨다. 왕기가 미성년자로서 국난(國難)에 나서서 싸우다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공자에게 “그에게 상례(喪禮)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어쩔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국난을 위하여 죽었으니, 상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하였다. 상례(喪禮)는 미성년자의 죽음에 적용하는 상례(喪禮)이다. 『禮記』檀弓下.

의 법에만 빠져들지 않으며, 오늘날에 잘 쓰면서도 오늘날의 크고도 먼 규모에 파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선유학생감독부(朝鮮留學生監督部)를 시찰하였다. 감독부에는 감독(監督) 2인과 사감(舍監) 2인이 있어 유학생들을 감독하여 공부를 게을리 하지 못하게 한다. 현재 내지(內地 일본을 가리킴)에 와 있는 선인(鮮人)은 대략 7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동경에 있는 자가 대략 5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감독부 내에 있는 기숙사에는 60여 인을 수용하여 그곳에서 거처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하숙집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절반 밖에 안 들어간다. 얼핏 들으니, 이곳 이외에 다른 여관 같은 곳에 기숙하고 있는자들 가운데에는 혹 학자금을 낭비한 자가 있기도 하고, 혹 하숙비에 곤란을 겪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그런즉 부형들이 자제들을 일본에 유학 보내고자 하면,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편지를 써 보내어 해당 감독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여러 공원(公園)을 시찰하였다. 이번 시찰단에서 본 바는 지공원(芝公園), 일비곡공원(日比谷公園), 천초공원(淺草公園), 상야공원(上野公園) 네 곳이었다. 또 봉래원(蓬萊園)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이는 송포(松圃) 백작(伯爵)의 별장(別莊)이다.

지공원은 비스듬히 서서 내려다보면 멀리까지 한눈에 보이고 평평하게 끌어당기는바, 전망에 있어서는 첫째가는 곳이다. 일비곡공원은 꽃과 돌이 모두 아름답고 맑은 물이 여울져 흐르는 바, 그윽한 경치에 있어서는 첫째가는 곳이다. 천초공원은 불당(佛堂)과 신사(神社) 및 연희(演戲)를 베푸는 극장(劇場)이 있는바, 오락을 즐기기에선 첫째가는 곳이다. 상야공원은 폭과 너비가 넓고도 크다. 이곳은 또 다음 대정박람회(大正博覽會)를 설립하기로 정해진 곳이니, 그 넓고도 큰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봉래원은 연못을 파서 호수를 만들었고 언덕을 인해서 산을 만들었는데, 초목의 향기가 정대(亭臺)에서 있으면 옷 속으로 스며든다. 꼭대기의 절벽 가에는 하나의 작은 누각이 물을 내려다보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양쪽 거드랑이가 서늘해지면서 참으로 바람을 타고 봉래(蓬萊)에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러므로 공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다.

옛날에 제(齊)나라의 원유(園囿)는 둘레가 40리나 되었고, 한(漢)나라의 상림원(上林園)<sup>508</sup>은 백성들의 시장보다 더 컸는데, 모두 위에서 사사로이 소유하고 있어서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평천장(平泉莊)<sup>509</sup>과 녹야당(綠野堂)<sup>510</sup>과 벽강원(辟疆園)<sup>511</sup>과 옥산당(玉山堂)<sup>512</sup>은 모두 부귀한 자들의 사유(私有)라서 외부인이 들어가 노닐고자 하면 정원을 지키는 자에게 많은 돈을 뇌물로 주어야만 비로소 하루나 하룻저녁을 노닐 수가 있었으며, 화초나 나무를 꺾을 경우에는 벌칙이 있었다. 그러므로 송나라

508) 상림원(上林園) : 한 나라 무제(武帝)가 만든 궁궐 안의 정원이다.

509) 평천장(平泉莊) : 당(唐) 나라 때의 명재상인 이덕유(李德裕)의 별장 이름이다. 이덕유는 평천장을 짓고 천하의 기화 이초(奇花異草)와 진송 괴석(珍松怪石)을 거기에 모으고서 스스로 즐겼다.

510) 녹야당(綠野堂) : 당 나라 때 중서령(中書令)을 지낸 배도(裴度)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지내던 당의 이름이다. 배도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낙양(洛陽) 남쪽의 오교(午橋)에 꽃나무 만 그루를 심고서 그중양에 여름에 더위를 식힐 누대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집을 짓고 녹야당(綠野堂)이라 이름을 붙이고는 백居易(白居易)·유우석(劉禹錫) 등 문인들과 모여 시주(詩酒)로 소일하였다. 『新唐書』 卷173 裴度傳.

511) 벽강원(辟疆園) :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의 경내에 있는 정원으로, 진(晉)나라 때 고벽강(顧辟疆)이 만든 정원이다.

512) 옥산당(玉山堂) : 강소성 곤산현(崑山縣)의 서쪽 시냇가에 있는 당으로, 원(元)나라의 고중영(顧仲瑛)이 세웠다.

의 범희문(范希文)이 말하기를, “사대부의 원림(園林)이 서로 잇달아 있으니, 누가 유독 나의 놀이를 가로막는가?” 하였다. 이는 대개 남과 나를 분별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낙양(洛陽)에는 이름난 공원이 많이 있는데, 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원림의 성쇠를 가지고 천하의 성쇠를 짐질 수가 있다.”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영회(耆英會)<sup>513</sup>의 제공(諸公)들도 각자 사사로이 가지고 있는 원림이 있어, 속수(涑水)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도 오히려 5모나 되는 독락원(獨樂園)을 가지고 있었는데,<sup>514</sup> 꽃과 대나무 및 아름다운 들판을 사유물로 삼은 것은 대개 옛날부터 그랬던 것이다.

공원의 제도가 한번 나오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는 나의 공원을 사랑한다.” 하였다. 오늘날이 옛날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그 한 가지 단서인 것이다. 바라건대, 우리 공자와 맹자의 도를 배우는 자들은 정주(程朱)와 육왕(陸王)<sup>515</sup>으로 서로 간에 문호(門戶)를 나누지 말고, 단지 공(公)이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그 장점을 취하고 그 의(義)를 합하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천하에 공적(公的)인 것이 될 것이다.

제국대학교(帝國大學校)를 시찰하였다. 제국대학교는 서경(西京)에 있는 것과 대략 같았다. 그러나 각 단과 대학은 각자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방위에 따라 대치하고 있는 탓에 한 학교의 사람이라도 졸업할 때까지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한문학(漢文學) 한 과만 보더라도 서적(書籍)이 많기가 동아시아 전체에서 으뜸으로, 다 기술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맹아학교(盲啞學校)에 가서 시찰하였다. 맹인들은 다른 곳에 있어서 이번에 본 것은 바로 병어리들이다. 병어리들로서 졸업을 한 학생들이 다시 그대로 이 학교의 교사(教師)가 되는데, 눈으로 귀를 대신하고, 손으로 입을 대신하여, 턱으로 가리키면서 가르치고 고개를 끄덕여서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이 아주 빠르고 민첩하여 두 귀가 달려 있으면서 세 번째 귀를 속에 가지고 있는 자<sup>516</sup>보다도 더 민첩하였다. 서구인의 말에 이르기를, “나라 안에 농아가 있는 것은 이에 학구(學規)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학구가 세워질 경우에는 귀머거리는 귀머거리가 안 되고, 병어리는 병어리가 안 된다.” 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13) 기영회(耆英會) : 송나라 때 문언박(文彦博), 부필(富弼), 사마광(司馬光) 등 낙양의 나이가 많은 자 13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즐긴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를 말한다. 『송사』 문언박전(文彦博傳)에 이르기를, “문언박이 부필, 사마광 등 등 13인과 더불어서 백거이(白居易)의 구로회(九老會) 고사(故事)를 따라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으며 즐겼는데, 나이의 순서에 따라 자리를 정하고 관직의 높고 낮음은 따지 않았다. 이를 낙양기영회라 하였는데, 호사자들이 모두들 부러워하였다.” 하였다.

514) 속수(涑水)와……있었는데 : 속수는 송(宋)나라의 명상 사마광(司馬光)을 가리키며, 독락원은 그의 장원이다. 사마광이 일찍이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관직에서 물러나 낙양(洛陽)에 독락원을 짓고 15년 동안 한가로이 지냈다.

515) 정주(程朱)와 육왕(陸王) : 정주는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말하고, 육왕은 육구연(陸九淵)과 왕양명(王陽明)을 말한다. 정자의 학문이 주자로 이어졌는데, 주자는 ‘성즉이(性卽理)와 천리인욕설(天理人欲說)을 주장하였는데 반해, 육구연은 ‘심즉이(心卽理)의 주관적유심론(主觀的唯心論)을 주창하여 주자의 학설에 대항하였는데, 이때부터 유학은 주(朱)와 육(陸)의 두 학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뒤에 육학은 왕양명(王陽明)에게 계승되어 양명학(陽明學)으로 발전되었다.

516) 두 귀가……자 : 중국의 궤변가(詭辯家)인 공손용(公孫龍)의 설에 ‘두 귀는 실제로 소리를 듣는 귀를 말하며, 이 두 귀로 하여금 잘 듣게 하는 데에는 이 두 귀 밖에 반드시 다른 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세 번째 귀는 듣는 신(神)이다. 이를 합치면 모두 귀가 세 개가 된다.’ 하였다.

옛 제도에 흠아비나 과부나 고아 및 폐질(廢疾)이 있는 자는 먹여주는 법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 단지 먹여주기만 하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사람을 길러주는 것이니,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어찌 하면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유학(儒學)의 대도(大道)를 펼쳐서 온 마음이 귀머거리가 되고 성품이 병어리가 된 온 천하의 사람들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대정박람회(大正博覽會)를 시찰하였다. 대정박람회를 시찰하는 것이 이번 시찰의 본래 목적이다. 사민(四民)의 온갖 기물을 갖추어놓은 앓은 바가 없어서 그 박람회에 들어가 보는 자는 단지 표주박을 가지고 황하를 퍼 마시는 자가 각자 자기의 양에 따라 배를 채우는 것과 같은바, 참으로 한 가지 본 것만 가지고 치우치게 논해서는 안 된다.

박람회장 안에 새로 하나의 집을 지었는데, 대략 조선의 궁실(宮室)과 전폐(殿陛)의 제도를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목석(木石)과 단청(丹青)은 모두 본지(本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었다. 당(堂)의 중앙에는 인형(人形)을 만들어 세워놓았는데, 신랑(新郎)은 (紗帽)와 화(靴)와 장복(章服)과 서대(犀帶) 차림을 하고 초례(醮禮)를 하러 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고, 신부(新婦)는 화관(花冠)과 몽두(蒙頭)와 원삼(圓衫)과 대대(大帶) 차림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상인(喪人)은 참취(斬衰)의 효복(孝服)에 상장(喪杖)을 짚고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대개 우리나라의 국속(國俗)을 본떠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맞은 편 행각(行閣)에는 조선요리점(朝鮮料理店)과 삼다점(蔘茶店)을 세워놓았는데, 외방인들도 특별히 와서 사 먹는 자들이 있다.

다음으로 대만관(臺灣館)에 이르렀는데, 역시 대만 본지(本地)의 물품을 진열해 놓았다. 다음으로 연예장(演藝場)에 이르러서 남양(南洋) 사람들이 갈춤과 봉재주와 가무하는 것을 관람하였는데, 앓무새가 지저귀는 것과 같아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나, 무슨 뜻을 말하는지는 상상해 알 수 있었다.

등 뒤에 긴 꼬리가 달린 인종(人種)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내지인이 남양(南洋)을 돌아다니다가 이를 얻어 박람회의 물품으로 출품하여 팔고자 해서 같이 오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와서 특별히 한 관에 전시한 것이다. 한쪽에는 또 식인종(食人種)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습은 갈색 피부를 가진 인도인(印度人)과 같으면서 체격은 조금 작았다. 그들이 사는 곳에 있을 적에는 약육강식을 하면서 사람을 양식으로 삼아 서로 잡아먹기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건대, 우리들의 행실은 이미 안다는 것으로써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앓을 구하여 기어이 사람의 본성을 다하는 데 이르게 해야만 한다. 사람으로서의 어리석음과 흉악함이 서로 잡아먹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본성이 없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강아지에게도 역시 불성(佛性)이 있는 법인데, 어찌 본성이 없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본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대개 또 옛날에 영웅이라고 칭해지면서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했던 자나 수령으로서 사람들을 박해하기를 좋아했던 자들을 가지고 논해 보면, 이 식인종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난날에 성인께서 규례를 세우지 앓고 학교를 설립하지 앓았다면, 온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게 되었을 것이다. 천지는 장구한바, 이런 식인종들로 하여금 모두 우리들과 같은 인종으로 변하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성인의 가르침이 온 천하 만세에 크게 행해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성당(聖堂)을 관람하였다. 성당은 공부자(孔夫子)를 모신 사당이다. 문에는 ‘앙고(仰高)’라는 편액을 달았고, 문미(門楣)에는 ‘행단(杏壇)’이라고 편액을 달았으며, 전(殿)에는 ‘대성(大成)’이라고 편액을 달았다. 중앙에는 문선왕(文宣王)의 우상(偶像)을 봉안하고서 그 앞에 휘장을 드리웠으며, 동서의 양쪽 감실(龕室) 중 동쪽에는 안자(顏子)와 증자(曾子)의 우상을 봉안하였고, 서쪽에는 자사(子思)와 맹자(孟子)의 우상을 봉안하였는데, 모두 옛날 왕자(王者)의 복식을 하고 있으며 손을 무릎에 얹어놓고 있는 모습의 우상이다. 옛날에 덕천씨(德川氏)가 막 성대해지기 시작하였을 때 유술(儒術)을 숭상하여 특별히 이 당(堂)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2백여 년이 되었다고 한다.

앞쪽의 청(廳)과 양쪽을 행랑(行廊)에는 통속교육박물관(通俗教育博物館)을 설치하여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물품을 죽 진열해 놓았는데, 학자들과 그 물품을 사려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살 수가 있게 해 놓았다. 행랑의 바깥쪽에는 제전회사무소(祭典會事務所)가 있었다. 경외(京外)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 발기(發起)해서 선성(先聖)에게 올리는 석전제(釋奠祭)의 전례를 만들어 놓고는 때에 맞춰서 향사(享祀)한다. 회에 소속된 사무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숙직을 한다. 명치(明治) 40년부터 존귀한 작위를 가진 사람들과 문학박사(文學博士)들이 특별히 규약을 만들었는데, 그 규약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우리나라는 공자의 교화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제전(祭典)을 거행한다.
- 제2조. 매년 4월 네 번째 일요일에 본향(本鄉)의 탕도성당(湯島聖堂)에서 제전을 거행하며, 제사를 마친 뒤에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 제3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4조. 회원은 본회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 제5조. 평의원(評議員) 약간 명, 위원(委員) 20명, 지방위원(地方委員) 약간 명을 둔다.
- 제6조. 각 임원의 임기는 기한이 없으며,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원을 보충할 인원을 선정한다.
- 제7조. 위원은 본회를 조직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단 위원은 호선(互選)으로 하여 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다.
- 제8조. 평의원은 위원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평의(評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 본회의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 및 유지(有志)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이 밖에도 별도로 세칙(細則) 15조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제4조에는 ‘매년 3월 15일에 회비 1원(圓)을 낸다.’고 하였고, 제7조에는 ‘제전(祭典)의 의식은 신관(神官)이 관장한다.’고 하였으며, 제8조에는 ‘대표자 1인이 제문(祭文)을 읽는다.’고 하였고, 제12조에는 ‘회원 이외의 사람이 참배하는 것은 식을 마친 뒤에 모두 허락한다.’ 하였고, 제15조에는 ‘기부금은 돈 이외에 물품으로 기부하는 것도 모두 받아들인다.’ 하였다. 이상이 그 대략이다.

동양(東洋)에서 선성(先聖)을 받들 경우에는 관(官)에서 제사의 비용을 대고 특별히 예관(禮官)을 차임하여 유생(儒生)으로서 설전(設奠)하는 자를 거느리고서 올리는 것이 예전의 방식이다. 지금 이처럼 사사로이 제전회(祭典會)를 설립한 것은 더욱더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개 선성께서는 포의(布衣)로서

백대의 스승이 되신 분이다. 백 대 이후에 공론이 아래에 있었다. 이에 유림(儒林)이 주창하여 각자 뜻과 정성을 가지고 빈번(蘋蘩)과 서직(黍稷)의 제수를 바치었다. 그러면서 아래로 일반백성이나 부녀자들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뜻과 정성을 모아서 호응하여, 그 법도를 외우고 우리러 흠양하는 충정을 썼으며, 위에서 그것을 도와 이루게 하였다. 그러니 참으로 제전(祭典)이 장구하게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계책이 여기에서 그 방도를 얻었다 하겠다.

30일, 상야역(上野驛)을 출발하여 일광산(日光山)에 이르러 시찰(視察)하였다.

일광산은 덕척막부(德川幕府)가 대대로 장사(葬事)지낸 곳이다. 윤왕사(輪王寺)와 동조궁(東照宮), 이황산신사(二荒山神社), 중선사호(中禪寺湖)가 이 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양명문(陽明門) 바깥에 종(鍾)이 하나 걸려 있는데, 바로 조선(朝鮮)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조선의 선조(宣祖) 때 서로 간에 우호를 맺어 사신들이 줄을 이어 오갔는데, 법종(法鍾) 하나를 주조하여 보내면서 종의 표면에 명문(銘文)을 새기기를,

“일광도량(日光道場)은 동조대권현(東照大權現)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대권현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이 있으니, 한없이 숭봉(崇奉)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량의 웅대함은 이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바이며, 뜻을 잘 이어받은 효성은 더욱더 선대의 공렬을 빛나게 하였다. 이에 우리 임금께서 들으시고는 마음이 기뻐서 법종(法鍾)을 주조하여 영산(靈山)의 삼보(三寶)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는 이어 신(臣) 이식(李植)에게 명하여 서문을 짓고서 명(銘)을 짓게 하였다. 그 명은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공렬 크게 드러내어서	丕顯英烈
처음으로 신령스런 진성 높였네	肇闡靈眞
신선 사는 현도 <sup>517)</sup> 이에 넓히었으며	玄都式廓
보배로운 종을 이에 달아놓았네	寶鐘斯陳
아름다운 인연 따라 수행을 하매	參修勝緣
명복을 빌 제사 이에 지내게 됐네	資薦冥福
고래 우는 소리에다 사자후 내자	鯨音獅吼
어리석은 마귀들이 다 었드렸네	昏覺魔伏
이는 도구 중해서가 아닌 것으로	非器之重
효성스런 맘이 그리 되게 한 거네	惟孝之則
용천 <sup>518)</sup> 이에 보호하게 되었거니와	龍天是護
크나큰 복과 함께 끝까지 가리	鴻祚偕極

조선국 예조판서 이식(李植)은 찬하고, 행 사직(行司直)오준(吳竣)을 쓴다.” 명문(銘文)은 여기까지이다.

517) 현도(玄都) : 전설에 나오는 신선들이 사는 곳을 말한다.

518) 용천(龍天) : 팔부(八部)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팔종(八種)의 이류(異類) 가운데 용중(龍衆)과 천중(天衆)을 말하며, 또는 용수(龍樹)와 천친(天親)의 병칭(併稱)으로 쓰기도 한다.

삼가 살펴보건대, 조선은 제국(帝國)의 덕천(德川) 시대로부터 우호관계를 맺음이 한 집안과 같아 물품을 주고받음이 빈번하였다. 이것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덕천씨의 묘사(廟祠)는 도량의 안에 있는바, 실로 조선의 능침(陵寢)에 조포사(造泡寺)<sup>519</sup>가 있는 것과 같다. 금속임궁(金粟琳宮)이 일광산과 더불어 이웃이 되어 있다.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명문(銘文)에서 ‘뜻을 잘 이어받은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한 것은, 대개 불가(佛家)에서는 선세생천(先世生天)<sup>520</sup>하는 것을 효라고 여기고, 왕가(王家)에서는 계지술사(繼志述事)<sup>521</sup>하는 것을 효성이라고 여기므로, 그 말에 이르기를, “이는 도구가 중해서가 아닌 것으로, 효성스런 맘이 그리 되게 한 거네.”라고 하여, 유학가(儒學家)의 본래 면목으로 중함을 돌린 것이다.

그 뒤로 조선의 사신 및 유람객들이 서로 오갔는데, 김동명(金東溟)<sup>522</sup> 김세렴(金世濂) 등 여러 사람들이 모두 시를 남겨 놓아 권축(卷軸)을 이루었다. 지금 시찰하러 온 일행들도 역시 제명(題名)을 하고서 돌아왔다.

이상은 강사시찰단(講士視察團)이 유람을 하면서 느낀 심정을 기술한 대략이다. 못난 내가 외람되어 경학원(經學院)의 직을 맡고 있으나, 학식은 얇고 학문은 보잘것없어서 그 사이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 처지가 못 된다. 그리고 가장 못난 처지면서도 중간에 끼게 된 자가 강사시찰단보다 10여 일 앞서 진신시찰단(進紳視察團)과 함께 동경(東京)에 도착하여 각 도회(都會)를 시찰하였다.

이번에 시찰하러 간 것은 실업(實業)을 시찰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런즉 시찰한 모든 것들은 농학, 공학, 상학의 정도(程途)와 발전(發展)에서 벗어나지 않는바, 문학(文學)에 관한 일은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시찰하는 가운데 문학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략 마음속으로 헤아리면서 주목해 보았다. 그러나 이를 손으로 쓸 수는 없어서 망연하기가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시찰을 하고 돌아오는 다음날에 비로소 강사시찰단이 계속해서 왔다고 들었는데, 제비가 떠나감에 기러기가 오는 것과 같아, 서로 어깨를 스치면서도 만나보지는 못하였기에 더욱더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 강사들이 감상을 기술한 것에 힘입어 이 한 편의 글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는 모두가 못난 내가 앞서 말하고자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였던 것들이었으므로, 얼음이 풀리듯이 시원스럽게 풀리고 순리에 따르듯이 기쁜 마음이 들었다.

이에 세 번이나 장엄한 자세로 읽어본 다음 대략 몇 마디 말을 제하여, 여러 강사 일행들이 터득한 것이 있음을 찬미하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못난 내가 처음에는 찝찝하였다가 끝에는 시원스럽게 풀린

519) 조포사(造泡寺) : 능(陵)이나 원(園)에 떨어져 제향(祭享)에 쓰는 두부를 말아 만드는 절을 말한다. 조포소(造泡所)라고도 한다.

520) 선세생천(先世生天) : 부모님으로 하여금 사후에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열 가지 선행을 한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한다.

521) 계지술사(繼志述事) : 계지는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을 말하며, 술사는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효자일 것이다. 효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며,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중용』

522) 김동명(金東溟) : 김세렴(金世濂 1593~1646)으로, 본관은 선산(善山)이고 자는 도원(道源)이며, 호는 동명(東溟)이다. 인조 14년(1636)에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을 다녀왔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저서로는 『동명집(東溟集)』, 『해사록(海槎錄)』 등이 있다.



것을 기록하였다.

부제학(副提學) 박제빈(朴齊斌)은 삼가 기록한다.

〈출전 : 朴齊斌, 『講士視察見聞所記』, 『經學院雜誌』 제3호, 1914년 6월 25일, 37~49쪽〉

## 5) 심선택(沈璿澤)

### (1) 군자시중(君子時中)

저 심선택은 여러 군자들과 더불어 한 세상에 태어났으며 한 고을에서 살고 있는 바,<sup>523)</sup> 성기(聲氣)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가까이 지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다행히도 경학원(經學院)의 명령으로 인하여 여러 군자들과 한 자리에서 모이게 되어, 지난날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저의 개인적인 영광을 어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자들께서는 몹시 바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석해 주셨는 바, 감사한 마음에 앞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러 군자들을 모시고서 한 마디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전(經傳) 속에 나오는 하나의 문구(文句)로, 여러 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본 소릉(昭陵)<sup>524)</sup>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경학(經學)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울타리 가에 버려진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으니,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용동시키지 못하고, 세도(世道)에 도움이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는 바에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중용(中庸)』 속에 나오는 ‘시중(時中)’이라는 두 글자<sup>525)</sup>에 대해서 여러 군자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中)’이라는 것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은 것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말하는 바, 바로 천명(天命)의 성(性)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이치가 두루 갖추어져 있으며, 천 가지 변화와 만 가지 변화가 모두 이것을 말미암아서 나옵니다. 그러니 바로 천하의 큰 근본이며 도(道)의 체(體)인 것입니다. 참으로 능히 이를 미루어 확대해 나가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 이르면, 사물을 응접하는 즈

523) 전라남도.

524) 이미 본 소릉(昭陵) : 이미 본 적이 있다는 뜻이다. 소릉은 당 태종(唐太宗)의 황후인 장손황후(長孫皇后)의 능이다. 태종이 황후를 장사한 뒤 후원(後苑) 안에 관망대를 만들어 놓고 늘 바라보다가, 한번은 위장을 끌고 같이 올라갔었는데, 징이 찬찬히 보며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태종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위장이 “신은 폐하께서 현릉(獻陵 태종의 어머니 능)을 바라보는 줄 알았습니다. 소릉은 신이 이미 보았습니다.” 하자, 태종이 울며 조망대를 헐어 버린 고사가 있다.

525) 중용(中庸)……글자 : 『중용』 제2장에 이르기를, “중니께서 말씀하기를,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을 반대로 한다. 군자가 중용을 함은 군자이면서 때로 맞게 하기 때문이고, 소인이 중용에 반대로 함은 소인이면서 기탄하는 바가 없어서이다.’ 하였다.(仲尼曰 君子 中庸 小人 反中庸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한 부분을 말한다.

음에 치우치거나 기우는 바가 없으며, 그 지킴을 잃지 않아 조금이 차이가 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인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즉 천지가 제자리를 잡음에 만물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시중(時中)을 하여서 중화(中和)의 극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時)에는 같지 않음이 있고, 중(中)에는 정해진 체(體)가 없습니다. 고금(古今)은 마땅함이 다르며, 하동(夏冬)은 기후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마땅하던 것이 오늘날에는 마땅하지 않으며, 여름에는 적당하던 것이 겨울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도(制度)에는 세련됨과 촌스러움의 차이가 있으며, 의복(衣服)에는 갓옷과 갈옷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긴 것과 짧은 것은 나무의 형체인데, 긴 것에는 긴 것의 중(中)이 있고, 짧은 것에는 짧은 것의 중(中)이 있습니다. 이에 짧은 것의 중을 가지고 긴 것의 중에 길이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은 그릇의 형체인데, 큰 것에는 큰 것대로의 중이 있고, 작은 것에는 작은 것대로의 중이 있습니다. 이에 작은 것대로 중을 가지고는 큰 것의 중에 크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정자(程子)가 이른바 ‘당(堂)은 한 집에서는 중이지만, 한 나라의 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자막(子莫)이 중을 잡은 것<sup>26)</sup>은 그렇지 않아,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권도(權道)에 통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사물에 근본이 중하고 말단은 가벼운 것이 있는데, 참으로 중을 잡기만 하고서 나아가거나 물러남이 없는 것과 같아, 만물이 그 체(體)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중(中)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사물의 길고 짧음과 크고 작음은 오히려 모두가 그 형체에 따라서 그 가운데에 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에는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있고, 일에는 정도(正道)와 권도(權道)가 있는 데이겠습니까. 만약 다스려진 때의 중(中)을 가지고 어지러운 때에 쓰거나, 정도(正道)에 있어서 중인 것을 가지고 권도(權道)에 쓸 경우,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아서 서로 어긋나 모순되게 되어, 적당한 때를 잃고 중도가 아닌 데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하면서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위태로운 것을 유지하고자 하며, 어지러움을 바로 잡아서 바른 것으로 돌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남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북쪽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의 희노 애락(喜怒哀樂)은 어느 때고 적당하지 않은 때가 없어서 혼연히 한 이치가 사물에 흠어져 있는 법입니다. 요순(堯舜)이 공손하게 한 것과 탕무(湯武)가 정벌(征伐)한 것은 모두가 똑같이 그때에 마땅하게 하여,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요순이 공손하게 한 것을 가지고 홀로 때에 맞게 한 것이라고 여기고, 탕무가 정벌한 것을 가지고서 때에 맞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집 앞의 대문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은 것은 대우(大禹)의 시중(時中)인데, 가령 대우가 누항(陋巷)에 거쳐하였더라면 이는 시중이 아닌 것입니다. 누항에 거쳐한 것은 안자(顏子)의 시중인데, 가령 안자가 집 대문을 지나가면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는 시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집 대문

26) 자막(子莫)이……것 : 형세에 따라서 임시변통할 줄을 모른다는 뜻이다. 자막은 노(魯)나라의 현인인데, 중도만 잡았을 뿐, 사정에 따라서 변화할 줄을 몰랐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이르기를, “자막은 그중간을 잡았으니, 중간을 잡은 것은 도에 가까우나, 중간을 잡고서도 저울질함이 없는 것은 한쪽을 잡은 것과 같다.” 하였다.

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공자(孔子)가 젊어서 노(魯)나라에서 살 때에는 봉액(縫掖)의 옷을 입었으며, 장년이 되어서 송(宋)나라에 살 때에는 장보(章甫)의 관을 썼습니다. 성인의 문장(文章)과 제도(制度)는 그 지방에 가서는 그 지방의 풍속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벼슬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면 벼슬을 하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은 것이면 벼슬에서 물러나며, 오래할 수 있으면 오래하고, 빨리 하는 것이 옳으면 빨리 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출처(出處)와 어묵(語默)은 모두가 때에 합당하여, 어디를 가든 중도에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학문에는 신학문(新學問)과 구학문(舊學問)이 있습니다. 구학문을 하는 자는 윤리(倫理)를 존중하고 도덕(道德)을 밝혀 세로(世路)의 나침반이 되는바, 우뚝하게 높아서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 이로 인하여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해 사물을 아는 데에 엉성합니다. 오늘날의 물질문명(物質文明)을 보고서는 마음속으로 그르게 여기면서, 아울러 그 정심한 학술과 부강의 정책까지도 아울러 배척합니다. 이것은 비록 군자의 덕에는 넉넉한 것이지만, 그것을 일러 때에 따라서 중도에 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신학문을 하는 자는 문명의 기초를 세우고 발달한 정책을 주창하여 진화의 선도가 되어 우리들이 의지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혹 이를 인하여 본령(本領)을 몰라서 도덕(道德)에 소원하여, 지난날의 질박한 풍속을 보고는 냉소하면서 혹 윤리 강령까지도 아울러 깨뜨려버립니다. 이것은 비록 때에 따른 용(用)에는 넉넉한 것이지만, 그것을 일러 덕성을 함양함에 있어서 치우치거나 기운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듯합니다.

반드시 시(時)와 중(中) 두 글자를 합하여 하나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경전을 궁구하고 도를 품은 선비가 되어, 나아가서는 문명을 창도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하게 하는 도리를 알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익(公益)을 면려하고 학교에 연결되어, 자제들로 하여금 학문을 함에 있어서 신학문과 구학문을 포괄하게 하고, 몸소 행하면서 실천하여 시대의 과도기에 이롭게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신학문과 구학문이 합하여 일치가 될 것입니다. 학문이 하나가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몸이 하나가 되어서 힘이 강해져, 천하의 모든 일을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유도장명회(全南儒道彰明會)는 한두 동지께서 세상의 도가 더러워지고 낮아지는 것을 걱정하여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설립한 것입니다. 이에 높은 관과 넓은 띠를 두른 홍유(鴻儒)와 석사(碩士)들께서 정기적인 모임에 모두 달려 나와, 선성(先聖)의 대도(大道)를 강마하고, 열강(列強)의 문화(文化)를 논하며, 또 관청과 학교와 사회의 제도를 두루 보아, 그것들을 절충하여 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보(會報)를 발간하면서 신학문을 하는 자와 구학문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뜻에 따라서 투고하여 가슴속에 담고 있는 포부를 펼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팔을 치켜들고 큰소리를 치는 선비들이 풍문을 듣고 일어나, 성경(聖經)과 현전(賢傳)의 은미한 말과 오묘한 뜻 및 서구(西歐)와 북미(北美)의 학술(學術)과 정법(政法)이 모두 갖춰지게 되자, 이를 차례차례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유럽계의 표준이요, 행정가의 보감(寶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비들의 추향(趨向)이 의귀할 바가 있게 되었고, 퇴폐한 풍속을 점차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부자 간에 송사하는 일이 이에 종식되었고, 형제 간에 싸움을 하는 일이 이에 중지되었으며, 남편은 따사롭고 아내는 순종하며, 어른은 자애롭고 어린이는 공경하며, 농인(農人)과 공인(工人)은 생업에 안정하고, 학교가 울연히 일어나 문옹(文翁)의 교화(教化)<sup>527)</sup>와 여씨(呂氏)의 향약(鄉約)<sup>528)</sup>이 전시대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그 공은 홍수를 막고 맹수를 몰아낸 것보다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오늘날의 시세(時勢)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진보하고자 하면, 반드시 목소리를 같이 하고 기운을 같이 해야만 만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각 군의 지회(支會)는 설립하였다는 명목만 있지 설립한 실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웃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안 됩니다. 크게 문호를 열어놓고서 날짜를 정해 총회를 열고, 그 대체(大體)를 강구하여야 하며, 또 각 면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여 선한 자를 표창하고 불선한 자로 하여금 교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방법으로 연락이 끊이지 않게 하여 문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아감만 있고 물러남은 없게 해야 합니다.

아동(兒童)들을 교육하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금년 봄에 입학한 상황을 보면, 보잘것없다는 탄식을 면치 못합니다. 비록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방의 유림들이 각자 그 책임을 나누어지고서 권장하고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자제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자금에 마련하는 것이 급합니다. 공부자(孔夫子)께서 위(衛)나라에 갔을 적에 염유(冉有)의 물음에 답하기를, “부유하게 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야 한다.”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인께서 하신 말은 짧은 말일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적중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을 후시라도 근래에 으레 말하는 것으로 돌리지 말고, 각자 분발하고 가다듬어 청년자제들의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요즈음 말하는 자들은 걸핏하면 금전시대(金錢時代)라고 합니다. 이에 참으로 이익이 있는 곳이면 자신의 몸을 잊고서 달려 나가면서 천 길이나 되는 깊은 구렁이 속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비록 금덩이를 산과 같이 쌓아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무게가 어찌 부모께서 남겨주신 자기 몸뚱이보다 더 중하겠습니까. 이것은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것이 어찌 근면하게 일하고 절약해 쓰면서 입신양명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출전 : 沈濬澤, 「君子時中」, 『經學院雜誌』 제26호, 1925년 12월 25일, 60~64쪽〉

527) 문옹(文翁)의 교화(教化) : 학교를 세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문옹이 한(漢)나라 경제(景帝) 때 촉군(蜀郡)의 태수(太守)가 되어 학교(學校)를 세워 문풍(文風)이 크게 떨치게 하였다. 그러자 조정에서 각 고을마다 학교를 세우게 하였다.

528) 여씨(呂氏)의 향약(鄉約) : 여씨는 송나라 때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남전(藍田)에 살던 여대충(呂大忠), 여대방(呂大防), 여대균(呂大鈞), 여대림(呂大臨) 4형제를 말한다. 이들 사형제가 그 고을 사람들과 자치 규범을 정하여 서로 지키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규범은 덕업(德業)을 서로 권하고, 과실(過失)을 서로 규제하고, 예속(禮俗)으로 서로 사귀고, 환난(患難)을 서로 구제한다는 등 네 조항이었다. 이것이 후대에 향약의 기준이 되었다. 『小學』 卷六 善行.

## 6) 안인식(安寅植)

### (1) 동아의 건설과 유도정신

오늘 귀도(貴道)<sup>529)</sup>의 유도연합회 결성식을 성대하게 마무리하고 그 행사의 하나로써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어떤 문제든 시국과 결부될 수밖에 없고 또 유럽여러분의 회합이니 이 모임의 취지를 살피, 표기한 바와 같이 '동아의 건설과 유도정신'이라는 제목 하에 사회의 일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목의 순서대로 먼저 동아의 건설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유도의 정신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 1. 동아의 신질서 건설

동아의 신질서 건설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동아의 과거의 현상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세계의 대세부터 간단히 언급하겠다. 세계 6대주 가운데 최근 이백 년 간은 구주(歐洲)인의 침략시대이다. 과학지식과 기계문명을 발달시킨 구주인은 각종 음험한 수단과 교묘한 방법 등으로 전 세계에 침략을 감행하면서 그들의 우월감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는데, (그들 중에는-역자) "전 세계의 삼분의 이를 열등민족이 점유하고 있어서 천연의 풍부한 자원이 사장되고 있다. (우리는-역자) 이것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우등민족이 이 열등민족을 제압하여 천지의 이로움을 공개하고 (이를-역자)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역자)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으며, 우등민족의 세습재산으로 우등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몰아내고 이익을 탈취하는 것은 인류의 금수를 몰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폭언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 이렇게 그들 백인종은 유색인종을 박해하는 일을 마치 양의 무리가 풀을 물어뜯거나 인류가 소와 양을 몇대로 죽이는 것과 동일시해왔다. 실제 사실로 증명을 해보자면, 그들은 구라파주를 근거지로 삼아 남북아메리카의 신대륙을 침입하거나 혹은 전 아프리카를 분할하고, 호주 태평양을(濠太洲) 독점하며 방약무인한 태도를 취해왔다. 최근 약 백년 이래 그들의 모든 세력이 아시아에 집중되면서 우리 아시아주에도 (그들이-역자) 밀어닥쳤다. 우리 아시아는 전 세계 면적의 삼분의 일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인구는 전 세계의 삼분의 일로 실로 광대한 면적과 많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종의 폭력과 협박에 여지없이 유린당했다. 남쪽에서는 인도의 고대제국이 영국의 마수에 걸려 붕괴된 것을 시작으로, 월남교지<sup>530)</sup>는 프랑스령 인도로 변형되고, 극동에서는 시베리아 및 만주 일대, 북쪽은 몽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침략지대가 되었으며, 서장(西藏), 신강(新疆)등도 영국이나 러시아의 세력권내로 들어가게 되어 거의 안전한 지대는 없다시피 되었다. 특히 중국대륙은 사천 년의 문화를 자랑하는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민중이 우매하여 그들의 좋은 먹이였을 뿐만 아니라 물□지대라는 이점 때문에 모든 백인종이 차지하고 싶어 하는 공설시장의 각축지가 되어, 사방에서 밀려 든 저기압으로 태풍이 불어 닥치느냐 폭우가 쏟아지느냐 하는 참으로 위험한

529) 충청남도.

530) 한나라 때 지금의 베트남북부 퉁킹·하노이 지방에 둔 행정구역.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고집이 세고 사리에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중국은 (여전히-역자) 쾌락을 즐기며 코를 골면서도 근거 없는 자기존대에 빠져 있었다. 이것이 일청전쟁 직전의 중국의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세계는 과연 백인종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아시아는 점점 백인종의 식민지가 되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신음만 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늘도 뜻한 바가 있어 전 동아시아의 참상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동아평화의 중대한 사명을 일본제국에 부여한 것이다. 일본이 없으면 동양도 없다. 만약 일본제국이 없었다면 동양은 즉시 전멸해버렸을 것이다. 일본제국에 의지하여 동양을 전멸시키지 않겠다는 하늘의 뜻을 짐작하면서도 이 천의(天意)로 말미암아 일본의 사명이 더욱 더 중대함을 깨닫고 있다.

일본제국은 도의(道義)를 토대로 세워진 나라답게 최초의 이상이 다른 권력국가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 정신 아래 군민이 일체가 되어 위로는 만세일계(萬世一系), 만방무류(萬邦無類)의 존엄을 지닌 국체를 받들고, 아래로는 억조일심(億兆一心), 충효도의로 결정(結晶)된 특수한 국민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역자) 건국 2600년의 광휘로운 역사는 세계를 지도할 국가로서의 자격이 충분함을 (말해주고 있으며-역자), 더욱이 메이지 유신 이래 동서양문명의 장점을 종합하고 융화하여 옥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로 발흥(勃興)하고 있는 실력은 동아맹주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게 만들고 있다. 꺾여서 스러져가는 동양의 일각에 그와 같은 위대한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의의는 국가자체를 보존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천(皇天)의 특별한 보살핌과 도우미라 동아평화의 주인공으로서 짊어진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메이지대제께서는 팔굉일우의 건국조서(詔書)를 봉체(奉體)하고 황천이 부여한 사명을 존중해 친인선린(親仁善隣)과 구재휼환(救災恤患)의 동양의 도의를 염려하며 영원한 국시(國是)를 정하시니 (이로써-역자) 동양평화의 대정신이 확립되게 된 것이다. 이 대정신이 최초로 발동된 것은 일청전쟁이다. 일청전쟁이 끝나자 요동 반도에 대한 독일 러시아 프랑스 삼국의 악랄한 간섭이 화근이 되어 특히 러시아의 동방침략이 노골화되자 두 번째로 발동되어 일러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대정신은 확고부동한 것이어서 어떤 희생과 난국이 닥쳐도 이것을 준수고려(逡巡顧慮)할 여지는 없다. 그 후 일어난 청도사건도 이 정신이 발동한 것이며, 특히 만주사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와 맞서 혼자 힘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용기와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열강(列強)의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가 더욱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종하고 농락하는 배후의 흑막이 점점 미묘해지고 더 간사해졌다. 하지만 고집이 세고 사리에 어두운 장(蔣)정권의 용공항일(容共抗日)정책과 적화공산(赤化共產)의 친소주의는 동양의 영원한 화근을 양성하며 멸망의 비운을 초래했다. 만약 이를 방임한다면 중국의 사백 개 주는 적화의 소굴이 되고 영미의 책원지(策源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동양평화주의와 동양인을 동양인으로 (존재하게 만드는-역자) 이상은 영원히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다섯 번째로 대정신이 발동하였는데 이것이 곧 지나사변이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에 울린 포화소리는 지나사변을 야기하고 처음으로 불확대방침이 뜻한 바대로 지켜지지 않아 결국 전 중국으로 파급되어 지나사변을 치르게 된 것이다. 전쟁의 진전에 대해서는 모두 주지하시는 바대로 북부로부터 중부, 남부로 확대되었고, 황군은 육·해·공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며 중국 사백주에 국위를 선양하고, 전쟁 이래 3개월 이내에 북부에 있는 다섯 개의 성을

점거하였으며, 계속해서 상해합락, 남경합락, 무한삼진합락 그 외 사면팔방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실로 질풍노도의 기세로 전진하여, 이 개월 내에 점령지역의 면적이 제국 전 영토의 2배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장 정권은 사천성<sup>531)</sup> 한구석에서 이제 막 끊어지려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중국인에게 진정한 화평구국(和平救國)운동도 차츰 힘을 얻고 있으니 전쟁의 대세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제 3국 등이 배후에서 계속 책동을 하고 있어서 장 정권일파가 어리석은 행동을 철저하게 각성하지 않은 이상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결심을 더 견고히 해야만 한다.

지나사변은 결코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최초에 고노에(近衛)내각이 발표한 성명서대로 중국과의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침략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동양평화를 국시로 한 동양인의 동양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제국의 입장에서 동종동문(同種同文)으로 서로 가깝게 지내야 하는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정말이지 형제가 다투는 불상사로 결코 본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 다름 아닌 영미의 마수에 걸린 중국인으로 중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작자들, 즉 소련 귀신이다. 그들은 동양의 도덕을 파괴해 중국 전체를 악화시키려고 한다. 환언하면, 영미의존적인 국민당일파와 소련의 충견인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진정한 의미로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황색인종 대 백인종의 전쟁이며 동양인 대 서양인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사변은 실로 건곤일척의 성업인 동시에 동양인의 흥망과 사활이 걸려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한다. 때문에 지나사변의 목적은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에 있으며,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역자) 과거의 모든 불합리하고 인공적인 것을 타파하여 장래에 평화와 행복을 초래할 질서정연한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이것이 소위 동아신질서 건설의 표어가 만들어진 이유로, 이 간단한 일곱 자 안에는 일억 국민이 혈성(血誠)을 다해 전 동양을 위해 공헌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이상이 내포되어 있다.

고래의 역사는 전쟁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동서고금을 통해 전쟁은 무수히 많았으나 대부분이 영토적 야심에서 비롯된 침략전과 무력적 시위를 벌인 쟁패전이 곧 전쟁의 원인이었다. 이번 지나사변처럼 동아 전 국민을 위한 신성하고 정의로운 전쟁은 고금의 역사에 그 예가 드물다. 즉, 영토적 침략전은 공성약지(攻城略地)로 영토를 취하면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무력적 쟁패전은 전승국으로서의 호기를 과시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전쟁은 단순히 이기기만 하면 싸움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지만, 신질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지나사변에 있어서 승리는 그저 기초공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나중의 건설사업은 막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미래의 문제는 물론, 전쟁당시에도 건설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황군은 두 세배의 수고를 더 해야 한다. 일례로, 장개석은 집토항전(集土抗戰)이라 하며 전패지에서 고대의 문화 및 유적 그 외 제반시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전부 파괴해 버렸지만, 황군은 입성할 때마다 재와 먼지를 청소하고 파괴된 것을 정돈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한다. 그리고 황하의 제방이 갈라져서 수백만의 무고한 민중이 수몰당할 처지에 놓이자 황군은 전투를 중지하고 제방공사에 착수했는데 이처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지나사변은 실로 동양의 옛 세력을 타파하고 신질서를 건설해야 하는 중대한 의의가 있는

531) 원문에는 촉중일우(蜀中一隅)로 '촉'은 사천성(四川省)의 약칭이다.

성전이자 정의로운 전쟁이다. 즉 동아가 오랜 백인종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 일만지(日滿支)를 중심으로 동양인의 동양을 건설하여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 근본정신이다. 이것이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제국이 국시로 삼고 있는 확고부동한 대정신으로, 이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앞으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각오해두어야만 한다. 이것이 매일 소리높이 외치는 비상시국이란 것으로, 이 비상(非常)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동양이 있어야 일본이 존재한다고 하겠지만, 비상시에는 일본이 있어야만 동양이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국민이 먼저고 그 다음이 국가이지만, 비상시에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고 해석해야만 한다. 이것이 비상이라는 두 글자의 해석이다. 결국 일본을 중심으로 비로소 동아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니 전 국민이 국가에 총력을 바쳐서 국가의 대정신을 달성시켜야만 한다. 또한 오늘날의 전쟁은 국가의 총력전이기에 때문에 무력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전, 사상전도 모두 전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 일선에 있는 장병만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총후에 있는 국민 모두가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조야상하(朝野上下),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국민인 이상은 모두 전쟁에 참가한 일원으로서 분투노력을 해야만 한다. 모당(廟堂)에서는 승리를 점치고 있으며, 황군은 총용무비한 전투력으로 백전백승을 올리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 총후국민의 비상한 결심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관건이다. 지난 세계대전 때 5년 동안 독일군대에게는 적이 없었지만 독일국민의 경제결핍과 사상혼란 때문에 결국 대실패를 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총후국민은 특히 경계해야만 한다. 우리는 물심양면에서 긴장하는 태도로 견인지구(堅忍持久), 내고단련(耐苦鍛鍊)하고, 노동절검(勞動節儉)의 정신과 실질강건(實質剛健)의 기풍을 양성하여 사상전과 경제전에 대한 대응책을 깊이 연구하고,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궁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는 제 일선 장병의 노고를 생각하고 물자가 부족하거나 생활이 곤란해 불평이 나오면 무엇보다도 황군은 생명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자신도 총력전에 가담한 일원으로서 그 정도의 고난과 곤란을 겪으며 어떻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실질강건의 기풍과 노동절검의 정신이 시난(時難)을 극복할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만약 이와 반대로 안일나태의 사상과 사치향락의 기풍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것은 곧 총후국민으로서 정말 비인도적이고 비국민적인 동시에 총력전에 있어서 실패자이며 낙오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이 같은 국민이 있다면 성전의 대목적의 달성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시국을 맞이하여 안으로는 국민정신을 공고히 하여 단결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동아의 영구평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신적 연계를 찾는다면, 동양고유의 정신문화 신운동을 일으켜 국민에게 충효도의의 신념을 함양시켜 도의에 살고 도의에 죽을 각오를 다지게 하고, 나아가 이것을 확대해 만지(滿支)의 모든 민족에게도 공통적 신념을 발휘하여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고 이해와 감정을 탈피하여 대동태평(大同太平)의 이상세계로 휴수동귀(携手同歸)하겠다는 큰 각오와 결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번 유도연합회 결성의 가장 큰 의의로써 본회의 사명이 실로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유도의 정신에 대해 말해보겠다.



## 2. 유도의 정신

유도의 정신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개론적인 것을 말하겠다. 사람은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형형한 일점영대(一點靈臺)에 존재하는 것도 나이고, 앙앙(昂昂)한 칠척구곡(七尺軀殼)을 형성하는 것도 나이다. 전자는 정신의 나라고 하며 후자는 육신의 나라고 한다. 양쪽 모두 나에 속한 것인 이상 이것을 선양(善養)하고 조화시켜서 원만하게 발달시켜야만 한다.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이 둘을 합치해야만 비로소 일신의 행복을 다스릴 수 있다. 범위를 확장해 보면, 사회의 원리를 고찰하는 것도 역시 이 이치와 같다. 일신(一身)을 소아(小我)라고 한다면 사회는 대아(大我)이다. 소아의 원리가 그러하다면 대아의 원리도 그러하다. 이렇게 인간생활의 양식에도 당연히 양면의 생활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생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질생활이다. 정신생활에는 도덕이 필요하며, 물질생활에는 경제가 필요하다. 이 도덕과 경제를 합일조화(合一調和)해 원만하게 발달시켜야만 개인과 사회를 불문하고 건전한 발달과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양자를 원만히 조화시키려면 반드시 주종(主從)본래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해야만 한다. 이 역시 인신(人身)의 원리에 기초해 무형의 정신이 유형의 육체를 지배하는 원리에 합치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도덕을 주로 삼고 경제를 종으로 한 사회야말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무형의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한시하기 쉽고 잊기도 쉬우며, 유형의 것은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집착하기 쉬워서 욕구도 강렬해진다. 특히 서양의 물질문명을 수입하고 나서부터 물질편중의 폐해가 극에 달해 사람들의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앞에 정신도덕이 근본부터 파괴되어 극단의 개인이기주의가 전 세계에 범람해 물질이 중해지고 사람은 가벼워져서,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사람을 사역시키는 역전된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사람들은 금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심하게는 금전에 순절(殉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렇게 돈 앞에는 예의도 염치도 인정도 도리도 그 무엇도 없다. 입을 열면 돈타령이고, 학문이든 관직이든 모두 돈을 욕구하는 방편과 수단에 불과하며, 성심실의(誠心實意)도 시정모리배의 그것과 똑같다. 이처럼 물질만능주의에서 가장 고귀한 (행위-역자)는 오직 돈을 쫓는 것으로, (필연적으로-역자) 돈을 소유한 자는 저급한 향락주의에 빠져 사치와 방종과 안일을 능사(能事)로 삼는다. 돈이 없는 자는 사기나 횡령을 마구 저지르고 심한 자는 사회투쟁과 공산적화운동까지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구주대전란 이후에 더욱 격렬한 변화를 초래한 사회현상이었다. 그 근방의 중국이 그러하다. 중국은 사천년의 문화를 자랑하는 공맹 유교도덕의 본원지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민국이 성립된 이래 약 삼십년간 서구 물질주의에 현혹되어 심하게 중독되었다. 중국만큼 동양의 도덕이 극단적으로 심하게 파괴된 곳은 없을 것이다. '한가(漢家)사백년의 근본은 태녕사공자(太牢祀孔子)에 있다'는 역사를 무시하고 중화민국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공자를 축원하는 전례(典禮)를 철폐하고, '예의수치(禮義羞恥)이것을 사유(四維)라 한다. 사유가 없어지면 나라는 곧 망한다'고 한 관자(管子)의 말과는 정반대로 예의수치를 운위(云爲)했기 때문에 동양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며, 민국십년에는 상해 대도시에서 백주에 여자 이백 명을 나체로 행렬하게 해 수치심을 파괴하는 운동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도덕정신과 예의수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유물주의를 고취하여 결국은 공산적화주의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지나사변을 자초한 주요원인이라 할 것이다.

다행히 흥아유신(興亞維新)의 성업인 동아신질서건설 운동이 우리 동양인에게 새로운 생명과 활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동양 고유의 정신문화의 근원인 유교도덕을 부흥하였으니, 이로써 서양물질주의에 증독된 이 사회를 구제하는 일도 또 다른 신건설 사업의 중요한 항목임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 반도는 종래 유교를 신봉해 온 관계상 풍속습관이 모두 유교문화로 함양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있고 (그만큼 뿌리가-역자) 깊고 튼튼해 없애기 힘들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말엽에 이르러 많은 폐해를 낳은 것은 사실이나 미풍양속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하물며 유교본래의 정신에는 원래부터 결점이 없으니, 지금 과거의 악습을 혁신해 본래의 진면목을 발휘하여 충후국민의 봉공으로서 흥아유신의 성업을 조성(助成)해야 한다. 이번엔 전 조선의 관민협력 하에 본연합회를 조성(組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도(儒道)의 본령은 아까 대제학각하께서 고사(告辭)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다. 유도는 기본적으로 충효를 바탕으로 오륜의 도를 정하고 인의를 대강(大綱)으로서 오상(五常)의 덕을 구비하여 작계는 일신일가를 다스리고 크게는 국가천하를 치평(治平)하는 것이니, 사람이 매일 닦아야 할 필수적인 대도(大道)이며 만고불변의 상전(常典)이다. 이 참된 정신은 교육칙어에 소시(昭示)<sup>532</sup>해주신 국민도덕의 표준으로, 유도의 중요한 왕도사상은 제국고유의 황도정신을 선양하는 데 적절한 설명서로, 특히 오늘날의 동아신질서건설 사업은 공부자(孔夫子)의 대통일주의(大統一主義)와 대동태평(大同太平)의 이상을 현시대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유도의 정신을 논하고 있으니 공부자의 도에서 가장 중요한 인(仁)이라는 한 글자를 설명하고자 한다. 논어에서 58장이나 되는 많은 부분에 걸쳐 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문(孔門)에게 있어서 얼마나 인이라는 게 중요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무릇 인은 중덕(衆德)의 종(宗)으로써 만선(萬善)의 근원이다. 유가에서 가장 중요한 오상(五常-인의예지신)의 덕도 사실 인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송(宋)의 정명도선생 식인편(識仁篇)에도 ‘학자는 모름지기 먼저 인을 알아야 하며,’-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의 도는 극히 광대하고 심원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잡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유도(儒道)의 참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의 도를 연구해야만 한다.

(1) 인의 글자의 뜻, 인의 자체(字體)는 사람(人)과 이(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육서(六書)중 회의(會意)에 속하는 것으로, 사람 인 변에 두 개의 선(線)을 붙였다. 한 선은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한 선은 타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기의 선은 자기의 일신에 멈추지만, 타인의 선은 자기 이외, 지금 시점에서 말하자면 전 인류 20억의 인구가 모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인류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사람과의 교섭이 필요하며, 따라서 자기와 타인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 인(仁)의 도는 사람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愛人知己, 推己及人) 인의 정의이다. 애인지기는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 즉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는 곧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추기급인(推己及人)은 덕목(德目)에서 용서(恕)를 칭하는 것으

532) 밝게 빛내서 보여준다.

로 용서는 양 방면에서 표현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즉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타인에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부분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타인에게 베푸는 적극적 부분이 이것이다. 논어에도 ‘己所不欲勿施於人’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己欲立而人己欲達而達人’로 적극적 용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자기의 마음으로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다. 또한 인을 구(求)하는 방법 역시 타인과 자기와의 관계를 탐구해야만 얻어진다. ‘樊遲問仁子曰愛人’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인류애를 떠나 인은 존재할 수 없으며, 또 ‘顏淵問仁子曰克己復禮爲仁’라며 나의 사욕(私慾)을 극복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道)인 까닭이다.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안으로는 자기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인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셈이다. 요컨대 ‘愛人知己, 推己及人’의 충서(忠恕)의 길(道)과, ‘內而克己外而愛人’ 하는 구인(求仁)의 방법은 인의 글자 형태를 완미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상상이 되는 것이다.

(2) 인의 해설, 예로부터 인에 대한 해설은 아주 많았다. 장주(莊周)는 ‘愛人利物之謂仁’이라 하고, 정현(鄭玄)은 인을 ‘愛人以及物’로 칭했으며, 한퇴지(韓退之)는 ‘博愛之謂仁’으로, 주렴계(周濂溪)선생은 ‘德愛曰仁’이라 했으며, 정명도(程明道)는 규모를 좀 더 확장하여 ‘天地萬物一禮之仁’이라 칭했고, 주자(朱子)는 ‘心之德愛之理’라 했다. 또 인은 ‘天地生物之心而人得以爲心者也’로 불렸다. 이처럼 많은 해설이 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인류애를 본위로 삼고 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인은 중덕(衆德)의 근본이다. 때문에 여러 가지의 덕목은 곧 이로 인해 생겨난다. 지(知)라는 것은 이 인의 도를 아는 것이다. 의(義)는 인을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이며, 예(禮)는 인에 절문(節文)과 도수(度數)를 더하는 것이다. 신(信)은 인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인애(仁愛)가 발동(發動)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갖는다. 이 인애의 마음이 부모에게 표현되는 것을 효(孝)라 하며, 형과 장자(長者)에게는 아우(弟)이며(), 군국(君國)에 대해서는 충(忠), 부부는 화(和), 친구는 (信), 이처럼 많은 덕목이 전부 인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3) 인의 비유(譬喻), 인의 용어의 유래에서 기인한 가장 적절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인도(人道)가 인류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입증하려는 것이다.

#### ① 인은 인류사회의 혈액과 신경

의서(醫書)에서는 수족마비를 불인(不仁)이라 한다. 정자(程子)는 이 말이 가장 적절하게 이름을 형상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이것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사람의 몸 안에는 혈액이 충만하고 신경이 관통하는데, 이 기능이 건전한 자는 자기체내의 어딘가에 있는 말초세포의 극히 미세한 고통에도 뇌가 이를 즉시 감지하며, 또 뇌가 불안하면 곧 바로 전신이 불안해지는데 가령 발끝의 작은 가시라도 뇌가 고통을 느끼고 팔과 다리 모든 기관에 명령하며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머리카락이나 눈에 위해물질이 닿으면 수족 전체의 행동은 이것을 방어하고, 수족 일부를 희생해서라도 머리와 눈을 보호하려고 한다. 혈액과 신경이 건강한 체질은 당연히 이 같은 본능을 갖고 있다. 이와 반대로 혈액이 멎어서 신경이 마비되어 반신불수가 된 사람은 몸 안의 기가 서로 통하지 않아 통증을 서로 느끼지 못하는 즉 상호연락구호를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비불인(痿痺不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불인(不仁) 두 글자를 정말 잘 형용하지 않았는가. 인도(仁道)는 곧 인류사회의 혈액이며 신경이다. 인류가 서로 간에 자애적(慈愛的) 측은심이 그러저럭 통하여 통증과 가려움을 서로 느끼면 이 자애

측은의 본능을 발휘하여 공존공영의 길이 완전히 실행될 것이다. 만약 이 정신이 마비되어 불인에 빠지면 모든 병적상태가 발생한다.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비를 모르고, 자식은 효를 모르며, 부부는 반목하고, 형제는 투쟁을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위비불인(痿痺不仁)의 가정이다. 또 사회에서도 풍속이 퇴폐하고 인정이 냉박(冷薄)하여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질서가 없고, 친구 간에 믿음이 없고 개인이기주의에 빠져 공존공영의 길을 망각한다면 이것은 위비불인의 사회라고 할 밖에 없다. 특히 최근 외래사조의 험악성(險惡性)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사회환란주의와 사회투쟁주의를 선동하여 소작인 대 지주, 노동자 대 자본가 간의 유산 무산의 대응을 비롯해 이해관계를 초월한 교육기관까지도 동맹휴학을 일으키게 해서 소위 인민전선이라는 새로운 숙어를 만들어내고,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로까지 진전시켜서 인류 상호간의 인애의 본능을 철저히 파괴해버렸다. 이것은 확실히 위비불인의 정도를 넘어 각궁반장증(角弓反張症)이라 부를만한 위험시대라 할 수 있다. 정말이지 이러한 세도(世道)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② 인은 인류생명의 근핵(根核)

인은 원래 종자(種子)라는 글자로(字)(果實之効可種而生者謂之仁) 과실의 핵을 인이라 하는데 도인행인(桃仁杏仁)이 그 일례이다. 이 용어의 의의에 따라 이것을 유추해보면 성인이 이 인도(仁道)에 중심을 둔 까닭은 곧 인이 인류 생명의 근핵이기 때문이다. 인의 마음은 ‘天地好生之德’을 받아 태어난 인류, 천부(天賦)의 양성(良性)으로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즉 측은지심, 불인지심(不忍之心), 혹은 이것을 양심, 본심이라고도 하며 또는 양지양능(良知良能)이라고도 한다.

이 천부로 만들어진 인의 본능은 인류생존에 있어서 생명의 뿌리 혹은 핵이다. 만일 이 마음이 없다면 인류생존의 길은 바로 멸절해버릴 것이다. 때문에 ‘仁則生不仁則死’는 인류사회의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맹자가 이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맹자는 ‘천자(天子)가 불인(不仁)하면 사해(四海)를 지킬 수 없고, 제후(諸侯)가 불인하면 사직을 지킬 수 없다. 또 경대부(卿大夫)가 불인하면 종묘를 지킬 수 없고, 사서인(士庶人)이 불인하면 사체(四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어서 ‘죽는 걸 싫어하면서 불인을 즐기는 것은 취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는 사람 없고, 불인으로 죽는 자도 없다.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인이 인류생존원리의 근본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상술한 바대로, 인은 인류의 애기애타(愛己愛他)의 본능으로, 인류의 혈액과 신경이며 또한 인류생명의 근핵(根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의 정신이 완전히 발달되어 본래의 양심을 충분히 확충한다면, 사람은 인류애를 위해 서로 애를 쓸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인이 이 마음을 갖는다면 맹자가 말한 것처럼 우(禹)·직(稷)·윤윤(尹尹)의 책임감을 반드시 지니게 될 것이다. 하우 씨(夏禹氏)는 치수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천하에 익사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자신이 익사시킨 것이라 했으며, 후직은 권농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천하에 굶어죽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자신이 굶겨 죽인 것과 같다고 했고, 윤윤은 천하백성 중에 필부필부(匹夫匹婦)라도 요순(堯舜)의 혜택을 받은 자가 있다면 자신이 밀어서 구중(溝中)에 빠트린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인심(仁心)을 지닌 정치가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정명도의 말에는 ‘一命之士苟存心愛物於人心有所濟’ 이 있는데, 일명지사란 초임급의 하급관리로 아무리 하급관리라는 낮은 지위에 있어도 애인이물(愛人利物)에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급관리의 지위도 없는 보잘 것 없는 위치이고 다른 사람에

게 영향을 미칠 힘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당의 시인 두보가 서쪽으로 피난해 있을 때 거주하던 작은 초옥(草屋)이 폭풍우에 파괴된 일이 있었다. 원래 시인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시료(詩料)로써 '茅屋爲風雨所拔歎歌'라는 장단구(長短句)의 시를 지었다. 그 말구(末句)에서 '安得廣廈千萬間大庇天下寒士俱歡顏' '어떻게 하면 광하(廣廈)천만 칸을 얻어서 천하의 한토(寒士)를 다 깔고 앉아 더불어 환히 웃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서는 자기 자신이 풍우를 맞고 있으면서 어찌 타인을 우려할 여유가 있을까, 정말로 우환(迂闊)한 소견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자신의 고통으로 타인의 고통을 가늠하고 나아가 자신의 고통은 망각한 채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는 인인(仁人)의 행위로 귀중한 인류애의 본심이다. 즉 상하의 계급을 떠나 어떠한 의무이든 이 인애의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운 진리를 정각(正覺)하고 동시에 진정한 세계평화의 대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인학(仁學)이 없었던 탓에 이 인도(仁道)의 정신은 사람의 머리 속에서 거의 망각되어 과거의 성경현전(聖經賢傳)을 가현호송(家絃戶誦)하면서도 과학녹리(科學祿利)의 말폐(末弊)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계급당쟁의 악습이 사회와 국가를 그르치고 말았다. 특히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소위 경전까지도 속지고각(束之高閣)해버린 채 서구물질문명에 현혹되고, 개인이기주의는 인류애의 본심을 상실시키고 정반대인 사회투쟁주의까지 침입하여 인도(仁道)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 사상계를 혼란시키고 악화시키니, 실로 인인군자(仁人君子)가 심우영탄(深憂永歎)을 금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지금 동야신질서건설 하에 흥야유신의 성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니, 이 같은 호기를 맞이하여 종래에 잘못된 물질이기주의와 모든 외래사상을 철저히 청산하고, 동양고유의 도덕문화를 존중하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仁)의 정신을 연구해 여태껏 (해악을 끼쳐온) 물질중독에 해독제를 투여하고 일반사회의 공통의 자양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 정신으로 내선일체를 철저히 실현하여 일시동인 아래, 혹은 우월감이나 시기심 같은 장벽들을 철거해, 진정으로 동포형제가 되어 일심동체의 미과(美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정신으로 동야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고, 일·만·지 제 민족의 공동유기체를 조직하여 천하일가(天下一家)와 사해동포(四海同胞)의 이상 아래, 국경과 민족에 얽매인 편협주의를 철폐하고 이해(利害)와 감정으로 인한 모든 충돌을 해소하고 도덕예의를 도야해서 형제로 서로를 인식하여 너와 나를 따지지 않는 평화낙토와 지상천국을 동야의 신대지에 건설하여 공부자(孔夫子)의 이상인 대동태평의 세계를 완전히 실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팔굉일우의 대정신을 봉체(奉體)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제국특유의 황도(皇道) 대정신을 세계에 선양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유교자가 특히 각성해야만 하는 문제에 대해서이다. 우리 유교계의 과거를 검토해보면 말속(末俗)의 폐습이 심각하여, 형식에 얽매어 정신을 유기하고 공론횡의(空論橫議)로 실천공행의 본질을 망각하고 완루고체(頑陋固滯)하여 현재의 대도(大道)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염세퇴영주의는 공부자의 지성노력주의와 상반되고 계급편협주의와 색목당쟁(色目黨爭)의 악습은 상술(上述)한 인의 정신을 완전히 몰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폐습은 우리 유도를 극단의 쇠음에 빠트렸으니 '滅六國者六國也非秦也'라는 논법처럼 유교는 우리 유교인 스스로 망쳐놓은 것이다. 진실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동

아신질서건설은 유도를 진흥시키는 데 있어서 천재일우의 호기이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폐습을 단호하게 혁신하여 진정한 유도의 면목을 전부 발휘해야만 한다. 특히 이 시국의 진정한 의의를 철저히 인식하여 홍아유신의 성업을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완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용왕매진해야만 한다.

오늘 여러분 지방의 유도연합회 결성을 기회로 사회의 일단을 피력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장시간 무사(燕辭)를 경청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철저한 활동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전 : 安寅植 「東亞ノ建設ト儒道ノ精神」, 『經學院雜誌』 제45호, 1940년 12월 25일, 26~41쪽〉

## 7) 이경식(李敬植)

### (1) 징병제 실시를 맞이하며

경학원 사성

작년 5월 8일 각의(閣議)에서 드디어 반도의 이천 사백만 민중이 고대하던 징병제를 1944년부터 반도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에 참으로 황송하고 감격스러울 뿐이며, 내선일체 황국신민화가 이것으로 더 새로운 단계로 비약적으로 진전했다는 의미이니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도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 존엄한 국체의 연원(淵源)으로, 군신일체, 국민개병, 즉 천황은 대원사(大元帥)로서 육해군을 친히 통솔하시고 신민은 부름을 받아 대군(大君)의 팔과 다리가 되는 것이니, 병역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황국신민의 자격을 얻는 국민최대의 영예이자 의무인 것이다.

이렇게 이 영예로운 징병제도가 드디어 반도에 실시되게 된 이유는, 결국은 시정(施政)이래 삼십여 년 동안 역대총독이, 일시동인의 성지를 잘 받들어 반도동포를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을 통치의 목표로 정하고, 내선일체를 그 근본이념으로 삼아 모든 시정을 이 대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신 결과이다. 동시에 반도의 동포가 그 통치정신을 충분히 이해하여 해가 다르게 내선일체를 심화하는데 박차를 가해왔고, 그리고 만주사변에 이어 발발한 지나사변 혹은 대동아전쟁 등에서 현저하게 발휘된 (반도동포의) 애국지성이 내외에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징병제 실시는 단지 반도에 있는 이천 사백만 민중만의 경사가 아니라, (이들) 국가백년의 대계로 삼으니 정말로 모두 함께 경축할 일이다.

반도청년층의 애국열은 1938년부터 실시된 지원병의 성적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들 중에는 이미 영광스런 제 일선에서 폐하의 총량한 고굉(股肱)으로서 멸사봉공의 충성을 바치며 호국(護國)의 꽃으로 뿌려져 야스쿠니(靖國)의 신으로 추앙받는 자도 있다. 그리고 확실히 요 수년간 반도 민중의 애국열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데 지원병의 채용자수가 지원자의 수에 비해 너무 적어서 희망을 달성하는 자는 실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때에 반도에 징병제가 실시되니 시국상황으로 보나 반도의 현 정세로 보나 정말로 시기적절한 시책으로 우리는 무척 영광스러워하며 만족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의 이 기쁨을 맞이하며 깊이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주어진 2년의 준비기간 동안 반도의 청년을 내지의 청년과 비교해 조금의 손색이 없도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성하여 자질을 향상시켜서 부름에 응하는 날 어떠한 유감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공하옵게도 군인에게 하사하신 칙유(勅諭)에서

- 군인은 충절을 다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 군인은 예의를 바르게 해야 한다.
- 군인은 무용(武勇)을 향상해야 한다.
- 군인은 신의(信義)를 중히 여겨야 한다.
- 군인은 검소해야 한다.

고 하셨는데, 장래 국가의 방패와 성이 되고자 하는 청년은 물론 자녀를 교육하는 학부모도, 이 칙어의 취지를 받들어 군인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확고한 정신으로 수양하고 연성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의 보급강화, 문맹퇴치, 체력연성, 지조함양, 책임관념 양양 등 수 많은 시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한다. (특히) 일반민중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반도 유림층의 책임도 막중하니 제국의 사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파악하여 민중을 지도하고, 대동아계획에 협력, 매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출전 : 李敬植(經學院 司成), 「徵兵制の實施に當りて」, 『經學院雜誌』 제47호, 1943년 1월 25일, 24~26쪽)

## (2) 반도학도에 대한 육군특별지원병제 실시에 관하여

경학원 사성

이번 시국의 정세에 따라 학도의 징집을 연기하는 은전(恩典)이 철폐되었다. 이는 결국 최근의 시국이 긴박해짐에 따라 필승의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군의 입장에서 황군(皇軍)의 간부요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학도들의 진충보국하고자 하는 열의에 부응해 가장 자질이 우수하고 교양이 높은 학도들을 지금의 결전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 해서 황군의 결전완수의 힘을 더욱 강화하고 필승에 대한 확신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0월 20일 관계육군성령이 발표되어 반도인 학도도 내지인 학도와 마찬가지로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의 조선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런 청년시대를 초래한 것으로, 펜 대신 총을 쥐고 그 뜨거운 피와 교양과 체력 등 모든 것을 바쳐 국가가 위급한 때 부름을 받고 나가는 청년학도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바이다.

생각해보니,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이 실시되고부터 5년, 올해 8월에는 해군특별지원병제와 징병제가 실시되고, 이번에 또 대학전문학교의 학도로 적령기가 지난 사람 및 올해 9월 졸업하고 교문을

나서는 사람에게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 올해같이 반도청년에게 여러 가지 영광이 부여된 해는 없는 듯 하다. 이번 제도로 적격자가 된 00명의 환희와 자부심은 논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이전 오백만 반도동포의 기쁨도 그에 못지않다.

더욱이 이번 제도의 특색은 종래의 지원병처럼 육 개월의 훈련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곧 바로 입영해 현역으로 복무하며 나아가 간부후보생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으로, 제국의 병제상(兵制上) 돌도 없는 성사(盛事)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병제사상(史上) 획기적이고도 은정(恩情)이 담긴 새로운 제도이다.

청년학도 특히 그중에서도 대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하여 교양과 수련의 공을 쌓은 자에 대한 국가의 기대가 지금처럼 높은 적은 없었으며, 국가에서 내일의 졸업보다는 오늘의 동원을 기대하며 요청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 국가의 절대적 요망에 부응함과 동시에 후세의 사가(史家)가 그 충성을 대서특필할 만큼 학도병으로서 널리 이름을 드높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11월 11일)

〈출전 : 李敬植(經學院 司成), 「半島學徒に對する 陸軍特別志願兵制の實施に就て」, 『經學院雜誌』 제48호, 1943년 4월, 36~40쪽〉

## 8) 이대영(李大榮)

### (1) 유자(儒者)의 지위와 의무

오늘 강연할 바의 일은 교화(教化)에 있어서의 대사업(大事業)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인 곳은 한 고을의 수선지(首善地)<sup>533</sup>입니다. 저와 같이 누추하고 천박한 몸이 외람되이 말석을 차지하게 되었는바, 무슨 말을 하여서 여러 군자들께서 한 번 들어주시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림의 대가들께서 모두 모인 자리에 나와 있으니만큼, 유자의 지위와 의무에 대해 대략이나마 저의 보잘것없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참람 되고 망령됨을 용서하신다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유자(儒者)는 바로 학자(學者)의 칭호입니다. 『주례(周禮)』를 보면, 태재(太宰)의 직 가운데 네 번째에 이르기를, “유는 도로써 백성들을 얻는다.(儒以道得民)”라고 했는데, 그 주에 이르기를, “육예(六藝)가 있어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이다.” 하였습니다. 본디 유자라는 칭호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개 문학(文學)의 도로써 능히 백성들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게 하는 자라야만 비로소 유(儒)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공부자(孔夫子)께서는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성인으로서 못 유학자들의 설을 모아 집대성(集大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있어온 이래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룬 성대함이 공부자와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공부자의 법을 외우면서 흠모하여 본받지 않는 사람이

533) 수선지(首善地) : 교화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흔히 성균관(成均館)을 말한다. 여기서는 유학이 성행하는 영남(嶺南) 지방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었다. 『한서(漢書)』 「유림전(儒林傳)」에 이르기를, “교화를 행할 때 수선(首善)을 서울에 세워야 된다.”고 하였는데, 수선은 교화의 근원을 말한다.



없었습니다. 이에 드디어 공부자의 가르침으로 유교(儒敎)로 되었습니다.

명(明)나라의 유학자인 송금화(宋金華)의 칠유변(七儒辨)에 이르기를, “음양(陰陽)의 조화를 갖추고 귀신(鬼神)의 은미함을 간직하여,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되고 행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되면, 그런 사람을 일러 도덕(道德)의 유(儒)라고 하는데, 공자가 바로 그런 분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삼황(三皇)<sup>534</sup>은 유자로서 황(皇)이 되었으며, 오제(五帝)<sup>535</sup>는 유자로서 제(帝)가 되었으며, 삼왕(三王)<sup>536</sup>은 유자로서 왕(王)이 되었으며, 고요(皐陶)·기(夔)·이윤(伊尹)·부열(傅說)·주공(周公)·소공(召公)은 유자로서 신하가 되었으며, 공자(孔子)는 유자로서 스승이 되었다. 그 도는 일찍이 같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공자보다 더 성대한 분은 없었다.” 하였습니다.

무릇 유자의 관을 쓰고 유자의 옷을 입고서 공자의 학문을 배운 자는, 학문의 순수하고 박잡함이 어떠한가를 막론하고, 그 지위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범(師範)이고, 그 의무로 말하면 교화(敎化)의 선구(先驅)입니다. 산골짜기로 물러나 글이나 읽고 있는 군자로부터 향당(鄉黨)에서 자신을 닮는 선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한 마디 말이라도 착하게 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고계(告戒)하면서 전하기를, “아무개께서 이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하고, 참으로 한 가지 일이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시끄럽게 떠들어 대면서 서로 간에 고하여 말하기를, “아무개께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 짓을 하였으니, 우리들과 같은 자들이야 어찌 책하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번 움직이고 한번 멈춤에 백성들이 그에 따라 선과 악의 경계로 삼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참으로 깊이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방은 신라(新羅)나 고려(高麗) 시대 이후로 유교를 떠받들어오면서 전시대의 뛰어난 분을 이어받고 후세 사람들을 열어주어, 문화의 운세를 점차적으로 쌓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성무(聖廡)에 오를 만한 18인의 현인들이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배출되는 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원(一元)<sup>537</sup>의 문명이 그 도수(度數)의 극에 달하게 되었다고 이를 만하며, 그를 인하여 유림계(儒林界)에도 역시 각 세대마다 인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유(眞儒)나 홍유(鴻儒)에서부터 문사(文辭)나 장구(章句)를 일삼는 유자에 이르기까지가 비유하자면 마치 황하(黃河)의 물을 마시면서 각자의 양에 따라 맘껏 마시는 것<sup>538</sup>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조예와 성취에 있어서는 비록 크고 작거나 깊고 얕거나 한 것이 같지 않은 차이가 없지는 않았지만, 요컨대 다른 사람의 사표(師表)가 되어서 말세의 세상에 풍속을 도맡게 하는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세상이 됨에 이르러서는, 선비라고 이름을 하는 자들이 혹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실

534) 삼황(三皇) : 고대 중국의 전설상에 나오는 세 황제로, 일반적으로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를 가리킨다.

535) 오제(五帝) : 옛날 중국의 상고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다섯 제왕을 가리키는데, 그 설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략 황제(黃帝), 전욱(顓頊), 제곡(帝嚳), 요(堯), 순(舜)을 가리킨다.

536) 삼왕(三王) : 삼대 시대의 성왕으로, 하(夏)의 우왕(禹王), 은(殷)의 탕왕(湯王), 주(周)의 무왕(武王)을 가리킨다.

537) 일원(一元) : 사물의 시초나 만물의 큰 근본을 말한다.

538) 황하(黃河)의……것 : 학문을 배우는 자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마음껏 배웠다는 뜻이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이르기를, “뱀새는 깊은 숲 속에 동지를 튼다 해도 한 개의 나뭇가지를 사용할 따름이며, 두더지는 황하수의 물을 마신다 해도 배를 채우는 데 지나지 않는 법이다.” 하였다.

제로 터득한 것이 없어서 예의(禮義)를 멸시하면서 깔아뭉개고, 혹 행실이 도리에 어긋나서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를 야기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교는 부패하였다.'는 기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현재 세대의 등급이 낮아져서 말세의 풍속이 부박해 진 탓에 이륜(彝倫)과 도덕(道德)이 점차 없어지게 되었으며, 미풍(美風)과 양속(良俗)이 그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 어느 사이에 금수(禽獸)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이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바,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탄식하는 것이 기(杞)나라 사람이나 칠실(漆室)의 부인이 걱정하는 것<sup>539)</sup>과 같은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 모든 유자로서 자처하는 자들이 태연스럽게 강 건너 불을 보듯이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이끌어줄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유자의 지위에 있어서 어떻겠으며, 유자의 의무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부자 형제가 족히 법 받을 수 있는 다음에야 백성들이 법 받는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한 집안이 인(仁)하면 온 나라가 인에 흥기한다.” 하였습니다.<sup>540)</sup> 백성들을 이끄는 방도가 어찌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사방에 푯대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인 것입니다.

성인의 도는 윤리를 밝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등을 돌려서 윤리를 밝게 알지 못할 것이 걱정된다면,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우애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도를 극진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도는 인의(仁義)일 뿐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도를 반대로 하여 덕을 어그러뜨릴까 걱정된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끼어서 먼저 세상에 임하는 도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성(老成)한 분들이 고집스럽고 딱 막혀서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이 걱정된다면, 나에게 있는 시중(時中)의 도를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진(新進)의 사람들이 학업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피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나에게 있는 자식을 가르치는 방도를 다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오직 자신에게 있는 도를 다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바람이나 메아리보다도 더 빠른 법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을 닦아서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소견이 서로 배치되어, 세도를 걱정하는 것이 심상한 정도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학가(舊學家)들이 완고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가(新學家)들이 거짓되어서입니다.

구학가들은 신학을 배척하면서 말하기를, “성현들의 책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성현의 말씀을 외우면서 법 받은 다음에야,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 저 기하학(幾何學)이나 기술학(技術學)이나 어문학(語文學)이나 산수학(算數學) 따위가 어찌 세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겠는가. 우계(虞階)에서 추는 간우(干羽)의 춤<sup>541)</sup>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539) 기(杞)나라……것 : 쓸데없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게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열자』 천서(天瑞)에 이르기를, “기(杞)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하늘과 땅이 무너지면 몸을 피해 갈 곳이 없음을 걱정하여 침식(寢食)을 잊었다.” 하였다. 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열녀전(烈女傳)』 「칠실녀(漆室女)」에 이르기를, “노 목공(魯穆公) 때 임금은 높고 태자는 어려서 국사가 몹시 위태로웠는데, 칠실이라는 고을에 사는 어떤 나이 어린 여자가 기둥에 기대어서 탄식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였다.” 하였다.

540) 전(傳)에……하였습니다 : 전(傳)은 『대학(大學)』을 말하며, 이 인용문은 『대학』(전9장)에 나온다.

이에 반해 신학자들은 구학을 멸시하고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크게는 이학(理學)이나 화학(化學)에서 부터 작게는 기계학이나 기술학이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급선무가 되는 것이다. 저 인의(仁義)나 도덕(道德)의 설 따위는 도리어 문화를 진보시키는 데 해가 된다. 진(秦)나라에서 한 분서갱유(焚書坑儒)의 일<sup>542)</sup>이 머지않아서 다시 행해질 것이다.”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에 배척하기를 얼음과 숲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이 합니다. 사람들의 윤리가 이로 말미암아 밝혀지지 않고, 선비들을 추향이 이로 말미암아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찌면 이렇게도 심하게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만약 위(威儀)와 도덕(道德)을 숭상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과(教科) 가운데 수신(修身)이나 윤리(倫理) 따위의 학문을 어찌서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 기계학이나 기술학이나 어문학이나 산수학 따위는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성문(聖門)에 육예(六藝)나 사과(四科) 등의 과목이 어찌서 있단 말입니까? 요약해서 말한다면, 구학은 체(體)이고, 신학은 용(用)인 것입니다. 체와 용이 서로 보완해 주면서 아울러 행해져 어긋남이 없는 다음에야, 사야(史野)의 탄식<sup>543)</sup>이 없어서 나란하게 적적히 배합되어 아름다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몹시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지금은 뜻이 있으면서 도(道)를 걱정하는 선비들이 곳곳에서 분연히 일어나 경사(京師)의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와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에서부터 전라남도의 유도창명회(儒道彰明會), 관동(關東)의 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 평안남도의 유림회(儒林會) 각 각자 여기저기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도(斯道)를 창명(倡明)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학교를 설립하여 영재를 기르는 것을 첫 번째 부대사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역시 신학과 구학이 체(體)가 되고 용(用)이 되므로 어느 한 쪽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말미암아서 말을 하면, 오늘날의 걱정 가운데에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과 구학이 배치되는 것은 바로 근본이 되는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병폐를 고치면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문채도 있고 바탕도 있어 덕을 온전히 구비한 군자가 장차 어느 곳이나 있게 되어, 다른 사람의 의범(儀範)이 되어 나빠진 풍속을 경계시키고 가다듬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박(滯薄)한 것을 돌려서 순박하게 만들고, 어두운 것을 되돌려 밝게 만들 것이며, 그 나머지 퇴폐하게 되는 걱정 역시 그물눈을 쳐들면 그물눈이 펼쳐져 저절로 일정한 표준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유자들이 의무를 다하고 못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곳 교남(嶠南) 지방은 바로 우리 동방의 추로(鄒魯)의 지방입니다.<sup>544)</sup> 선현(先賢)들의 유풍(遺風)이

541) 우계(虞階)에서……춤 : 우계는 순(舜) 임금의 조정(朝廷)을 가리킨다. 간우는 고대에 춤추는 자들이 춤을 출 때 잡고 추는 도구로, 문무(文舞)를 출 때에는 우(羽)를 잡고, 무무(武舞)를 출 때에는 간(干)을 잡는다. 순 임금 때 유묘가 귀순하지 않자 우(禹)가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순 임금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간우를 잡고 춤을 추자, 유묘가 그 소문을 듣고 귀순해 왔다. 『韓非子』 五蠹

542) 진(秦)나라에서……일 : 모든 서책을 없애치우고 모든 유학자들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진시황 때 정치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서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게 한 분서갱유(焚書坑儒)사건이 있었다.

543) 사야(史野)의 탄식 : 사(史)는 겉치레만 잘하는 것을 말하고, 야(野)는 겉모습이 촌스러운 것을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질(質 본바탕)이 문(文 아름다운 외양)을 이기면 야(野)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사(史)하다. 문과 질이 적적히 배합된 뒤에야 군자답게 된다.” 하였다. 『論語』 雍也.

만대토록 없어지지 않았으며, 석덕(碩德)과 기구(耆舊)들이 일상생활 중에 강마한 것이 바로 성인(聖人)의 시중(時中)의 의리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해주는 방도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건대, 용렬하며 누추한 몸이니 어찌 감히 자질구레한 말을 떠들어 대어 어쭙잖은 말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상에서 말한 것은 바로 오늘날의 일반적인 걱정거리이지, 귀도(貴道)와 귀군(貴郡)에 실제로 이런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전 :李大榮, 「儒者之地位及義務」, 『經學院雜誌』 제26호, 1925년 12월 25일, 49~52쪽〉

## 9) 정만조(鄭萬朝)

### (1) 구학과 신학

본인은 형편없는 자질을 가진 몸으로 외람되어 제학(提學)의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학식이 없는데, 어찌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일 없이 반년이나 지났기에 단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만 붙어납니다. 그런데도 성묘(聖廟)에 가을 석전제(釋奠祭)를 지내는 날에 일을 돌보는 반열에 참여하였는바, 영광스러움이 극에 달합니다. 더구나 여러 진신(縉紳)들과 여러 유생(儒生)들께서 와서 제사를 도와 예모(禮貌)가 엄숙하여져 웅반(廡頓)<sup>545)</sup>의 기풍이 울연히 피어오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몹시도 성대한 거조입니다. 예를 마치고 서로 만나보게 되었으며, 감히 한 마디 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신학(新學)이니 구학(舊學)이니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문(斯文)의 크나큰 불행인 것입니다. 무릇 학교는 삼대(三代) 시대 때에는 다 똑 같았습니다. 삼대 시대 이후로 혹 거행되기도 하고 혹 폐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일에 이르러서는 그 제도가 조금 갖추어져, 장차 옛날의 정사를 다시 닦게 되었는데, 경학(經學)을 강(綱)으로 삼고 과학(科學)을 목(目)으로 삼으며, 경학을 뿌리고 삼고 과학을 가지로 삼아, 강(綱)을 쳐들면 목(目)이 펼쳐지고, 강을 배양하면 목이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서로 어긋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과학을 하는 자들은 경학을 가리켜 진부하다고 한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성현(聖賢)을 모욕하고 부형(父兄)을 모욕하는 자가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경학을 하는 자는 과학을 하는 자를 꾸짖으면서 사특함에 물들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자제들이 공부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합니다.

544) 이곳……입니다 : 교남(嶠南)은 영남 지방을 가리키고, 추로(鄒魯)는 노(魯)나라와 추(鄒)나라로, 노나라는 공자(孔子)가 교화를 편 나라이고, 추나라는 맹자(孟子)가 교화를 편 나라인바, 문풍(文風)이 강한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545) 웅반(廡頓) : 웅반(雍泮)과 같은 말로, 벽옹(辟雍)과 반수(泮水)를 뜻한다. 벽옹은 주대(周代)에 천자(天子)가 세운 태학(太學)을 말하며, 반수는 반궁(泮宮)과 같은 말로, 역시 태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成均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경(經)이라는 것은 바른 것으로, 단지 육경(六經)의 장구(章句)에 대한 학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의(仁義)와 도덕(道德),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이 모두 경학인 것입니다. 과(科)라는 것은 공문(孔門)의 사과(四科)<sup>546</sup>나 『주관(周官)』 사도(司徒)의 육행(六行)이나 육예(六藝)<sup>547</sup>와 같은 것이 모두 과학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혹 세세한 절목이나 자질구레한 규정이 서로 다른 것이 있어, 비록 삼대(三代) 시대 때 제도를 똑같이 했을 때라도 역시 더하거나 줄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개 각 시대의 마땅함에 따라 변통한 것으로, 그 본령이나 숭상하는 것이 다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급선무로 삼아야 할 것은, 신학과 구학을 서로 나누어 보는 생각을 타파하여, 다시는 이를 입으로 거론하지도 말고 붓으로 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학을 가지고 후진들을 장려하는 도구로 삼고, 과학을 가지고 선성(先聖)에 의귀하는 표적으로 삼아, 한가한 날에 이 당(堂)에서 자주 모여 서로서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하는 도움을 구하고, 이택(麗澤)<sup>548</sup>하는 유익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삼대 시대의 다스림을 만회할 수 있으며, 천하의 풍속을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우리 사문(斯文)에게 있어서 큰 다행일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무리들을 위하여 오늘 구구하게 축원 드리는 바입니다.

〈출전 : 鄭萬朝 「舊學及新學」, 『經學院雜誌』 제27호, 1926년 12월 25일, 68~69쪽〉

## 10) 정봉시(鄭鳳時)

### (1) 오늘날 우리의 급선무

본인이 본도<sup>549</sup>의 강사(講士)가 된 지 지금까지 1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문은 알고 덕은 박하며, 나이는 늙고 병은 많아서 강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순화하면서 강연하는 한 가지 일마저도 역시 해마다 한 번씩 두루 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처 돌지 못한 곳에서는 경학원(經學院)에 강사가 있는 줄도 모르며, 강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

546) 공문(孔門)의 사과(四科) : 공자(孔子) 문하(門下)의 네 가지 학과(學科)로, 덕행(德行), 언어(言語), 정사(政事), 문학(文學)을 말한다.

547) 주관(周官)……육예(六藝) : 사도(司徒)는 『주례(周禮)』 지관(地官)의 대사도(大司徒)를 말한 것으로, 그 직장(職掌)은 나라의 토지의 그림과 그 인민의 수효를 확정하여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대(周代)에는 교화를 맡은 대사도(大司徒)가 고을을 세 가지 일(三物), 즉 육덕(六德), 육행(六行), 육예(六藝)를 가르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자를 뽑아 나라에 천거하여 등용하게 하였다. 육덕은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이고, 육행은 효(孝)·우(友)·목(睦)·인(嫻)·임(任)·홀(恤)이고, 육예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이다.

548) 이택(麗澤) : 친구 간에 서로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학문을 강습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태괘(兌卦)에 이르기를, “두 못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이 태괘이니, 군자는 이것으로 봉우 간에 강습한다.(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희(朱熹)의 본의(本義)에 이르기를, “두 못이 서로 붙어 있어서 서로 간에 붙어나게 하는바, 봉우 간에 강습하는 것은 그 상(象)이 이와 같다.” 하였다.

549) 강원도.

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미 돈 곳이라 하더라도 헛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역시 강연한 것이 무슨 뜻을 말하였으며, 말한 것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반드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본 강사가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여러 군자들께서 이를 크게 용서해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지금 경학원의 명령 및 도청의 부탁과 군청의 소개를 받아서 여러 군자들과 더불어 한 자리에서 강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아주 큼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무리들이 가장 먼저 강명(講明)해야만 하는 것은 그 조목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륜(彝倫)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질서(秩序)를 따르는 것이고, 셋째는 사추(士趨)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민심(民心)을 정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학문(學問)을 권장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산업(產業)을 힘쓰는 것이고, 일곱째는 재용(財用)을 절약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법률(法律)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조목인 이륜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에는 오품(五品)<sup>550</sup>이 있습니다. 사람치고 어느 누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본 강사가 어찌 감히 “이륜의 도리를 능히 다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서로 간에 권면하는 것을 군자는 귀하게 여깁니다. 이 때문에 감히 한 마디 말을 애오라지 여러 분들께 진달해 올리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이 인륜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입는 옷감이나 먹는 곡식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갓옷을 입고 여름에는 갈옷을 입으며,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이 인지사정(人之常情)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생에 대해서만 잘 알고, 그 윤(倫)에 대해서는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옷을 입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배가 고프는데도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죽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윤리를 알지 못한다면 죽습니다. 죽는 것은 모두 똑 같습니다. 추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는데, 이때 죽는 것은 사람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윤리를 몰라서도 죽는데, 이렇게 죽는 것은 짐승으로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슬픔을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랑이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은, 부자(父子) 사이와 같습니다. 벌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개미가 자기의 집을 지키는 것은, 군신(君臣) 관계와 같습니다. 큰 물새가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는 것은 부부(夫婦)의 관계와 같습니다. 큰기러기와 기러기가 질서가 있는 것은 형제(兄弟)의 관계와 같습니다. 새가 우는 데 있어서 누구를 부르듯이 하는 것은 붕우(朋友)의 관계와 같습니다. 저 새나 짐승들조차도 오히려 윤리를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윤리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기성(箕聖)<sup>551</sup>께서 가르침을 펴시고 여러 현인들께서 학문을 열어 평소에 ‘예의의 나라’라고 불리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년에 들어와서는 교화가 점차 무너지고 풍속이

550 오품(五品) : 오륜(五倫), 오상(五常), 오전(五典)의 통칭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를 말한다.

551 기성(箕聖) : 기자(箕子)를 가리킨다. 기자는 은나라 주왕(紂王) 때의 현인으로, 이름은 서여(胥餘)이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멸하자, 기자는 동쪽으로 와서 조선왕(朝鮮王)이 되었으며, 조선 사람들에게 예의(禮義)와 전잠(田蠶) 등을 가르쳤으며, 팔조목(八條目)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한다.

점차 퇴폐 되어, 아버지이면서도 그 자식을 자식으로 대하지 않으며, 아들이면서도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부부 간에는 서로 이혼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형제간에는 서로 소송을 벌리는 것을 으레 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붕우 간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아아, 슬프습니다. 일찍이 추로(鄒魯)였던 나라가 어찌하여 금수(禽獸)의 나라로 되었던 말입니까? 물이면서 근원이 없으면 고갈되고, 나무이면서 뿌리가 없으면 말라죽습니다. 사람이면서 윤리가 없으면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들은 그것을 밝힐 도리를 강구하여서 무너진 것을 펴지게 하고 없어진 것을 보전하여,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답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다섯 가지의 떳떳한 본성을 다하여서 한 집안의 화기(和氣)를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어찌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조목인 질서를 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질서는, 새에게 있어서 날개가 있는 것과 같으며, 짐승에게 있어서 털이 있는 것과 같으며, 물고기에게 있어서 비늘이 있는 것과 같아서, 저절로 바꿀 수 없는 차례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혹 이와 반대로 되게 된다면, 모자와 신발을 거꾸로 착용하고, 손과 발을 엉뚱한 곳에 붙인 것과 같게 됩니다. 가생(賈生)<sup>552</sup>이 크게 걱정하고 탄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질서의 차별이 지나치게 엄하니, 의당 참작하는 도리가 있어야만 할 것인데, 일찍이 식견이 있는 자가 이에 대해서 논한 것이 있습니다. 근일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질서라는 두 글자가 비로 쓸어버린 듯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 젊은이를 능멸하고, 어른을 천시하며, 귀한 자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다반사로 보고 있으니, 탄식을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무리들은 질서를 순하게 할 방도를 강구하여 노소(老少)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그 예를 얻게 하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 그 분수에 편안하게 하여, 질서 정연하여 문란하지 않게 하기를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털이나 물고기를 비늘이 차례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어찌 하늘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에 있어서 크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조목인 사추(士趨)를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비는 원기(元氣)입니다. 원기가 바르지 않으면 백체(百體)가 병들게 되는바, 원기를 기르기를 감히 바른 것으로써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유현(儒賢)들을 예로써 대우하고, 선비들은 유교를 숭상하였습니다. 인심은 이로써 정하여졌고, 세도(世道)는 이로써 유지되었습니다. 집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두 가지 추향이 없어, 상하 대소 간에 오직 유(儒) 하나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계급이 가지런하지 않아서 조예가 차이가 있으며, 문호(門戶)가 하나가 아니어서 가는 길이 혹 다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모두가 유(儒)에 근본을 두는 데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552) 가생(賈生) : 한(漢)나라 사람인 가의(賈誼)를 가리킨다. 가의가 문제(文帝) 때 박사(博士)가 되어 정삭(正朔)을 고치고, 복색(服色) 바꾸고, 법도(法度)를 제정하고, 예악(禮樂)을 일으켰으나, 모함을 받아 쫓겨나 장사(長沙)로 귀양 갔다. 그 뒤에 다시 소환되어, 선실(宣室)에서 한 문제(漢文帝)와 더불어 귀신의 일을 논하였는데, 그때 문제는 가의를 소원히 대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가의는 또다시 모함을 받아 양희왕(梁懷王) 태부(太傅)로 나갔다가 울분을 못 이겨 33세를 일기로 죽었다. 『史記』 卷84 屈原賈生列傳.

그런데 어찌하여 근년 이래로 가르치기는 각각 서로 달리 가르치고, 사람은 각각 서로 달라 따로따로여서, 세운(世運)과 보취(步趣)가 급박한 것이 있게 되고, 시태(時態)와 사상(思想)이 변천된 것이 있게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도도하게 다시는 유교를 하는 올바른 선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게 되었던 말입니까? 참으로 탄식스러운 일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무리들은 그것을 바르게 할 도를 강구하여 이상한 말이나 잘못된 생동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정확(正學)으로 들어오고, 셋길로 가거나 굽은 길로 가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정도(正道)로 돌아와, 원기(元氣)를 길러서 채우고 객기(客氣)가 그에 따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조목인 민심(民心)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심은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은 반드시 따라줍니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하였습니다. 하늘과 백성 사이에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관동(關東) 지역은, 토질은 척박하고 땅은 메말라서 사치스러운 마음이 없으며, 풍속은 순후하고 풍속은 예스러워서 방탕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날 관동 지방의 백성들은 바로 옛날의 관동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바, 애당초 더 면려할 말을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질이 척박하고 메마르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궁박합니다. 궁박하면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세가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속이 순후하고 예스러우므로 백성들의 생각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으면 완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치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무리들은 민심을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궁하게 살면서도 범람한 데에는 이르지 않으며, 어리석으면서 완고한 데에는 미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충심을 보존하게 하고,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다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어찌 하늘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조목인 학문을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아무리 상지(上智)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말미암아서 그 재주를 진보시킬 수가 있으며, 제아무리 하우(下愚)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말미암아서 그 바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그것은 바로 학문이 그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8세가 되면 모두 소학(小學)에 들어가게 하여, 쇄소(灑掃)와 응대(應對)와 진퇴(進退)하는 예절과 예악(禮樂)과 사어(射御)와 서수(書數)의 글로써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보통학교(普通學校)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5세가 됨에 미쳐서는 위로 천자(天子)의 원자(元子)나 중자(衆子)로부터 아래로 공경(公卿)이나 대부(大夫)나 원사(元士)의 적자(嫡子)와 일반 백성 가운데 준수한 자들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대학(大學)에 입학시켜, 궁리(窮理)와 정심(正心)과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도로써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대학교(大學校)가 이것입니다.

가르침에는 옛날과 지금이 다름이 없으며, 학문에는 신제(新制)와 구제(舊制)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단지 시무(時務)가 같지 않고 교과(教科)가 다르므로써, 노인네들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학교는 이상한 학교다.” 하고, 젊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옛날의 학교는 썩은 학교이다.” 하면서, 노인과 젊은 사람이 서로 혈뜬고 신학과 구학이 서로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구학이 아니면 덕성(德性)을 배양할 수가 없고, 신학이 아니면 재지(才智)를 진보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탄식스럽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무리들은 학문을 권장할 방도를 강구하여, 부형이 된 자들로 하여금 자제들의 학업을 열어주게 하고, 자제가 된 자들로 하여금 부형의 가르침과 인도를 잘 준수해 받들어, 인재(人才)를 양성하고 세교(世教)를 부식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어찌 학계에 있어서 크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여섯째 조목인 산업을 힘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참으로 떳떳하게 살 수 없는 생업이 없으면 그를 인해 떳떳한 마음이 없어진다. 그럴 경우 방탕함과 간사함 및 사특함과 사치함을 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생업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관동 지방은 땅을 보면 산이 들판보다 많고, 곡식을 보면 조가 쌀보다 많이 나며, 토질을 보면 척박하고, 백성들을 보면 가난합니다. 이에 이른바 부자라고 하는 자들을 보아도 재산은 천금의 재산이 없고 곡식은 몇 년간 먹을 저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 한해 내내 고생을 하여도 가을 추수할 때에 미쳐서는 농사를 짓느라 들어간 빚에 수입이 다 들어가서 빈손이 되고 맙니다. 해마다 이와 같고 사람마다 이와 같으니, 비록 장자방(張子房)<sup>553</sup>으로 하여금 대책을 세우고 도주공(陶朱公)<sup>554</sup>으로 하여금 계획을 하게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관동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애처로운 우리 관동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농사짓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생업을 잃지는 않을 것이고, 생업을 잃지 않으면 생산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 집집마다 대문이나 기둥에 써 붙여 놓은 춘사첩(春詞貼)<sup>555</sup>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거기에는 ‘하늘도 힘써 일하는 집을 궁하게 못한다.(天不能窮力穡家)’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세속에서 하는 말이지만, 실로 헛말이 아닙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밭에 나가 힘써 농사를 지으면 이에 가을 추수가 있을 것이다.(服田力穡 乃亦有秋)” 하였습니다. 무릇 매년마다 가을 추수를 거둘 것이 있고, 해마다 남는 곡식이 있다면, 가끔씩 홍수나 가뭄이 드는 재앙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가 있어 오히려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뽕나무와 삼과 닳나무와 옷나무는 그 이익이 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땅에 심기에 알맞습니다. 혹 이런 것들을 발두둑 가나 울타리 주변이나 경작하는 사람이 없는 땅에 심되, 올해에 몇

553) 장자방(張子房) : 한 나라 때 고조(高祖) 유방(劉邦)으로 하여금 한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운 명신(名臣)인 장량(張良)으로, 자방은 그의 자(字)이다. 후대에는 지략(智略)이 뛰어난 대표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554) 도주공(陶朱公) : 춘추 시대 월(越)나라 사람인 범려(范蠡)의 별칭이다. 범려는 월왕(越王) 구천(句踐)을 섬겨서 오(吳)나라를 멸망시키는 공을 세웠으나, 구천의 사람됨이 환란은 함께 할 수 있으나 안락은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제(齊)나라로 가서 이름을 치이자피(鴟夷子皮)로 바꾸고 재산을 수천만 금이나 모았다. 제나라에서는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정승을 삼고자 하자, 그는 다시 모았던 재물을 다 흩어 나누어 준 다음 도(陶) 땅으로 가서 도주공이라고 자호하고는, 또다시 수천만 금의 재물을 모았다. 『史記』 卷129 貨殖列傳.

555) 춘사첩(春詞貼) : 입춘(立春)에 기둥이나 대문에 써서 붙이는 글인 천첩자(春貼子)를 말한다.

그루를 심고, 내년에도 또 몇 그루를 심고 하면,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 집의 생업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무리들은 백성들이 생업에 힘쓸 도리를 강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근본으로 삼고 나무를 심는 것을 보조로 삼아,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나무를 심어 옷을 해 입으면서 그것으로 역시 의식을 여유가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어찌 우리 무리들의 산업에 있어서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일곱째 조목인 재용(財用)을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재용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혈(膏血)과 같습니다. 사람이면서 고혈이 없을 경우에는 죽게 됩니다. 사람이면서 재용이 없어도 죽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혈은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닌 데도 스스로 이를 해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재용은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없애치우는 자가 있습니다.

근일에 보면 전통이 있는 대족(大族)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재산이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근검절약 하여 쌓아놓은 재산을 도박이나 주색으로 하루아침에 탕진해 버리고는 거지로 전락되는 자가 있기도 하니, 참으로 탄식스럽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관동 지방은 검약하는 데 습관이 되어 이런 폐습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 닥치기 전에 경계시키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로 우리 늙은이들의 책임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무리들은 재용을 절약하여 쓰는 방도를 강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나 형이 된 자는 아들이나 동생을 가르쳐 반드시 먼저 학교에 들어가게 해서 그 마음을 이끌어주고, 실질적인 생업을 이어 받아서 그 마음을 굳게 잡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잠시라도 방종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어느 겨를에 외물(外物)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재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생산하는 것이 빠르고 쓰는 것이 느리면, 재물이 항상 풍족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능히 이 가르침을 잘 시행한다면, 어찌 재산이 있는 집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덟째 조목인 법률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형벌<sup>556)</sup>의 종류는 이미 당우(唐虞)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세상의 등급이 날로 낮아져서 법령이 날로 불어나게 되었는데, 쇠털처럼 촘촘한 것으로도 그 많음을 비유하기에는 부족하며, 손끝에 닿는 것으로도 그 저촉하기 쉬움을 비유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법을 범하게 되면 중시토록 허물이 되어, 관청에서는 폐기 당하고 사회에서는 배척당하니, 장차 어디에서 용신(容身)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의복과 음식이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과 같아서 재차 범하고 또다시 범하게 되어, 죽은 뒤에 이르러서야 법을 범하는 것을 그만 두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관동 지방은 풍토가 순후하고 민심이 선량하니, 이러한 따위의 악습은 반드시 없을

556) 다섯 가지 형벌 : 시대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데, 요순시대에는 묵(墨), 의(劓), 비(劓), 궁(宮), 대벽(大辟)이었고, 주(周)나라 때에는 들에서 쓰는 야형(野刑), 군중에서 쓰는 군형(軍刑), 향리에서 쓰는 향형(鄉刑), 관부에서 쓰는 관형(官刑), 나라에서 쓰는 국형(國刑)이었다.

것입니다. 그러나 풍조(風潮)가 미치는 바에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걱정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무리들은 그것을 잘 지키게 할 방도를 강구하여, 아버지나 형이 된 자로 하여금 아들이나 동생들을 가르쳐서 반드시 조심을 하면서 삼가게 하여, 말을 함에 있어서는 위태로운 말을 하지 말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위태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어찌 이른바 길하고 상서로운 좋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강사는 이곳 관동 사람입니다. 관동에 집이 있고, 관동에 묘소가 있으며, 관동에 친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도탑고 성기(聲氣)가 통함은 횡성(橫城)이나 원주(原州)나 영월(寧越)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개의 군(郡)에서 강연을 하면서 똑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였는바, 횡성에서 듣거나 원주에서 들은 분이나 영월에서 듣거나 평창에서 들은 분들 가운데에는 의당 이 자리에 있으면서 웃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에 이르기를, “다섯 묘(畝)의 땅을 가진 집에서 뽕나무를 심으면 신 살을 먹은 사람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이나 돼지나 개를 기름에 있어서 번식하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면 일흔 살을 먹은 자가 고개를 먹을 수 있으며, 100묘의 땅을 가진 자로 하여금 농사를 제때에 맞춰 짓게 한다면 여덟 가구의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잘하여 효제(孝悌)의 의리를 가르치면, 머리카락이 반백이 된 사람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맹자는 이 한 가지 말로써 양(梁)나라에서 말해주고 다시 또 제(齊)나라에서 말해주고, 다시 또 등(滕)나라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대개 성인(聖人)이 왕도(王道)의 요체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없다고 여겼으므로, 여러 차례 말한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들의 급선무로서는 이것들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다고 여겼으므로,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군자들께서는, 이상에서 말한 여덟 가지 조목을 가지고 아버지는 말하고 형은 권면하여, 집집마다 말해주고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관동 한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그 방도를 다하게 하고, 더 나아가 다른 도에까지 미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륜(彝倫)이 밝아지고, 질서(秩序)가 바로잡히고, 사추(士趨)가 바르게 되고, 민심(民心)이 바르게 되고, 학문(學問)을 부지런히 익히고, 산업(產業)에 힘쓰고,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법률(法律)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 관동에서 모범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찌 우리 관동에 있어서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출전 : 鄭鳳時, 「今日吾人之急先務」, 『經學院雜誌』 제26호, 1925년 12월 25일, 55~60쪽〉

## 4. 경학원의 활동, 기타

### 1) 경학원 유림 및 강사 관계 자료(1915~1921)

#### (1) 강사 주의사항

1. 경학원은 정권(政權)을 행사하는 관청이 아니며, 인심을 감화시키는 한 사회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여, 모든 인물을 접대함에 있어서 거만에 가까운 태도를 경계하고 정치에 관한 이야기나 논평을 삼가며 항상 온화함을 스스로 가져야할 것이다.

2. 강사는 평소에 언동을 온공(溫恭)하게 하고 화내며 소리 지르고 나무라는 등의 엄한 기분을 꼭 경계하고, 특히 경로(敬老)자유(慈幼)의 태도를 두텁게 가지며 자신을 가지고 청년과 자제에게 모범을 보이며, 현 세태의 부박(浮薄)한 악풍(惡風)을 교정할 것을 스스로 맡을 것.

3. 순회강연을 할 때, 지방관현이나 기타 인사가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고 또는 대우의 불만족 등의 점이 있을지라도 극력 겸손하여 추호도 원만하지 않고 언동에 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순회강연을 하는 시기는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농사일이 바쁘거나 한가한 때, 기타 지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미리 선정해서 지방관민이 분망 중에 폐가 되지 않도록 혹은 싫증을 내거나 고생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

5. 순회강연의 주제는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를 근간으로 성경(聖經)현전(賢傳)의 훈의(訓義)를 이에 대응시켜서 시의(時宜)에 맞추어 적합하게 연설(演述)하도록 한다. 그러나 경의(經義)를 해석할 때는 보통문장이나 구절을 인용함에 치우치지 않고 시의(時宜)를 설명함으로써 민풍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

6. 순회강연의 일정은 예정과 실행이 전연 맞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임시로 천연(遷延)하는 일이 없지 않으나 하루 한 군데가 영향을 주어서 다른 곳에 파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7. 순회강연의 첫 시작지는 도청 혹은 경무부로부터 통지하여 연착 때문에 해당 지방으로부터 준비할 틈이 없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을 주의하여 며칠간의 여유를 주든지 혹은 기타 신속한 통지방법을 취하여 가급적으로 편의를 주도록 준비할 것.

8. 순회강연 상황은 실행 후 지체 없이 본원 대제학에 보고할 것. 보고는 상세하게 사실을 위주로 하여 (1) 조선총독에게 직접 보고할 것 (2) 일정 및 연설의 요지가 지방관청으로부터 보고가 오는(예를 들면 군에서 도, 도로부터 본부(本府)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경무부, 경무부로부터 경무총감부(보고하는 등의 것) 내용과 맞지 않는 점이 없도록 주의할 것.

9. 잡지를 매번 5부 씩 송정(送呈)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유효하게 애독하는 인사에게 증여하고 그 이름을 본원에 통지할 것.

10. 잡지기고는 반드시 순서에 따라서 제작 송부하고 기타 지방석학의 문장도 널리 소개함으로써 잡지재료를 공급하도록 진력할 것.

11. 9월부터 조선휘보(朝鮮彙報)(지방판) 1부씩을 본부로부터 제씨(諸氏)께 호를 쫓아 기증할 것을 협의해 두었다. 이것은 총독부 및 각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 및 성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자에 대하여 도착 후는 호마다 숙독 음미함으로써 고경(古經)과 금정(今政)과를 상호 연석(研釋)하여 강연 및 잡지원 고의 제술(製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출전 : 『講師注意事項』, 『經學院雜書類綴』 1915~1921년, 201~202쪽〉

## (2) 의견서, 유림지도에 관한 건

경발(經發) 제 호

1917년 월 일

경학원 대제학

조선총독 각하

본직은 본원규정 제1조의 목적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별지와 같이 첨부하여 부탁드리오니 채택 해 주시기를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 의견서, 유림지도에 관한 건

풍교(風敎) 덕화(德化)를 돕고 보완하는 것은 경학을 강구함에 있고, 경학 강구하는 것은 유교를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유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림(士林)을 진흥시키는데 있다. 사림을 진흥시키는 데는 지방향교에 연락과 지도를 하여 경향이 일치하게 하는데 있을 것이다. 왕년에 병합할 때, 사심(士心)이 한산하게 되어 나아갈 곳을 몰랐으나, 현금에는 안업(安業)한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심이 차차 정돈되고 평소에 방황하던 자가 회개하고, 어둠으로 가던 자가 밝은 데를 향하여, 유교를 숭봉하게 되고 이륜(彝倫)을 부식(扶植)하고자 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인사들은 기쁜 마음으로 출연(出捐)하여 향교를 중수하거나 혹은 모성계(慕聖契) 또는 향교유지회 등을 조직해서 후생을 교육하고 일반 인민의 충효를 지도하고 있다.

메이지천황 폐하의 교육칙어의 본뜻에 복종하고자 하나 위에는 권장하는 사람도 없으며, 아래로부터 우리러 의뢰하는 바도 없이 발전하기에는 적기 때문에 지방유지로부터 본원에 대하여 어떤 사유를 보고하고 어떤 방침을 협의해서 본원의 지도를 의뢰하고, 본원과 연락을 청원해도 본원의 규정에는 지방 유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명백하게 지도하지 못하여, 그 자유설계에 맡기면 일이 선시(善始)하고 선종(善終)함은 반드시 약속하기 어렵고 또 현재는 여러 종교가 다문(多門)할 때를 맞이하여 맹자가 말하는 바의 '不之楊則之墨'<sup>557)</sup>이라고 말한 것처럼 유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교에

557) 양주에게 가지 않으면 목적에게 간다는 뜻으로, 이단에 빠진다는 의미.

가로질러 가는 사태가 없지도 않음으로서 또 ‘來者不拒’<sup>558)</sup>는 유교의 최대목적인 것이다. 이제 만약에 규정에 구속을 받아서 오고자 하는 자를 거부하면 이것은 앉아서 다수의 경학인사를 잃는 것이 된다. 어찌 아까워하지 않을 것인가. 또 본원의 경학을 강구하는 것은 풍교덕화를 비보(裨補)<sup>559)</sup>하는 직에 있으며 일반유림을 연락과 지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는 자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교로 가버린다면 이것은 경학에 강구하고 풍교덕화를 비보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원 직원이 난상회의를 하여 참망(僭妄)불규(不揆)해서 본원규정 및 본원 대제학직무규정 중에 몇 군데의 약간의 글자를 첩보하여 본원규정 제1조의 목적을 이행하고자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란다.

### [설명서, 지방유림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상태]

〈과거〉 최초로 지방 각 군 문묘의 재산부터 말한다면 관유(官有)도 다소간 있으나, 순전한 유림의 토지나 금전 등의 납부로서 조성한 이조 5백년 래의 성균관 관하에 있으며, 성묘(聖廟)송봉과 사립강학 등에 대해서 성균관의 지도에 따라서 소재상 황을 밝혀서 볼 수 있으나 첫째 갑오경장 이래부터 사습(士習)이 문란하여 관리방법이 불충분함으로 식자들의 걱정이 많았을 때에 향교재산을 공립보통학교의 비용으로 충당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각 향교의 상황은 몹시 적막하게 되어 경학의 강구는 이것이 태생적인 일에 속하기 때문에 유림의 향교재산이 국유로 귀속하게 된 것을 통감하여 참언(讒言)과 제멋대로 함으로써 시정(施政)의 득실을 준론(峻論)하여 개화는 공자의 도를 망치는 근본이라고 하고, 학교는 자제를 그르치게 하는 곳이라 하며 자제를 입학시키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현재〉 총독부 시정(始政) 초에는 사심(士心)의 환산(渙散)<sup>560)</sup> 전에 비교해서 가장 심하나, 그 후 경학원의 설립으로 존성(尊聖)흥학(興學) 쪽에 여러 가지 시설로 그 편의를 도모하여, 본 원 강연이나 지방출장 강연, 도 강사의 각 군 순회강연 및 경학원잡지 간행 등의 효과에 따라서 전 조선의 유림이 각자 분발하고 퇴폐한 향교수선을 혹은 한 사람이 전담하고 혹은 몇 사람이 협력해서 혹은 공동출력해서 혹은 토지를 기부하며 기금을 적립하는 일 등으로 묘우(廟宇)는 일신하게 되고 향례(享禮)가 정결해서 이쪽 군이 선창하면 이웃 군이 따라서 하며 복구가 되어 갔으며 향교가 각 도를 통하여 적지 않는 이러한 영향은 경학원이 존재하는 연유인 것이다. 그러나 유림 등이 이러한 사업에 용역하고자 해도 혹시 모금방법과 유림 집합에 대해서는 관헌의 단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원에 대하여 질문함으로 귀원은 즉 수선(首善)<sup>561)</sup>의 땅인 지방유림의 향교를 유지하는 등의 일을 귀원에 바라며 여러 가지 지도를 받은 후에 서가취서(庶可就緒)하는 것도 본원에 규정이 없는 바에는 어찌 말로써 응답하겠는가. 때문에 본원 규정 중에 유림과 연락 및 지도 등의 글을 첨부하고자 한다.

각 군의 향교사업 일람표를 별도 목록과 같이 첨부한다.

〈미래〉 본원에서 각도에 연락하여 지도하는 규정을 정한 후, 몇 년 동안 실지로 이행하면 지방문묘의 수호 및 향사(享祀)거행과 경학 강구가 얼마간 발전하도록 해야 하며, 각 도의 유림이 그 취향을 알

558) 오는 자는 막지 않는다.

559) 도와 모자라는 것을 채워준다.

560) 군중이나 단체가 뿔뿔이 헤어짐.

561) 으뜸가는 선을 건설함은 서울에서 시작된다. 출전 儒林傳.

고 귀의함으로서 범위 밖으로 횡주(橫走)할 염려가 없으며, 충효 순량한 백성이 되어 풍교덕화에 비익(裨益)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전 : 「意見書 儒林指導二關スル件」, 『經學院雜書類綴』 1915~1921년, 145~147쪽〉

### (3) 경학원 강사 채용의 건

#### 제1안

1920년 7월 14일 시행

총독 앞  
학무국장

신태악(申泰岳) 경학원 강사에 임명함.

앞의 자는 함경북도에서 경학원 강사 이학재(李鶴在)가 지난번 사망함에 따라 결원에 대하여 후임자를 인선 중, 앞에 적은 자가 해당 지사의 추천으로, 경학원 대제학도 이의가 없다하여 본문과 같이 발령하시도록 내신을 올립니다.

#### 제2안

이하 각 안이 모두 제1안을 발령하는 데 시행이 필요합니다.

함경북도지사 앞  
학무국장 친전(親展)

귀도 경학원 강사 보결로 이전에 추천한 신태악이 피명(被命)됨에 대해서 별지와 같이 사령서를 보내오니 전달하도록 바랍니다.

#### 제3안

경학원 대제학 대리 앞  
학무국장 친전

함경북도 경학원 강사 결원에 대하여 미리 내신을 한바 신태악을 7월 24일자 피명하였사오니 또 해당 사령서는 편의상 해당 도지사에게 송부하였으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920년 7월 12일  
학무국장 앞  
경학원 대제학 대리

#### 강사 후보자에 관한 건

이달 7일 학비(學秘) 제81호로써 내의(內議)가 되었습니다. 표제의 건은 본원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회답합니다.

1920년 7월 5일  
경학원대제학 대리 앞  
학무국장 친전

#### 경학원 강사 후보자에 관한 건

함경북도 귀원 강사 결원에 대하여 적임자를 추천하도록 함경북도지사에게 내첩(內牒)한 바, 별지 이력서의 인물 신태약을 적임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써 추천이 된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채용수속을 해도 되겠습니다. 회답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며 일단은 내의가 되었습니다.

〈별지〉 비(秘) 제417호 함복지사 회답 전문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발송이 필요함.

비(秘) 제417호  
1920년 6월 30일  
조선총독 앞  
함경북도 지사

#### 함북 강사 추천의 건

금년 3월 30일자로 학비(學秘) 제81호의 내첩에 관한 표제의 건은 별첨의 이력의 자가 적임이라고 생각되어 전의(詮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거주지 경찰서장에게 신원조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추천을 바랍니다.

길경(吉警) 비 제1915호  
1920년 6월 13일  
길주 군수 앞  
길주경찰서장



## 신원조서에 관한 건

동해면(東海面) 석성동(石城洞)  
신태악(申泰岳)

앞의 자에 대하여 신원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성행(性行)  
성질이 온후하고 독실하며 소행이 양호함.
2. 학식  
한국시대에 9품의 진사로 서(敍)한 자로 한학에 뛰어 남.
3. 자산  
논 9천평 기타를 합해서 시가총액 1만 2천여 원을 가짐.
4. 세평(世評)과 신용정도  
주변의 신용이 두텁고 현재 도 참사의 지위에 있으나 웅변가로서 정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일부 사람들이 다소 비난을 해도 일반백성의 신용이 조금 두터운 편이다.
5. 가정상황  
가족이 8명이 있으며 원만하나, 장남 경균(景均, 당 28세)은 사상이 약간 과격해서 때로는 배일적인 언동을 할 우려가 있으며, 때문에 친부 태악과는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음.
6. 건강상태  
강건한 편임.
7. 참고사항  
본인은 도 참사를 사직할 의사를 가지며,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관여할 욕심이 없다는 평이 있음.  
(이상)

1920년 3월 30일  
함경북도지사 앞  
학무국장 친전

## 함북 강사 추천의 건

귀도 경학원 강사 이학재가 지난번에 사망함에 관하여 이의 후임으로 귀도 유림 중 학식과 덕망을

가지며 세태를 잘 이해하고 봄가을 두 차례의 본원 문묘석전에도 참가하고 또한 가끔 도내를 순강(巡講)하는 등 충분히 그 직책을 다 할 수 있는 자로서, 언제 임명될지 모르므로 자신해서 취직할 예정이 없는 자를 물색해서 이력서 및 신원조서를 첨부하여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람.

〈출전 : 『經學院講士採用ノ件』, 『經學院書類綴』, 1920년 7월 14일 시행, 471~478쪽〉

## 2) 경회루에서 미나미 총독의 초대연

1939년 10월 15일 오후 3시 미나미 총독은 조선유림대회(朝鮮儒林大會)에 출석하기 위하여 각 도로부터 참가한 각 부, 군 유림 대표자들과 관계자 약 3백 명을 경회루에 초대하고, 주객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즐거움을 다 하고 동 4시에 해산했다.

### 경회루 초대연에서의 총독 인사 요지

하늘 높고 기운이 맑은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여기에 대제학 각하 주재 아래 경학원 여러분들과 조야의 여러 빈객이 많이 참가하셔서 엄숙한 가운데 성대하게 석전(釋奠)<sup>562</sup>의 의식을 마친 것은 함께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내일 유림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 조선에서 모이신 유림대표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태도로써 오늘의 성전에 참가하신 것은 한층 의의가 깊었다고 믿는 바입니다.

제가 석전에 참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유도(儒道) 발상지인 지나(支那)<sup>563</sup>에서 그 도가 쇠퇴한지 오래이며, 또 사변<sup>564</sup> 발생 이래 그곳의 민중은 도의를 망각하고 장(蔣)정권<sup>565</sup>의 잘못된 정책 아래에서 가는 곳 마다 문묘(文廟)를 파괴하고, 또는 이것을 모멸하여, 또 민중은 그 생활의 안정을 잃고 인심이 황폐하는 것이 심한데 반하여, 오로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석과 같이 나라 기초위에 공맹(孔孟)의 도를 더욱 더 왕성하게 하며, 석전도 역시 이 사변 아래에서 봄가을로 변질함이 없이 서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광대(宏大)무변(無邊)한 대 능위(稜威)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성대(聖代)의 여택(餘澤)에 참으로 감격됨이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격을 느낄 때마다, 더욱 더 분기해서 이륜(彝倫)<sup>566</sup>도덕의 실천공행을 중히 여기는 유도의 본의를 천명(闡明)하고, 이것을 일본의 국체에 맞게 진흥시킴으로서, 천은(天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이번 석전을 기회로 내일 유림대회를 개최하고,

562) 문묘(文廟)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행하는 제례.

563) 중국을 뜻함.

564) 1937년 자신들이 도발한 중일전쟁을 일본은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 명명했음.

565) 장개석(蔣介石)의 국민당 정권을 뜻함.

566)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지켜야 할 도리.

이상과 같은 취지에 따르도록 각각 실행방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바로서, 깊이 대회의 성공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시국 관계로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할 각별한 준비도 하지 못했으나, 전 조선의 사도(斯道)<sup>567</sup>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을 기회로, 서로 의사소통을 꾀하며, 충분히 환담을 교환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1939년 10월 15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 경희루 총독초대연에서 대제학 답사요지

오늘 경학원 추계 석전제를 거행하였던 바, 총독 각하께서는 정무가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임석하시는 영광을 주시며, 또 이 자리에 우리 관계자 및 전 조선 유림대표를 이러한 성연에 초대 해 주시고 간절한 훈시까지 주신데 대하여, 일동은 오로지 감격할 수밖에 없었으며, 충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경학원은 올봄 일부 개혁을 단행하고 종래에는 자칫하면 침체할 경향이 있었던 분위기를 새롭게 하며 유학을 통한 황도정신(皇道精神)의 발양에 더 한 층의 박차를 가해 왔던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더 한 걸음을 나아가, 오늘의 석전제를 계기로 전선유림대회(全鮮儒林大會)를 경학원 주최로 이곳에서 개최하고, 비상시국하의 일반 유림의 각성과 분기(奮起)를 촉구하고자 기도한 바, 이전부터 이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모아 왔던 총독 각하께서는 재빨리 승인해 주시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원조를 해 주시며, 그 덕분에 우리들의 다년간의 숙망이었던 유림대회도 드디어 내일 개최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야 시국의 추이와 함께 황도정신에 입각한 유도의 진흥은 우리가 당연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 달성에 더 한 층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우 서투른 말씀입니다만, 일동을 대표하여 한 마디 말씀드리며 감사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잔을 들어서 각하의 건강을 축하하겠습니다.

1939년 10월 15일  
경학원 대제학 자작 윤덕영(尹德榮)

〈출전 : 「慶會樓二於ケル南總督ノ招宴」, 『經學院雜誌』 제45호, 1940년 12월 25일, 1~19쪽〉

567) 유도(儒道) 관계자.

### 3) 미나미 지로(南次郎), 명륜전문학교 기사

본 경학원에 부설된 명륜전문학원은 1930년 4월 창설된 명륜학원을 그 전신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12성상을 거쳐 이미 졸업생도 160여 명을 세상에 내보냈으나 금년 3월 31일자로 다음과 같은 부령(府令)으로서 발전적인 해소를 이루며 4월 1일자로 새로이 재단법인 명륜전문학교로서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원래 당국의 여러 사람이 진력한 선물이거나, 한편 또 학무당국의 특히 사회교육과의 열렬한 원조와 간곡한 지도에 힘입은 바가 컸으며 여기에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승격한 명륜 전문학교는 향교재산으로부터의 기부행위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조직하고 확고한 기초 위에 경영하기로 되었으므로, 혁혁한 전과(戰果)와 함께 공영권의 건설도 특히 제2단계의 공작에 들어가고자 하는 대동아 경륜의 현 시점에서 황도유학의 진흥에 더 한 층의 박차를 가하며, 동아 여러 나라의 정신문화의 교류에 공헌하게 된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반도 문화교육계를 위해서도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조선총독부령 제106호

명륜전문학원규정은 1942년 3월 31일 한으로 이를 폐지한다.

1942년 3월 31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출전 : 南次郎, 「明倫專門學校記事」, 『經學院雜誌』 제47호, 1943년 1월 25일, 52쪽〉

### 4) 박상준, 회장 훈사(訓辭) 요지

이번 춘계 석전을 거행함에 있어서, 경학원 박사 및 명륜전문학원 평의원 여러분의 참가를 얻으며, 또 이것을 기회로 향후 3일간 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시국극복 및 유도진흥에 관해서 각 대가의 강연을 들어 봄과 동시에, 또한 여러분의 격의 없는 의견발표에 의해서 신체제에 맞는 황도유학의 진수를 천명하고, 이것이 진흥을 북돋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덕(學德)이 모두 높고, 각각 지방에서 명망가로서 종래에도 그 도(道)를 위하여 적지 않게 진취(盡瘁)를 해 오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바이나, 이번 강사 및 평의원으로서 취임하게 되어, 직접 원조를 바라게 되어서 몹시 마음 든든하게 느끼는 것과 동시에 동경 해 마지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도는 동양도덕의 근원으로서, 인류로서는 하루도 떠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충효인의를 뜻하고, 이륜(彝倫)도덕에 무게를 두는 것은 천고에 닳지 않는 법칙일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의 중대 시국에 비추어, 곧바로 동양인이 동양답게 하며, 동아의 영원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서양사상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를 청산하고 동양고유의 정신도덕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으로는 충효도의를 고취하고 국민정신을 도야하며, 밖으로 향해서는 동양 민

족 공통의 도념(道念)<sup>568)</sup>을 배양하고, 장차 동아공영권을 위하여 정신적인 연계를 하고자 할 때는 유도의 정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식자들과 함께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재작년 이래 경성에서는 조선유도연합회를 조직하고, 각 도에서는 도연합회, 각 부군도(島)에서는 각각 유도회를 설치하고 관민협력 아래에 유도의 진흥을 도모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학원 및 명륜전문학원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양원의 인사쇄신을 단행하고, 새롭게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도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도진흥의 방법으로서 먼저 과거의 폐습을 혁신하고, 유도 본래의 정신에 되돌아 가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나, 특히 황도정신에 따르는 새로운 유도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특히 주의를 요하는 일로서, 바꾸어 말하면 지나식 혹은 폐습이 따랐던 조선 재래의 유도 그대로로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반듯이 황도로 순화시켜서, 시대에 알맞은 유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총력운동의 일익으로서도, 유도의 독특한 사면을 발휘하여 문교보국의 열매를 거두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상과 같은 점을 잘 해량하신 후, 연일 피로하시리라 생각하나, 시국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명이 가볍지 않음을 생각하시어, 한 층 본회를 의의가 있도록 하시고, 또한 다른 날 선전과 지도를 맡을 경우의 참고자료로 도움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약간 소감의 일단을 말하면서 훈사를 대신합니다.

1941년 4월 16일

조선유도연합회장 朴澤相駿

#### 합의사항

1. 지방에서의 강연회 개최에 관한 건
2. 향교재산에 관한 건
3. 명륜전문학원 개혁에 관한 건
4. 독행자(篤行者) 표창에 관한 건
5. 황도유학의 확립에 관한 건
6. 기타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매일 아침 궁성요배와 정오묵념 등의 솔선 여행에 관한 건

각 군도의 향교를 개방하여 국어보급 및 계몽교육의 실시에 관한 건

국사, 국체(國體), 일본의 선현지사의 언행 기타 적당한 문헌의 권장 도서목록의 조사발표에 관한 건  
순회문고의 시설에 관한 건

각 군도의 향교를 일제히 황도유학의 확립의 합의 협의회를 개최할 건 등

〈출전 : 朴澤相駿 「會長訓辭要旨」, 『經學院叢誌』 제46호, 1941년 12월 25일, 69~71쪽〉

568) 도덕관념.

## 5) 마자키 나가토시(眞崎長年) 학무국장 인사 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경학원 및 명륜전문학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서로 만나서, 신체제에 맞는 황도유학의 진수를 천명함으로써 향당(鄉黨)을 이끌어서 대중을 지도해야 할 구체적인 여러 정책을 연찬하고 토의연구하며 제일선 지도를 발족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의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경축해 마지않는 바이다.

생각하건대 현재 시국의 추이와 국제정세의 변천은 참으로 복잡 미묘하며, 지금 갑자기 결말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최고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거국적으로 총력을 가다듬어 고도국방국가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때에, 반도유림의 선배로서 전선의 대표인 여러분이 우리 존엄한 국체의 진의(眞意)에 철저를 기하여, 수백만의 유림에 대한 추진력으로서 팔굉(八紘)일우(一字)의 성스러운 이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공헌하도록 분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학도(大學道)가 명시한 명덕(明德)지선(至善)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도의 황도 유학확립을 위해서도 기쁜 일인 것입니다.

원래 유학은 옛날부터 동양에서 도덕의 근원으로서, 이륜(彝倫)풍교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 경제시국의 인사를 배출 해 온 것은 체언의 필요가 없으나, 시운의 추이는 이제야 바로 일본정신에 의해서 섭취되고 소화되어, 황도 아래에 통합된 황도유학의 확립을 요청 받아야 할 절실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유학은 그 발상지인 지나에서는 그 정신을 잃은 지 오래 되었으며, 정치와 민생이 모두 패도(霸道), 이기(利己)를 최측하고 있는데 반하여, 오로지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발달을 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반도에서는 종래의 지나유학을 직역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일소하고, 황도정신에 따른 일본적인 유학정신을 새롭게 진흥함으로써 현재의 국가적인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효를 설명하는 데는 충으로써 도덕의 중심으로 삼고, 군국(君國)에 한 몸 한 집을 바쳐야 할 신도(臣道)의 기초를 배양함과 동시에, 한 편 황국일본의 역사, 일본에서의 선현, 지사(志士)의 언행에 관한 문헌을 섭렵하여 연구해서 그 사상과 정신을 섭취하는 것이 극히 또한 긴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상과 같은 취지와 정신을 터득하여 황도정신에 따르는 충효인(仁義)의 가르침을 간에 삭여서, 실천공행하여 민중을 이끌 각오와 신념을 새롭게 함으로써 또 여러 강사가 설명하는 것을 경청하여 잘 씹어서 국민총력운동의 추진력으로서 전폭적인 활동을 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새삼스럽게 정려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소감을 말하면서 인사로 하겠습니다.

1941년 4월 16일

학무국장 마자키 나가토시(眞崎長年)

〈출전 : 眞崎長年, 「學務局長挨拶要地」, 『經學院雜誌』 제46호, 1941년 12월 25일, 68~72쪽〉

## 6) 지방시국강연회 개최 요강

### 1. 목적

본 강연회는 일반대중에 대하여 국제관념을 명징(明徵)하고 황도유학의 확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국인식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민총력운동의 진전에 공헌이 있게 함으로써 그 목적으로 삼는다.

### 2. 기간

5월 초순부터 약 1개월간

### 3. 개최지

각 도내 군부(郡部)의 필요한 지역

### 4. 주최

도 유도연합회

### 5. 강사

각 도의 경학원 강사 및 명륜전문학원의 평의원을 하여금 이달 16, 17일 양일간 경학원에서 개최하는 강연타협회에 참가한 자 중에서 도 유도연합회장이 이것을 선발하는 자로 한다.

### 6. 경비

#### (1) 강사수당

거마비와 숙박료를 합쳐 1일 10엔 평균으로 하고 그 반액은 조선유도연합회로부터 해당 도연합회에 보조하기로 한다.

#### (2) 회의장설비 및 기타 잡비

개최지의 군 유도회가 지불한다.

### 7. 강연회를 마친 뒤의 조치

강연회를 마친 뒤는 그 상황을 상세하게 구신하여 조선유도연합회장 및 조선총독부학무국장에게 보고하기로 한다. 이상

〈출전 : 「地方時局講演會開催要項」, 『經學院雜誌』 제46호, 1941년 12월 25일, 71쪽〉

## 7)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우리의 진군보

조선유도연합회 부회장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전쟁의 양상은 발전하여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지나사변<sup>569)</sup>이 발전하여 대동아전쟁이 되고, 황군장병은 물으로 바다로 하늘로, 몹쓸 곳에서 웅대한 작전 아래에, 용전분투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리

569) 중일전쟁을 말함.

고, 세계 모든 인류로 하여금 오로지 경이의 눈으로써 지켜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령지역은 일본제국영토의 17, 18배에도 이르며, 그 지역 내의 인구는 1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영(米英)은 그들이 축적하고 있는 부와 풍부한 자원에 의하여 장기전의 태세를 취하며, 지금은 패전에 허덕이고 있으나,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신념 아래에 꾸준히 준비(戰備)를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쪽도 서전(緒戰)의 승리에 취하는 일이 없이, 이러한 때에 충분한 각오를 하면서 1억 국민이 참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국가의 총력을 통틀어서 필승의 신념으로써 이것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번 전쟁은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전쟁이 소위 세계 신질서의 건설, 동야 피압박국가민족에게 각기 그 지역을 얻게 하는 전쟁이며, 그 지역의 광대한 점에서 그 관계 국가와 민족이 많은 점에서 소위 세계전쟁이 되는 것으로, 다만 무기만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적이나 아군도 그 전력(全力) 즉 총력을 통틀어 먹느냐 먹히느냐의 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전 외에도 경제전이 있으며 사상전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총력을 통틀어, 전선의 장병과 마찬가지로, 후방의 1억 국민들도 역시 모두 전쟁을 하고 있는 전사인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통틀어 누구 하나라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이번 전쟁은 적 미영을 철저히 격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지나사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황군<sup>570</sup>은 연전연승 지나의 태반을 점령하고, 중경(重京)<sup>571</sup> 정권이 날이 갈수록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상태가 되어 가면서도 아직도 항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 배후에 미영의 세계제패의 야망에 의한 후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사변 때는 그 배후세력을 격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어찌할 것인가 미영과는 아직 전쟁을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恨)을 참고 자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8일, 미영에 대해서 대조(大詔)<sup>572</sup>가 환발(渙發)되어서, 적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과 동시에 세계 인류평화를 위하여 신질서를 건설하고, 동야(東亞) 교란의 화근을 베어 없애며, 동야 피압박의 나라와 민족을 하여금 각기 그 지역을 얻게 한다는 전쟁목적도 명료하게 되었으며, 황군 장병은 가는 곳마다에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로 미영이 항상 입에 담고 있는 인도주의와 자유평등의 사상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입에 인도주의를 주창하면서 약소국가와 민족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포식(飽食)과 난의(暖衣)의 의욕을 채우는 방종한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민족을 노예시하고 착취를 한 없이 하며, 자신의 야망달성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는 그들의 입으로 주창하는 인도라는 말 자체가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인도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바의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유평등하다고 하는, 소위 자유주의의 근본이념은 이것 또한 크게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어쩌면 군신(君臣)의 의(義), 부자(父子)의 정, 장유(長幼)의 서(序)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태어나면서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구한 건국의 시초부터 군신의 뉘과, 군신의 의(義)가 명확하게 되어, 일군만민(一君萬民)의 신념 아래에 국가

570) 일본군을 뜻함.

571)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 정부.

572) 일왕 쇼와의 선전포고.



는 오랫동안 변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자(父子) 간에도 이것이 평등 했다면 자식은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 부끄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었다가는 인륜(人倫)이 쓸모없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장유(長幼)의 서(序)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며, 어린 자가 장자(長者)를 존경하는 생각이 없어지며, 모두가 평등하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생활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들은 말할 자격이 없으며, 또 그들의 사상을 박멸하지 않으면 베개를 높이 한 채<sup>573)</sup>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아공영권의 성립도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미영주의를 격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이번 전쟁은 장기에 걸친다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해 온 바를 보아서도 이번 전쟁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그 성질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또 적 미영은 다년간 축적해 온 부(富)와 그 풍부한 자원을 보아서도, 반드시 장기전이 될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의 신문에 의하면, 미영은 장기전 체제를 착착 정비하여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일본에 이긴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또한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1억 국민이 굳은 단결을 하고 필승의 신념으로써 장기전에 대비해서, 국가총력을 통틀어 무력전은 물론, 경제전·사상전에서도 최후까지 이겨서 이기고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일반국민에게 달려 있게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임으로, 국민도 또 여간 각오와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또 장로와 존경을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유림 여러분의 책무는 매우 중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또 징병제도실시가 발표된 오늘날은 이 이상으로 그 방면의 책무도 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낱말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황도유학의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대중을 이끌 것. 지나에서 시작한 유교는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은 이것을 일본정신에 의하여 일본화하고 황도유학이라고 해서, 본 집인 지나에 있는 것보다 더욱 한층 훌륭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황도유학에 관해서는 대제학 각하를 비롯하여 유도연합회의 여러분께서 충분히 문서라거나 강연에 설명되고 있으니 저는 여기에서 그 설명을 생략하지만, 반도의 유학도 모두 이 황도유학에 의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방면의 선각자임으로, 그 진수를 궁극까지 추궁하며 빠짐없이 가도(街道)에 진출하여 황도유학의 정신에 의해서 용감하게 일반대중을 지도하며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국의 정당한 인식을 깊이 함으로써 지역봉공(職域奉公)의 실천을 할 것. 여러분은 향당에서 장로이며 명문출신으로, 향당의 존경을 한 몸에 모으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가를 잘 알고서, 각자의 직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봉공을 하고,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징병제도실시의 뜻을 상세하게 밝히고, 황국신민의 연성에 노력할 것. 징병제도의 실시 시기가 가까웠으므로, 반도 민중은 참다운 황국신민이 되는 연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연성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반도 민중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연성에 정진해서, 하루

573) 고침안면(高枕安眠)의 줄임말. 베개를 높이 한 채 편안히 잔다는 뜻으로 근심이 없는 생활을 말함.

라도 빨리 훌륭한 황국신민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의 지도와 아울러 일반 민중으로부터 복돋워지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림 여러분은 이 복돋워지는 민중 힘의 선구자, 인솔자가 되어 관 방침에 따라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방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지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어서 국어보급 등은 그것의 하나가 됩니다. 총독부에서도 국어보급에는 대단히 무게를 두어서, 모든 경우에 이것을 장려하고 있음으로, 여러분은 지방에서 그곳의 관의 장려의 주지(主旨)에 따르는 국어보급에 충분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무라고 믿습니다. 국어가 불충분해서는 황국신민이 되는 첫째 요소가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국어를 수득해야 할 것은 물론, 지방의 국어전해운동(國語全解運動)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유림여러분의 진군보(進軍譜)가 시국하에 올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책은 필자에게 있습니다)

1942년 10월 15일, 경학원 명륜당에서

(출전 : 林茂樹, 「吾人の進軍譜」, 『經學院雜誌』 제47호, 1943년 1월 25일, 19~23쪽)

## 8) 스즈카와(鈴木壽男), 시국과 유도(10월 15일 경학원 추계석전에서)

지금 우리들은 미영(米英)을 격멸하고자 나라를 통틀어 결전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말하자면 흥아유신(興亞維新)의 때입니다. 아시아를 일으키는 유신인 것입니다. 10억의 아시아 사람들을 미영의 질곡(桎梏)에서 해방시켜서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세우는 그 흥아유신의 결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흥아유신을 위하여 대동아전쟁은 위로는 천황의 능위(稜威) 아래, 반드시 빛나는 유종(有終)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 1억 국민의 국민적인 큰 신념인 것입니다. 흥아유신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국민의 확고부동한 심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흥아유신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90년 전의 옛날 우리들의 조상이 성취한 메이지유신의 광업(宏業)인 것입니다. 또 이 메이지유신을 거슬러 올라가 5백 년 전에 성취한 역사상의 커다란 사적(事蹟)은 켄무(建武)의 중흥(中興)으로서, 모두 이것은 왕정복고(王政復古)의 유신인 것입니다. 우리 국체는 천황 스스로가 정사(政事)를 봄으로써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조국(肇國)이상을 현현(顯現)하는데 있지만, 요리토모(賴朝)의 카마쿠라바쿠후(鎌倉幕府)를 창시(創始)한 이래 켄무중흥까지는, 천하의 정치는 무문(武門)의 손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메이지유신 이전에도 도쿠가와바쿠후(德川幕府)가 정권을 전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카마쿠라바쿠후와 도쿠가와바쿠후를 넘어트려 천황이 친정(親政)을 하는 세상을 만든 것이 켄무중흥이며 메이지유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흥아유신은 또다시 조국(肇國)의 이상에 따라서 아시아 민생을 위하여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한다고 하는 황국의 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대 유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켄무중흥이나 메이지유신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었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

게 됩니다. 켄무중흥은 위로 고다이고(後醍醐)천황을 받들고, 또 메이지유신은 코오메이(孝明)천황과 메이지천황을 받들며, 그 성덕 아래에서 비로소 성취된 것은 참으로 황송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명하신 성천자(聖天子)를 받들어 모시고, 그 아래에 천황을 잘 보필하여 받든 지성진충(至誠盡忠)의 영철(英哲)·지사(志士)들이 곳곳에 산과 같이 우뚝 솟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하여 그들의 켄무(建武)중흥이나 메이지유신에서 많은 영철, 지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진충보국의 대 정신을 양성했느냐 하는 것으로, 즉 자세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정말 유교의 교화에 의해서 그들 정신을 도야하고 연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켄무중흥에 관해서 생각하면, 고다이고(後醍醐)천황의 측근에서 천황의 수족이 되어 대업을 도와 드린 사람, 키타바타케 치카후사(北畠親房), 후지와라 후지후사(藤原藤房), 후지와라 토시모토(藤原俊基), 후지와라 스케토모(藤原資朝), 카잔인 모로카타(花山院師賢),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에 의하여 어떤 길을 배웠느냐 하면 그것은 즉 송학(宋學)인 것입니다. 당시의 교토에 사련(師練)이라는 승려가 있었으며 그의 문하에 현혜(玄惠)라는 선승(禪僧)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유교를 잘 터득하고 있었는데, 사마 온공(司馬溫公)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숙독(熟讀)하고, 사서오경(四書五經)에 관해서는 정주학(程朱學)을 연구했습니다. 교토의 쿠게(公卿)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 승려 현혜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대의명분, 충효절의(節義)를 닦은 것입니다. 또 켄무중흥 때 대 충신으로서 황국신도의 귀감이 된 쿠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공도 깊이 송학에 조예를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큐슈(九州)에서 다이낭코오(大楠公)와 함께 그의 일족을 떨쳐서 충의의 길에 순직한 키쿠치(菊地) 씨와 같은 이도 유학의 진흥에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메이지유신에 관해서 본다면, 메이지유신 직전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초야에서 쫓겨난 지사(志士)들이,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대의(大義)를 높이 부르며, 몸을 바치며 한 세상의 선구가 된 것입니다. 이 초야의 사이에서 쫓겨난 지사들은, 또 남김없이 유교의 정신에 의해서, 그 일본정신을 도야하고 연마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방마다 번학(藩學)과 사숙(私塾)이 있었으며, 이러한 공사의 학교, 숙사(塾舍)에서는 여지없이 유교를 중심으로 학문을 수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왕과 애국의 열정에 불타는 대 유학자 아사미 케이사이(淺見綱齋), 그는 항상 “적심보국(赤心報國)”이라는 4자를 새긴 4척(尺)의 긴 칼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 케이사이(綱齋)가 지은 서책에는 『정헌유언(靖獻遺言)』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이율곡 선생의 저서도 애독하고 있어서, 선생의 저서 『성학집요(聖學輯要)』 속의 한 절을 이 정헌유언의 강의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헌유언은 지나<sup>574)</sup>의 현철(賢哲) 즉 백이숙재나 제갈공명 등 여덟 사람의 사적(事績)문장 등을 집록(輯錄)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박택(朴澤)<sup>575)</sup> 대제학으로부터 들은 것이지만, 대제학은 어릴 때에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애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사표」 같은 것은 그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헌유언』은 메이지유신 때 지사의 정신을 양양하는데 대단히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있고 아이는 굶주림에 울고, 몸을 받쳐서 곧장 용이(戎夷)를 내쫓고자 하는 오늘 아침에 사별과 생이별

574) 중국을 뜻함.

575) 박상준(朴相駿)의 창씨명.

을 겸하여, 오직 황천(皇天)후토(后土)<sup>576</sup>가 알 뿐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의 주인공, 안세이노 타이고 쿠(安政の大獄)에서 옥사한 우메다 운핀(梅田雲濱), 이 우메다 운핀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평하기를 “정현유언으로 말미암은 사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바후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는 26세의 약관(弱冠)으로 메이지유신의 한 쪽의 중심인물이 되고 있으나, 어떠한 때에도 정현유언을 좌우(座右)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조선과 연고가 깊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들의 선생이었던 요시다 쇼인, 그는 “몸은 비록 무사시(武藏)의 들녘에서 썩을지라도, 멈추지 않게 할 것이야 일본 혼”이라는 노래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쇼인도 정현유언을 스스로 숙독함과 동시에 항상 제자에게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현유언이라는 책은, 메이지유신의 지사에게는 커다란 정신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서책이 유교의 근본정신을 체득하고 실천한 사람들의 사적(事績)과 문장을 수록한 것이라는 한 가지 일만 보아도, 메이지유신의 지사정신과 유교와의 관련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켄무의 증흥, 메이지유신의 커다란 힘이 된 사람들은 모두 유교정신에 의해서 순수하고 무난한 일본정신에 몰입할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이 황국신민으로서의 길을 닦아 나가는데 도움이 된 유교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우리가 본래의 일본정신이라고 하는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유교를 통째로 삼킨 것은 아닙니다. 또 유교의 형체에 사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특하면 유교라고 말하면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통째로 삼키는 의례(儀禮) 3백, 위의(威儀) 3천 등 형식에 사로 잡혀서 그 근본정신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중심인 것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선생에 해당하는 사람에 무라타 키요카제(村田清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자인 동시에 대정치가이기도 한데, 특히 유교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라타 키요카제의 말에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돌부처를 거친 새끼로 묶은 것 같아서 안 된다. 즉 융통성이 없고 구애 받는 학문은 그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스스로 올바르다고 믿었을 때는 공자, 맹자에 대해서도 철권(鐵拳)을 휘두르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맹의 가르침을 일본정신으로 이해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유교가 진짜 일본 황국의 대 이상을 구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의 근본정신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자의 유교를 일본정신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자의 유교(遺教)를 일본정신으로 활발한 출발지답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육象山(陸象山)도 말했습니다. “학문이 진실로 근본을 안다면 육경(六經)은 모두 나의 주석이다.”라고. 먼저 유교근본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일본정신으로, 사서오경도 이것을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공맹의 가르침을 체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 도쿠가와(德川)의 중기 시대에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 문인을 향하여 “가령 공자를 대장으로 삼고 맹자를 부장(副將)으로 삼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 문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사이는 “자기는 한쪽

576) 토지의 신, 나라의 신.

의 대장이 되어 곧바로 공맹의 군사를 무찌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켄무의 중흥이라거나 메이지유신이며, 그들의 존왕(尊王)의 대 정신을 배양한 유교의 힘을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즉 대동아전쟁을 이겨내고 흥아(興亞)의 유신을 완성하지 안 되는 때인 것입니다. 켄무 중흥에서, 메이지유신에서 국민정신의 커다란 배양력이 된 유교, 유도(儒道), 유학(儒學)이라는 것은, 흥아유신을 완성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정신의 진작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유교에 깊이 조예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 여러분은 이러한 도에 지금 정진하고 있으나, 열심히 연찬을 거듭하여 여러분이 배우는 유도로써 흥아유신 완수의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연탄두(硝煙彈頭) 속에서도 항상 독서와 수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히 유(儒)로써 그 뜻으로 삼는 것으로, 항상 경서(經書)에 친하며, 여러분의 정신의 연마와 도야를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 왕양명(王陽明)은 영왕(寧王)이 반란을 할 즈음에 남창성(南昌城)에서 강학(講學)에 정진(精進)하고 있었습니다. 선봉(先鋒)이 불리하다는 소식이 왔을 때에 강의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남김없이 실색을 한 것이었으나, 왕양명은 태연하게 강의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뒤에 와서 양명의 군사가 대승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감연히 도찰원(都察院)에서 책을 속강(續講)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학문을 강의하며 도에 뜻을 둔 자는 이 정도의 금도(襟度)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토 키요마사(加藤清正)는 전진(戰陣)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한 권의 논어를 좌우(座右)에서 멀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중(陣中)에서는 병서(兵書)를 읽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서를 읽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라고 말씀드린바, 키요마사는 “병서야 말로 태평할 때 미리 읽어 두어야 한다. 지금은 바로 전쟁 후의 일을 생각하고 치국평천하의 책을 보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깊이 음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흥아유신의 완성 도상에, 모처럼 독서와 수양을 하시도록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국 하에서 극히 의의 깊은 이 석전제(釋奠祭)의 당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을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정청에 감사드립니다. (문책은 필자에게 있습니다)

〈출전 : 鈴川壽男, 「時局と儒道」, 『經學院雜誌』 제48호, 1944, 22~26쪽〉

## 9) 시라카미(白神壽吉), 벚꽃과 일본정신(4월 15일 경학원 춘계석전에서)

명륜전문학교 부교장 시라카미(白神壽吉)

방금 소개받은 시라카미올시다. 오늘 석전<sup>577)</sup>에 즈음하여 이 자리에서 그 기념강연을 하게 된 것을

577) 문묘(文廟)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에게 행하는 제례.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동아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시절은 바야흐로 벚꽃과 복숭아와 자두가 한꺼번에 피는 성춘(盛春), 저는 '벚꽃과 일본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일본인의 본심이나 진심에 꼭 기맥(氣脈)에 들어맞는 것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먼저 '후지산'이 떠오릅니다. 후지산은 참으로 일본인의 본심이나 진심과 꼭 들어맞는 산입니다. 이것과 닮은 모양의 산은 다른데도 있으나 후지산처럼 영묘(靈妙)한 기분으로써 우리 국민정신을 지도하고 있는 영산(靈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도 일본인은 항상 후지산의 액자나 족자를 걸어두고 그 모습을 우러러 봄으로써 자신은 일본인이라는 기분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되는 것은 '벚꽃'이며, 이것 또한 소위 나라 꽃으로서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벚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깊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은 우선 달리 없을 것입니다. 산이면 후지, 꽃이라면 벚꽃, 이것이 일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지는 일본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 가도 우러러 볼 수가 있다는 산이 아니며, 벚꽃도 또한 이것을 심는다고 해도 기후·풍토에 따라서 스스로 범위가 한정되는 것으로서, 일본인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벚꽃나무가 심어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일본인이 사는 곳, 기후·풍토여하에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사(神社)'입니다.

우리는 내지(內地)<sup>578</sup>에서는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반드시 신사를 만들고 신을 모시고 있으나, 해외에 이주하고 있거나 또는 여행하고 있거나 해서 가장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소위 해외신사인 것입니다.

일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반드시 신사가 조영(造營)되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대만신사, 상해에는 상해신사, 대련에는 대련신사, 신경에는 신경신사, 우리 조선에는 조선신궁이 진좌(鎮座)하고 있으며, 모두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를 주신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신사에 참배할 때의 기분은 국내에서 참배할 때보다도 더 한층 몸도 마음도 바짝 조여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신사는 국가의 종사(宗祀)로서, 신사야 말로 참으로 일본 만에 있으며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일본인의 본심이나 일본인의 진심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말한다면, 신사를 건조하여 신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는 우리나라의 조신(祖神) 중의 대 조신이며, 천조(天祖)인 것이며,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에 대한 숭경(崇敬)이 일본정신의 중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뜻은 소위 천양(天壤)무궁(無窮)의 신칙(神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天壤無窮神勅

豊葦原千五百秋之瑞穂國是吾子孫可王之也○爾皇孫就而治焉行矣寶祚之隆當與天壤無窮者矣

578) 일본을 뜻함.

### 齊鏡齊穗神勅

吾兒視此寶鏡當猶視吾可與同床共殿以爲齊鏡以吾高天原所御齊庭之穗亦當御於吾兒

### 神籬磐境神勅

吾則起樹天津神籬及天津磐境當爲吾孫奉齊矣汝天兒屋命太王命宜持天津神籬降於葦原中國亦爲孫奉齊焉

그러한 신칙이 존재하는 것은 일본 만으로 다른 국가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신칙, 이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뜻이 우리나라답게 하는 기본이며, 우리 국체의 본의인 것입니다. 우리 황국사(皇國史)는 이러한 신칙을 목표로 하여, 만세일계(萬歲一系)의 황통을 절대 중축(中軸)으로 삼고 진전을 계속하고 있는 바로 그 기록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신의 나라 만들기에 착수하며, 외람되게도 신의 후예의 통치가 실시되고, 신이 보낸 길은 천양무궁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참으로 신주(神州)이며, 신국(神國)인 것입니다.

미토학파(水戸學派)의 후지타 토오코(藤田東湖) 선생은 이상과 같은 정신을 “天地正大氣”의 환발(渙發)이라고 보고, “正氣者. 道義之所積. 忠孝氣所發”이라고 말하며, 그의 정기가(正氣歌)에,

天地正大氣, 粹然鐘神州.  
秀爲不二嶽, 魏魏聳千秋.  
注爲大瀛水, 洋洋環八洲.  
發爲萬朶櫻, 衆芳難與儒.  
凝爲百鍊鐵, 銳利可斷鑿.  
蓋臣皆能罷, 武夫盡好仇.  
神州執君臨, 萬古仰天皇.  
皇風洽六合, 明德侔太陽. (하락)<sup>579)</sup>

토우코 선생은 不二嶽·萬朶櫻·百鍊鐵 등의 물건 가운데에 일본정신을 찾아냄과 동시에, “神州執君臨, 萬古仰天皇. 皇風洽六合, 明德侔太陽.”과 우리 국체의 본의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엇보다도 신사가 가장 우리 일본인의 본심·진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하지만 또 앞에 말씀드린 벚꽃도 이것을 잇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선생은 그의 노래에,

시키시마(敷島)<sup>580)</sup>의 야마토고코로(大和心)<sup>581)</sup>는 인간을 하여금  
아침빛에 향내 나는 산 벚꽃인가.

579) 원문에 ‘하락’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580) 일본을 말함.

581) 일본인의 마음.

라고 영탄(詠歎)하고 있어서, 그 노래의 뜻은 우리 일본정신을 물건에 비유하면, 봄 새벽에 아침 햇빛을 받아서 완연히 피기 시작한 벚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벚꽃과 일본정신과의 기맥의 상통에 대해서, 스기우라(杉浦重剛) 선생의 윤리 진강(進講) 초안의 한 절을 빌리기로 하겠습니다.

“무릇 벚꽃은 일본 특유의 명화(名花)로서 외국에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어디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와 같이 미관(美觀)을 보이는 일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벚꽃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지나인<sup>582)</sup>은 모란을 사랑하고, 서양인은 장미를 사랑하는 것을 풍습으로 하고 있다. 모란의 풍려(豐麗)하고 장미의 농염(濃艷)한 미는 미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벚꽃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략)……<sup>583)</sup>

시험 삼아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볼 때에, 마치 구름처럼 높이 뻗어나고 맑은 것은 우리 국민성이 순결해서 청백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봄빛과 서로 어울려 화용(花容)이 스스로 온아(溫雅)한 것은 군자 같은 사람의 풍모를 보이며, 꽃에도 잎에도 생기가 충만해서 이슬마저도 쇠퇴하는 빛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원기가 완성해서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내는 것 또한 국민정신과 흡사한 것이다. 특히 벚꽃의 낙화할 즈음에는 조금도 미련 없이, 깨끗이 흐트러져서 눈처럼 맑은 것은 다른 꽃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바, 이것이 우리 국민이 하루아침에 군국의 대사에 즈음해서는 용감하게 직진하여 굳이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과 흡사한 것이다. 즉 말을 바꾸어 한다면 희생적인 정신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노우에(井上文雄)가 노래에,

깨끗한 일본인의 마음으로서

다른 곳에서는 피지 않는 벚꽃인가

라고 읊었으며, 이렇게 보아 나간다면 옛날부터 우리 국민이 벚꽃을 사랑하는 깊이는 단순하게 이 아름다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성과 잘 서로 일치하여, 또한 일본인을 잘 표장(表彰)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sup>584)</sup>

참으로 벚꽃과 일본정신을 완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한 삽화(挿話)를 거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80여 년 전의 일입니다만, 내지에 마쓰오카(松岡惣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벚꽃의 품종을 조사하여 상하 2권의 책 『벚꽃품종』이라는 서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야생의 ‘산 벚꽃’ 으로부터, 사람마을에 심은 ‘동네 벚꽃’, 이른 봄 춘분 경에 피는 ‘춘분 벚꽃’ 등 모두 72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지·조선·만주·지나 등에서 소위 만다노 사쿠라(萬朶の櫻)라고 실지로 음미되고 있는 ‘요시노자쿠라’(吉野櫻) 일명 ‘소메이 요시노자쿠라’(染井吉野櫻)가 기재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메이지(明治)시대가 되면서 식물학자 사이에 주의를 끌게 되어서 여러 가지를 탐색한 결과, 이름의 요시노는 벚꽃의 명소인 요시노산(吉野山), 소메이 요시노(染井吉野)의 소메이는 에도(江戸)

582) 중국인을 뜻함.

583) 원문에 ‘중략’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584) 원문에 ‘이하 생략’이라 표기되어 있음.



소메이의 식물판매가에서 원목의 묘목이 팔리게 된 것에 기인하게 된 것만큼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산지에 대해서는 다만 소메이의 늙은이들의 구전(口傳)에 어딘가의 섬으로부터 왔다, 흑시이즈(伊豆)의 오오시마(大島)일 것이라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 후 핫토리(服部)박사의 이즈 오오시마의 식물조사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고, 이어서 메이지 말, 다이쇼(大正) 초경이 되어 조선총독부로부터 반도의 식물조사를 위촉 받은 나카이(中井) 박사가 제주도의 식물조사를 할 때 우연히도 요시노자쿠라의 야생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즈의 오오시마가 아니고, 섬은 섬이지만 반도<sup>585)</sup>의 제주도였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며, 또 연고가 깊은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의 벚꽃이 내지로 건너가서 ‘發爲萬朶櫻。衆芳難與儔’라고 상찬하며, 또 “꽃은 사쿠라 나무, 사람은 무사”라고 일본정신의 상징이 완전히 되어 전국의 봄을 장식하며, 또다시 조선의 고향에 돌아와서 반도의 벚꽃이라는 벚꽃을 대표하여, 만주로 지나로 진출, 드디어는 대동아공영권 내 구석구석까지 번성해 가는 벚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희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반도 2천 5백만 동포 여러분! 비상시국 하에, 1억이 한 마음으로 성전완수에 총진군하는 오늘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황국신민으로 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인가, 혹은 또 반쯤 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격언에 “꽃이 웃는다”고 하는 것처럼, 요시노자쿠라에 비웃음을 사서 미안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유림의 여러분들이며, 지방의 명망가이며, 또 유식계급의 사람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향당에 앞서서, 고이소(小磯) 총독 각하가 절규하고 있는,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게 ‘도의조선(道義朝鮮)’을 확립한다고 하는 일에 매진하셔서 참다운 황국신민이 됨으로써 진중보국의 ‘수기(修己)’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향당에 대해서 ‘치인(治人)’의 노력에 정진할 것을 간망하며 본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라이 산요우(賴山陽) 선생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노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보다 밝은 요시노(吉野)의  
 봄 새벽을 바라다보면  
 당나라 사람도 고려 사람도  
 일본 사람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연에 즈음하여 고 스키우라(杉浦重剛)·나카무라(中村)·핫토리(服部)·나카이(中井) 여러 박사의 저술이나 조사보고서 등에서 배운 바가 많았던 것을 말씀드리며,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책은 필자에게 있습니다)

(출전 : 白神壽吉, 「櫻と日本精神」, 『經學院雜誌』 제48호, 1944년 4월 10일, 17~21쪽)

585) 조선을 뜻함.



## II. 조선유도연합회



## 1. 일본 고위관료 송축문

### 1) 『봉전남총독각하(奉餞南總督閣下)』(1942)

아!	惟我
우리 미나미 대장 지로 각하	南大將次郎閣下
통치 칠년에	統治七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其於終始規畫
크고 작은 일을 베풀어 펼치심에	巨細施設
이 백성으로 하여금	期欲使斯民鍊達乎忠勇道義之域
충용도의를 영역에 노력해 도달하게 하려했으니	
그 가운데 성공한 것은	事功之表見者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有不可枚舉
깊은 은혜와 후덕한 은택을 잊지 못해	而深仁厚澤久不能忘
각지 유림이 찬송하고 흠모하는 글을 엮어	故敢綴各地儒林頌功慕惠之辭
책 한 권을 만들어	寫成一冊
봉전하여 기념하는 사사로운 자리에 덧붙인다	以寓奉餞紀念之私云爾

조선유도연합회(朝鮮儒道聯合會)

### 박상준(朴澤相駿)<sup>1)</sup>

京城府 惠化町 10-7

삼강오륜(三綱五倫) 실천한 칠 년 남짓의 시간	五綱實踐七年餘
정무(政務)에 한결같이 부지런하셨네	庶政勤施一日如
이 땅의 백성과 오래도록 정들고 익숙해졌으니	久與斯民情已慣
바라건대 공께서는 귀국길에 더디 오르시길	願公歸駕且徐徐

1) 본명은 朴相駿(1877.3.3~?). 평남 성천 출신. 본관은 密陽. 군수·참여관·도지사·중추원 참의 역임. 조선유도연합회 회장.

### 한상룡(韓相龍)

京城府 嘉會町 178

삼강오륜의 정책 펼친 지 칠 년 남짓  
기미에 알맞게 베풀어 난국에 대처했네  
바다를 건너는 의장 가볍지만 문득 무겁게 느껴지니  
찬송의 노래 배에 가득 싣고 가서라네

五綱政策七年間  
施合機宜處局難  
渡海輕裝偏覺重  
滿船載得頌聲還

### 유진찬(兪鎭贊)<sup>2)</sup>

京城府 忠信町 43

문무를 겸비하시고 명성 또한 높았으며  
赫赫한 업적 팔굉(八紘)<sup>3)</sup>을 진동시켰네  
공은 가시지만 은혜는 길이 남으리니  
많은 혜정(惠政) 대중에게 두루 미치리라

身兼將相重聲名  
赫赫勳威振八紘  
公去長留遺澤在  
幾多惠政治輿情

봄가을로 부르심 받았고  
이미 후덕하심에 친근한 정 느꼈다네  
관리로 와서 공덕(功德)을 이루고 떠나니  
이별 후 어찌 견딜까, 꿈속에서 자주 뵈길 바라다네

每被芳招秋復春  
已多飽德感情親  
原來宦業成功去  
別後那堪夢想頻

### 이대영(駙城大榮)<sup>4)</sup>

京城府 明倫町 3丁目 53

계급(榮戟)<sup>5)</sup>으로 신 정책을 펼쳐 영광을 더하였고  
정치에는 엄했으나 백성에겐 인자했네  
가장 고심한 일은 유학을 부식(扶植)하는 것  
대성전 봄, 가을로 열심히 분향 올렸다네

榮戟增光盛積新  
威於其政惠於人  
苦心最是扶斯道  
聖廟瓣香秋復春

7년간의 시간 빨리도 지나  
붙잡아도<sup>6)</sup> 머물수 없음에 모두 한탄한다네

七載光陰未許遲  
攀轅不駐共嗟咨

2) 호는 蒼史. 경학원 부제학(1930~1939), 명륜학원 강사.

3) 천하를 지칭한다.

4) 본명은李大榮, 호는 石庭. 경학원 부제학 겸 명륜학원 강사(1936.1~1939).

5) 榮戟 : 적흑색의 비단으로 짠 나무창으로 군주의 前驅者가 가진다.

돌아가는 수레 가득 이별의 정 신고 가시리라  
성문 밖까지 나와 전송할 때 해는 저물려하네

歸車滿載與情重  
餞出都門日欲移

이경식(李敬植)<sup>7)</sup>

京城府 嘉會町 177-4

우리 천황 성덕 건곤(乾坤)에 합하시며  
천황의 명 받잡고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은정 베푸셨네  
施政하신 몇 년간에 공적도 막대하시니  
백성들 감격하여 길이 잊지 못하리라

吾皇盛德合乾坤  
奉命來宣一視恩  
施政多年功莫大  
輿情感激永無諉

윤병오(尹炳皓)<sup>8)</sup>

京城府 明倫町 3丁目 53

도义(道義)로 반도의 백성들을 도야하여  
체력과 정신을 굳건히 단련 시켰다네  
여추(鑪錘)를 가진 훌륭한 솜씨 거두어 가시니  
추밀원(樞密院)에 들어가시어 훌륭히 자문 하시리라

道義鑄成半島民  
鍛整體力鍊精神  
斂却鑪錘良冶手  
好登樞院備諮詢

안인식(安寅植)<sup>9)</sup>

京城府 明倫町 3丁目 4

시국은 계속 어려웠고 천재(天災)까지 만났으나  
활부대도(闊斧大刀)<sup>10)</sup>하게 시원스레 타개했네  
6년동안 부지런히 일시동인의 은택 베푸시며  
도야를 통해 변화 되길 바라셨다네

時艱繼又遭天災  
闊斧大刀任打開  
六載勤宣一視澤  
須將萬化陶鎔來

6) 明의 胡繼宗이 지은 『書言故事大全』 卷八 仕進類에 '攀轅：漢侯霸為臨淮太守，被召，百姓攀轅臥轍願留期年。  
7) 1883년생. 충북 제천 출신. 군수, 중추원 참의(1930.6~1945.6) 역임. 경학원 사성 겸 명륜학원 간사(1938.5~1939).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1943.9).  
8) 본명은 尹炳皓.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졸업. 경학원의 사성과 명륜학원 간사직 겸임.  
9) 安寅植(1883~?) 충남 출신. 명륜학원 강사 겸 간사(1930~1939), 경학원 사성(1931~1943), 조선유교회 창립 대표(1932.9),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 위원(1941.1),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1941.5), 조선중견유림성지참배단 단장(1942.11).  
10) 活斧大刀：大刀，闊斧로，兩種은 兵器이다. 大刀闊斧는 軍隊의 聲勢이 浩大하고, 殺氣騰騰한 것을 形容한다. 『水滸傳』 第三十四回 '秦明辭了知府，飛身上馬，擺開隊伍，催趲軍兵，大刀闊斧，逕奔清風寨來' 또는 일을 흥기시키고 혁파하는 데 果斷성과 귀신같은 면이 있는 것을 比유한다.

김성진(金誠鎭)<sup>11)</sup>

京畿道 京城府 桂洞町 2-20

농제와 징병제 실시하시고 유림도 연합시키며  
유교 경전에서 뜻을 취해 배불리 먹인 뒤에 병사되게 하셨네  
병략(兵略)과 유림으로의 실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뛰어났나  
옛날 구래공(寇萊公)<sup>12)</sup>처럼 두 가지로 이어나셨네

農規兵制暨儒盟  
義取儒經足食兵  
兵略儒行誰伯仲  
萊公古有兩全名

이명세(春山明世)<sup>13)</sup>

京城府 北阿峴町 1-61

충효와 근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허다한 시정책에 심신이 소모되었네  
천하 만사 완벽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도리어 여공(餘功)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시네

忠勇勤儉導我民  
幾多措畫費心神  
從知萬事難全美  
却把餘功讓別人

윤치오(伊東致昨)<sup>14)</sup>

京城府 安國町

무궁화 동산에서의 칠년 세월  
정치적 업적 숭고하고 덕화도 새로웠네  
미나미 총독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마세  
광채는 사민에게 오래도록 빛나리니

槿花園裏七年春  
政積崇高德化新  
莫道南星東返去  
煌煌餘彩壽斯民

심형진(沈衡鎭)

京城府 花洞町

대장계서는 백악당(白堊堂)에서 고상히 기거하시며  
은혜와 위엄 두 가지로 전국을 진무(鎭撫)하셨네  
칠년간의 치적, 천년은 갈 거라고  
찬양하는 소리 사방이 한결같네

大將高居白堊堂  
并濟恩威鎭全疆  
七年治積可千世  
一口譽聲同四方

11) 金誠鎭(1874.3.26~?) 異名은 金元鎭, 金聲鎭. 명륜학원 강사(1935~1938?).

12) 寇準.

13) 李明世(1893~1972) 號는 義山. 경학원 사성. 조선유도연합회 상무이사.

14) 본명은 尹致昨(1869.9.21~?). 중추원 부찬의(1910.10), 찬의(1911.2~1915.3) 역임.



떠나신 길 바라보며 짓는 한숨 님께 다다르지 못하기에  
 남기고 가신 자취 흠모하는 맘은 잊을 수 없으리라  
 동아시아 다난(多難)한 때를 만나  
 우리나라 건강하게 보호하는 데 힘쓰셨다네

瞻望行塵嗟不及  
 慕思遺跡愛難忘  
 正當東亞多端日  
 須爲邦家保健康

박제봉(竹城濟鳳)<sup>15)</sup>

京城府 西大門町 2丁目 1-56

칠년 동안 半島民을 통치하심에  
 허다한 규화(規畫)로 심신을 괴롭히셨네  
 또 공께서 반도민 교화 위해 현현(顯現)하시어<sup>16)</sup>  
 집집마다 살아있는 부처되심은 전생의 녹(緣) 때문이었음을 알겠네

七載統治半島民  
 幾多規畫惱心神  
 也知公化身千億  
 活佛家家證夙因

이원보(李家源甫)<sup>17)</sup>

京城府 明倫町

천황의 德化이신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받들어  
 일념으로 다스린 것 7년이라네  
 장학제와 징병제로 단련을 시켰고  
 흥공(興工)과 미곡증식으로 경륜(經綸)을 실천하셨네  
 대동아공영권 위해 오랫동안 애 쓰시다  
 추밀원 고문에 신임되셨네  
 반도 산천이 의지할 곳 없으니  
 머무시길 바라나 그럴 수 없어 마음만 아플 뿐이라네

奉宣皇化視同仁  
 一念圖治七易春  
 獎學徵兵成鍛鍊  
 興工增殖試經綸  
 共榮圈上賢勞久  
 樞密院中轉任新  
 半島山川如有失  
 願留難得但傷神

최호연(崔浩然)<sup>18)</sup>

京城府 倉前洞 347

삼한(三韓)에 부임하신지 이미 7년

駐節三韓已七年

15) 본명은 朴濟鳳. 경학원 사성. 조선유도연합회 참사.  
 16) 佛의 용어로 菩薩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세상에 顯現한 生命 形態를 지칭한다. 西遊記 第十七回: 爾時菩薩灑以廣大慈悲, 無邊法力, 億萬化身, 以心會意, 以意會身, 恍惚之間, 變作凌虛仙子.  
 17) 본명은 李源甫(1882.2.11~?). 함남 덕원 출신. 경부, 경시, 군수, 참여관 역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1939.5). 중추원 참의(1943.2).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1944.6). 대화동맹 심의원(1945.2). 대의당 위원(1945.6). 반민특위 체포(1949.1). 징역 7년 구형.  
 18) 경학원 강사(경기도, 1939).

온갖 제도를 쇄신하심에 모두들 우러러 찬양하였다네  
 아량(雅量)은 관대하셨고  
 자부심과 뛰어난 재주로, 기울어지는 것 일으켜 세우셨다네  
 제갈량처럼 충성과 근면으로 보국하는 것만을 생각하셨고  
 소하(蕭何)같이 약속 지켜 현자(賢者)를 추천하셨다네<sup>19)</sup>  
 이곳 전별연 광채 화려한데  
 소생이 쓴 한편의 시, 부끄럽기 그지없다오

刷新百度望譽全  
 固知雅量能容物  
 昭信雄才可起顛  
 諸葛忠勤惟報國  
 鄧侯約束在推賢  
 都門飲餞光華盛  
 慙愧鯁生詩一篇

주병건(朱柄乾)<sup>20)</sup>

京城府 北阿峴町 3-117

총독각하 오셨을 때 우리들 기뻐했네  
 총독각하 가심에 우리들은 슬프네  
 2천만 민중 우러러 보며 아버같이 여겨  
 춥고 굶주린 몸 의탁하였네  
 아아! 훌륭한 미나미 총독이시여!  
 농공(農功)의 위대한 업적 만고에 드무네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지나사변 오년동안  
 날랜 지원병들 용맹하게 뛰고 날고 하는 것을

總督來我輩喜  
 總督去我輩悲  
 二千萬衆仰如父  
 飢食寒衣自在依  
 於戲遶哉南總督  
 豐功偉烈萬古稀  
 君不見  
 支那事變五年久  
 志願精兵勇躍飛

총독각하 오셨을 때 우리들 기뻐했네  
 총독각하 가심에 우리들은 슬프네  
 삼천리 반도 모두 교화를 입어  
 은혜로운 구름 자애로운 비가 팔도에 두루 미쳤네  
 아아! 훌륭한 미나미 총독이시여!  
 신묘한 방책 귀신인가 의심스러웠네  
 보지 못하였는가  
 대동아전쟁이 발발하여  
 백년의 숙적을 하루 밤만에 쓸어버리는 것을

總督來我輩喜  
 總督去我輩悲  
 三千半島均被化  
 惠雲慈雨八域彌  
 於戲遶哉南總督  
 妙策神機鬼亦疑  
 又不見  
 大東亞戰大爆起  
 百年宿敵一宵靡

19) 鄧侯는 소하를 지칭한다. 소하가 임종 전에 정치적 라이벌이었던曹參을 추천한 것을 말한다.

20) 명륜학원 강사(1939).

장행원(張本行遠)

京城府 孔德町 175-208

부임하시어 훌륭한 정치를 펴고 가시는 이때<sup>21)</sup>  
누군들 공의 정책 인애했다고 말하지 않으리오  
창씨개명, 징병제의 신제도  
내지와 조선 오늘에서야 동등해졌다네

雪山輕重去來辰  
孰不云公政策仁  
創氏徵兵新制度  
內鮮今日等威均

최두연(崔斗淵, 山本權一郎)<sup>22)</sup>

京城府 彌雲町 34

부임하신지 7년, 삼강오륜 정비하시니  
반도에 문풍(文風) 불어 문득 눈앞을 밝혀주네  
길을 막고 잡아도 머물지 못하고  
고개 마루의 구름, 강가의 나무에 마음 두고 가신다네

莅民七載五綱成  
半島文風眼忽明  
遮路留公公不住  
嶺雲江樹總關情

이승근(牧山承瑾)<sup>23)</sup>

京城府 仁寺町 230

혁혁한 무운(武運)으로 동서를 주무르시니  
명망이 일시에만 알려지지만은 않으리라  
진퇴지간에도 어찌 천하의 일을 잊으시리오  
충량(忠良)한 마음으로 몸바쳐 국은에 보답하였네

武運赫赫擅東西  
名望非徒一世芳  
進退敢忘天下事  
捐身報國是忠良

남석우(南錫祐)<sup>24)</sup>

京城府 安岩町 142-16

칠년 통치의 성공을 고하고  
강호로 물러나니 명성 드러 나시리라  
오늘의 가벼운 행차가 외려 무거우니  
반도 땅 인민의 마음을 안고 가서라오

七年統治告成功  
退臥江湖始遂名  
此日輕裝應覺重  
齋歸半島輿人情

21) 杜甫의 八哀詩, 八首之三 : 贈左僕射鄭國公嚴公武에 '公來雪山重, 公去雪山輕'의 구절에서 유래한다.

22) 본명은 崔斗淵(1893.11~?). 경기 양주 출신. 군수 역임.

23) 본명은 李承瑾. 군수 역임.

24) 1900년 일본 유학. 1901년 박영효 문하에서 수학.

조순원(趙洵元)<sup>25)</sup>

京城府 苑西町 72

은혜를 베푸신 지 7년  
온갖 제도 시대에 맞춰 혁신시켰다네  
섭섭한 마음 갖고 성 남쪽에서  
官民들 모두 전별하네

宣恩今七載  
百度與時新  
惻惻城南路  
官民奉餞辰

민건식(閔原健植)<sup>26)</sup>

京城財團法人 大東斯文會

밝고 밝은 아침 해 누각을 물들이며 떠오르는데  
동쪽으로 건너가는 말과 수레 역로에서 이별하네  
일편단심의 새 추밀원 고문은  
천 갈래 눈 같은 백발의 노장군이라네  
아득히 남양을 산책했던 꿈같은 달 밤  
갈수록 수심 깊어가는 반도의 구름  
칠 년 동안의 교화로 백성들 크게 변화시켰고  
현량한 치적 만방이 칭송하네

晶晶朝日上樓薰  
東渡蹄輪驛路分  
一片丹衷新顧問  
千莖白髮老將軍  
悠悠夢踏南洋月  
去去愁深半島雲  
七載教民歸大化  
賢良治績萬邦云

윤병철(尹秉哲)

京畿道 京城府 桂洞町 8-9

이곳에 부임하시어 시정하신지 7년  
이별의 날, 오늘로 다가오니 서운하도다  
고르게 입은 은정 어찌 이미 다함이 있겠는가  
공적을 이룬 것, 의도해서만은 아니었다네  
농사가 풍족해지자 모두 안도하게 되고  
무운이 융창해지니 이는 천우신조라네  
만년에 중대한 직임을 맡겼으니  
시세에 맞춰 진중히 한다면 후세까지 명성 전하리라

莅茲施政七周年  
當別今朝意悵焉  
均被恩情寧有既  
完成功績不期然  
農形豐足俱安堵  
武運隆昌自佑天  
重大職任垂老竟  
隋時珍重盛名傳

25) 조순원은 文鍾의 문인이다. 안인식과 함께 문추 문하에서 배웠다.

26) 본명은 閔健植(1879.11.27~?). 증추원 부찬의(1910), 참의(1922~1933) 역임.

### 대산춘강(大山春岡)

京城府 北阿峴町 1-231

장군께서는 월도에 의지해 동방을 진무하시니  
칠년간의 어진 명성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  
꿈속의 일 인양 칠년이 유수 같이 지나  
가시는 행차 배에 오르는 것을 우러러 보나이다

將軍仗鉞鎮東方  
治積賢聲永不忘  
七載流光如夢寐  
仰瞻華駕上歸航

### 광촌술부(廣村述夫)

京畿道 始興郡 西面 駕鶴里

나라 안에 계실 땐 주춧돌이시고 나라 밖에 계실 땐 간성이 되시니  
총독께서 벼슬하시거나 치사하시는 데에 나라의 경중이 달려 있네<sup>27)</sup>  
교화를 입은 삼한에 은우(恩雨) 담뱃 내려주셨으니  
찬양하는 소리 천년도록 전해지리라

入爲柱石出干城  
用舍之間國重輕  
化被三韓恩雨洽  
召棠千載并傳聲

### 서하영채(西河瑛采)

京畿道 開城府 滿月町 125

대장께서 부절과 부월로 조선을 다스리시어<sup>28)</sup>  
모든 공덕이 창성해진지 육·칠 년이라네  
다만 양숙자(羊叔子)의 공과 같다고 말하지 마오<sup>29)</sup>  
늙을수록 더욱 굳건해진 마원 장군 같다네<sup>30)</sup>  
오늘 이별할 제 한 조각 구름 멀어져가네  
다른 밤 만날 때엔 보름달 뜨겠지  
국경을 넘어 백성들 송덕가를 부르며 그리워하나니  
시로도 그리기 어렵고 그림으로도 전사하기 힘들다네

元戎節鉞仗朝鮮  
庶積咸熙六七年  
只不言功羊叔子  
老當益壯馬文淵  
此時一別孤雲遠  
他夜相思滿月懸  
過境追懷民頌德  
詩難盡述畫難傳

27)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하여 억지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는 처세관을 말한다. 솜은 솜와 통용이다. 송나라 蘇軾소식의 賀歐陽仕少師致啟에 ‘是以用捨行藏, 仲尼獨許於顏子’라는 구절이 있다.

28) 節鉞은 符節과 斧鉞로 古代에 출병 시에 天子가 대장에게 주어 권위와 신표로 상징된 물건이다.

29) 羊叔子 : 진(晉)의 양호(羊祜). 숙자는 그의 자(字). 양호가 강릉(江陵)에서 오(吳)의 육항(陸抗)과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싸움보다는 덕화로 상대를 심복시키기에 노력했으므로 육항이 양호에 대해, 비록 악의(樂毅)나 제갈공명(諸葛孔明)이라도 그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언젠가 육항이 병이 들어 양호가 약을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하자, 육항이 말하기를, “양호가 무슨 사람을 독살할 위인이랴던가.” 하였다. 『晉書』 卷34.

30) 馬文淵은 후한의 장수 馬援을 지칭한다.

정낙봉(東村樂鵬)

京畿道 利川郡 長湖院邑 老搭里 176

천자께서 친히 추천하시니 <sup>31)</sup>	天子親推轂
장군께서 오시어 조선민 교화하셨네	將軍來化民
내선일체 이루시고	內鮮成一體
추밀원 고문으로 가신다네	樞府又須人

이근옥(李根沃)

京畿道 抱川郡 蘇屹面 梨谷里

백성들 보호하길 마치 자식처럼 하시고	保民如赤子
나라를 위해 청년들 양육하셨네	爲國養青年
이별을 아쉬워하며 동해를 바라보니	惜別望東海
물빛은 멀리 하늘가에 접해있네	水光接遠天

김윤구(金倫求)

京畿道 仁川府 花水町 281

문예에도 능하시고 무예에도 능하신 노장군님이	能文能武老將軍
우리 반도 통치하시어 위훈을 세우셨도다	統治半島樹偉勳
성전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는데 체직하시니	聖戰未完先遞職
누가 이을 것이며 또 누가 우리 장군 같을고?	何人繼後又如君

김양한(金亮漢)

京畿道 楊州郡 瓦阜面 德沼里

칠년간의 통치는 너무나 빨리 지나	七年治績太忽忽
총독의 자리 버리고 오늘 동해를 건너 가시네	投紱今朝更渡東
조선 팔도의 만민들 잊을 수 없어	八域含生難可諉
입으로 전하며 부르는 송덕가 소리 만민이 한결 같네	口碑成頌萬人同

31) 推轂은 人才를 推薦하는 것을 비유한다. 『史記』卷107 「魏其武安侯傳」에 '魏其武安俱好儒術, 推轂趙綰爲御史大夫.'

이범주(李範柱)<sup>32)</sup>

忠淸南道 禮山郡 禮山邑 香泉里

칠년의 세월 흘러간 것이 더디지 않아  
공께서 어제 오신 듯 한대 벌써 오늘이 되었구나  
오직 한마음으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단련사의 일을 완수하시었으며,  
모든 정치에 허물 없게 하시길 인내로 견디셨다네  
전령을 나르는 붉은 봉황은 한조(漢詔)를 이었고  
교화를 찬미하는 팔배나무 노래는 주시(周詩)를 따라 읊는구나<sup>34)</sup>  
근역 삼천리  
길이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는 노래 입에서 입으로 전하게 하리라

七載星霜去不遲  
公來如昨到今時  
一心匪懈成團練<sup>33)</sup>  
庶政無行耐久持  
丹鳳含書承漢詔  
甘棠宣化詠周詩  
從知權域三千里  
永使人人頌口碑

임노일(林魯一)

全羅北道 益山郡 咸悅面 龍池里

일찍이 경륜을 품고 뜻한 바도 견실하게 하시어  
반도의 통치권자로 자임하셨네  
청년의 의맹은 징병제 안에 있고  
백발의 광영은 경로연(敬老筵)에 있었네  
정치는 내선일체를 이룬데 있어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 두 어깨에 짊어지셨네  
지극한 은혜 공이 가시어 갚을 길이 없으니  
부모님 여윈 것 같이 멍하기만 하다네

夙抱經綸所志堅  
自任半島統治權  
青年義勇徵兵案  
白髮光榮敬老筵  
政在內鮮成一體  
憂深民國荷雙肩  
至恩莫報公辭去  
如失嚴慈却惘然

유장영(柳長榮)<sup>35)</sup>

慶尙北道 靑松郡 巴川面事務所

문무의 재주를 갖추시고 영재 가운데서도 빼어나신 이여

才全文武出群英

32) 1873년생.

33) 團練의 기원은 당(唐)나라 때까지 올라간다. 당나라 때의 상비군의 보조로서 조직한 민병을 단결병(團結兵) 또는 단련병(團練兵)이라 하여서, 지방장관이 겸임하는 단련사의 통솔을 받도록 하였다. 당나라 후기 절도사(節度使)들이 군벌이 될 때, 그 군벌군의 구성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조선을 일본의 지방으로, 총독을 단련사로 본 듯하다.

34) 『시경』의 甘棠편을 말한 것으로 주공의 정치를 찬미한 시이다.

35) 파천면장(1936-1941년). 안동 독립운동가 700인(현재)에 등재되어 있다.

장월(杖鉞)을 지니시고 조선으로 오시어 동량이 되시었네<sup>36)</sup>  
 일편단심의 뜨거운 충정으로 황은의 돌보심에 보답하시고  
 칠년간의 통치로 백성들과 장쾌하게 통하셨네  
 총력연맹의 결성을 발휘하셨고  
 감격스럽게 징병제도 완성 하셨네  
 귀국선을 창망히 바라보다 문득 소원하나 있으니  
 이 땅에 다시 오시어 태평성세 이뤄주소서

杖鉞西來爲國楨  
 一片精忠酬聖眷  
 七年治化愜輿情  
 發輝總力聯盟結  
 感激徵兵制度成  
 悵望歸帆猶有願  
 再臨茲土做昇平

황석규(黃家錫圭)

平安南道 平壤府 文廟直員

계림에서의 치적, 공과 같은 이 드무니  
 내선융화에 일념 하여 중요정책 삼았네  
 오늘날의 대동아 공영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가?  
 관민이 총독직을 물러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전송하네<sup>37)</sup>

鷄林治勳似公稀  
 一念融和秉要機  
 此日共榮誰所賜  
 官民惜別掛冠歸

은혜로운 정치 불공평하지 않고 또 정성을 다하시어  
 전 조선의 父老들 고상한 명성 우러러보네  
 공이 오고 가심에 산에 쌓인 눈 많게도 적게도 느껴지듯  
 눈 온 후의 청산도 또한 세상의 정리라네

惠政無偏又盡誠  
 全鮮父老仰高名  
 公來公去山輕重  
 雪後青山亦世情

이태운(李家泰潤)

江原道 鐵原郡 官田里

조선에 오신 뒤로 정부는 너그러워졌고  
 어지시다는 칭송 회자 되자 백성들 기뻐하였네  
 갑자기 오늘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드시니  
 머무시는 것 어려우시겠지만 이별하긴 더 어렵네

一自渡鮮府政寬  
 仁聲膾炙土民歡  
 遽承今日還朝命  
 留願誠難奉別難

36) 國楨은 國家의 棟梁으로 有用한 人才를 지칭한다.

37) 掛冠: 漢의 王莽이 逢萌子를 죽이려하자 逢萌子는 화가 미치리라 생각하고 관을 풀어 東都城門에 걸어두고 가버렸다. 『後漢書』卷八十三「逸民傳 逢萌傳」에 있다. 후에 관직을 버리고 가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전성되었다.



## 수원익제(水原翼齊)

咸鏡北道 鶴城郡 鶴東面 防洞

총독의 통치 금년이 7년	總督統治今七年
마침내 반도 안전하게 되었네	遂令半島就安全
총독의 5대 정책 중 농촌, 징병제, 의무 교육을 급무로 하시니	五綱急務農兵學
일본, 만주, 조선 한집처럼 기뻐하네	一室歡情日滿鮮
이별의 시문을 삼가 받들어 기념으로 남기며	謹奉別章留記念
돌아가는 수레를 따라 가고자하나 더 이상 인연이 아닌 것이 한스럽네	欲隨歸駕恨無緣

〈출전 : 朝鮮儒道聯合會, 『奉錢南總督閣下』, 每日新報社, 1942년 11월 25일〉

## 2) 『봉전대야총재각하(奉錢大野總裁閣下)』(1942)

오노(大野) 전 정무총감 각하께서는 7년 동안 계시면서 오로지 救恤할 것만을 생각하셨고 백성들에게 덕해를 남기신 것이 모든 이에게 기림을 받았습시다. 뿐만 아니라 떠나가시는 길을 막으니<sup>38)</sup> 백성들의 정이 스스로 그만 둘 수 없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유림들이 감사하고 흠모하는 뜻을 적어 따르고자 하나 말미암을 바 없고 빌리기를 원하나 방도가 없는 사사로운 심정을 짓들입니다.

## 박상준(朴澤相駿)

京畿道 京城部 惠化町 10-7

정무총감에 있는 지 수 년 동안	身都政務幾多年
(시정은) 정도에도 합하고 권도(權道)에도 합하셨지	動合其經又合權
예로 직원들을 거느리며 자랑하는 기색조차 없었으니	禮率群工無銜色
귀국할 때 되어서야 시대의 현자라는 것 알겠네	歸時方識在時賢

38) 훌륭한 벼슬아치가 離職 시에 백성들이 만류함을 지칭한다.

唐나라 李公佐의 「南柯太守傳」에 ‘生因請罷郡, 護喪赴國. …… 生哀慟發引, 威儀在途, 男女叫號, 人吏奠饌, 攀轅遮道者不.’

한상룡(韓相龍)

京畿道 京城府 嘉會町 178

극심한 업무에 쉬지도 못했건만 시간은 벌써 흘렀고  
5대 연성책(鍊成策)<sup>39)</sup> 마치지 못하셨으니 국민들 어찌하리?  
배에 올라 뒤돌아보시니  
나와 여러분 중 누가 더 섭섭하겠는가라고 묻는 듯하네

劇務難閑歲易過  
鍊成未盡奈民何  
登船回首應悵悵  
較我輿情孰最多

유진찬(兪鎭贊)

京畿道 京城府 忠信町 43

純和하신 도량에 다시 仁溫하기까지 하시며  
치밀하게<sup>40)</sup> 보좌 하신데다가 덕성까지 갖추셨네  
오늘 귀국하시는 것을 백성들 애석해하니  
정치에 은혜 많이 베푸셨음을 이제야 알겠네  
왕사(王事)에 근로하신 것 수년 동안  
유림들 쇠잔해진 것 일으켜 세우셨다네  
칠 년 동안 한성을 객사로 여겼지만  
이 땅을 떠나는 마음은 울적 하시리라

純和器度復仁溫  
協贊謨猷德意存  
此日人民皆惜去  
從知爲政已多恩  
勤勞王事幾多時  
且向儒林欲起衰  
七載漢城如逆旅  
應從此地遠紆思

이대영(駙城大榮)

京畿道 京城府 明倫町 3-53

칠년 정무 일마다 공평하시어  
온 나라 온 백성 찬양 노래 하네  
전송하며 마시는 한 잔의 술  
맑기가 어찌 우리 총재님만큼 하리오

七年政務務公平  
匝域謳歌洽衆情  
飲餞都門一杯水  
水清何似我公清

유림들을 살피시어 현자를 추천하셨건만  
중도에 이별할 줄 어찌 알았으리오  
산천은 막지만 마음은 막히지 않으리니  
지침 날마다 보내주소서

載量儒道共推賢  
何意中途遽別筵  
阻是山川心不阻  
指針應有日相連

39) 미나미 총독이 1937년 통치의 기본 방책으로 5대 정강을 내걸었는데 1) 國體明徵, 2) 鮮滿一如, 3) 教學振興, 4) 農工竝進, 5) 庶政刷新이 그것이다.

40) 深謀遠猷로 계획이 주도면밀하고 심원한 것을 지칭한다. 『晉書』卷六「元帝紀」‘陛下明並日月, 無幽不燭, 深謀遠猷, 出自胸懷. 亦作深謀遠慮, 深圖遠慮.’

### 이경식(李敬植)

京畿道 京城府 嘉會町 177-4

성심으로 보좌한 몇 년 동안  
어려운 시국을 맞아 깊고 얕음에 맞춰 임하셨네<sup>41)</sup>  
우리의 정신을 내선일체로 귀착하게 이끄셨으니  
우민(憂民)하는 마음이 곧 보국하는 충정이었네

殫誠佐貳幾光陰  
接應時艱適淺深  
導我精神歸一體  
憂民心是報君心

### 윤치오(尹致昨)

京畿道 京城府 安國町

① 태평성세 동방에서 봉황이 나서  
칠 년 동안 청구(靑邱)에서 덕(德)을 휘날렸다네  
공을 이루고 떠나가시는 모습 누구와 비슷한가  
녹야당(綠野堂)<sup>42)</sup>에서 풍류 즐기는 배도(裒度)<sup>43)</sup>와 같다네

盛世東方出鳳凰  
靑邱七載德輝揚  
功成身退誰相似  
裒相風流綠野堂

② 오노(大野)총재께서  
정무총감 자리를 등한시 했다고 말하지 마오  
칠 년 동안 온 마음 고달프게 하셨기에  
사방 산야가 개간된 것이라네

休言今貳相  
政職等閑來  
七禩一心瘁  
四方山野開

### 윤병오(尹城炳皓)

京畿道 京城府 明倫町 3-53

오신다고 노래 부르던 것이 어제 같은데  
돌아가신다고 하니 도성 사람들 동요하네  
관사를 여관으로 여기고  
애민의 유풍만을 백성에게 남기셨다네

來暮歌還似隔辰  
歸朝報忽動城闐  
官舍已知如逆旅  
只看遺愛在斯民

41) 淺深의 출전은 『論語』 권7, ‘深則厲, 淺則揭’이다.

42) 綠野堂은 당 나라 현상(賢相) 배도(裒度)의 별장이다.

43) 裒度의 자는 중립(中立). 시호는 문충(文忠). 산시성(山西省) 출생이다. 815년 살해된 재상 무원형(武元衡)을 대신하여 중서시랑(中書侍郎)·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 재상)가 된 뒤 절도사를 억압하고, 환관(宦官)에 대해서도 강경책을 취하여 헌종(憲宗)·목종(穆宗)·경종(敬宗)·문종(文宗)의 4조(朝)에 걸쳐 활약하였다. 시인 백낙천(白樂天)과 자기의 별장인 녹야당(綠野堂)에서 함께 풍류를 즐겼다.

김성진(金誠鎭)

京畿道 京城府 桂洞町 2-20

전심으로 보좌하며 천황의 은혜 펼치시어	殫誠佐政布皇恩
근역(槿域)의 정원에 동종(同種) <sup>44)</sup> 의 나무 자라나는 거 보게 했네	槿域看同種樹園
겨우 꽃만 피고 열매 못 맺었다 한탄하지 말길	休恨纔花終未實
전공(全功)한 이 <sup>45)</sup> 원래 맡은 것은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었다네	全功原屬始培根

이명세(春山明世)

京畿道 京城府 北阿峴町 1-61

단정히 보좌하시며 생각은 주밀하셨는데 <sup>46)</sup>	端居貳席慮沈深
하물며 지금처럼 환란의 때를 다시 만남에라	況復時艱際似今
조치하고 방책을 따르심이 모두 적절하였으니	施措隨方俱得便
구군(寇君) <sup>47)</sup> 막아섰던 마음과 한가지라네	寇君借願一般心

안인식(安寅植)

京畿道 京城府 明倫町 3-4

다방면에 교육과 정책으로 경륜하시니	萬般治教係經綸
근역의 산하는 면목이 새로워졌네	槿域山河面目新
오래도록 유림에게 추앙되고 존중되시었으니	久擬士林推仰重
공(公)이 돌아가시면 누구와 더불어 명륜을 논하리오	公歸誰與說明倫

심형진(沈衡鎭)

京畿道 京城府 花洞町

빛나는 옥절(玉節) <sup>48)</sup> 받아 조선에 부임하시어	玉節煌煌駐我鄉
천황의 은정(恩政) 베풀 지 7년	宣布皇化七星霜

---

44) 同根同祖論을 가리킨다.  
 45) 全功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공(事功)을 말한다.  
 46) 沈深은 周密하게 完備된 것을 말한다. 『漢書』 卷八十六 「王嘉傳」 ‘相計謀深沉, 譚頗知雅文.’  
 47) 지방관의 유임(留任)을 열망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借寇는 곧 구순(寇恂)을 빈다는 뜻으로, 후한(後漢) 때 구순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방에 가서 선정을 베풀고 기한이 차서 그곳을 떠나게 되자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말하기를 “구군(寇君)을 1년만 더 빌기를 바란다.”며 섭섭해 했다는 고사이다. 『後漢書』 寇恂列傳.  
 48) 玉節은 옥으로 만든 부신(符信)으로 예전에 관직을 받을 때에 증서로서 받았다.

충독을 보좌하여 계책도 주밀하셨고  
시정안은 홀륭도 하시었네

身任輔政謀猷密  
意在圖治思慮長

떠나시지만 남기고 가는 공덕은 커  
만 백성들 다투어 이름 찬송하네  
어스레한 저물녘, 흙먼지 암담한 데에 출발하시니  
백악산만 유독 푸르구나

一去猶留功績大  
萬人爭誦姓名香  
行塵黯淡斜陽暮  
白岳山光獨自青

### 장행원(張本行遠)

京城府 孔德町 175-208

수레 앞에 누워 부질없이 외쳐보지만 머무르지 못하기에  
공덕송을 부르고 또 부르나이다<sup>49)</sup>  
경제하신 것, 고금의 누구와 비슷한가  
소하(蕭何)<sup>50)</sup> 조참(曹參)<sup>51)</sup>도 선수를 양보할 것이라네

臥轍空歎不得留  
只將功德頌千秋  
古今經濟云誰似  
政是蕭曹讓一頭

### 이승근(牧山承瑾)

京城府 仁寺町 230

봄 바람 대 평원에 불어와 온갖 만물에 두루 미치더니  
어찌 동군(東君)과 같이 짐을 싸시는가?

春風大野遍容物  
奈與東君并東裝

49) 千秋는 오래고 긴 세월 또는 먼 미래를 말한다.

50) 소하(蕭何, ?~BC 193)는 江蘇省 패군(沛郡) 풍현(豐縣) 출생이다. 한신(韓信)·장량(張良)·조참(曹參)과 함께 고조의 개국공신이다. 진(秦)나라의 하급관리로 있으면서, 일찍이 고조 유방이 무위무관(無位無官)일 때부터 접촉을 가졌다. 유방이 진나라 토벌의 군사를 일으키자 종족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객원으로서 따르며 모신(謀臣)으로 활약하였다. 진나라 수도 함양(咸陽)에 입성하자 진나라 승상부(丞相府)의 도적문서(圖籍文書)를 입수하여 한(漢)나라 왕조 경영의 기초를 다졌다.

한나라 유방과 초(楚)나라 항우(項羽)의 싸움에서는 관중(關中)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조를 위하여 양식과 군병의 보급을 확보했으므로, 고조가 즉위할 때에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으뜸가는 공신이라 하여 찬후(鄭侯)로 봉해지고 식읍(食邑) 7,000호를 하사받았으며, 그 일족 수십 명도 각각 식읍을 받았다. 뒤에 한신 등의 반란을 평정하고 최고의 상국(相國)에 제수되었다. 재상 시절 진나라의 법률을 취사(取捨)하여 『구장률(九章律)』을 편찬하였다.

51) 曹參(?~B.C.190)은 패군(沛郡 : 江蘇省) 출생이다 원래 진(秦)나라의 옥리(獄吏)였으나, 유방(劉邦)이 거병(舉兵)하자 그를 따라 한신(韓信)과 더불어 주로 군사면에서 활약하였다. 몸매 70여 군데의 상처가 있으면서도 진군을 공략하여 한(漢)나라의 통일대업에 이바지한 공으로 건국 후에는 평양후(平陽侯)로 책봉되고, 그 후 경포(黥布 : 英布)의 반란 등을 평정하였다. 고조가 죽은 뒤에는 공을 다투던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그 대신 상국(相國 : 領議政)이 되어 혜제(惠帝)를 보필하였다. “소하는 정연한 법령을 만들고, 조참은 그를 이어받아 준수하며 청정한 정치를 하였다”는 뜻의 노래가 당시 시정에 있었다고 한다.

가뭄에 단비 생각 간절하듯이  
공처럼 기량 큰 인재만을 바라나이다

念切旱餘作霖雨  
惟公器宇適元良

### 대산춘강(大山春岡)

京畿道 京城府 阿峴町 1-231

정치가 물보다 맑기는 고금 간에 드문법  
역사에 기록되어 백년토록 빛나리라  
근역의 백성들 복도 없어  
우리 大野총재 배타고 가시는 것 전별이나 한다네

政清於水古今稀  
史筆人間百世輝  
權域黎民無分福  
征輶謹餞我公歸

### 서하영채(西河瑛采)

京畿道 開城府 滿月町

반도의 유학 오래도록 흥기치 못하다가  
공께서 오신 후에 새롭게 번성했네  
한과 당의 일월이 예전 그대로 빛나게 되었고  
추(鄒)와 노(魯)의 강산이 황홀하게 재현되었다네  
6·7년간 훌륭한 업적 이루시어  
3천리에 상서로움 드리우셨네  
오늘 아침 갑자기 이별하시니  
격양하는 마음 아득히 꿈속에서나 뵈어야하네

半島儒風久未興  
惟公來後學新增  
漢唐日月依然臨  
鄒魯江山恍若登  
六七年間成美績  
三千里內著休徵  
今朝一別何其遽  
景仰悠悠夢裡憑

### 덕촌응렬(德村應烈)

京畿道 高陽郡 碧蹄面 奈遊里

정치는 두루 미치고 백성은 교화 되었으니 누구의 공인가  
조야(朝野)가 모두 오노공(大野公)이라 말하네  
통치를 온전히 맡으셨으니 멀리는 가지 마소서  
부상(扶桑)의 상서로운 옥일(旭日)이 근역을 붉게 물들게 하시길

政通人化是誰功  
朝野咸稱大野公  
全任統治須不遠  
扶桑瑞旭翠樞紅

### 덕산재화(德山在和)

京畿道 龍仁郡 蒲谷面 前岱里

농업, 공업, 교육을 혁신시키고자

農工教學日惟新

밤낮으로 부지런히 자기 몸도 돌보지 않으셨네  
남기고 가시는 유풍과 공덕은 다 적을 수도 없이 많으나  
황국신민화가 으뜸이라네

宵旰孜孜不顧身  
餘烈遺風難盡記  
化民皇國大精神

### 민영의(閔泳義)

京畿道 龍仁郡 龍仁面 麻坪里

총재계선 근역에 당연한 일을 시행하시며  
일시동인(一視同仁)하기를 기약하셨네  
공을 이루었으니 응당 용퇴해야 함을 알지만  
우리들은 이제부터 누구를 다시 의지하리오

總裁權域得其宜  
一視同仁曾所期  
勇退雖知功就日  
群生自此更依誰

### 김양한(金亮漢)

京畿道 楊州郡 瓦阜面 德沼里

칠 년 동안 통치하시며 공평하게 하시어  
찬송의 노래 길을 따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네  
하루 아침에 관직을 그만두고 동쪽으로 가시는 오늘  
만 리나 되는 부상(扶桑)으로 떠나시니 가슴 아프네

七歲治政克準平  
頌聲載路口碑成  
一朝解紱歸東日  
萬里扶桑悵送迎

### 대산청의(大山淸毅)

京畿道 平澤郡 平澤邑

정치는 옛 제도를 따르고<sup>52)</sup>  
백성에게는 중용의 도로 임하셨다네  
존황(尊皇)하여 국체를 명징하시고  
유학을 숭상할 것을 강론하셨네  
시국이 어렵자 몸과 마음 다하며  
임무 막중해도 자기 공이라 떠벌리지 않더니  
공계선 은혜를 입어 이제야 일에서 풀려나시지만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 끝이 없다네

庶政率由舊  
莅民用以中  
尊皇明國體  
講道尚儒風  
時艱惟盡瘁  
任重不言功  
承銀初解職  
惜別意無窮

52) 『詩經』 「大雅生民之什」 「假樂」에 ‘不愆不忘 率由舊章 賦也’라는 구절이 있다.

광촌술부(廣村述夫)

京畿道 始興郡 西面 駕鶴里

부임하신 이래 6년간 인정을 베푸시니  
보좌하여 다스리신 신이한 공덕 널리까지 미치었네  
가신 후에 조선민들 모두 눈물 흘리리니  
어찌 강동의 羊祜 비석만 부러워 하리오<sup>53)</sup>

下車六載施仁政  
佐理神功普及之  
去後鮮人皆墮淚  
江東何獨羨羊碑

공성학(孔聖學)

京畿道 開城府 北本町

유림을 흥성시킨 공덕은 전수자(前修者)를 이은 것이요,  
칠년 동안 백성들 송가를 부른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라 밖에선 대장으로 큰 지략을 펼치셨고  
막사 안에서 고원한 선비로 훌륭한 계책 운용하셨네  
전쟁과 재앙의 구름이 끼는 동양의 오늘이여  
유학의 문풍이 불어오는 반도의 오늘이여  
만 리 먼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 잡을 수 없어  
멀리서 부상을 바라보며 서글퍼할 뿐이네

興儒功績繼前修  
七載幾多民頌謳  
關外元戎宣大略  
幄中高士運良籌  
戰雲劫雨東洋日  
學海文風半島秋  
萬里歸旋留不得  
扶桑遙望黯然愁

죽성제봉(竹城濟鳳)

京城府 西大門町

유림을 공경하신지 이미 몇 년<sup>54)</sup>  
이별의 시 전함에 문득 서글퍼지네<sup>55)</sup>  
삼천리를 다스리던 명성  
입에서 입으로 영원토록 전해지리라

儒林奉戴已多年  
祖餞河梁立悵然  
治聲權域三千里  
萬口成碑永世傳

53) 羊祜의 비석 : 진(晉) 나라 태산(泰山) 남성의 사람. 양속(羊續)의 손자로 자는 숙자(叔子). 비석감이 되고, 무제가 즉위하자 상서우복야에 오르고 형주(荊州) 제군사(諸軍事)를 도독(都督)했다. 위에 입조하여 오 나라 치는 계책을 진술하였다. 죽어서 태부(太傅)를 증직 받았다. ‘타루(墮淚)’란 눈물을 흘린다는 뜻으로, 중국의 양양 사람들이 양호(羊祜)를 생각하면서 비석을 바라보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고사성어에서 인용하였다.

54) 1939년 유도연합회 회장에 오노(大野)정무총감이 취임 하였다.

55) 하량(河梁)은 하수를 건너지른 다리인데, 한(漢)의 이릉(李陵)이 소무(蘇武)와 작별하면서 〈하량별(河梁別)〉이란 시를 썼었다. 『漢書』李陵傳.



조순원(趙洵元)

京城府 苑西町

은정을 베푸신지 올해로 7년  
온갖 제도 시대와 더불어 혁신 되었네  
슬프구나 성남로여  
관민이 하나되어 전송하고 있구나

宣恩今七載  
百度與時新  
悵悵城南路  
官民奉餞辰

공성초(檜原聖初)<sup>56)</sup>

京畿道 開城府 北本町

유도와 조선유도연합회를 진흥 시키시어  
반도에 문풍이 울연(蔚然)히 일어났네  
갑자기 오늘 아침 이별하기에  
고개 돌려 일본을 바라봄에 서운한 맘 끝이 없구나<sup>57)</sup>

振興儒道共聯盟  
半島文風起蔚然  
不意今朝旋惜別  
東瀛回首悵無邊

남석우(南錫祐)

京畿道 京城府 安岩町 142-16

조선을 다스리는 공적을 쌓느라 심신이 피곤해지셨으니  
총독을 보좌함에 공 같은 이 몇 명이나 있으리요  
마침내 머물지 않고 가신다하니<sup>58)</sup>  
비록 저를 아시지는 못하지만 (슬퍼) 눈물 흘리나이다<sup>59)</sup>

治鮮政積瘁心神  
佐貳如公幾有人  
至竟行軒留不駐  
縱非知遇亦沾巾

정낙봉(東村樂鵬)

京畿道 利川郡 長湖院

유도가 오래도록 적막하더니  
공이 오시자 다시 진흥되었네

儒道久寂寞  
公來復振興

56) 孔聖初. 조선유도연합회 참사.

57) 東瀛은 일본을 지칭한다.

58) 行軒은 고관(高官)이 머무르는 곳. 즉 공관(公館)을 가리키는데, 전하여 고관을 일컬었다

59) 沾巾은 눈물이 옷과 수건을 적시는 것으로 눈물이 비오듯 내리는 것을 형용한다. 文選에 張衡의 四愁詩四首之四 중에 ‘我所思兮在雁門, 欲往從之雪紛紛, 側身北望涕沾巾’이라 하였고 唐의 杜審言이 지은 和晉陸陵丞 早春遊望詩에 ‘勿聞歌古調, 歸思欲沾巾’이라는 구절이 있다.

다시 군자의 정치 펼치셨으니  
잊고자하더라도 잊히지 않을 것이네

更宜君子政  
欲諉實難能

### 윤병철(尹秉哲)

京畿道 京城府 桂洞町 8-9

천성은 인자하시고 평생도 평온하셨지  
황은을 선포하시며 공적도 이루시었네  
일억이 한마음으로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삼천리 반도에는 문명이 진작되었네  
이곳에 오래도록 계시길 바라지만  
대장기 돌아서 가버리니 어찌 하오리까?  
이별을 아쉬워하며 관민들 모두 서글퍼하고  
거듭 이별의 노래 부르며 아쉬운 정 다하네<sup>60)</sup>

仁慈天性穩平生  
宣布皇恩績用成  
一億同心祈武運  
三千半島振文明  
願言長得斯邦住  
無奈過看旋施行  
惜別官民深感激  
驪驅三疊悵然情

### 민건식(閔原健植)

京畿道 京城府 大東斯文會

번민(藩民)이 명을 받들어 일시에 귀의 하였더니,  
그리는 정 아득한데 바다 길 멀기만 하구나<sup>61)</sup>  
보국하는 백성들 정성으로 힘을 다하였고  
종군하는 자제들 기쁜 빛을 띠었고  
인자하고 넓은 도량은 천불(千佛)과 같았고  
보좌하신 탁월한 힘은 만기(萬機)를 통솔하였다네  
성전(聖戰)이 발발하자 수고로이 힘쓰시니  
이 마음 시종일관 길이 어긋나지 마소서

藩民承命一時歸  
雲樹茫茫海路迷  
報國人群誠盡力  
從軍子弟喜生輝  
慈仁弘量容千佛  
協贊奇力總萬機  
聖戰由來勞務事  
此心終始永無違

### 이근옥(李根沃)

京畿道 抱川郡 蘇屹面 梨谷里

유림이 다행히 총재에게 힘 입어

儒林幸賴總裁力

60) 驪駒의 誤字이다. 옛날 사람들이 부른 이별 노래로 '驪駒在門'이라 하여 봉우 간에 작별을 표시한다.將分別. 漢書 卷八十八 「儒林傳 王式傳」에 歌驪駒句아래 文穎의 注를 인용하여 '其辭云驪駒在門, 僕夫具存; 驪駒在路, 僕夫整駕也'라 설명하였다.

61) 雲樹는 운수지회(雲樹之懷)의 줄인 말로 친구 생각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시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에 나오는 "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이라는 구절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 도가 예전처럼 크게 천명 되었다네  
우리를 버리고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바다 건너 만리나 되는 도쿄라 하시네

斯道依然大闡明  
捨我今朝何處去  
海雲萬里是東京

윤정현(尹定鉉)<sup>62)</sup>

全羅南道 海南郡 海南面 南蓮里

한강 가에 나부끼는 깃발은 보랏빛 연기를 떨치는데  
성안의 모든 사녀들 눈물을 똑똑 흘리네  
송덕가는 청구에 넘쳐나는데  
귀국선은 아득히 현해탄을 건너는구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기르는데 성의를 간절히 하였고  
정무총감으로 교화를 베푸시어 공훈을 알리셨다네<sup>63)</sup>  
더욱 승진하시오 천황의 조서를 받으시어  
다시 부귀와 명예를 함께 누리는 이곳에 오시어 옛날을 잊기를 바라나이다<sup>64)</sup>

漢上旌旗拂紫烟  
滿城士女淚涓涓  
頌聲洋溢青邱上  
歸帆渺茫玄海邊  
愛國養民誠意切  
分憂宣化業勳傳  
願將加秩承恩詔  
再任楊州繼昔年

나일봉(羅一鳳)<sup>65)</sup>

平安南道 平壤府 大察里

하루 아침에 정무총감을 그만두시고 여구가(驪駒歌)를 부르며 떠나가시니  
반도의 관민들 많이들 실망하네  
등왕각에 불었던 행운의 바람이 어느 때에<sup>66)</sup>  
삼천리 반도에 불어와 은파(恩波) 넘치게 할까?

一朝休政唱驪歌  
半島官民失望多  
滕閣好風何日至  
三千里境漲恩波

62) 1882년생. 전남 해남 출신. 전남 도평의회원·도회의원(1920·1930·1933), 중추원참의(주임관대우, 1926.2.17~1929.2.16). 전남지역 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1941).

63) 分憂는 천자(天子)의 근심을 나눈다는 뜻으로, '지방관'을 달리 이르던 말이다. 여기서는 정무총감직을 말한다.

64) 楊州鶴의 고사를 말한다. 소식의 <녹균헌시(綠筠軒詩)> 중의 "世間那有楊州鶴"의 소주(小註)에 "腰帶十萬貫 駕鶴上楊州"라는 말이 보인다.

65) 1871년생. 평남 중화 출신. 호는 묵헌(默軒). 1910년 일본조합기독교회에 입교.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 1914년에는 일본 조합교회파(組合教會派) 기성교회(箕城教會) 주임목사로 활동. 1920년에 선우순(鮮于鎭) 등과 함께 평안도 지역의 독립사상을 파괴할 목적으로 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를 조직. 1932년부터 1935년까지 경학원 강사. 1936년부터 1939년까지 경학원 사성직에 있으면서 『경학원 잡지(經學院雜誌)』의 편집과 발행을 담당. 명륜학원 간사.

66) 滕王閣을 말한다. 왕발이 순풍을 타고 등왕각에 이르러보니 都督 閻公의 부임연이 있었다. 왕발은 이곳에서 <등왕각서>를 지었다.

이경구(木子鏡龜)

平安南道 德川郡 城陽面 蓮塘里

7년간 주야로 근무하시니  
조선 통치의 공적 산처럼 쌓였네  
갑자기 물러난다 하시니 붙잡을 방법이 없고  
이별 후 오직 바라는 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라네

晝夜勤勞七載間  
治鮮良績積如山  
遽然告退留無計  
餞後惟望去復還

추산의식(秋山義植)

江原道 原州郡 文幕面 文幕里

오실 땐 얼마나 진중하셨나, 가실 땐 어찌 이리 급하신가  
우뚝한 선정은 흠어져 잊혀지지 않으리니  
길을 가로막고선 이천 삼백만 조선민이여!  
애를 녹이는 다리 건너가(소혼교?) 곧 시모노세키의 바다라

來何珍重去何忙  
善政巍巍不散忘  
遮路二千三百萬  
消魂橋是馬關洋

수원익제(水原翼齊)

咸鏡北道 鶴城郡 鶴東面 防洞

정무총감께서 취임하시니 정치가 맑아져  
전 조선민들 모두 환영하였네  
칠년간 널리 공학과 사학을 개설하시고  
팔도 전역에 지원병제 실시 하시었네  
아녀자와 아이들 모두 송덕가를 부르나니  
관민들 누가 이별을 아쉬워하지 않으리오  
떠나가는 말고삐를 잡고 만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네  
저 구름 어느 곳으로 흘러 갈까? 바로 천황의 수도라네

政總就任政治清  
全鮮人物共歡迎  
七年廣設公私學  
八域當徵志願兵  
婦孺猶能歌頌德  
官民孰不惜離情  
征驂欲免留不得  
何處蓬雲是帝京

〈출전 : 朝鮮儒道聯合會, 『奉餞大野總裁閣下』, 每日新報社, 1942년 11월 25일〉

## 2. 『축징병제실시(祝徵兵制實施)』(1943)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진실로 천황 폐하께서 평등하게 대우하시는 은택에서 나온 것이니 백성 된 자 누가 기뻐 박수치고 감격하며 보답하려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제도나 의무는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면 진심으로 실천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덕의를 선포할 때에 고무하고 진작시킬 방법은 심신을 흥기시키고 성정(性情)을 감발(感發)시키어 무엇이 절로 찬탄하게 하는 것을 넘지 않는다. 마음에서 발동하여 말로 형용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요체로 하여 ‘축징병제실시’를 제목으로 한시를 광범위하게 모집하니 각도의 유림들이 투고한 것이 수천 수가 되었다. 그중에 우수한 것을 뽑아보니 총 160수가 되었다. 책 한권으로 엮어 천황의 은혜 봉축하며 혜택 영구하리라고 노래하여 기념한다.

### 박상준(朴澤相駿)

京畿道 京城部 惠化町 10-7

찬란한 태양 골짜기 그늘을 깨뜨리듯  
 신징병제도 사람들 깊이 감동시키네  
 전선의 군인들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은혜를 표출해 자식 된 자의 마음 보이고 싶어서라네  
 조금이라도 은혜 갚고자 한다면 칼을 잡고  
 누차 단련하여 임금(裨金)해야하리라  
 세간에서 어찌 영광스러운 일을 막으리오  
 반도의 지금이 최고의 상황이라네

陽運昭回破谷陰  
 徵兵新制入人深  
 非因戰線添丁額  
 直出恩綸視子心  
 欲報涓埃直蹈刀  
 竹經鍛鍊始裨金  
 世間何限光榮事  
 最上無如半島今

### 이대영(駙城大榮)

京畿道 京城府 明倫町 3-53

어진 하늘이 내리신 비, 먼 곳이나 가까운 곳 고르게 적시어  
 광명해진 반도에 징병제 새로 실시 하시네  
 사해가 다 같이 둥근달을 보듯  
 만민들 봄이 된 걸 즐거워하듯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 대적할 이 없으니  
 보국의 깊은 정성 각각 분발해서라네  
 청년의 임무 중함을 아는가  
 영광스럽게 천황의 교화 실천할 가장 좋을 때라네

仁天雨露遐邇均  
 半島光明兵制新  
 四海同看圓滿月  
 萬人自樂發生春  
 衝霄氣壯應無敵  
 報國誠深各奮身  
 知否青年任責重  
 存榮聖化際昌辰

이경식(李敬植)

京畿道 京城府 嘉會町 177-4

은혜로이 반도에 징병제를 실시하시니  
모두 환호하고 감격해 하네  
몸과 마음을 다해 보국하리니  
내 창과 방패를 손질해 그대에게 주노라

恩制新徵半島兵  
歡呼感激一般情  
殫誠全力宜圖報  
修我戈矛與子行

김성진(金誠鎭)

京畿道 京城府 桂洞町 2-20

징병제를 실시하는 반도는 봄이라  
천황의 은혜 (內地 朝鮮 구별 없이)모두 고르시네  
이제부터 군인이 되어야<sup>67)</sup>  
진정한 제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네  
그대 동포들 의로운 기상 일어나게 하여  
칼 위에 충군의 정신 더하여 임금에게 보답하라  
불충과 無勇, 둘 다 효도가 아니니  
힘써 전쟁하는 것도 원래 事親의 한가지라네

徵起兵前半島春  
皇天優渥普施均  
從今自許干城用  
然後真成帝國民  
與子同袍增義氣  
答君一劍倍精神  
不忠無勇俱非孝  
力戰原由善事親

윤병오(尹城炳皓)

京畿道 京城府 明倫町 3-53

위대하신<sup>68)</sup> 천황께선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 교화하시어  
반도민에게 징병제를 실시하시네  
모집 자격에 어찌 구별이 있으리오  
충성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데는 차이가 없는 것을  
힘써 훈련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질 것이고  
날마다 부지런히 하면 면목이 새로워 질 것이리라  
이 같은 은혜입고 보답한다면  
산도 바다도 하찮게 여겨지리라

一天皇化視同仁  
兵制將施半島民  
應募論資寧有別  
盡忠護國必無倫  
待年鍊苦身心健  
惟日勤孜面目新  
荷此恩榮思報答  
山輕海淺愧微塵

67) 干城은 적을 막고 나라를 보위하는 책임을 진 사람을 가리킨다. 『詩經』周南 兔置 '赳赳武夫, 公侯干城. 幼學瓊林 卷一 武職類: 大將曰干城, 武士曰武弁.'

68) 一天은 如天一樣大的 뜻으로 極大한 것을 형용한다. 『醒世恆言』卷七 「錢秀才錯占鳳凰傳」 '這做媒乃是冰人撮合, 一天好事.'

이명세(春山明世)

京畿道 京城府 北阿峴町 1-61

해마다 북벌에 또 남벌  
 이제서야 반도에 징병제 실시되네  
 내외가 한결 같이 은혜를 입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대의를 따라 하나 된 소리내네  
 집안에선 아들 난 것 중한 일임을 더욱 알고  
 나라 위해 죽는 것은 가벼이 여겨야하리  
 우리들은 후회 없나니  
 하루빨리 전란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 되길 바랄뿐이라네

連年北伐又南征  
 此際新徵半島兵  
 外內均霑恩一體  
 後先相應義同聲  
 在家倍覺生男重  
 爲國當思死敵輕  
 無憾吾儕仍有願  
 過勘戰亂返昇平

정인서(鄭寅書)<sup>69)</sup>

京城府 社稷町

우리나라 문교를 숭상했으나  
 말폐(末弊)는 문약(文弱)에 빠진 것이라네  
 이제부터 지기(志氣)를 닦아  
 전투에 임한다면 반드시 뛰는 듯 할 것이라네

鯨域尙文教  
 末弊陷文弱  
 從今勵志氣  
 臨陣須踴躍

병사가 나약하고 겁 많다면  
 어찌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리오  
 반드시 무사도를 배워  
 위기에 처했을 땐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한다네

爲兵有懦弱  
 豈不償軍事  
 須學武士道  
 臨危不惜死

[응모하여 당선된 부(部)]

홍산은식(洪山殷植)

江原道 原州郡 神林驛前

반도에 징병제를 새로 분포하시니  
 이제야 황민과 더불어 일체가 되겠구나  
 정신을 단련하고 실력을 연마하여야지

新頒半島制徵兵  
 始與皇民一體成  
 宜鍊精神求實力

69) 명륜학원 강사(1936~1939).

의무만으로 하는 것은 빈 이름이라네  
 3세부터 기르고 가르치면 늦으리니,  
 이생에서 영광되게 되는 것 보게 되면 다행이리라  
 우리 동양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으니  
 무운(武運)을 타고 태평성세를 이루세

只擔義務近虛名  
 知由教養遲三歲  
 見及光榮幸此生  
 保我東洋有我在  
 好憑武運致昇平

심형진(沈衡鎭)

京畿道 京城府 花洞町

부상(扶桑)이 온통 봄이니 근화(槿花)에도 꽃이 피네  
 은우(恩雨) 내리시는 어진 하늘은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는데다  
 정의를 행하고자<sup>70)</sup> 군대의 향오(行伍)에 들어가  
 사심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 봉공하리라  
 이같은 황은 어찌 보답하리오  
 신하의 도리 다른 게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것뿐  
 청년들은 훈련일 기다리고  
 이천만 백성들 기세등등하도다<sup>71)</sup>

扶桑春遍槿花叢  
 雨露仁天一視同  
 仗義身編行伍裏  
 滅私心罄奉公中  
 皇恩如此那由報  
 臣道無他在盡忠  
 待到青年精鍊日  
 二千萬衆是熊熊

조순원(趙洵元)

京城府 苑西町 72番地

청구(靑邱)에 징병제 시작되니  
 정책을 낸 시기 꼭 들어맞는구나<sup>72)</sup>  
 오로지 일시동인(一視同仁) 하심에 감사하니  
 이제야 유용하게 써 주시겠구나

靑邱徵制時  
 廟算出機宜  
 偏感同仁意  
 際茲有用時

조남준(趙南駿)

京城府 仁寺町 231番地

반도에 징병제 실시하는 거 왜이리 더딘지  
 3년을 더 기다린 후에 실시된다네<sup>73)</sup>

徵兵半島制猶遲  
 更待三年後實施

70) 仗義는 의리를 행동의 기본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71) 熊熊의 오자인 듯하다. 熊熊은 氣勢壯盛하는 모습이다. 史記 卷八十一 廉頗藺相如傳 索隱述贊：清颯凜凜，壯氣熊熊，各竭誠義，遞為雌雄。唐 王光庭 奉和聖製送張說巡邊詩：虎貔紛擬擬，河洛振熊熊。

72) 廟算은 廟略을 말하는데 조정에서 의결한 계획을 말한다.



중전에 징집하여 육성하지 않은 것 한스럽지만  
 어찌 오늘의 위난을 근심하리오  
 전장의 징소리 북소리 듣고 돌진하며  
 서로 군위(軍威)의 늠름함을 축하 하리란 것 눈에 선하네  
 황군에 견주 더욱 용맹해야하거늘  
 혹시라도 시기를 놓칠까 두렵네

只恨從前無教養  
 何憂際此有艱危  
 預聽金鼓翩翩舞  
 相賀戎衣凜凜姿  
 勇比皇軍當倍倍  
 由吾或恐失機宜

조기택(趙基澤)

江原道 春川郡 春川邑

징병제 내년 봄에 실시된다하니  
 황은 고루 적심에 감축드리네  
 나라 안정시키는 일에 누군들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sup>74)</sup>  
 몸 바쳐 인(仁)을 이루지 않으리오<sup>75)</sup>  
 마음은 군인이 되기를 바라며  
 의지는 사직의 신하 될 것을 약속한다네  
 마원처럼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요<sup>76)</sup>  
 이래야 충효도 제대로 한 것이네

從今忠孝可全伸  
 馬革裹尸眞勝事  
 素志從期社稷臣  
 丹心願作干城將  
 致身無不欲成仁  
 靖國誰非爭取義  
 感祝皇恩霑被均  
 徵兵只隔二年春

송산중렬(松山仲烈)

忠淸南道 洪城郡 金馬面 松江里

황도의 정신 대동아를 뚫고  
 온 천지를 대화혼(大和魂)으로 가득 채우네  
 지인(至仁)으로 임하시어 은혜와 위용 둘 다 보이시며  
 일시동인(一視同仁)에 한 치도 차이 두지 않으시니 모두들 우러러 흠모하네

皇道精神貫大東  
 舉天地在大和中  
 至仁臨上恩威併  
 一視無間仰慕同

73)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실시 후 1942년 5월 8일에 징병제 실시를 1944년부터 할 것을 의결한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74) ‘取義는 『맹자』 고자장 상에 “삶도 내 하고 싶고 의도 내 하고 싶다. 두 가지를 겸할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할 것이다.(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라는 맹자의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75) ‘成仁’은 『논어』 위령공편에 “지사와 인인은 삶을 구해서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일이 있다.(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에서 취하였다.  
 76) 『史記』 卷86 「刺客列傳 論贊」 후한(後漢)의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사나이는 변방의 들판에서 쓰러져 죽어 말가죽에 시체가 실려서 돌아와 땅에 묻히는 것이 마땅하다.(男兒要當死于邊野 以馬革裹尸還葬耳)”고 하였는데, 이후 나라를 위해 변방에 나가 목숨을 바치는 비유로 이 말이 쓰이게 되었다. 『後漢書』 卷24 馬援傳.

역사에 이런 위업 있었다는 걸 들어 본적 없으니  
모두 군인 되어 기꺼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도다  
이제 신민의 소원 들어 주시어  
혼과 기백에 무사의 기풍 갖추게 되었네

史策未聞斯業績  
干城多養好英雄  
如今得遂臣民願  
魂膽將看武士風

#### 정석모(楓川碩謨)<sup>77)</sup>

全羅北道 全州府

이제부터 반도민 모두 징병되니  
드넓은 하늘 분명 일시동인해서라네  
죽음이 어찌 진정 우리가 갈 길이오마는  
살아서 은혜를 모른다면 어떻게 사람이라 하리오  
이 늙은이 징병의 의무할 수 없는 것 한스러우나  
뜨거운 충정은 황국 신민의 정신을 관철하는데도 있으리라  
팔굉(八紘)이 일가(一家)가 되는 날  
궁궐을 향해<sup>78)</sup> 만춘수(萬春壽)를 노래하리라

從此皆兵半島民  
廓然乾斷視同仁  
死能得所真吾道  
生不知恩可謂人  
白首恨無酬義務  
丹忠豈在貫精神  
八紘將見爲家日  
齊向楓宸頌萬春

#### 금산춘정(金山椿政)

江原道 鐵原邑 官田里

이 몸, 성인이 밝혀주시는 이때를 살아갈제  
구제(舊制)를 대신해 신징병제 실시되네  
무적의 황군이 됨에  
인간이 비로소 '국민'의 자격을 얻게 되는구나  
황군의 기상, 서릿발처럼 파랗고  
천황 섬기는 마음, 해를 쫓는 해바라기 같구나  
청년들 서로 축하하며  
서로서로 징병 적령기라 하네

吾生生際聖明時  
兵制維新換舊規  
宇內元無皇土敵  
人間始得國民資  
從軍氣凜凌霜柏  
事主丹心向日葵  
靑少相逢相慶賀  
君吾同是適齡期

77) 鄭碩謨(1871.2.30~?). 전북 전주 출신. 전북 도평의회원(전주, 1920). 중추원 참의(1933.6~1936.6). 시중회 평의원(1934.11). 경학원 강사(1936~1939). 임전보국단 발기인(전북, 1941.10).

78) 楓宸은 朝廷을 가리킨다. 漢宮殿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楓宸이라 칭하였다. 明의 朱權 卓文君 第一折: 既不能毀曉調楓宸入建章. 早難道暮登天子堂. 幼學瓊林 卷一 朝廷類: 椒房是皇后所居, 楓宸乃人君所蒞. 或稱為楓陛.

장행원(張本行遠)

京城府 孔德町 175-208

깊으신 황은께서 일시동인하시어  
징병제도 새로이 반포 하시네  
소년이 연마하면 충용한 군사 되어  
길이 대화민이 되리라  
전란의 기운을 다 씻어내어 동양을 깨끗하게 하고<sup>79)</sup>  
만국의 모여 회맹을 하리라  
사해가 일가가 되면 영광 더욱 빛나리  
어진 하늘은 은혜로운 비로 신하된 자들 적시리

皇恩優渥視同仁  
一體徵兵制度新  
少壯練成忠勇士  
永年涵養大和民  
妖氛盡掃東洋淨  
盟會如斯萬國臻  
四海爲家榮輝極  
均天雨露洽臣隣

풍천명익(豊川明益)

忠淸南道 扶餘公立農業實修學校

현명하신 일시동인의 성지  
반도민을 이제야 징병하시네  
천황 위해 義勇으로 몸 바칠 것 서약하며  
보국의 충심을 피로 맹세하네  
정신의 함양은 '지성'으로  
체력의 건강은 '단련'으로 하리라  
단연코 승리만이 있을 뿐 다른 것 없으니  
죽음을 불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출정하리라

一視同仁聖旨明  
遂令半島始徵兵  
爲君義勇投身誓  
報國忠心以血盟  
精神涵養至誠足  
體力健康鍛鍊成  
斷然必勝無私念  
效死忘生樂出征

월금형진(月金亨鎭)

慶尙北道 慶州郡 江西面 沙洞儒學研究所 研究生

요기를 소탕하려 오래도록 와신상담하며  
서슬 퍼런 창칼 전장에서 휘두르리라 다짐했다네<sup>80)</sup>  
다행히 황군과 같은 行伍에 편성되니  
강하고 정의로운 기개 더욱 새롭게 되리라

誓蕩妖氛久臥薪  
霜鋌幾擬試風塵  
如今幸得同編伍  
義膽剛腸一倍新

79) 妖氛은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말하며 戰亂을 비유한다. 唐나라 李白의 塞下曲六首之六에 '橫氣負勇氣, 一戰淨妖氛'라는 구절이 있다.

80) 風塵은 兵亂을 형용한다. 唐 杜甫 野望詩: 海內風塵諸弟隔, 天涯涕淚一身遙.

김정호(金正浩)<sup>81)</sup>

京畿道 開城府 本町

성스럽고 자애로우신 덕성으로 징병제를 실시하시니  
 오랜 동안 기원하던 소원 이루어져 감격스럽도다  
 문과 무 둘다 양성해야한다는 것 장정(章程)에 실렸으니  
 충효가 하나라는 의리 분명해지네  
 여자는 온화하고 너그려워야하며<sup>82)</sup>  
 남아는 발랄<sup>83)</sup>하게 떨쳐 일어나야 한다 하시네  
 용감하게 출정하지 않는 것은 황국 신민의 길이 아니오,  
 호국의 군신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라네

聖慈宣德制徵兵  
 感激多年祈願成  
 武運併進章程載  
 忠孝同歸義理明  
 肯作雍容兒女態  
 快揚潑瀾丈夫情  
 出征無勇非皇道  
 護國軍神盡是英

송강세규(松岡世奎)

平安北道 龍川郡 北中面 龍洲洞

반도민도 국방을 분담하게 되었으니  
 환호성 속에 감사하는 마음 더욱 새롭구나  
 오늘은 이름 없는 민초지만  
 내일은 군대에 필요한 인재리라  
 억조창생 모두 군인 되는 것은 참다운 이상이며  
 팔굉일우 하는 것은 위대한 정신이라  
 바다와 같이 넓은 성은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붉은 충정으로 나라 위해 몸 바치는 것뿐이라네

半島分擔攻防役  
 歡呼聲裏感心新  
 今朝草野無名輩  
 明日軍門有用人  
 億兆皆兵真理想  
 八紘爲宇大精神  
 聖恩如海何由報  
 只待丹衷殉國辰

남상익(南相翊)

忠清北道 鎭川郡 鎭川面 邑內里

반도 청년 또한 의무병으로 참여하니  
 충성과 무용(武勇)으로 간성이 되리라

半島亦參義務兵  
 忠誠勇武作干城

81) 김정호(1885~?). 경제인. 경기도평의회원·도회의원(1927·1933). 시중회 평의원(1934.11). 중추원 참의(1935.4~1938.4). 고려시보사(주식회사) 창립 및 취체역 사장(1935.7). 애국개성호 비용 1만 원 헌납(1937.7). 국민총력 조선연맹 개성연맹 이사. 국방헌금 1만원 헌납(1941.12).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대주주(3천주) 및 중역(1944.10). 반민특위 체포(1949.2.21).

82) 雍容은 溫和하고 莊重며 從容하여 不迫한 모양을 말한다. 『漢書』卷六十四下「王傳」‘遵遊自然之勢, 恬淡無為之場, 休徵自至, 壽考無疆, 雍容垂拱, 永永萬年. 大唐三藏取經詩話中: 美女雍容, 人家髣.’

83) 潑瀾는 潑刺의 誤記인 듯하다.

내선일체 이로부터 완성되리니  
황은에 감격해 받들기를 민중들 하나같이 한다네

內鮮一體從茲遂  
感戴皇恩衆庶情

양희철(梁會喆)<sup>84</sup>

全羅南道 光山郡 林谷面

나라의 융성은 군사력에 있으니  
무운과 위엄을 떨침에 용감하고 또 날래야 한다네  
비록 예로부터 군인 양성 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요기(妖氣)가 말끔히 개지 않았네  
충성을 다하라고 청년대에게 부탁하노니<sup>85</sup>  
붉은 피로 한 맹세의 맘으로 적에게 달려가 쳐 없애라  
총독부에서 징병령 내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몸을 바쳐 간성이 되라

國之隆盛在於兵  
揚武宣威勇且精  
從古養成皆有制  
況今氛祲未全晴  
披肝寄語青年隊  
赴敵期殲赤血誠  
莫待廟堂徵發令  
呈身自薦作干城

허정(許鼎)

咸鏡北道 城津府 雙浦町

반도의 우리도 황민이 되었으니  
근왕(勤王)의 의무 이제 평등하게 실천하는구나  
아름다운 명을 받들어 군역을 따라야만 하리니  
드넓은 은혜에 보답함에 어찌 몸을 아끼리오?  
용기를 내어 간성(干城)이 된다면  
역사에 새롭게 이름을 드리우리라  
공영권을 만들려는 이때, 때맞춰 내리는 비와 같은 일이며  
동아시아 일가족이 되면 온 천하는 봄과 같아지리라

半島吾生亦化民  
勤王義務是惟均  
奉承休命當從役  
報答洪恩敢惜身  
若能賣勇干城作  
庶可垂名竹帛新  
共榮在此及時雨  
東亞一家天下春

동촌중희(東村中熙)

咸鏡南道 高原郡 高原面 觀德里

징병제도 조선에 반포되니  
모든 정책 이제야 분명해지네

惟茲責務誓完全  
均視皇恩何以報

84) 1914년생. 본적은 전라남도. 판사(1949.12.19).

85) 披肝은 정성스레 대하며 忠貞을 두 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宋나라 司馬光의 〈體要疏〉에 '雖訪問所不及, 猶將披肝瀝膽, 以效其區區之忠. 亦作披瀝肝膽.'이라 하였다.

삼사십년동안 갈망했던 일이라  
 이천만 민중 평등해졌다 기뻐한다네  
 우리 민족 이제부터 중책을 짊어지니  
 우리 민족 지금에 이르러서야 진정 영예로워지리라  
 일시동인 하시는 황은에 어찌 보답하리오  
 이에 책무 완수 할 것을 맹세한다네

民族到今榮譽專  
 吾人自此負荷重  
 二千萬眾喜無偏  
 三四十年望若渴  
 一體政謨始瞭然  
 徵兵制度布朝鮮

박시양(朴始陽)

忠淸南道 禮山邑 禮山里

일시동인하시는 성덕 우뚝하심에 감동하며  
 북두성에 의지해 궁성요배 하나이다  
 순국하려는 마음 금석같이 굳으니  
 대동아 공영을 만드는 전장의 승전 소식 날아옵니다  
 만물에 춘풍 불어 모두 은택 미치니  
 하늘의 해와 달처럼 고르게 빛납니다  
 높은 은혜에 보답하는 바로 오늘  
 우리 청년들 거역하지 않길 경계하나이다

同仁聖德感巍巍  
 起拜宮城北斗依  
 効死精神金石重  
 共榮消息羽書飛  
 萬物春風皆及澤  
 一天日月不偏輝  
 報答鴻恩正今日  
 戒吾年少庶無違

국본세훈(國本世薰)

京畿道 抱川郡 郡內面 上城北里

우리 조선에 징병제 실시 결의하시니  
 골고루 천황의 은혜 적시어지리  
 사해 만방에 위엄을 떨쳐 풍진을 제거하려면  
 3년간 강무(講武)해야 지략이 완비되리라  
 공을 세우고 개선하면 궁궐에 나갈 것이오  
 용맹히 향할 땐 적수가 없으리라  
 충군애국을 평생의 일로 삼아  
 일편단심으로 매진하여 태양 같으신 천황을 봉공하라

決議徵兵施我鮮  
 均霑雨露戴仁天  
 宣威四海風塵掃  
 講武三年智略全  
 功若奏旋宜在殿  
 勇能所向更無前  
 忠君愛國平生事  
 一寸丹誠奉日懸

서하영채(西河瑛采)

京畿道 開城府 滿月町

숭고한 징병제 조선에 실시되니

崇高兵制施朝鮮

조칙을 내리신 황은에 감읍하네<sup>86)</sup>  
 태어나신 몸 바쳐 나라에 보답하고  
 죽기 전엔 심신이 다하도록 천황에게 충성해야 한다네  
 어지신 성덕께는 원래 대적할 자 없는 법이라  
 민심은 의를 위해 떨쳐 일어나 총동원 되리라  
 전 세계 지도 하나로 통합되리니  
 소화(昭和)의 무운 이제부터 천년만년 하리라

感泣皇恩奉戴天  
 報國獻身生以後  
 忠君盡瘁死之前  
 行仁聖德元無敵  
 奮義民心總動員  
 全幅輿圖歸一統  
 昭和武運萬斯年

윤병철(尹秉哲)

京畿道 京城府 桂洞町 8-9

서양을 정벌함은 우리 동아시아를 보존하기 위해  
 신민이 하나되어 모두 협력한다네  
 오래도록 기다렸던 일 이제야 소원대로 되니<sup>87)</sup>  
 씩씩한 청년들 마침내 열렬히 일어선다네<sup>88)</sup>  
 무운의 책략은 평화를 완수하기 위해서이니  
 (대동아 공영권의)국책은 마침내 건설되리라  
 황은에 보답하고자 노력한다면<sup>89)</sup>  
 반드시 기린각에 오르는 공훈 세우리라<sup>90)</sup>

征西義保亞洲東  
 一體臣民協力同  
 加額多年今副願  
 摩拳壯士竟趨風  
 武謨完遂平和裏  
 國策終成建設中  
 報答皇恩須戮力  
 必參麟閣古人功

이승근(李承瑾)

京畿道 京城府 仁寺町 23

국민의 의무는 모두 가벼이 여기기 어려운법  
 병역의 의무는 삼대 의무 중 두 번째 의무라네  
 일시동인하시는 마음으로 황민화의 은혜 적셔주시니  
 이 몸 천만번 죽더라도 간성이 되리라

國民義務總難輕  
 三大之中第二成  
 一視同仁霑化雨  
 此身萬死誓干城

86) 皇帝의 詔書를 시작하는 첫머리의 상용어구로 天子가 天命을 받들어 全國을 통치하는 것을 표시한다. 王世貞의 「鳴鳳記 第四十一」에 보면 '奉天承運皇帝詔曰, 繩愆糾繆.'이라는 구절이 있다.  
 87) 加額은 ㉠사람을 몹시 기다림을 말한다. 혹은 ㉡손을 머리에 얹어 慶幸, 感激을 표시한다는 뜻이다. 『宋史』卷三三六 「司馬光傳」에 '衛士望見, 皆以手加額曰: 此司馬相公也.'라 하였다. 여기서 ㉠의 의미로 쓰였다.  
 88) 摩拳은 行動이 준비되었거나 무력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혹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모양을 형용한다. 元나라 關漢卿의 單刀會 第三折 '但題起廝殺呵, 摩拳擦掌, 排戈甲, 列旗鎗, 各分戰場'라고 하였다.  
 89) 戮力은 合力, 努力을 말한다. 書經의 「湯誥」에 '聿求元聖, 與之戮力'라 하였고 南朝宋의 劉義慶이 지은 『世說新語』에 '當共戮力王室, 克復神州, 何至作楚囚相對?'라는 구절이 있다.  
 90) 麒麟閣은 공훈을 쌓은 것을 말한다. 한 선제(漢宣帝) 때 광광(霍光)·병길(丙吉)·소무(蘇武) 등 11인의 공신의 상(像)을 그려 기린각에 걸어 두었던 것을 말한다. 『漢書』 「蘇武傳」.

청년들 보니, 모두 정예로워<sup>91)</sup>  
 요마를 내쫓아 (우리들) 놀래킨 것 다 없어리라  
 황은이 하늘처럼 드넓음을 아는가?  
 제군들은 필승으로 승평에 보답해야 하리라

看來草木皆精銳  
 逐去妖魔盡駭驚  
 知否皇恩天與大  
 諸君必勝答昇平

대산춘강(大山春岡)

京畿道 京城府 阿峴町 1-231

애국충군은 성심에서 나온 것  
 청년들 몸과 마음, 일시에 다 바치려하네  
 무지한 나무꾼들 (전쟁을 대비한)장기책 이라하지만  
 용사들의 (의지)만리장성보다 더 견고하다네  
 바다를 건너 멀리까지 행군하는 것을 어찌 꺼리리오?  
 창을 베고 자지만 영예롭게 죽을 것만 맹세할 뿐이네  
 비휴(貔貅)같은 병사들 넘치는 은혜에 헤엄치며<sup>92)</sup>  
 천황의 威光을 받들어 팔굉(八紘)을 진동시켜라

愛國忠君出自誠  
 青年心血一時傾  
 頑芻擬以長期策  
 勇士堅於萬里城  
 涉海何嫌行且遠  
 枕戈只誓死爲榮  
 貔貅共沐洪恩下  
 奉答稜威振八紘

송산영태(松山永泰)

忠淸北道 堤川郡 邑部里

징병소식 우리 조선까지 미치니  
 천황께서 은혜로이 일시동인 하심에 황송하고 감격해하네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소원 이루게 되었으니<sup>93)</sup>  
 간담이 쏟아져 땅을 더럽히더라도 뜨거운 충성 맹세하리라<sup>94)</sup>  
 안문에서는 장성의 임무를 생각할 것이고<sup>95)</sup>

徵兵消息暨吾東  
 惶感天恩一視同  
 革可裹尸成素願  
 肝雖塗地誓丹忠  
 鴈門思荷長城任

91) 草木은 청년을 지칭한다.  
 92) 貔貅는 맹수의 이름인데 범과 같다고도 하고 곰 같다고도 하며, 옛날에 이것을 길들여 전쟁에 썼다고 한다.  
 93) 裹尸는 시체가 말 가죽에 싸인다는 뜻이다. 『史記』卷86 「刺客列傳 論贊」 후한(後漢)의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사나이는 변방의 들판에서 쓰러져 죽어 말가죽에 시체가 실려서 돌아와 땅에 묻히는 것이 마땅하다.(男兒要當死于邊野 以馬革裹尸還葬耳)”고 하였는데, 이후 나라를 위해 변방에 나가 목숨을 바치는 비유로 이 말이 쓰이게 되었다. 『後漢書』卷24 「馬援傳」.  
 94) 肝腦塗地에서 온 말이다. 『사기(史記)』 「유경열전(劉敬列傳)」에는 한(漢) 나라 고조(高祖)와 유경의 대화가 실려 있다. 유경은 고조에게, “폐하께서는 축 땅과 한을 석권하고, 항우와 싸워 요충지를 차지하도록까지 대전(大戰) 70회, 소전(小戰) 40회를 치렀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간과 골이 땅바닥을 피칠하게 되었고, 아버지(父)와 자식이 들판에서 해골을 드러내게 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使天下之民, 肝腦塗地, 父子暴骨中野, 不可勝數)라고 하였다.  
 95) 鴈門은 地名이다. 山西省 代縣 西北에 위치하며 形勢가 雄險하여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 혹은 西陲關



기린각에서는 세상을 평정하는 공로를 생각하리라  
반도에서 붓을 버리고 칼을 택하여<sup>96)</sup>  
막사에선 책략을 내고 갑옷을 두르고 출정하여  
서양 오랑캐를 무찌를 이는 누구인가?

麟閣期圖曠世功  
半島誰生投筆記  
幕籌胸甲破西戎

〈출전 : 『祝徵兵制實施』, 朝鮮儒道聯合會, 每日新報社, 1943년 1월 25일〉

### 3. 『유도(儒道)』 게재 친일논설 사례

#### 1) 석진형(石鎭衡)

##### (1) 시대와 유교

[본문은 낭자(囊者)<sup>97)</sup> 전라남도 참여관 석진형 씨가 지방개량을 위하여 관내를 순회하다가 시(試)한 강연의 대요(大要)라]

제군이여, 본일(本日) 여기에 제군과 상회(相會)함을 얻었음은 진실로 영광인줄로 생각합니다.

본일의 강연회는 당초의 계획은 경성(京城) 경학원(經學院)에서 박학한 명사를 맞이하여 제군께 훌륭한 강연을 듣게 할 예정이었던바 형편에 의하여 본인과 같은 천견박식(淺見薄識)한 자가 대신하여 등단하였음은 제군께서는 오직 불행이신줄로 압니다마는 이점은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일의 회합에 대하여 군당국(郡當局)의 다후(多厚) 주선에 감사합니다. 제군에 대하여 일언을 드리려 함은 근래 군청 혹은 그 타 관청에서 내참(來參)을 청한 경우에 다소간 괴롭게 생각하시는 감이 있는 듯 하온대 이 번시(弁是) 양해(諒解)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무릇 우리 인류가 이와 같이 다수로 임립 총총(林林葱葱)<sup>98)</sup>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함에는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그 소견의 장처(長處)<sup>99)</sup>를 취하고 그 단처(短處)<sup>100)</sup>를 버림은 우리가 진보할 길을 도모하는 첫 순서인 줄로 사료(思料)하니, 그 길을 도모함에는 아무리 하여도 회합하기가 필요하외다. 관에서는 때때로 제위(諸位)에게 대하여 내참하기를 원

---

이라고도 한다.

96) 문필을 그만두고 무예에 종사함을 말한다.

97) 지난 번.

98) 사물이 많이 모인 곳이나 모양을 뜻함.

99) 장점을 뜻함.

100) 단점을 뜻함.

함은 대개 이 의미로 나온 것인 즉 금일과 같은 경우 외에 다른 경우에도 관의 의사가 있는 바를 선의로 해석하시기를 희망하나이다.

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언으로써 양해하시기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유림계(儒林界)에서는 종래로 관습에 의하여 유교 이외의 교에 대해서는 이단(異端)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을 듯 하온 바, 유림을 본위로 생각하시는 때는 혹시 그러한 점이 있는지도 알 수 없으나 세계에 유교만 존재하면 모르거니와 여하간 유교 이외에 종교가 자고(自古)로 명백히 존재한 이상은 이러한 상태도 다소간 회득이치(會得以致)할 필요가 있는 줄로 생각하나이다. 이 의미로 말씀함은 혹은 다른 종교에 미치는 데가 있을지라도 저 사람은 강하게 이단을 말하여 우리에게 들리는 것인 줄로 짐작하시지 마시기를 희망합니다. 자기의 일을 능히 하려는 경우에는 지타(知他)의 필요가 있으니 옛 말에 말하기를 '지피이지기(知彼而知己)하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하였음은 이 일을 가리켜 말한 줄로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첫째로 유교는 어떠한 시대부터 조선에 들어 왔는가 함은 본인보다 제위가 한층 상세히 아실 것으로 생각하나 다음 차례에 의하여 간단히 그 경로를 말씀하려 하나이다.

유교라 하면 우리는 그 명칭을 익히 알되 타인종 즉 백인종과 같은 경우는 유교라 하면 이해하지 못하나 공자교(孔子教)라 하면 능히 이해합니다. 즉 서양인들은 유교라고 하지 않고 공자교라고 하니 이에 대하여는 각색(各色) 이유가 있을 듯한데, 원래 유교라 부름은 공부자(孔夫子)께서 창설(創設)된 것이 아니요 그 원천은 삼황(三皇)오제(五帝)의 요순우탕(堯舜禹湯)의 시대부터 그 근원을 쌓아 온 것인 듯한 대 그 후 주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그 제도가 대진(大振)하였고 제반(諸般)이 찬연(燦然) 극비(極備)하였으되 혹은 유변(流煩)한 경향이 있는 듯 하나이다. 이 시대에 공자께서 노(魯)나라에서 탄생하시어 시서(詩書)를 대산(大刪)<sup>101)</sup>하여 정리를 도모하신 동시에 천하를 철환(轍環)하사 이 도를 천명(闡明)으로써 스스로 포교를 하신 결과로 이 도(道)를 중흥하신 모양이 된 까닭으로 유교라면 곧 공자를 추모하며 공자라면 유교를 창설하신 것과 같은 관념을 더불어 한줄로 생각합니다. 이리하여서 서양인까지 유교라고 하지 않고 공자교라 하는 줄 하나이다.

유교가 조선에 들어왔음은 신라(新羅) 성덕왕(聖德王) 16년에 공자와 10철(十哲) 72제자의 초상(肖像)을 당시의 국자감(國子監)에 봉안(奉安)하였음을 시작으로 한 것이외다.

고려조에 이르러서 전조(前朝)의 제도를 습답(襲踏)하여 최고로 국자감에, 그 다음에는 경학(經學)이요, 구제(九齋) 최중(崔仲)이 건설한 것과 12도(徒) 12문신이 건설한 것과 각군(各郡)에는 향교, 촌락에는 서당 혹은 서방(書房)을 세워서 주로 경학을 수양함에는 서당과 서방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국자감에 이르게 한 터인데 중엽(中葉) 이후로 말엽(末葉)에 이르기까지 사이에는 불교가 성행할 사, 유교는 심히 부진하고 당시 충렬왕(忠烈王)시대에 유명하신 유신(儒臣) 안향(安珦)이란 양반은 이 상태를 탄식하여 영시(咏詩)한 것이 있으니 제위도 역시 상세히 알고 계신 줄로 생각하오나 잠시 말씀하면

향로처처개기불(香爐處處皆祈佛) 소관가가진사신(簫管家家盡祀神)

독유수간부자묘(獨有數間夫子廟) 만정춘초적무인(滿庭春草寂無人)

이라 하는 것이올시다. 이 시는 근근(僅僅)<sup>102)</sup> 28자로서 그 시대에 유교가 심히 쇠미(衰靡)하였던 상태

101) 산(刪) : 깎다, 삭제하다, 제하다, 정(定)하다.

를 표언(表言)한 것인 줄로 압니다. 즉 상구(上句)는 당시 불교 또는 기타 잡교가 성행된 상태를 표시하며 하구(下句)는 유교가 부진하여 문묘(文廟)가 적막(寂寞)하기에 무등(無等)<sup>103</sup>하였던 모양을 표시한 것이외다.

나는 참여관(參與官)으로 본도(本道)에 도임(到任)한지 약 반년여에 불과하되 다행으로 각 군을 한번 순회한바 군읍(郡邑)에 이를 때마다 문묘에 참배하였습니다. 그 상태를 배관(拜觀)하오면…… 그 군명은 표시하기를 어려우나 대개 일반인 줄로 인정하였나이다……. 어떤 군을 일레로 말하면 때마침(時適) 늦봄(晩春)이니 보리(麥)의 수확 때였습니다. 묘의 정문을 들어가면 대개 그 건축양식은 명륜당(明倫堂)이 있고 명륜당과 대성전(大成殿) 사이는 뜰인데 그 뜰에서 타맥(打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맥하기는 한지(閑地) 이용법(利用法)으로는 좋을지는 몰라도 명륜 당상(明倫堂) 상상(床上) 또는 대성전의 연하(椽下)는 타작할 보릿단이 추적(推積)하여 완전히 창고가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며, 동서재(東西齋)는 집 없는 빈자(無家貧者)의 임시 거처로 변하였고 정전(庭前)은 계우장(繫牛場)<sup>104</sup>이 되어 그 분뇨(糞尿)와 맥간(麥稈)<sup>105</sup>으로 퇴비사(堆肥舍)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용적으로는 혹은 요령(要領)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나 부근은 완전히 춘초(春草)로써 매몰되어 초동(樵童) 목수(牧叟)<sup>106</sup>가 이리저리 꼴을 베니, 이 역시 실용적인지. 대성전에 이르러서야 수간(數間)을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계단 아래에서 공부자(孔夫子) 신위(神位)에 대하여 참배를 마친 후 대성전의 내국(內局)을 배관(拜觀)하려고 문의 입구에 들어서 본즉 미취(徽臭)<sup>107</sup>가 코를 찌르니 신위를 봉안(奉安)한 제상(際牀)등은 대개 비틀어지고 제상 위에는 언제나 공찬(供饌)한 것인지 그 잔물(殘物)이 산재하였고, 그 사이에 또 무엇인지 소타원형(小橢圓形)의 검은 알갱이가 산재함을 보니 즉 쥐똥이더이다.

제군이여, 전에 말씀한 안향이란 양반이 금일에 생존하였더라면 어떠한 시를 지으셨을지. 혹은 “가련 석일명륜지(可憐昔日明倫地) 환작금시타맥장(換作今時打麥場)”이라 함과 같은 시를 지으셨을 터이요. 설마 이런 서투른 시는 짓지 아니할 지언즉 한층 형용하여 영음(咏吟)<sup>108</sup>할 줄로 생각하나이다.

이상은 신라시대로부터 고려조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조(李朝)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44~45쪽 누락)

사(事)가 원인이 되고 저승에서 이에 응당한 결과를 받게 한다는 의미올시다. 가령 말씀하면 불교의 극락정토(極樂淨土)와 지옥설과 또는 예수교의 천국설과 같다 함이 이 의미가 아닌가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의미 아래에 세상 학자가 종교라 하면 이생의 선행으로써 저승의 장래를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이다.

이에 유교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위가 아시는 바와 같이 내세(來世)에 대한 것에 언급할 바가 없고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밟아야 할 도(道)를 가르치는 것인 줄로 생각하나이다.

102) 겨우.

103) 그 이상 더할 수 없을 정도라는 뜻.

104) 소를 매어 놓은 곳.

105)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뜻함.

106) 마소치는 늙은이를 뜻함.

107) 곰팡이 냄새를 뜻함.

108) 시를 읊다, 노래하다.

즉 인류에는 삼강(三綱)이 불가무(不可無)니 오륜(五倫)이 불가불유(不可不有)이니 하는 등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도를 가르치는 것인즉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한 도덕이라 이르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설(兩說)은 세상에서 흔히 틈(闕)한바 학자의 설(說)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 시비 여하는 다른 문제로 하고 나는 유교도 훌륭한 일종의 종교인 줄로 짐작(斟酌)하니, 그 이유는 얼마든지 있으나 생략하나이다.

셋째, 세계의 종교가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함에 대하여 대강 말씀하고자 하나이다. 우선 우리는 세계의 종교를 관찰하기 전에 다소간 준비할 필요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자못 큰 덩어리인즉 단지 보통의 장소와 보통의 육안으로 충분히 투견(透見)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합한 이 장소를 큰 비행기로 삼아 또한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만리경(萬里鏡)을 한 개씩 준비하고 같이 이 세계를 부감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어느 방면에 대하여 만리경을 향하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유럽에 적(籍)을 둔 자이기 때문에 종교방면에 만리경을 향하리다. 우리가 탑승한 비행기는 자못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휴대하는 만리경은 자못 가격이 높은 것인즉 잘 보이기는 보이되 어떻게 하던지 세계는 자못 멀고 또한 광대하니 임림총총(林林蔥蔥)한 다수 종교의 작은 깃발은 아득하여 우리 만리경 중에 비치지 못하나 큰 깃발은 명백히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얼마나 보입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 보입니까.

불교가 보입니다. 저 불교는 제국 기원전 367년, 공자 탄생 전 477년 서력(西曆) 기원전 1027년에 인도(印度) 석란도(錫蘭島)에서 탄생하신 석가(釋迦)님의 창설로 점점 확대하여 인도 전체에 보급한 후 방향을 전환하여 동북방면에 진출하였다가 중국 서북방면에서 월씨국(月氏國)을 건립한 때도 있었습니다.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읽으신 이가 상세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한명제(漢明帝) 시대에 서역(西域) 불법(佛法)이 비로소 중국(中國)으로 통하여 지나(支那)에 수입되었고 진(晉)시대에 이르러서야 자못 융성을 이룬 형적(形跡)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또 방향을 전환하여 조선반도에 이입(移入)되었는데 진(秦)나라 왕 부견(符堅)이 불상과 경문을 고구려 소수림왕(小獸林王)에게 보낸 것에서 비롯한 것이외다. 다음에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흙명(欽明)천황시대에 백제에서 조선 해협을 지나서 일본으로 전하게 된 바 일본에서는 점차 융성하여 금일에 이르게 된 것이외다.

두 번째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유교가 보입니다. 유교의 근원은 태고로부터 이래(以來)한 것인 줄은 아시는 바와 같되 공자님을 중심으로 하여 본즉, 공자님은 제국 기원후 111년, 서력기원전 550년 중국 동주(東周)의 영왕(靈王) 22년에 노나라에서 탄생하신 이래로 크게 그 도의 천명(闡明)을 도모하사 조선반도까지 전래한 일은 전에 말씀한 바와 같거니와 그 후 응신(應神)천황시대에 백제에서 일본에 전하게 되었으니 그 경로로 말하면 백제의 아직기(阿直岐)라는 사람이 경전을 휴대하여 일본내지에 도항(渡航)하였다는데 이 사람이 그리 박학자(博學者)가 아니었던지 동조(同朝)에서는 황전무별(荒田巫別)이란 자를 파송한 후 왕인(王仁)이라는 사람을 내조(來朝)<sup>110</sup>하게 한 후 태자의 스승으로 삼아 경전을 강연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점차로 한학(漢學)이 전파되어 후에는 유학생도 직접 중국에 파송하게 되었고 유익하고 왕성하게 된

109) 부딪치다, 충돌하다라는 뜻.

110) 외국의 사신이 찾아옴.

것이외다. 이와 같이 불교와 유교는 연대와 구역이야 서로 다른 것이 있으나 호상전후(互相前後)하다가 아시아 동방 방면에 성행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세 번째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교가 보입니다. 예수교도 유교와 같이 그 근원은 더 좀 이전 구약시대로부터 있었던바 예수교가 지금으로부터 1921년 전에 아시아의 서방 유태국(猶太國)에서 탄생하여 크게 그 교의 전파를 도모하였는데 그 전파방향은 불교와 유교가 행한 지방과 정반대로 서방 즉 구라파 방면으로 향하고 다시 서방에 진출하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 건너간 것이외다.

네 번째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슬람교(回回教)가 보입니다. 이슬람교가 보이는데, 해당 교는 제국 기원 1231년, 서력 571년 중국 진선제(陳宣帝) 시대 3년에 아시아의 서방인 아라비아 지방 '멧가'<sup>111)</sup>란 땅에서 탄생한 '마호메트' 씨가 창시한 종교인바 마호메트 씨는 생후 2개월 만에 부친이 별세하였고 6세 때에 모친과 사별하였은즉 숙부에게 양육되었다가 그 후에 「파라」<sup>112)</sup>란 산중에서 수양하여 40세 때에 비로소 전도를 시작한 바 3년에 이르렀으며 교도(敎徒)는 40명도 미만(未滿)하였기에 그 방법을 바꾸기에 이르렀는데 다행으로 일가 중에 무장(武將)이 3명이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과(干戈)를 잡으면서 포교를 시작한 바 그 후에 점점 보급하여 아라비아 지방 일대로 페르시아(波斯) 북방(北方)에 진출하였고 지금은 중국 북방에 그 교도가 많이 있다고 하니 그 진행방향은 불교 유교 및 예수교의 전파지와 떨어져 있어 그 중간으로 초(稍)히<sup>113)</sup> 북방에 편재한 방면으로 향한 형적(形跡)이 있습니다.

넷째, 위의 4대 종교의 현상과 장래를 관찰하고자 하나이다. 장래에 속한 사항은 형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과거와 현재를 관찰하여 추측할 외에 길이 없나이다.

첫째 불교의 현상은 어떠한가하면 과거는 전술(前迹)함과 같거니와 현상은 옛날(昔日)부터 그런 도(道)를 모양으로 소장(消長)<sup>114)</sup>할 뿐인 상태올시다. 그러면 예수교가 어떠한가하면 예수교는 서주(西走)하다가 유럽을 거친 후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건너가 다시 발길을 전환하여 세계의 동방면 즉 불교와 유교가 행한 방면에 들어와서 같이 포교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唐詩)에 말하되 「행진 강남수천리(行盡江南數千里)」라. 이와 같은 모양으로 소위 구주(歐洲) 수만리를 진행(盡行)<sup>115)</sup>하고 또 동아시아의 유불계(儒佛界)에도 「불진행(不盡行)하면 불기(不己)」라는 감(感)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지금 극동 중국 북방까지 들어와 있으며 동북면을 관망하면서 그 발길을 어느 방면에 향하여 진행하면…… 이라고 주저(躊躇)하는 모양이올시다.

그러면 유교는 과연 어떠한가. 유교는 자고로 자기가 걸기에 관숙(慣熟)한 도를 간신(艱辛)히 보행(步行)하는데 때때로 길가에 벌떡 앉아서 휴식하는 상태이니 여간치 않게 피곤한 모양은 미안도 하고

111) 멧가 : 메카(Mecca).

112) 메카 교외의 히라(Hira) 언덕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 유일신 알라에 대한 숭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113) 얼마간, 약간, 다소, 조금을 뜻함.

114) 쇠하여 사라짐과 성하여 자라남.

115) 철저히 행하는 것, 성취를 이루는 것을 뜻함.

동정을 금치 못하니 목불인견(目不忍見)하는 격이올시다. 그 모양은 피곤함이 극(極)에 달해 진행(盡行)치 못한 것도 같고 시장(嘶腸)한 모양도 같고 또 족부(足部)에 무엇인지 고장이 생긴 듯도 하며 신은 떨어지고 날은 저문 모양으로 보입니다.

제군이여. 이제 세계에 있는 4대교의 장래를 연구합시다. 다른 종교는 고사하고 우리들이 일상에서 신앙하며 또 상행(常行)하는 유교에 대하여 우리들이 한껏 지혜를 짜고 연구하여 봅시다. 생각하건데 종교가 나아갈 방면은 세계상에 구역이 없나니 국경도 없으며 산도 바다도 없고 히말라야와 알프스와 같은 높은 산도 능히 넘으며 대서양, 태평양과 같은 대양(大洋)도 능히 넘어서 세계상 어느 곳을 불문하고 인류가 있는 한은 끝까지 나아갈 것이며 황색인종 백색인종 흑색인종의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그 인류가 있는 한까지 그 인류의 뇌수(腦髓)를 관철하여 가는 것이올시다. 무릇 종교란 것이 이와 같이 나아감에 대하여 제군은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종교가 그 자신에 수족에 있으며 종교가 그 자신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란 것이 이와 같이 나아감에는 원동력이 있으니, 그러면 동력이란 어떤 것이요. 다름이 아니오라 종교를 믿는 교도, 또는 그 교를 지배하기 위하여 배치한 지도자 그것이 즉 그 원동력이 될 것이올시다. 과연 즉 신도와 지도자가 위대한 인격과 지식을 구비하여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능히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교는 성행할지나, 만약 탄판으로 그 신자와 그 지도자가 시세에 암매(暗昧)<sup>116)</sup>하여 맹자(盲者)와 병어리(啞者)와 절름발이(跛者) 병신 또는 백치 풍전(風癲)<sup>117)</sup>등과 같은 자 대다수를 점한 경우에는 그 교는 보행치 못할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요컨대 금후에 4대 종교의 소장(消長) 여하는 필경 인물 경쟁문제로 귀착할 것인 줄로 압니다.

제군이여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크게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 자각할 필요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공부자(孔夫子)는 당시 천하를 철환(轍還)하사 포교하셨던 때에 역언(易言)에 가라사대 '복주지면(服周之冕), 승은지로(乘殷之輅), 행하지시(行夏之時)'<sup>118)</sup>라고, 제군이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만일 공자님이 오늘날에 탄생하셨더라면 전도하시기를 위하여 당시의 소위 천하보다도 넓은 천하를 철환하실 것이겠습니까. 또한 포교하시기를 위하여 '삭발(削髮), 착양복(着洋服), 승전차기선비행기(乘電車汽船飛行機), 용서력음력노력(用西曆陰曆露曆)'하실 줄로 생각됩니다.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sup>119)</sup>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오. 이 말의 반면에는 '기지소욕소신시어인(己之所欲所信施於人)'<sup>120)</sup>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외다. 제군이 유교를 바라고 또는 믿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도 전하시오. 삼강오륜을 선도(善導)인 줄로 인정하거든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또 전함에는 인류에 구별이 없을 것이요. 아니라면 있어야 할 이치(理)가 없을 것이외다. '비선왕지

116) 사람됨이 어리석고 못나서 사리(事理)에 어두움을 뜻함.

117) 풍에 의하여 생기는 간질을 뜻함.

118) 논어(論語) 위령공(慰靈公) 편에 나오는 말로, 안연(顔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라의 역법을 쓰고(行夏之時),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乘殷之輅), 주나라의 면류관을 쓰며(服周之冕), 풍류는 곧 수모루 할 것이며, 정나라의 음악은 추방해야 하며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放鄭聲遠佞人), 정나라의 음악은 방탕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위태로운 것이다(鄭聲淫佞人殆).'

119)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라는 뜻.

120) 자기가 원하고 믿는 바를 남에게 베풀라는 뜻.

법복불감복(非先王之法服不敢服), 비선왕지법언불감언(非先王之法言不敢言)<sup>121)</sup>이라 말하여 국어(國語)도 불어(不語)하며 양어(洋語)도 불운(不云)하고 또 양복도 불착(不着)하며 화복(和服)도 불착하고서 여행도 하며 포교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세에 순응하며 대세(大勢)에 능통하시오. 그리고 노력하시오. 이와 같이 한 후에야 비로소 유럽이 소생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에 제위에게 대해 큰 소리로 절규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제군은 자기 실행을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크게 유교를 개방하시오. 즉 문호를 개방하시오. 문지(門地)의 유무를 불허하고 사해 사민을 모두 삼강오륜하에 맞이하시오. 그러한 후에야 비로소 유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부자(孔夫子)님께 대할 의를 다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출전 : 石鎭衡, 『時代와 儒敎』, 『儒道』 제4호, 儒道振興會, 1921년 12월, 45~52쪽〉

## 2) 이명세(春山明世)

### (1) 동아공영권과 유교의 역할

상임이사 춘산명세(春山明世, 하루야마 아키요)<sup>122)</sup>

나라를 세운(肇國) 이래 만세일계의 천황을 받드는 빛나는 역사를 가지며, 세계인류를 위하여 최고문화의 건설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일본이, 이번 대동아전쟁을 계기로 동아신질서 건설을 실현하고자 또한 걸음을 내디뎠다.

작년 12월 8일, 대 미영(米英) 선전포고의 조서(詔書)가 환발(渙發)되면서부터, 충용무쌍한 우리 '황군'<sup>123)</sup>은 출정 후 약 백일의 짧은 시일으로써, 그들이 수백년래 동양침략의 야심으로써, 고심하면서 장비를 갖추고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고 있던 동양의 몇 군데의 군사적 근거지를 연전 연파하여, 전사상 처음 보는 대 전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단순히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일본의 병기가 우수했다든가 작전계획이 교묘했다든가 여러 가지 평론을 할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그 주된 원인을 연구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능위(稜威) 아래에 일본국민의 독특한 고유의 도의정신의 발로라는 것을 단언하고 싶은 것이다.

원래 일본국민은 유사 이래 역대 신성한 황종(皇宗)의 유훈을 이어 받아, 국민의 모든 생활, 활동은 모두 천양(天壤)무궁한 황운을 부익(扶翼)하여 받드는데 귀일하는 정신이 자연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발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을 널리 세계에 구하고 그 장점을 섭취하는 기민한 두뇌를 가지며, 이 유교도 일본에 수입된 지 천(千)백년 이래, 충효를 기본으로 하고, 실천공행을 숭상하는 아름다운 진수를 탐구하고, 이것을 황도정신에 합치시키고, 이후 사도(斯道)를 연구실행하는 석학자를 배출하고,

121) 선왕의 법복이 아니면 감히 입지 말고, 선왕의 법언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말라는 뜻.

122) 이명세(李明世)의 창씨명.

123) 일본군.

정치풍교를 적극적으로 지도했기 때문에 충을 다 하고 나라에 보답하는 것을 신민의 상도(常道)로 삼는 정신은 더욱 더 공고하게 되어, 메이지유신의 대업은 이루어지고, 일본제국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이 아름다운 황도정신을 일본국민의 독점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전 세계에 널리 선전하여, 세계인류로 하여금 빠짐없이 황화(皇化)를 입힘으로써 공존공영의 황국 본래의 대 이상완수를 향하여 일로매진하는 것이 이것 또한 도의국인 일본 전래의 사명이며 그 내용은 유교의 수기(修己), 치인(治人), 대동태평의 대 이상과 스스로 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하니 그들 미영 민족의 소위 문명의 기초를 만든 사상은 개인주의, 유물주의, 공리주의로서 민중의 모든 생활, 활동은 모두 개인의 이기적이고 향락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상이 극도로 발달한 결과, 소위 국가정치라는 것도 약육강식을 정당시하고, 따라서 세계 도처의 저급문화의 약소민족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노예로 간주하여, 착취무역의 경쟁을 더욱 더 격렬화시켜서 최근 백년 이래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나에 그 마수를 뻗어서 아편전쟁에 의하여, 지나의 약체가 폭로된 것을 기회로, 더욱 더 지나의 배후에 서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모책계를 농간해 온 것이 그들이 지금까지의 죄악의 대략으로서 만주사변·지나사변 이번 대동아전쟁도 그들의 죄악을 성토하고 응징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다.

그들의 개인주의·유물주의·공리주의는 그 뿌리에서 우리의 황도정신과는 서로 맞지 않아서 빗탄 상불용(氷炭不相容)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포악무도한 행동을 그대로 좌시할 때에는 동양인들의 동양은 그들의 식민지화가 될 우려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으로써 우리나라는 동양의 맹주인 입장에서 또한 도의국인 정신으로 동양인을 대신하여 대동아전쟁의 정의로운 깃발을 올려 동양신질서의 건설을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고대의 군사가가 “그 나쁘게 함을 밝혀야 적이 곧 항복할 수 있다(明其爲賊賊乃可服)”고 한대로, 우리나라는 그들의 비정의적이고 비인도적인 침략주의를 성명(聲名) 토벌해서, 동양의 여러 약소민족을 도탄에서 구해내는 것이 전쟁목적인 것이다. 이것은 즉 세계 공론이 시인하는 바로서 동양의 여러 약소민족이 대한(大旱)에 구름떼를 바라듯이 우리 황군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으로, 우리나라의 대의(大義)를 명백하게 하는 일장기 아래에, 무어라고 해도 끈질긴 적도 자신의 죄악에 자신들의 심신(心神)을 잃고, 무릎을 굽히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적 황군을 구가(謳歌)하고 있으나, 우리 황군은 인의(仁義)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무적인 것이다. “인자무적(仁者無敵)”이라고 말한 선현의 격언이 현재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로 미루어 본다면, 장차 어떠한 장기전을 만날지라도 반듯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의심치 않으나, 우리 국민은 한 때 전승기분에 도취해서는 실패를 초래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뽑내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고, 더 한층 진충보국의 결의를 굳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 대동아전쟁의 목적은 그들 적을 동양로부터 구축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 구미세력의 화근을 뿌리 뽑고, 대동아공영권을 일환(一環)으로 하는 새로운 건설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정치적으로는 영미의 식민지화가 된 대동아공영권의 여러 지방을 돕고 경제적으로는 영미의 착취를 근절해서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문화적으로는 영미 문화의 추종을 버리고, 동양고유의 문화를 진흥하며, 자연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즉 오늘날 다가오고 있는 큰 문제인 것이다.

되돌아보건대 지금까지 역경의 운명에 시달림을 받았던 병약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약품이나 식량도 모두 필요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위안인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처럼 최고 문화의 건설을 이상으로 하고,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빛나는 역사를 가지는 도의국인 일본의 사명으로서, 동양공영권 내의 여러 민족을 이끄는 데는 이 아름다운 일본정신으로써 해 나가야 할 것은 기정방침으로, 일본정신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데는 먼저 그들의 역사가 있으며 연고가 있는 유교를 선용하는 것이 득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래 유도는 동양윤리도덕의 연원으로서, 이것을 작게는 일신(一身)일가(一家)를 수제(修齊)하고, 이것을 크게는 국가천하를 치평(治平)하는 인류생활상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상도(常道)인 것이다. 그 내용에서 이미 우리 일본정신과 합치할 뿐만 아니라, 만주, 지나를 비롯하여 동양 여러 민족의 대부분은 그들의 풍속습성에서, 이것에 폭 담겨온 긴 역사가 있으며, 근래에 구미사상에 유린을 당한 나머지 오늘날에도 또한 공맹의 가르침을 추모하고, 윤리도덕을 구가하는 여유가 있는 것을 보아도, 그들의 본심에서 얼마만큼 구미사상의 수입을 후회하고, 동양고유의 정신문화에 되돌아 올 희망이 있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지나 같은 나라는 유교의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민국 수립 이래 30년 간, 오로지 구미물질문화에 현혹되어, 유도사상이 극도로 퇴폐하고 있는 곳에, 근래의 장개석 정권이라는 것은 유도 때문에 지나 민족이 열등하게 된 것처럼 오해를 시켜서 이것을 장려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이것을 배척하여 일반민중의 원성을 받은 점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영미세력이 거의 구축되어 영미사상 수입 때문에 자신들이 그 만큼 해독을 받은 것을 깨닫고,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융성을 선모(羨慕)하는 차제에 동양고유의 문화인 유교를 회복하고, 예의엄치로써 그들 생활을 정비한다면, 인심의 귀추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귀일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점차로 우리 국체에 존경의 인식을 거듭하여, 도의정신의 진수를 이해할 때에는, 동양신천지는 황화(皇化)에 충만되어, 여기에서 비로소 대동아전쟁의 대 목적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내에서도 근대 구미물질문화의 유입에 따라서 구미사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국풍이 일그러져, 조상 전래의 미덕을 경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절대로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만주사변 이래, 동양신질서 건설에는 동양고유의 정신문화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주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도덕의 연원인 유교에 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은, 유교라는 것은 구도덕의 잔해(殘骸)라거나, 19세기의 유물이라거나, 무조건 비웃으며 심하게는, 유학자는 도의(徒衣)도식(徒食)하며 나태하고 무능을 배우고 있는 자처럼 악평을 할 때도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인류생활상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람의 길 위에서 생활하면서, 사람의 길이 고마운 것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닌가. 유학은 인생 생활상 필요불가결한 사람의 길을 연구하며 역행(力行)하는 학문이다. 유도는 우리 인류가 누구나 알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평범한 진리를 가지며, 따라서 그 길은 공명정대하고 천지와 함께 영원불변한 원칙이 있는 것이다. 한(漢)나라 문공(文公)의 이야기에 “심하구나, 사람들이 괴이함을 좋아하는 것은 그 실마리를 구하지 않고 그 결말을 묻지도 않고 오직 괴이한 것만을 듣고자 하는구나.(甚矣 人之好

怪也 不求其端 不訊其末 唯怪之欲聞”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유교는 진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밖에 무슨 다른 도가 있는가를 찾아서, 결국은 이단에 뛰어 들어가서 본 길과 반대로 나아가는 자도 있는 것이다. 요는 구미물질문명에 현혹되어서, 우리 고유의 정신문명마저 무조건 배척하는 자도 있는 것이다. 과연 세상에는 소위 유학자라고 자칭하면서, 고루(固陋)하고 완미(頑迷)한 사상을 가지며, 퇴영(退嬰) 침쇠(沈衰)한 행동을 하고, 현대 국민생활에 맞지 않은 자들이 없지 않으나, 이들은 유학자 그 자신들의 품격문제로서, 유학 그 자체의 본질을 악평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유학의 본령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길은 박시(博施)제중(濟衆)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한 평생 지성(至誠)으로써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인으로써 자기의 짐으로 삼으니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仁以爲己任不亦重乎 死而後己不亦遠乎)”라는 한 구절으로써 유학자의 임무를 다하는 대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의 진흥은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교(政敎)상 필요불가결한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동아공영권 확립을 하는데 여러 약소민족을 지도하며 보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대 교육계에서 사도(斯道)에 대한 관념이 지극히 희박하여 학창을 갓 나온 청년은 아직도 구미사상에 감염된 자가 있음으로 장차 동아공영권의 확립을 이루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동아공영권의 대 사업은 일조일석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으로, 7년 병치레에 3년짜리 쑥을 구하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유교를 진흥하여, 사도(斯道)의 전문학자로서 우리나라의 대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는 조선유도연합회 결성 이래, 관민이 일치하여 황도유학의 진흥에 착실히 힘을 기울여 온 것은 흔쾌(欣快)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나, 유럽이라는 사람은 먼저 우리 국체의 존경과 현대의 중대 시국을 인식하고, 종래부터 습득해 온 유교정신을 황도정신에 합치시켜서 황국신민으로서의 길을 실천공행함으로써, 국가적인 대 사업에 공헌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출전 : 春山明世, 「東亞共榮圈ニ儒敎の役割」, 『儒道』 창간호(연합), 朝鮮儒道聯合會, 1942년 3월, 37~41쪽〉

## (2) 정기가(正氣歌)의 해설

춘산명세(春山明世, 하루야마 아키요)<sup>124)</sup>

근대의 유학자가 평론과 고증에 비중을 두고 심술(心術) 의리(義理)를 소홀히 하는 폐단이 있는 것은 식자(識者)들이 가장 통탄하는 바이다. 말하자면 전시하의 사기양양을 절규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민

124) 이명세(李明世)의 창씨명.

이 읽어야 할 서책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래 충군(忠君)애국(愛國)을 위하여 몸 바쳐서 강개(慷慨) 열렬한 정신을 함양하는 데는, 항상 충신열사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그 불굴 불효의 기백을 체득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믿으며, 이 정기(正氣)의 노래를 시국 하에 필독의 서책으로 추장(推獎)하고자 한다.

정기(正氣)의 노래는 송(宋)나라 문천상(文天祥)의 창작을 기원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명유(名儒) 후지타 토오코(藤田東湖),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등의 여러 선생이 이것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나, 모두 천지(天地)로부터 사람에게 품부(稟賦)된 소위 호연의기(浩然之氣)를 중심으로 해서 충신열사의 강의(剛毅) 과감한 정신을 발양(發揚)한 점은 마찬가지이며, 제가 학문이 얕음으로써 해설의 붓을 드는 것은 극히 외람 되는 것이나, 선배대가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또한 문교보국(文教報國)의 만의 일이라도 하기 위한 어리석은 충정(衷情)에서 발의(發意)하는 바이다.

### 제1편 문천상(文天祥), 정기(正氣)의 노래(歌)

天地有正氣 雜然賦流形 下則爲河嶽 上則爲日星 於人曰浩然 沛乎塞蒼溟 皇路當清夷 含和吐明庭 時窮節乃見 一一垂丹青

〈해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의 정기가 있으며, 그 기라는 것은 매우 공명정대해서 만물에게 분포되고 있다. 아래에는 강이나 산이 있으며, 위에는 해나 별이 있다. 사람에게 천부로 주어진 것은 특히 이것을 호연의 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 호연지기는 엄청나게 우주 사이에 가득 채워져 있다. 왕도가 청평(淸平)<sup>125)</sup>해서 세상이 잘 다스려 질 때는 화기(和氣)가 되어 성명(聖明)한 조정이 발휘되고, 만약에 시운(時運)이 쇠퇴해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충신열사의 기백이 나타나며 하나하나 역사상에 불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在齊太史簡, 在晉董狐筆, 在秦張良椎, 在漢蘇武節, 爲嚴將軍頭 爲顏常山舌

〈해설〉

태사(太史)는 국사(國史)를 기록하는 관청 명으로, 간(簡)은 서책인 것이다. 춘추시대에 제(齊)나라의 장공(莊公)이 그 신하 최서(崔杼)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그때의 태사가 “崔杼弑其君”이라고 정직하게 기록했다. 서(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기록한 것을 분개해서 태사를 죽였으나 태사의 아우가 이어서 그 사실을 기록하여 또 죽임을 당하여 그 다음의 아우 또 이어서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서(杼)도 그 사가(史家)의 책임감이 강한 것을 경복(敬服)해서 용서했다는 것이다.

동호(董狐)는 진(晉)나라의 태사였었다. 진의 영공(靈公)은 군덕(君德)이 없어 그의 신하 조순(趙盾)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순(盾)이 달아났다. 그 뒤 순(盾)의 친척인 조천(趙穿)이 영공을 죽이고 순을 맞이했으나, 순이 성공(成公)을 세우고 스스로 국정을 잡게 되었다. 그때의 태사 동호가 “趙盾弑其君”이라고 기록했다. 그러자 순은 “임금을 죽인 것은 천(穿)이며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부정하는데 대하여 호

125) 세상이 조용하고 정치가 잘 되고 있는 것.

(狐)는 “子爲正卿亡不越境, 反不討賊, 非子而誰”라고 문책했다.

장량(張良)은 그의 선조부터 한(韓)나라를 섬기며 재상이 되고 있었으며 진(秦)의 시황이 한(韓)을 멸망시키자, 양(良)은 한(韓)을 위해 원수를 갚고자, 시황이 동쪽을 순회할 기회에, 창해(滄海)의 역사(力士)로 하여금 무게 20근의 철퇴(鐵錘)를 가지고 시황을 치려고 했으나, 잘 못되어 부차(副車)에 떨어져 그의 소망을 이룰 수 없었으나, 그 뒤 한(漢)의 고조(高祖)를 따라서 드디어 진(秦)을 멸망시켰다.

소무(蘇武)는 한(漢) 무제(武帝)의 사신으로서 절(節)<sup>126)</sup>을 가지고 흉노(匈奴)나라에 갔었다, 흉노의 주인이 무(武)를 항복시키고자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으나, 무(武)가 이에 굴복하지 않자, 북해(北海)에 10여 년간 유폐하였으며 온갖 신산(辛酸)을 앓고 있었으나, 한(漢)의 소(昭)가 제위(帝位)에 취임하자, 겨우 돌아 올 수가 있었다. 갈 때는 강장(強壯)했으나, 돌아올 때는 빈발(鬢髮)<sup>127)</sup>이 하얗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삼국시대에 한(漢)의 유비(劉備)가 파군(巴郡)을 습격하여, 태수 엄안(嚴顏)을 생포했다. 한(漢)나라 장군 장비(張飛)가 꾸짖으며 “항복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엄안이 말하기를, “汝等無道侵奪我州 我州但有斷頭將軍無降將軍”이라고 하며 거절했다. 장비는 크게 화를 내며 머리를 자르려고 했더니 “머리를 자르려면 금세 베라”고 하며 태연자약하고 있음으로써, 장비는 이것을 장하다고 하며 석방했다.

진(晉)의 혜제(惠帝)가 반역자 성도왕(成都王)을 정벌하러 갈 때, 시중(侍中)<sup>128)</sup> 연소(衍紹)에게 수행을 명령했다. 어떤 자가 소(紹)에게 말하기를 가라사대 “지금 가는 것은 안위(安危)를 짐작하기 어렵다. 좋은 말을 갖고 있는가.” 시중은 의연(毅然)하게 “신하가 폐하의 가마를 따라서 호위하는 것은 생사를 돌볼 까닭이 없다. 좋은 말이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말하며, 조복(朝服)을 입은 채로 황제의 수레를 타고, 적의 화살을 맞으면서 몸으로써 황제를 지키며 순절(殉節)했다, 시중의 피가 황제 옷에 범벅이 된 것을 주위에서 씻자고 하니, 황제는 그 충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중의 피를 씻지 말라”라고 거절했다.

당나라 안록산(安祿山)의 난에, 장순(張巡)이 휴양(睢陽)의 외딴 성을 죽음으로 지키기에 온갖 고생을 했다. 끝내 함락되어 적에게 생포가 되었다. 적장이 “너는 독전(督戰)의 호령을 걸 때, 모두 찢어져서 얼굴이 피투성이며, 이(齒)를 갈아서 모두 깨트렸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다, 순(巡)이 대답하며 가라사대 “내가 마음먹은 역적을 삼킬 담력이 없을 뿐”이라고 하니, 적장은 화가 나서 칼로 이것을 도려내고 보아하건대 남은 이는 겨우 3, 4개에 지나지 않았다. 순(巡)은 더욱이 “우리 임금과 아버지를 위하여 죽을 뿐이다, 적에게 붙는 너는 즉 개똥인 것이다, 오래도록 편하기를 바랄쏘냐.”고 장언(壯言)을 하며 끝내 굴하지 않았다.

당나라 안록산(安祿山)의 난에, 상산(常山) 태수 안고(顏杲)경(卿)이 적과 고전 끝에 드디어 성이 함락되고 생포되었다. 고(杲) 경이 녹산을 나무라며 가라사대 “천자가 너를 발탁하여 3도의 절도사로 삼은 것은, 참으로 영광이었는데 왜 폐하를 배반했는가, 우리 대대로 당조(唐朝)의 신하로, 녹과 지위가 모두 당나라의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너를 따라서 폐하를 배반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126) 절이란 깃발을 말함- 원문.

127) 귀 밀털과 머리털.

128) 侍從官.

적을 치고, 너를 बे지 못함을 한으로 삼는다, 왜 속히 나를 죽이지 않는가.”라고 입을 모아서 나무랐다, 녹산은 크게 화내며 고(杲) 경을 묶고 그의 살을 도려냈으나 고경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입은 더욱 나무람을 그치지 않았으므로 적은 드디어 그의 혀를 갈퀴로 끄집어 낸 사실이 있는 것이다.

或爲遼東帽清操厲冰雪 或爲出師表鬼神泣壯烈 或爲渡江楫慷慨吞胡羯 或爲擊敵笏逆堅頭破裂,

〈해설〉

요동모(遼東帽)라고 하는 것은, 한(漢)나라 말(末) 관녕(管寧)이 난을 피해서 요동에 있으며, 시서(詩書)를 음영(吟詠)하여 도덕을 닦음으로써 한(漢)나라 신하인 절(節)을 다하고, 항상 검은 색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빙설(冰雪)보다도 독하다고 평을 한 것은, 즉 인격이 고결했다는 것이다.

출사표는 한(漢)의 제갈공명이 위(魏)의 조비(曹丕)를 토벌하기 위하여 출정할 때, 뒤를 이은 임금에게 주상(奏上), 군주에게 받친 문장인 것이다. 그 글 뜻은 충직하고 간곡함을 다하고,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렬함을 느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진(晉)의 의사(義士) 조적(祖逖)이 적(賊) 석록(石勒)을 치고자 강을 건너서 즈(楫)를 치면서 마음속에 굳게 맹세하며 가라사대 “중원을 맘히지 않으면 복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기(士氣)를 진흥한 사실이 있다. (호갈(胡羯<sup>129</sup>)은 북방의 이족(夷族)을 말한다. 즉 석록을 일컫는 것이다.)

당나라 덕종(德宗) 때 주체(朱泚)가 반란을 일으켜 대중을 이끌고 스스로를 임금이라고 말하고자 논의 했는데, 때마침 단수실(段秀實)이 결연하게 일어나서, 체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광적(狂賊), 내가 너를 베고 만단(萬段)을 기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라고 나무라며, 손에 잡고 있던 홀(笏)(홀이란 신사가 쥐는 ‘주각’을 말한다.)로 체의 이마를 쳐서, 선혈이 땅에 쏟아지며 수실(秀實)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실인 것이다.

是其所磅礴 凜烈萬古存, 當其貫日月 生死安足論, 地維預以立, 天柱賴以尊, 三綱實繫命, 道義爲之根

〈해설〉

이러한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충만한 곳은, 늠열(凜烈)<sup>130</sup>해서 불멸(不滅)불후(不朽)인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정기(正氣)가 강성(強盛)을 발(發)함으로써 해와 달을 꿰뚫듯 하는 경우에는 생사를 논할 것도 없는 것이다, 땅을 유지하는 줄(綱)도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도, 정기에 의해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군신, 부자, 부부의 삼강도, 실로 이 정기에 의하여 있는 것이며, 원래 정기의 진상은 다른 것이 아니며, 정기의 근본은 즉 오로지 이것이 도의(道義)인 것이다. (방애(磅礴)는 넓게 길을 막는 것)<sup>131</sup>

嗟予遘陽九, 隸也實不力, 楚囚纓其冠, 傳車送窮北 鼎鑊甘如飴, 求之不可得, 陰房闕鬼火, 春園闕天黑

〈해설〉

아아! 내가 위난을 만나서, 군국을 위하여 노력하는 바도 없고, 죽어서도 더욱 여죄가 있다는 것을

129) 오랑캐.

130) 몹시 한기가 드는 모양.

131) 원문에 있는 내용임. 이하 동일.

믿고 있다, 만약에 적들의 손에 잡힐지라도, 군국의 일은 잊지 않고 신이 된 절개는 중히 여기고 있다, 이제야 역마차에 실려서 극북(極北)으로 실려 갔다. 정확(鼎鑊)에 삶아 지는 것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기가 엇과 같은 것이다. 저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며, 옥사에서 죽은 사람의 영화(靈火)는 외롭게, 봄 햇빛이 방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워서 기분이 나쁘다. (양구(陽九)는 액운을 말하며, 靈寶天地運度經에 天厄謂之陽九地虧謂之百六이라는 문구로부터 나온 이야기다.) (예(隸)는 노예의 뜻으로 스스로를 비하(卑下)해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전국책(戰國策)에 楚公子微服過宋, 門者難之, 其僕操箠而罵曰隸也不力, 門者出之라고 하는 문구로부터 나온 이야기다.) (초수(楚囚)는 초나라의 죄수를 말하며, 초의 종의(鍾儀)가 진(晉)나라의 포로로서 유폐되었을 때, 남쪽의 관(冠) 즉 초나라의 의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 (정확(鼎鑊)은 커다란 솥으로 죄인을 삶는 형틀이다.)

牛驥同一皁, 雞栖鳳凰食, 一朝蒙霧露, 分作溝中瘠, 如此再寒暑, 百衿自辟易, 哀哉沮洳場, 爲我安樂園.

〈해설〉

내가 지금 사로잡혀서 이 흙방에 있는 것은 마치 천리마가 소와 그릇을 함께하고, 봉황이 닭 집에서 키워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하루아침에 병을 얻으면 원래 시궁창에서 여위는 것을 각오하고, 추후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나는 이와 같이 하여 추위와 더위를 지내기를 두 해, 악기(惡氣)와 재앙이 스스로 놀라 두려워해서 감히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습지에서 내가 안락원(安樂園)을 삼는 심정은 불쌍한 것이다. (조(阜)는 여물통, 몽무로(蒙霧露)는 병이 드는 것, 구중척(溝中瘠)은 개죽음 하는 것, 백진(百衿)은 여러 가지 악기(惡氣), 저여장(沮洳場)은 물이 침투하는 곳 벽역(辟易)은 놀라서 물러나는 것)

豈有他綺巧, 陰陽不能賊, 顧此耿耿在, 仰觀浮雲白, 悠悠我心憂, 蒼天葛有極, 哲人日已遠, 典型在夙昔, 風簷展書讀, 古道照眼色.

〈해설〉

내가 이 옥사에 있어서 2년을 잘 넘겼으나, 이것은 굳이 다른 교묘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후도 적 못지않은 내 신세여, 되돌아보면서 이 기구한 현상을 생각하면, 실로 적절한 정기가 있음을 자랑 삼지 않을 수 없다. 우러러 뜬 구름이 흰 것을 봄으로써 즐겁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유유(悠悠)한 내 마음의 걱정은, 실로 푸른 하늘에 끝이 없는 것 같다. 오호라! 성현들은 가고, 이미 긴 세월이 지났다, 그래도 사람이 취해야 할 법은, 밟아야 할 길은 어제와 같이 가까이 있는 것이다. 처마 끝에서 책을 열고 읽으면, 철인의 길은 명백하게 내 얼굴을 비치는 것을 느낀다.(교교(綺巧)는 면밀해서 교묘한 것, 적적(耿耿)은 명백한 것)

〈출전 : 春山明世, 「正氣歌の解説」, 『儒道』 제6호, 朝鮮儒道聯合會, 1944년 4월 1일, 63~68쪽)

### 3) 박상준(朴相駿)

#### (1) 적개심의 양양(권두언)

회장 박택상준(朴澤相駿, 호우사와)

적개심의 양양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무척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 현재 먹느냐 먹히느냐의 일대결전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당면한 적에 대하여, 이제 새삼스럽게 적개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척 정신이 빠진 이야기가 되지만, 포로들을 보고서 “불쌍하게도”라고 하는 잘못된 동정을 주는 자가 가령 일부에라도 있다면, 아직도 적개심의 양양이 국민전부에 파급되지 않고 있는 증좌인 것이다.

빛나는 커다란 대 전과 덕택으로 조금 기분에 여유가 생긴 탓이겠지만, 다년간에 걸쳐서 수단을 바꾸고 물질을 바꾸는 적의 문화적인 모략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으로 배양된 미영사상의 잔재가 아직도 속에 배어서 미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미국은 이제야 그 세계 제일을 장담하는 물자력과 생산력을 최고도에 발휘하여, 오고야 말 대 생산 전쟁, 대 소모전쟁에 승리하고자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개심을 가장 깊숙하게, 가장 강하게 몰고 가서 증오와 복수의 정신전에서도 승리를 차지하고자 열심히 획책 중인 것이다.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적국의 정체를 똑바로 보지 않고, 미국은 물질만능으로 타락한 국민임으로, 도저히 장기전이나 섬멸전의 곤궁과 결핍에는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니며, 결국은 전쟁 도중에서 국내의 인심이 동요를 가져와서, 루즈벨트 일파의 인기도 실추하여, 드디어 이것을 내던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에 빠지는 자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자기만족론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서운 적국의 모략에 걸려들 우려가 다분히 있을 뿐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적보다 몇 배의 적개심을 양양할 것을 역설하고, 1억 국민의 몸 부딪힘으로 이번 성전을 이겨내야 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전쟁 전까지 일본에 있었던 미국대사 그루는, 귀국 후에 열심히 강연 행각을 하면서, 일본내부의 결속이 강함을 이야기하며, 항상 미국 국민의 자기만족적인 낙관을 주의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어떤 만찬 회의 석상에서의 연설 중에도,

“현재의 총력전에서는 전선과 후방의 구별도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뿐인 것이다. 독일인은 미국인의 퇴폐를 당연시하고 있고, 일본인은 미국인을 전쟁의 중압에 견디지 못하는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적의 공격의 정면에서 있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 별기의 군인이라거나, 임시 애국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미국 사람의 경계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면에 우리의 미영에 대한 적개심은 과연 어떠한가. 심한 자들은 아직도 미영적인 잔재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는 것이 아닐까. 나라를 통틀어 먹느냐 먹히느냐의 일대 결전의 한 가운데서, 그러한 국민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국민으로서 일본국민이 아닌 것이다. 전선의 장병이 천황의 방패로서 혀에서 불을 뿜으면서 사투를 계속하고 있는 오늘날, 조용히

후방국민의 적개심을 볼 때에, 참으로 한심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점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금 조금이라도 적개심을 불타오르게 하라는 절규를 하는 사유인 것이다.



태평양 5천 마일의 일본으로부터, 과거의 인상이나 감상으로써 미국을 논한다면, 혹시 미국 사람은 전쟁의 중압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국민이라거나, 혹은 총력전에 전력을 집중 할 수 없는 국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나, 현재 미국에 넘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적국으로부터 교환선에 의하여 귀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도, 미국의 일본에 대한 증오와 적의(敵意)가 심각한 것은, 일본인이 미국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강렬하고 또 심각한 것이라는 것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패전(敗戰) 3년을 맞이한 미국은 이제야 불타는 것처럼 적개심의 양양에 의하여 오고야 말 1944년의 대 반공(反攻)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국은, 비단양말을 잃은 미국 부인들이 전쟁을 반대했다거나, 크리스마스 경기에 들떠서 미국 국민의 전쟁 기분이 엷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은 흥미분위의 기사를 재미있고 우습게 읽고 있을 시대는 아니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화(烈火)와 같이 불타는 적개심을 강조하고 넘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미국의 내년도(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산액은 지난번에 양원에서 1천9십억 불, 이 안에 군사비는 1천억 불이라고 루즈벨트는 발표했다. 바로 천문학적인 방대한 예산으로서,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러한 전비(戰費)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교전국의 전비를 전부 합친 합계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군수품의 생산은 금년 말까지에 18만5천 대의 비행기, 십2만 대의 탱크, 5만5천 대의 고사포, 천백만 톤의 선박을 건조하고, 이런 것에 의하여 지구상으로부터 일본을 말살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방대한 예산과 강대한 군수품 생산량에 반드시 현기증을 내는 것이 아니나, 아무튼 미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대한 군수생산공장이 각지에 신설된 것도 사실인 만큼, 그들이 발표한 천문학적이고 거대한 숫자가 과연 실현되자 마자는 별개로 하고, 그 생산능력의 심상치 않음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결전은 오늘도 또 내일도, 여기는 유빙(流水)이 가로막는 아류산 군도로부터, 남쪽으로는 불타는 듯한 솔로몬 군도의 끝까지, 넓기로 수만 마일의 바다에 육지에 하늘로 전개되고 있으나, 적이 호언하고 있는 대 반공(反攻)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으로, 국민의 전의양양은 현재의 급선무인 것이다.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계속되는 패전에 이전에는 미국도 무척이나 의기소침 한 일이 있으나, 현재는 점차로 냉정을 되찾아 전쟁 지도방침도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로 자주적인 정책을 수립했다. 즉 전쟁목적을 민주주의 방위를 위하여 싸우고 또는 자유를 위하여 싸운다고 하는 한편, 그 지도방침에 있어서도, 중경(重慶)<sup>132</sup>을 채찍질해서 일본을, 소련을 고무(鼓舞)해서 독일과 이태리를 각각 견제시킴



으로써 추축(樞軸) 측의 전력을 소모시켜서 전쟁을 장기화하고 지구전으로 이끌어가서, 그러는 사이에 다른 나라에 극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자국은 소위 데모크라시의 병기창으로서 후방병참의 임무를 부담하여, 병기와 자재를 팔아서 커다란 이익을 차지하며, 전후에도 착취를 계속하여 전 세계로 하여금 미국화 시키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사람 중에는 미국을 위하여, 혹은 루즈벨트를 위하여 한 생명을 바치겠다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르나, 세계 제일이라고 자칭하는 물질적인 번영과 생활적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통틀어서 미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넘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루즈벨트의 소위 “생존전쟁”이라는 것도 필경은 고매한 전쟁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에 이 전쟁에 진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미국의 생활도 행복도 한꺼번에 잃으며, 또다시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필요할 것이야”라고 위협해서 국민의 현실적인 이익과 타산을 선동해 온 것이다. 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패전 1년 반의 미국은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이미 휘발유를 비롯하여 중요물자의 통제가 실시되어 자동차, 전기축음기 등 미국식 생활의 필수품은 그 모든 것이 작년 봄부터 제조금지가 되어, 현실적으로 차분히 그 위기를 신변 가까이 체험한 국민은 지금 와서는 역효과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문명은 원금도 이자도 놓치고 말 것이다.”라고 선동되어서, 더욱 더 전의의 양양에 박차를 걸고 있는 현실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은 이미 벌써 동아 신질서의 건설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한 간단한 것이 아니며, 추축국 타도, 특히 동양으로부터 일본을 말살하여, 이것에 의하여 미국 세계정복의 야망을 달성하고자 필사적으로 적개심의 양양강조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 나라를 통틀어서 일대 결전도, 그 전쟁터가 만리 파도를 넘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한 발의 폭탄도, 한 발의 포성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후방의 국민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어나게 하지 않음은 일본 나라의 고마움이지만, 한 편으로 볼 때는 국민들의 적개심 양양 상 몹시 유감으로 여기는 바인 것이다. 고금의 역사를 펼쳐 볼 때에도 전쟁은 항상 의지와 의지와 싸움이며, 결국은 마지막까지 전의(戰意)가 왕성했던 쪽이 최후의 승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적국이 호언하는 대 반공시기를 눈앞에 맞이하는데 이르렀으며, 더욱 더 한층 전의의 양양과 적개심의 강조를 회구하여 마지않는 것이다.

(5월 1일 씀)

(출전 : 朴澤相(會長), 「敵愾心の昂揚」(卷頭言), 『儒道』 제4호, 朝鮮(儒道)聯合會, 1943년 8월 1일, 1~4쪽)

132)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 정부를 뜻함.

## 4. 조선유도연합회의 활동, 기타

### 1) 『유도(儒道)』의 본회기사 및 지방기사 발췌(1942~1944)

#### (1) 『유도』 1호, 본회기사

##### 1. 본회창립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개요

1939년 10월 16일 제 1회 전선(全鮮) 유림대회의 결의를 토대로 본회를 창립해 총재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각하를 추대하고 회장으로는 경학원(經學院) 대제학 자작 윤덕영(尹德榮) 각하가 취임해 간부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망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오 무라총재의 지도 하에 윤회장이 몸소 각 도(道)로 출장을 나가 각 도의 유도연합회를 차차 결성하고, 도유도연합회의 하부조직으로서 부군도(府郡島)에 부군도유도회를 조직하여 1939년 중에 강원도를 제외한 지방조직을 완료하였다.

1940년 10월 17일 윤회장이 병으로 서거하셔서 그 후임으로 같은 해 11월 14일 현 회장 박택상준(朴澤相駿) 각하를 맞이하였다.

또한 임원 가운데 부회장 민병석(閔丙奭) 각하는 서거, 하야미 히로시(速水滉) 각하는 내지로 진출되어 결원이 생긴 자리에 1939년 11월 23일 임무수(林茂樹), 유만겸량(俞萬兼兩) 각하가 후임으로 오셨다. 그리고 총무부장 이가원보(李家源甫) 씨가 전복지사로 영전되어 그 후 임으로 1940년 9월 24일 현 총무부장 계광순(桂光淳) 씨가 취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사업개요

###### 1) 본회 회원명부 작성

회원명부는 단지 회원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창립취지를 □□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행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대성전(大成殿)에 봉고제(奉告祭)를 올리고 차후 가제(加除)해가면서 영구보존하기 위해 현재 조사 중이다.

###### 2) 시국강연회

1940년 말에 박택 회장이 몸소 진두에 나서서 생활개선, 시난(時難) 극복을 목적으로 경성 외 기타 주요도시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 3) 강습회

1941년 4월 15일 춘계석전(釋奠)제를 기회로 신임경학원강사 및 평의원을 집합하여 3일 동안 경학원

명륜당에서 각 방면의 명사를 초빙해 시국인식에 대한 강연강습회를 열고, 곧 이어서 이 강습을 받은 강사 및 평의원을 각 도(道)로 파견하여 각 부 군(府郡)을 순회하며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는데 각 부군에서도 이에 협력하여 매번 많은 청중이 모였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 4) 전 조선유림대회

1941년 10월 15일 전선유림대표는 추계석전제에 참석하여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경희루에서 열린 총독초청연회에 출석하고, 5시부터 조선신궁에서 전몰영령의 명복 및 황국장병의 무운장구를 비는 기원제를 거행하였으며, 다음 날인 16일 오전 10시부터 경성부민관 대강당에서 아래의 식순(式順)에 따라 대회를 개최하였다.

- 식순 -

(1) 일동착석 (2) 개회사 (3) 궁성요배(宮城遙拜) (4) 묵도 (5) 국가합창 (6) 국민정신진흥에관한 초서 봉독(招書奉讀) (7) 회장 식사 (8) 조선총독 고사(告辭) (9) 본회총재 고사 (10) 축사(조선군사령관, 국민총력연맹사무국 과장) (11) 선서 및 황군위문문결의 (12) 본회의 회무(會務)보고 (13) 황국신민의 서사제창(誓詞齊唱) (14) 휴식(15) □사 (16) 의견희망□□ (17) 만세삼창 (18) 폐회사

폐회식에 이어 경성제국대학교수 오타카(尾高□雄) 씨의 강연에서 시국영화 상연회를 개최하였다.

#### (2) 『유도』 3호, 본회기사·지방기사

##### 본회기사

1. 본회 주최 제2회 성지참배단을 조직하여 본회 교육부장 안인식(安寅植)을 단장(團長)으로 해서, 본회 참사(參事) 평산태인(平山泰仁), 화강탁(花岡卓) 및 각 도 유림대표 12명(황해도결원)이 11월 10일 내지를 향해 출발했다.

- 단원이름 -

경기 : 대야 번(大野繁) / 충북 : 목촌로택(木村魯澤) / 충남 : 안명원(安銘遠) / 전북 : 죽산일랑(竹山一郎) / 전남 : 옥강신길(玉岡新吉) / 경북 : 대원국영(大原國永) / 경남 : 대전일부(大田一夫) / 황해 : 결원(缺員) / 평남 : 국본안언(國本安彦) / 평북 : 금촌길수(金村吉穗) / 강원 : 오천의수(烏川義秀) / 함남 : 청원헌교(淸原憲教) / 함북 : 길본영부(吉本榮夫)

2. 각 도 유림의 적성(赤誠)<sup>133)</sup>으로 마련해 육해군에 헌납한 군용기자금 십 만 삼천 원으로 유림호(儒林號) 군용기가 완성되어, 11월 17일 용산 훈련장에서 다수의 군관민(軍官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헌납식을 거행했다.

3. 본회 총무부장 계광순 씨가 강원도 참여관(參與官)으로 영전되어 부장직을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연성(鍊成)과장 죽내준평(竹內俊平) 씨가 11월 26일 취임했다.

133)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정성.

4. 성지순배단 일행은 예정대로 각 지의 신궁신사 참배 및 고적(古蹟)견학을 마치고 11월 29일 무사히 귀국하여 부산에서 해산했다.

5. 전부터 모집하여 심한 징병제실시축하 한시첩(漢詩帖)편성을 완료하여 각 작자(作者) 및 주요 군관민 기관에 배부했다.

### 지방기사

1. 함경남도 홍원군 유도회총회와 홍원군 유도회 읍면지부 결성식을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홍원향교 명륜당에서 개최하였다. 각 읍면대표 유림 250여 명과 관공서 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토 노리유키(伊東範行) 군수가 회장에 취임하였고 성대하면서도 정숙하게 식을 거행하였다. 이어서 식후에는 본회에서 파견된 하루야마(春山) 상무이사가 '시국하의 유림의 책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후 오후 5시에 해산했다.

2. 경상북도 유림연합회총회를 11월 26일 오후 1시부터 도청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도내 각 군 유림대표 97명과 관공서 직원 다수가 참석하고, 본회에서는 박택 회장, 이 편찬부장, 안(安) 교육부장이 오셔서 성황리에 총회를 마쳤다. 또한 식후 안인식 씨의 강연 및 시국영화회 등이 있었고, 밤에는 다카오(高尾) 지사가 박택 회장 일행을 현해로 초대해 간담을 가졌다.

3. 충청북도 진천군 유도회총회가 11월 25일 오후 1시부터 진천국민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군내유림 500여 명과 군내 각 관공서 직원 다수가 참여하였고, 도(道)에서 히라마츠(平松) 지사, 본회에서는 박택 회장대리로 이경식 편찬부장과 춘산 상무이사 등이 참석해, 안원 유도회장 사회로 식을 진행하였다. 히라마츠 도연합회장의 논어해설을 통한 고사(告辭)는 일반 유림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으며, 폐회식 후 하루야마 이사가 강연을 하고 모임을 마쳤다.

### (3) 『유도』 4호, 본회기사·지방기사

#### 본회기사

##### ▲ 1942년

1. 12월 14일 오전 11시부터 본정(本町)<sup>134</sup>청학원에서 간부회를 개최하여 중요사무를 논의했다.

2. 12월 5일 본부축탁 마츠하시 키요시(松橋喜代) 씨가 본회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 ▲ 1943년

1. 2월 19일 명륜전문학교 부교장 시라가미 히사요시(白神壽吉) 씨가 본회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2. 2월 22일 오후 2시부터 경학원에서 간부회를 개최하여 중요사무에 관련된 논의를 했다.

3. 3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명륜당에서 유학(儒學)연구소 수료식을 거행했으며 수료명단은 아래와 같

134) 명동.

다(출석부 순).

양천철주(梁川徹主), 곤산세영(壺山世榮), 유천광위문(柳川光衛門), 금천기팔(金川基八), 안촌병순(安村炳詢), 금전정구(金田庭龜), 신본태신(新本泰信), 금산호성(金山豪成), 조본중화(趙本重和), 금해정수(金海正洙), 송이홍본(松而洪本), 영평□용(鈴平□容), 신천재기(信川在機), 금성무길(金城武吉), 최원재갑(崔原在甲), 덕산조광(德山朝光), 서원제규(瑞源濟奎), 서논언(徐論濩), 안덕원(安惠遠) (이상 19명)

4. 4월 10일 오후 4시부터 부민관강당에서 금계(金鷄)학원장 안강정독(安岡正篤) 씨를 초청해 '시대와 유교'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 교육계인사 6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5. 4월 13일 오후 5시부터 부민관담화실에서 간부회를 열어 194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6. 5월 8일 본회 상임이사 산본권일랑(山本權一郎) 씨가 병으로 서거하셨다. 이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 지방기사

### 1. 강릉군 유도회총회

5월 22일 강릉군 유도회총회를 강릉문묘(江陵文廟)에서 개최, 군내의 유림 500여 명이 참석해 키야마(木山) 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행한 후 아래의 사항을 협의하고 이어서 경학원부제학 공성학(孔聖學) 씨와 본회 상무이사 하루야마 아키요(春山明世) 씨의 강연이 있었다.

- 협의사항 -

#### 1) 국어보급 강화의 건

조선징병제실시에 맞추어 국어가 불가능한 유림층에 대한 응급처지로 작년 9월부터 향교를 중심으로 국어강습회를 개최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보급될 수 있도록 도모할 것.

#### 2) 황도유학 연구에 관한 건

매월 15일 정례적으로 문묘를 중심으로 한 황도유학연구회를 개최할 것.

(1) 국체본의(國體本義) 연구

(2) 내선동원(內鮮同源) 역사와 국민예법 연구

(3) 경전 및 문예 연구

(4) 칙제(勅題)<sup>135)</sup>영진(詠進) 연구

(5) 유도잡지 종람(縱覽)<sup>136)</sup>

#### 3) 연성(鍊成)과 근로에 관한 건

종래의 유림층은 유의도식(遊衣徒食)하는 게 전부였다. 그 결과 건강운동이 결여된경향이 있었기에 금후 연성 및 근로정신을 양양하는 데 일조하고자 아래의 사항을 실시하니 솔선수범할 것.

(1) 농민의 날을 기회로 문묘제전삽양(文廟齊田插秧)<sup>137)</sup>을 실시할 것.

135) 임금이 출제한 시문(詩文)의 제목.

136) 마음대로 봄.

(2) 문묘부근 읍면별로 유림연성반을 설치해 매일 1일 문묘경내정화 및 제내(齊內) 손질작업을 실시할 것.

4) 혼·장례개선에 관한 건

혼·장례는 전시생활체제 확립에 맞추어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실행하는 데 힘쓸 것.

(1) 혼례식장은 향교강당으로 하고 최대한 간소화할 것.

(2) 경조(慶弔)를 이유로 빈번하게 왕래하는 일을 삼가고 조위(弔慰)도 영결식 당일 한번만 할 것.

## 2. 강릉군 유도회 주최 국어강습회

반도의 징병제실시에 감격한 강릉 유림들은 충량한 황민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작년 유도대회 때 당년 71세의 고령자인 옥강홍기(玉岡洪基) 씨의 제의에 따라 1942년 9월부터 강릉문묘에서 국어강습회를 개최했는데, 강습 수강생의 삼분의 이는 노년층으로 김진태 씨의 경우는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일리(一里)가 더 되는 거리를 통학하며 하루 하나의 단어를 익히고자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그 모습은 일반청소년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미 수료한 자가 100명, 현재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65명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노년층 인사의 결의는 실로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강릉군 유림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 3. 옥천군(沃川郡) 유림대회

5월 28일 옥천군 유림대회를 옥천 죽향국민학교에서 개최, 군내 유림대표 200여 명이 집합해 후쿠무라(福村) 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실시하고 히라마츠(平松) 도지사의 고사가 있는 후 아래의 요망사항을 협의하고 독행자(篤行者)<sup>137)</sup> 및 효부절부(孝婦節婦) 표창식을 거행하였다. 이어서 명륜전문학교 교수 안인식(安寅植) 씨의 강연을 듣고 해산했다.

〈요망사항〉

- 1) 징병제실시와 해군 특별지원병제도실시의 취지 보급에 관한 건
- 2) 국어보급운동 촉진에 관한 건
- 3) 저축에 관한 건
- 4) 국민총력운동추진에 관한 건
- 5) 식량증산에 관한 건

〈독행자 및 효자절부 표창수여자 업적〉

- 1) 독행자 -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하본겸익(河本兼益)

위 사람은 온후하고 독실하며 자선심이 많아 농촌의 어려움을 동정해 삼천 여원이나 되는 수십 명

137) 삼양 : 눈에 벼모를 심는 일.

138) 인정이 두텁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일하는 사람.

의 빛을 탕감해주고 가마니 짜는 원료를 무료로 배부하였으며 소와 돼지를 구입해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지방개량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사변 이래로 시국인식, 생업보국, 국방헌금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각종 군수물자공출에 솔선수범을 보이며 부락 내에서 모든 장려사항에 대한 성적이 뛰어나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

2) 효부 -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금본금례(金本今禮)

여사는 1913년 금본기홍(金本基弘)의 아내가 되어 부군을 도와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였고, 70세인 시아버지가 1931년 8월 이후 중풍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만 10년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쾌유를 빌었으나 백약이 무효하여 1941년에 돌아가셨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간 정성을 다해 제사 때에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물을 구해 차리는 등, 그 기특한 효성이 부락민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

3) 절부 - 옥천군 안남면 오대리, 서전상주(西田上柱)

여사는 열다섯 살 때 조성복(曹聖福)의 아내가 되어 부군을 내조하여 가난한 가세를 일으키며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던 중, 불행하게도 열아홉 살 때 부군과 사별한 후 시부모님도 돌아가시자 예를 다해 상을 치르고, 의지할 데 없던 여사는 조씨 집안을 위해 양자를 들여 가업을 이었다. 부군과 사별한 후 54년간을 하루 같이 조씨 집안 재건을 위해 헌신하여 마을의 칭송이 자자하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

(4) 『유도』 5호, 본회기사·지방기사

본회기사

1. 7월 4일 : 오후 4시부터 부민관 담화실에서 간부회를 개최하여 전부터 계획하여 초고(草稿)중인 유림지도용의 유림독본(가칭)을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집필자 다카하시(高橋亨) 씨를 그 자리에 초빙하여 내용설명을 들은 후 회의를 마쳤다.

2. 8월 20일 : 각 도의 유림이 응모한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원사(元師) 추도 한시 중 가작 56수를 선발해 본지에 게재하여 원사의 숭고한 인격과 위대한 공적을 기념하기로 했다.

〈군용기 조선유림호 헌납〉

지난 1941년 10월 16일 제2회 전선유림대회 석상에서 ‘군용기구헌납에 관한 건’이 결의안으로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또한 같은 날 저녁에 각 도의 대표자가 회동하여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 협의를 끝낸 후, 각 도가 일제히 실행에 착수하여 1941년 12월까지 2개월 반이 채 되기도 전에 별표(別表)와 같이 회원 각자의 애국지정의 결정(結晶)으로 총 144,769원 77전의 정재(淨財)가 모여, 동년 12월 30일 박택 본회장이 이백만 유림을 대표하여 일금 5만 3천 원을 비행기유림호 1호 제작비로 조선군애국부를 통해 육군대신에게, 일금 5만원을 군용비행기제작자금으로 경성주재 해군무관부를 통해 해군대신에게 각각 헌납 수속을 마쳤고, 그 나머지 돈은 비행기헌납 명명식(命名式)

비용으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시국의 정황상, 이를 그만두고 절약하여 1942년 7월 9일 박택 본회장이 대표로서 금 1,830원(본회 일반경비 1원 57전을 더함)을 조선군애국부에 홀병(恤兵)<sup>139)</sup> 자금으로 현금 하면서 제 1회의 본건(本件)계획을 전부 달성하였다.

육군에 헌납한 전투기, 애국 제952호(조선유림호)는 제 일선에서 그 용자(勇姿)를 뽐내며 미·영을 격침하기 위해 중형무진 활약하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전투기 조선유림호에 대한 해군대신의 감사장은 별도(別圖)와 같다.

## 지방기사

1.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에서 도내(道內)문묘 금속제기헌납 협의회를 개최, 도내 대표유림 10여 명이 출석한 가운데(본회에서는 박택 회장, 이경식, 하루야마 아키요 참석) 도지사 대리 마츠모토 참여관이 취지를 설명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이경식, 요시가와 히사시(嘉川久士) 두 사람을 경기도 유림대표로 해군무관부로 파견하여 물품목록을 올리고 헌납수속을 했다.

1) 전라북도 유도연합총회를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각 부군(府郡)의 대표유림 480명과 관공서 직원 다수가 출석하였으며, 본회에서는 박택 회장, 하루야마 상무이사가 참석하여 가네무라(金村) 도(道)연합회장, 박택 본회장의 고사를 들은 후, 문묘제기 중 금속제품을 헌납하는 일 등을 결의하고 이어서 하루야마 이사의 강연을 듣고 회의를 마쳤다.

2. 6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전라남도 유림대표협의회를 광산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도내 각 부군의 문묘직원 및 장(掌)의 대표 각 한 명이 참석하였고 본회로부터는 박택 회장과 하루야마 상무이사가 참가하여, 무영(武永) 도연합회장과 박택 본회장의 고사를 들은 후 만장일치로 금속제 문묘제기를 헌납하기로 결의하고 이어서 하루야마 이사의 강연을 듣고 회의를 마쳤다.

1) 6월 25일 평북도청 회의실에서 평북유림 좌담회를 개최, 도내 대표유림 40명이 출석하고 도에서는 백석지사 이하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와타나베(渡邊) 이사와 히라야마 참사가 참가하여 유도진흥책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했다.

2) 6월 26일 평양부 공회당에서 평남 대표 유림 20명과 본회에서 온 도변 이사와 평산 참사가 모여 좌담회를 열고 금속제기 회수와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 6월 30일 함북 경성문묘에서 대표유림 50명이 모여 도에서 온 미시마(三州) 내무부장, 본회에서 온 유(俞) 부회장과 야스가와(安川) 참사와 함께 유도진흥에 관한 좌담회를 가졌다.

4) 7월 2일 함북 회령문묘에서 유림좌담회를 개최, 본회에서 유 부회장 및 야스가와 참사관이 참석했다.

5) 7월 3일 함북 길주문묘에서 유림좌담회를 개최, 본회에서 유 부회장과 야스가와 참사관이 참가했다.

6) 7월 4일 함남 해산국민학교에서 해산군 유림대회를 개최하였다. 군내유림 500명이 집합하여 길지(吉池) 군수의 사회로 엄숙하고 성대하게 식을 마치고, 곧 이어서 유 부회장의 강연이 있었다. 좌담회

139) 금품을 보내어 전장에 나간 병사를 위로함.



에서는 해산군이 신설된 후 이곳에 문묘가 없기 때문인지 일반 유림이 열성적으로 문묘건설을 희망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진술했다.

7) 7월 5일 함흥 문묘에서 유림대회를 개최, 대표유림 300여 명이 출석하고, 도에서 대산(大山)참여관, 본회에서 유부회장과 야스가와 참사관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식을 마치고 이어서 유 부회장이 강연을 한 후 회의를 마쳤다.

8) 7월 6일 함남 안변문묘에서 유림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김지형(金枝亨) 군수 사회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당일 본회의 유 부회장과 야스가와 참사가 참가하고 출석한 유림이 백 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9) 7월 8일 황해도청 회의실에서 해주대표 유림 35명이 모여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회에서 와타나베 이사와 히라야마 참사가 참석해 유도진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10) 7월 9일 사리원읍 회의실에서 대표 유림 30여 명이 모여 유도진흥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 본회에서는 와타나베 이사와 히라야마 참사가 참석했다.

11) 7월 9일 오후 1시부터 청주향교 명륜당에서 청주군 유도회를 개최하였다. 군내 유림270명과 관공서 직원 다수가 출석하고 도에서는 히라마츠(平松) 연합회장이, 본회에서는 박택 회장, 이 편찬부장, 마키야마(牧山) 참사가 참석하였으며, 야마자키(山崎) 회장이 사회를 보고 히라마츠 도연합회장, 박택 본회장이 고사를 하였다. 폐회 후 이 편찬부장의 강연을 듣고 회의를 끝냈다.

12) 회산군유도회를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회산 무덕관에서 개최. 군내 유림 250명과 관공서직원이 참석하고, 히라마츠 도연합회장, 박택 본회장, 이 편찬부장, 마키야마 참사가 참가하여 금광(金光) 회장의 사회로 박택 회장, 히라마츠 도연합회장이 고사를 한 후 이 편찬부장이 강연을 하고 모임을 마쳤다.

13) 7월 23일 오후 1시부터 강원도 유도연합회총회를 춘천향교 명륜당에서 개최했다. 도내 각 문묘 직원 및 유림대표 50여 명이 참석하고, 본회에서는 박택 회장, 안 교육부장, 마키야마 참사가 참가하여 정숙한 가운데 총회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폐회 후 안 교육부장의 강연이 있었다.

14) 8월 8일 오후 1시부터 경서부민관에서 경기도 유도연합회 주최로 징병제실시감사선양(宣揚)대회를 개최하였다. 도내 대표유림 6백 명이 출석하고, 본회에서 오노(大野) 학무국장, 총력연맹에서 하다(波田) 총장이 참석해 고(高) 연합회장과 본회 박택 회장의 고사와 파전 연맹총장 및 금천 매일신보 사장의 축사로 성대하게 식을 마치고, 이어서 박택 회장의 강연이 있던 후 모임을 끝냈다.

15) 8월 9일 충주군 유도회를 충주향교 명륜당에서 개최하였다. 도의 히라마츠 도지사와 군내대표 유림 150명이 참석해 마츠야마 군수의 사회로 식을 진행하였으며 본회 안 교육부장의 강연을 들은 후 회의를 끝냈다.

16) 8월 10일 제천군 유도회를 제천읍내 연무장(練武場)에서 개최, 군내 유림 300명이 모여 가네코(金子) 군수의 사회로 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본회 안 교육부장의 강연이 있던 후 산회했다.

17) 8월 11일 단양군 유도회를 단양읍 공회당에서 개최, 군내 유림 250명이 집합해 가즈야마(和山) 군수의 사회로 식을 종료한 후, 본회 안 교육부장의 강연이 있었다.

18) 경기도 각 부군 유도회는 관내 유림대회를 아래의 일정대로 개최하여 징병제 실시에 대한 감사의 결의를 새로이 하고, 폐회 후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모두 성황을 이루었다.

## (5) 『유도』 6호, 지방기사

1. 9월 7일 오후 1시부터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유림대표회합을 개최하였다. 각 부군대표유림 46명이 출석하고 도에서는 오노(大野) 지사가 참석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임(林) 부회장, 이산(伊山) 참사가 와서 금속제기헌납에 관한 논의를 한 후 임부회장의 강연을 듣고 모임을 마쳤다.

2. 9월 8일 오후 3시부터 진주(晋州)부청 회의실에서 진주유림회를 개최, 부내 유림 70명이 출석하여 호리오(堀米) 부윤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행한 후 임 본회부회장의 강연을 듣고 대회를 마쳤다.

3. 9월 10일 오후 1시부터 대구부청 회의실에서 경북유림대표 60여 명과 도에서 온 고미(高尾) 지사 이하 관민유력인사가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실시한 후 임 본회부회장의 강연을 끝으로 모임을 마쳤다.

4.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울산군유도회를 군청회의실에서 개최, 군내 대표유림 70여 명이 출석하여 국민의례를 실시한 후 임 본회부회장이 강연을 하고 끝냈다.

5. 9월 13일 오후 1시부터 경주군유도회를 경주세무서 회의실에서 가졌다. 유림대표 80명이 참석하여 고지마(小島) 군수의 사회로 예정된 행사를 마친 후 임 본회부회장의 강연이 있었다.

6.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경북 안동군 주최로 안동국민학교 강당에서 유림회를 개최, 군내 유림 200여 명이 참석하여 유마(有馬) 군수의 사회로 행사를 완료한 후 본회 임부회장의 강연으로 성황리에 모임을 마쳤다.

7.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대구문묘 명륜당에서 대구부내 중견유림연성회를 개최, 강사로 본회 교육부장 안인식이 초빙되어 약 8시간 동안 황도유학 및 시국인식에 대해 강연을 했다.

8. 11월 25일 충청남도 유도연합총회를 도청회의실에서 개최, 도내 각 군 대표유림 300명이 출석하여 야마모토(山本) 지사의 고사(告辭), 본회 박택 회장의 훈시에 이어진 본회 안 교육부장의 강연을 들은 후 모임을 마쳤다.

9. 11월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유림회를 개최, 각 군 대표유림 100여 명이 출석하여 박택 회장의 훈시와 안 교육부장의 강연을 듣고 모임을 마쳤다.

10. 전라북도 유도연합회에서는, 결전하의 유림에게 국채관념을 명징하게 하고 황도유학을 진흥함과 동시에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여, 황국신민다운 자질을 연성하고 전력증강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매년 성황을 이루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1반 강사 하루야마 아키요(春山明世) : 개최지- 고창, 정읍, 부안, 김제

제2반 강사 유희진(柳熙晋) : 개최지- 남원, 순천, 임실

11. 평안남도 유도연합회에서는 10항의 내용과 동일한 목적으로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하루야마 본 회상무이사를 초빙하여 아래의 각 지역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모두 성황을 이루었다.

개최지- 신안주, 안주, 개천, 순천, 승호리, 풍동, 중화

## (6) 『유도』 7호, 본회기사·지방기사

### 본회기사

결전시국이 점점 심각해지고 가열해지는 요즈음, 전 조선 200여 만의 유림에게 유교본래의 도의정신을 더욱 양양하고 살신성인의 적성(赤誠)을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여실히 현현(顯現)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자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여, 본회와 경학원연합주최로 아래와 같이 계획을 세워 올해 6월 19일부터 연성(練成)을 개시하기로 했다.

#### 1. 수련자 범위

##### 제1조(組)

각 문묘현직에 있는 직원(直員)<sup>140</sup> 장의(掌議)총원 2,270여 명에게 별표에 따라 점차 연성을 시행할 것

##### 제2조

각 도부군도 유림관계 사무담당자에게 적당한 시기에 연성을 시행할 것

#### 2. 연성과목

(제1조) 국체본의, 국어, 황도유학, 시국관계, 예법, 수련

(제2조) 국체본의, 황도유학, 이도(吏道), 시국관계 전시생활훈련

#### 3. 연성장소

경학원 명륜당 및 동서제

#### 4. 연성기간

만 5일간

<직원장의 현 인원수 및 연차별 연성인원 조(調)>

-도표-

### 지방기사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강원도유림연맹 결성식을 개최, 도내 각 군 대표유림 130명이 집합하고 도에서 온 나카하라(中原) 지사 이하 각 부장 및 관내 군수, 읍·면장 다수가 참석하였다. 나카하라 도장(道長)의 식사, 조선유림연합회장의 고사, 내빈객사(辭), 연맹결성보고, 임원발표 등을 한 뒤 식을 마쳤다. 오후 1시부터 본회 안교육부장의 강연이 있었으며, 이어서 4시부터 7시까지 좌담회를 개최해 상당한 효과를 얻었으며 화기에애한 가운데 좌담회를 마쳤다.

강릉군 유도회에서는 미·영격멸 국민총궐기운동실시 주간에 즈음하여 일반 유림을 읍면주최 특별

140) 직원(直員) : 일제 강점기에 향교나 경학원의 임무, 또는 그 직무를 맡아하던 사람.

정신대 강연회에 참석시켜 궤기격려를 촉구함과 동시에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궤기운동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하 한시 생략)

〈출전 : 「本會記事」, 『儒道』 창간호~7호, 朝鮮儒道聯合會, 1942년 3월~1944년 11월〉

## 2) 『조선유림성지순배기(朝鮮儒林聖地巡拜記)』(1943)

1941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선유도연합회

### 머리말

우리일행 17명이 성지참배단원으로 선발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무엇인가 신국(神國)일본의 본연의 모습에 접하고, 황도유학이 유래하는 바의 진수에 접함으로써 조선유림을 분기(奮起)시키고, 황도 유학으로 정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을 짊어지게 된 느낌이 어쩐지 들게 된다. 이러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해마다 반복되어서 조선유도회가 기획한 목적의 열매가 맺어져서 유림층에 팽배한 황도 유학의 정신이 넘쳐서, 우리국체의 본의에 침투할 것을 염원해 마지않는 것이다.

이번에 특히 뒷사람의 정성어린 지도와 내지<sup>141)</sup>의 각 방면의 특별한 주선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본 기행문을 드리게 된 것이다. 또 기술과 속기의 책임을 맡은 본 회의 참사 김택동(金澤東) 씨의 노력에 감사한다.

1942년 3월

영전종수(永田種秀, 나가타)<sup>142)</sup> 적음

### 중견유림 성지참배단 명부

단장	조선총독부 사무관		
	조선유도연합회 교화부장	영전종수(永田種秀)	경기도 경성부
간사	경학원 사성		
	조선유도연합회 이사	죽성제봉(竹城濟鳳)	경기도 부천군
"	조선유도연합회 상무이사	평산태인(平山泰仁)	경기도 개성부

141) 일본을 말함. 이하 동일함.

142) 김병욱(金秉旭)의 창씨명.

단원	경학원 강사		
	조선유도연합회 참사	가천구사(嘉川久士) <sup>143)</sup>	경기도 용인군
"	경학원 강사		
	충청북도진천군유도회부회장	남상익(南相翊)	충북 진천군
"	경학원 강사		
	조선유도연합회 참사	서촌재극(徐村載克) <sup>144)</sup>	충남 대전부
"	경학원 강사		
	조선유도연합회 참사	안동정회(安東正會)	전북 고창군
"	경학원 강사		
	전라남도회의원	윤정현(尹定鉉)	전남 남해군
"	경학원 강사		
	경상북도회의원	산가운(山佳澗)	경북 경주군
"	경상남도 유도연합회 부회장	정순현(鄭淳賢)	경남 함양군
"	경학원 의사(議士)	백천훈영(白川堧榮)	황해 황주부
"	평양부 유도회 상무이사	강본봉훈(康本鳳薰)	평남 평양부
"	명륜전문학원 평의원		
	조선유도연합회 평의원	고산경식(高山景植)	평북 선천군
"	경학원 강사		
	조선유도연합회 참사	청하달민(淸河達斌)	함남 안변군
"	경학원 의사	부산삼(富山森)	함북 청진부
"	조선유도연합회 참사	김택동(金澤東)	
"	매일신보사 사회부차장	송원이정(松原利貞)	

### 성지참배단 파견일정

일정	출발지 및 시각	경유지	도착지 및 시각	숙박지	참배 및 시찰처
제1일 (10월17일 금)	경성 오후 1:45		부산 오후 10:15		
	부산 오후 11:45			배 안	
제2일 (동18일 토)			시모노세키(下關) 오전 7:15		

143) 조병렬(趙炳烈)의 창씨명.

144) 서재극(徐載克)의 창씨명.

	시모노세키 오전 9:25		미야지마(宮島) 오후 0:50	미야지마	이즈쿠시마(巖島) 신사참배
제3일 (동19일 일)	미야지마 오전 9:21		교토(京都) 오후 6:29	교토	
제4일 (동20일 월)	교토 체재			교토	1. 모모야마(桃山)능 참배 2. 신사참배 3. 시내견학
제5일 (동21일 화)	교토 오전 9:24		우네비(畝傍) 오전 11:30		카시하라(橿原)신궁 참배
	우네비 오후 2:52		나라(奈良) 오후 3:42	나라	가스가(春日)신사, 법륭사(法隆寺) 및 기타
제6일 (동22일 수)	나라 오전 8:34	가메야마(龜山) 착 오전 10:03 발 오전 10:32	야마다(山田) 오전 11:39		이세황대신궁 (伊勢皇大神宮) 참배
	야마다 오후 4:39	후타미노우라 (二見浦) 착 오후 4:48 발 오후 7:07	토바(鳥羽) 오후 7:17	토바	후타미노우라 견학
제7일 (동23일 목)	토바 오후 9:14		나고야(名古屋) 오전 0:51		나고야성 견학
	나고야 오후 9:14			차 안	
제8일 (동24일 금)			도쿄(東京) 오전 6:00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유시마(湯島)성묘(聖廟)예배, 대동학원 및 국학원 견학
제9일 (동25일 토)	도쿄 체재			도쿄	고려신사참배, 유학관계인사 방문, 우에노(宇野)박사 강연 청강
제10일 (동26일 일)	도쿄 체재			도쿄	시내 견학
제11일 (동27일 월)	도쿄 오전 9:10		미토(水戸) 오전 11:42	미토	사적 견학 미토학(水戸學) 청강
제12일 (동28일 화)	미토 오전 9:51	토모베(友部) 착 오전 10:16 발 오전 10:23	닛코(日光) 오후 1:36	츄젠지 (中禪寺)	토쇼구우(東照宮) 및 기타견학
		오야마(小山) 착 오전 11:44 발 오전 11:57			
제13일 (동29일 수)	닛코 오후 3:00		도쿄 오후 6:25		
	도쿄 오후 9:40			차 안	

제14일 (동30일 목)			오사카(大阪) 오전 9:07		오사카성 및 시내 견학, 협화회 사업 및 반도인 부락 시찰
제15일 (동31일 금)	오사카 오전 8:00	쿠라시키(倉敷) 착 오전 11:12 발 오전 11:57	마쓰에(松江) 오후 6:18	마쓰에	
		요나고(米子) 착 오후 4:11 발 오후 4:51			
제16일 (11월1일 토)	마쓰에 오후 9:08			차 안	이즈모(出雲)신사참배, 사적 및 시내견학
제17일 (동2일 일)			시모노세키 오전 6:12		
	시모노세키 오전 8:15		모지(門司) 오전 8:30		
	모지 오전 9:00		벳부(別府) 오전 11:36	벳푸	시내견학, 지옥순례
제18일 (동3일 월)	벳푸 오후 6:23		모지 오후 8:55		
	모지 오후 9:15		시모노세키 오후 9:30		
	시모노세키 오후 10:30			배 안	
제19일 (동4일 화)			부산 오전 6:00		
	부산에서 해산				부산 도착 후 일체의 계산을 한 후 해산

### 성지참배단 여행지 숙박처 일람

일 시	숙박처	소재지	비고
10월 17일	선박 안		
18일	금수관(錦水館)	히로시마현 사에키군(廣島縣 佐伯郡 巖島町)	
19일	대진옥(大津屋)	쿄토시 산조소교(京都市 三條小橋 西詰)	
20일	"	"	
21일	대문자옥(大文字屋)	나라시 사루사와노이케 인근(奈良市 猿澤池畔)	
22일	대신관(對神館)	미에현 토바 해안가(三重縣 鳥羽 海岸通)	
23일	열차 안		

24일	금성관(金城館)	도쿄시 간다구 니시키초(東京市 神田區 錦町) 1-15
25일	"	"
26일	"	"
27일	청향정(清香町)	이바라키현 미토시(茨城縣 水戸市 波沼畔)
28일	미전여관(米田旅館)	닛코 추우젠지코 추우구우지 우타가하마(日光 中禪寺湖 中宮祠 歌歌濱)
29일	열차 안	
30일	오사카 스테이션호텔 본관	오사카시 신사이바시(大阪市 心齋橋 北詰東)
31일	임수여관(臨水旅館)	시마네현 마쓰에시 마쓰에호반(島根縣 松江市 松江湖畔)
11월 1일	열차 안	
2일	청풍장(淸風莊)	벳부시 기타하마해안(別府市 北濱海岸)
3일	선박 안	
4일	부산에서 해산	

#### 10월 17일(금) 맑음

추계 석전(釋奠)제 및 제2회 전선유림대회를 성황리에 지체 없이 끝내고, 우리들 성지참배단일행 16명(17명 중 타카키(竹城) 간사는 사정에 의하여 2일 늦게 출발)은 이 뜻 깊은 행사에 명예로운 제1회 참배자로 선발되어, 가을색이 바야흐로 무르익는 10월 17일, 오후 1시 45분 “노조미”호로 많은 관계자의 환송 속에 장도에 올랐다.

출발에 앞서, 일행은 오전 11시 반부터 반도호텔에서 열린 가나카와(金川) 매일신보 사장의 초대오찬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는 참배자 일행 외에, 박택(朴澤)<sup>145</sup> 대제학·계(桂)<sup>146</sup> 사회교육과장과 관계직원 등이 열석하고 또 신문사 측으로부터는 가나카와(金川) 사장을 비롯하여 가타오카(片岡) 전무, 정(鄭) 편집국장, 마쓰하라(松原) 사회부 차장 등이 참가해서 주객이 서로 화목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였었다.

이렇게 화목한 식탁을 둘러싸고, 가나카와(金川)·호우사와(朴澤) 양씨 및 나가타(永田) 단장으로부터는, 보내는 말과 환송을 받는 말이 오고갔다. 그 말들을 대략 여기에 적어 보기로 한다.

매일신보사장 금천성(金川聖, 가나카와)<sup>147</sup>씨의 인사말

여러분은 이번에 무사하게 문묘의 추계석전의 의식을 마치셔서 전선(全鮮) 2백만 유림의 대표로서 내지의 성지순배의 장도에 출발하시게 된 것은,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145) 박택상준(朴澤相俊, 호우사와), 박상준(朴相俊)의 창씨명.

146) 계광순(桂光淳)을 말함.

147) 이성근(李聖根)의 창씨명.



사실은 이전부터 전선유림대표가 경성에 모이시는 기회를 틈타, 고견을 들어볼 예정이었습디만, 날짜나 장소 기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성지참배를 하시는 열 분들만이라도 하는 생각에서 오늘과 같은 변변치 않은 찬을 드리며 앞길을 축복할 겸 고견을 듣고자 하는 바입디다.

저는 관계로부터 물러나서, 이번에 생각하지도 않은 매일신보사의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디다. 관계에 있을 시절과 마찬가지로 친절하신 여러분의 지도가 있으시기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디다. 또 일단 사장의 중임을 맡은 이상은 벽차지만 미력을 다하여 반도의 유일무이한 조선 언문신문을 여러분의 기대에 맞도록, 잘 활용해서 임전태세하의 보도보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디다. 아무쪼록 민중의 지도적인 입장에 계시는 유림대표의 각위께서는 이점을 잘 양해하셔서 끊임없는 협력과 편달을 바라는 바입디다.

그래서 저는 신문사의 운영방침을 종래와는 그것을 달리하여, 과거의 자유경제주의적인 영업방법을 내던지고, 순전한 사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서 임전하의 보도와 보국에 만유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적정입디다.

그리하여 이 신문은 어디까지나 사회민중의 목탁으로서, 반도민중으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황민화할 것에 주력함으로써 생활력의 향상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디다. 그것을 위하여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독자를 한 사람이라도 많이 획득해야 합디다. 현재의 독자만으로는 이 원대한 목적을 도저히 다할 수가 없습디다. 지금 가령 전선의 애국반을 상대로 하여, 한 애국반에 한 독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38만은 있는 것입디다. 이렇게 보아서도 현재의 독자 수만으로는 몹시 성에 안 차는 것입디다. 여러분께서는, 특히 이점을 양찰하셔서 협력해 주신다면 참으로 좋은 일입디다. 저도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서 백만 독자 획득에 전력을 다하며, 반도민중의 황민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장도의 여행에 편안함을 빌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 대제학 박택상준(朴澤相駿, 호우사와)<sup>148)</sup>씨의 인사

쇄국을 하면 나라는 퇴보하고, 개국을 하면 국운이 신장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디다. 조선은 유교를 받아들인 가장 오래된 나라였습디다만, 나라를 달고 쓸데없이 공리공론에만 치달았기 때문에 유럽은 우물바닥의 개구리가 된 것입디다. 그러나 내지의 유교는 이것과는 전혀 다릅디다. 여러분이 동경의 사문회(斯文會)를 방문해 보시면 이점을 잘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문회에는 내지의 유교중심을 하는 기관으로서, 1880년에 메이지대제가 내탕금(內帑金)을 특별히 하사하셔서, 일찍이 사문회를 위하여 진념(軫念)하신 것입디다. 사문회로서는 이와 같은 성지에 오로지 감읍(感泣)하며, 더한층 사회(斯會)의 융성을 도모한 것입디다. 그래서 사문회는 이와 같은 황공한 성지를 받들어 흥아부(興亞部) 밖에, 현재 조선유도연합회에서 실시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것입디다. 이와 같이 내지에서는 일찍이 황실의 성지를 받들어 황도유학의 진흥에 노력해 왔던 것입디다. 그러나 조선의 유학을 되돌아다 보면, 지금부터 2백년 이전은 그렇다고 하고, 과거 2백 년

148) 박상준(朴相駿)의 창씨명.

동안은 유럽은 있었으나 유교는 없었다고 할 만큼 침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또한 기독교는 물론, 일단 일본에 전해지면 일본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영양분만을 섭취하고 찌꺼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지 참배를 기회로, 이 “일본에 들어오면 일본화하고, 그 영양분만을 섭취하고 찌꺼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 현묘(玄妙)한 일본정신을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유학의 요람이라고 할 사문회도 잘 시찰하셔서 후진을 위하여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기를 성지순배의 출발에 즈음하여 부탁말씀을 올리며 환송의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 단장 영전종수(永田種秀) 씨의 답사

저는 이번에 중견 유럽성지참배단의 단장으로 참가하게 되어, 단원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지에 간 것은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 있었습시다만, 그때마다 새로운 감격을 가졌으나, 이번은 조선유럽의 대표로서 성지참배라는 중요임무를 짊어져서 신국(神國)일본의 본연의 모습을 체득할 기회를 얻게 되어 한층 일말의 감격과 기쁨에 차 있는 것입니다. 방금 회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있는 바와 같이, 동경의 사문회(斯文會)나 미토학(水戸學)에 관해서도 가능한대로 시찰연구해서, 황도유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단장으로서 저의 책무의 무게를 더 한층 강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들 일행은 소기의 목적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돌아올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원여러분은, 요즘여행은 사변 전 사정과 달라서 꽤나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각오하며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은 불편하고 불유쾌한 일을 만나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임시대제의 직후이기 때문에, 기차 안은 물론 숙소나 혹은 신궁과 신사 또는 시찰장소 등에, 상이군인이나 유가족 장(章)을 가슴에 단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는 것은 물론, 자리를 양보하며 길을 비켜서, 반도인으로서 동포애를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특히 주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말과 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지인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부에 걸친 주의사항은 그 현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배움이 적은 젊은 사람이지만, 명령을 받은 이상은 책임을 갖고 될 수 있는 한 뒤를 돌보며, 상사의 기대에 맞도록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생각합니다.

○

오후 1시 넘어서 매신 사장의 오찬회를 마치고 경성역으로 향한 일행은 매신으로부터 파견된 사진반의 카메라 촬영을 마치고 역까지 일부러 우리 일행을 전송해 주시는 호우사와(朴澤) 회장, 계(桂) 사회교육과장 기타 관계자들의 호의에 감사드리고 흠에 들어가자 이미 열차는 대기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열차 내는 입추의 여지도 없이 발을 딛기에도 어려웠다. “급하지 않는 여행은 삼가라”라고 부르짖어 온 이래 너나할 것 없이 자숙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교통량이 폭주하는 것은 후방국민의 움직임이 그 만큼 활발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행일 수밖에 없

다. 오후 1시 45분 열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도 연변에는 황금의 벼이삭이 파도를 치며, 기차는 한 없이 계속되는 벼이삭 파도를 누비며 달린다. 이 하나하나의 벼이삭은 전시물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성을 지니는 전시식량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병참기지 조선의 유일한 자량이 아닐까. 올해도 2천 5백만 석 이상의 수확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 오는 미곡연도의 전시식량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일 게다. 이것은 오로지 관민이 협력해서 식량증산에 진력한 결정(結晶)일 것이다. 우리들로서는 이 일에 생각을 새로이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날은 저물고 열차는 칠혹 같은 들판을 질주를 계속했다. 부산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 15분이었다. 역에 내리니 역장을 대신하여 조역(助役)이 마중을 해 주었다. 일행은 조역의 인도로 관부연락선의 총아 ○○호에 승선, 동○○시○○분에 배는 떠났다. 바람이 자기 때문에 배는 편안하게 달린다.

#### ○ 경부선 차중에서 읊음

車窓走筆賦東遊, 楓菊溪山滿目秋, 纔到嶠南行役苦, 孤雲落照望鄉愁. 가천구사(嘉川久士)  
萬里天晴海上秋, 扶桑紅日掛橋頭, 浮生空自忙如此, 羨彼中流泛白鷗. 가천구사(嘉川久士)  
儒林聯袂賦南遊, 正是吾儕奮發秋, 如石如金誠意在, 人間事業有何愁. 남상익(南相翊)  
仲秋十月向東京, 神國山河總有情, 泰西夷虜休搆事, 一億丹心欽聖明. 강본봉훈(康本鳳薰)  
朝發京城抵暮烟, 釜山浮在海中天, 坐思三十年前史, 自此內鮮一境連. 청하달빈(淸河達斌)

#### ○ 관부연락선 배 안에서 읊음

釜山秋海夜無煙, 船客不眠起看天, 人和地理渾然氣, 槿域扶桑一航連. 부산삼(富山森)

### 10월 18일 (토) 가랑비 뒤 개입

오전 7시 15분에 시모노세키(下關)부두에 상륙했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려서 대지는 어렴풋이 보이며 답답한 아침이었다. 일행은 바다가 조용했던 탓인지 피곤한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상요(山陽) 호텔에 들어가서 아침을 들고, 오전 9시 25분 열차의 손님이 되었다. 출발 직전 오사카 아사히(大阪朝日), 캄몽 니치니치(關門日日)의 신문기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가타(永田) 단장이, 우리들은 성지 참배를 하고 신국 일본의 본연의 모습에 접하며 겸해서 미토학(水戸學)의 발상지를 방문하여 몸으로써 황도유학의 진수를 연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는 좀처럼 그치려고 하지 않는다. 기차는 속도를 줄이며 이미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천황폐하께서 오늘 야스쿠니신사 임시대제에 참가하셔서 오전 10시 15분에 친히 참배 하시는 것을 알려왔다. 친배(親拜) 정각이 되자 기차는 서서 기적을 올린다. 일동은 공손하게 일어나서 호국의 영령에게 경건한 감사의 묵념을 바쳤다.

오후가 되어서 비는 가늘어지고, 오후 0시 50분에 미야지마(宮島)에 도착하니 비는 그쳤다. 역에 내려서니 역장이 마중해 주었다. 일행은 곧바로 이즈쿠시마(巖島)행 배에 바꾸어 탔다. 미야지마의 선착장은 특이한 건축물로, 청아한 풍취가 있다. 배 위에서 멀리 저쪽에 신도(神島) 이즈쿠시마를 바라보니,

바다 속에 붉은 홍살문<sup>149)</sup>이 의연하게 솟아 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참배자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한다. 또 신화시대의 숲은 비취색을 적셔 흘리며 그 유현(幽玄)한 풍치는 신의 영역의 존엄을 한층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즈쿠시마에 도착하니 현지의 국민학교 교장 모리타 슈조우(森田修造) 씨가 현청의 지시를 받았다는 뜻을 전하며, 친절하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이 이즈쿠시마의 이름에 대해서는 신령을 모치이츠크(持ち齋く)<sup>150)</sup>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고, 또는 이 치기시마히메(市杵島姫)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도 말하며, 고서에는 존엄(尊嚴)<sup>151)</sup>의 뜻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전해 내려온 것 같다. 이 섬은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설이 많다. 한 예를 보아도 『속(續) 서유기(西遊記)』라고 하는 서적에, “이즈쿠시마는 신성한 영역이기 때문에, 부정을 특히 탄다, 섬 안의 부녀가 아이를 낳을 때는, 급히 배에 태워서 게이슈(藝州)지방으로 보낸다. 배 안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난산이 없으며, 산후에 병에도 걸리지 않고”라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전설이 있는 반면에 재미있는 것도 전해지고 있다. 서유잡기(西遊雜記)라는 책에는, “이즈쿠시마 6월 제(祭)는 장이 서서, 전국으로부터 참례자가 엄청나서, 이 근처에 사는 자는 밭도 없는 섬이기 때문에 평생 직업도 없이, 이 장안에서 매매할 때의 구전이나 땅값 혹은 숙박업 또는 자신이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일이다. 더욱이 창가(娼家)도 있으며, 히로시마 시내도 멀지 않기 때문에 유객(遊客)도 끊이지 않고, 전국의 참례자가 원할 때는, 돈 5냥이나 10냥, 15냥, 신분에 맞게 첫 수확금(初穗金)을 내고, 배를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신사에 종사하는 사람과 무녀(巫女)를 가득 태우고, 시주(施主)도 같이 타며, 많은 포구와 칠복(七福)신의 신사를 순회하며, 이때 “야부사키”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쌀로 만든 큰 새알을 세 개 만들어서 그릇에 담고 바다에 흘려가게 하는 것이며, 이것을 미산(彌山)으로부터 새가 날아 와서 물고 돌아가면 명신(明神)이 수납했다고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즈쿠시마는 신도이며 따라서 전설의 섬인 것이다.

일행은 여장을 숙소에 풀고, 국민학교장의 안내로 이즈쿠시마에 정식으로 참배했다. 참배 후 일행은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신주(御神酒)를 받으며 국가를 진호(鎮護)하는 신들에게 감사함을 받았다. 일행은 신전을 물러나서 노사카(野坂禰宜) 씨로부터, 이 신사의 설명을 듣기로 하였다.

○

#### 노사카(野坂禰宜) 씨의 말씀

이즈쿠시마 신사는 알다시피 관폐중사(官幣中社)에 속하는 신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즈쿠시마 신사에 참배했을 때 맨 먼저 느낀 것은, 큰 홍살문이 바다 속에 있었던 것이 기이하다고 생각하였겠지요. 일본에서는 고래로부터 액땀의 의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사에 참배하는 사람들은 바닷물로 액땀을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궁이나 신사와는 취향을 달리하고 있는 점은 낮은 평지에 진좌(鎮坐)해 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 것까지 없이, 이 섬은 신들의 영혼이 깃드는 신체(神體)이기 때문에, 신도(神島)에 건립하지 않고 바닷물이 잠기는 곳에 세운 것입니다. 이와

149) 대조거(大鳥居).

150) 신으로서 숭상하다.

151) 이즈쿠시.

같이 사전(社殿)이 바닷물에 잠기고 있는 것이 이즈쿠시마 신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즈쿠시마 신사의 제신은 이치기시마 히메노미코토(市杵島姫命), 타고리 히메노미코토(田心姫命), 타기즈 히메노미코토(湍津姫命)의 세분이며, 이 삼여신은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신칙(神勅)을 봉대하고 아시와라(葦原)의 나카츠쿠니(中國)에 강림하셔서, 황실 및 국가의 진호(鎮護)신으로서 상하의 존신(尊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즈쿠시마는 삼여신의 영혼이 영원히 어려 있는 신성한 신체(神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섬이기 때문에 중고(中古)시대까지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카마쿠라(鎌倉)중엽부터 비로소 신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민들이 섬에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는 잠깐만이라도 이 신성한 곳에 머물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출산도 허락되지 않고, 벼 짜기나 논밭의 경작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금기(禁忌)가 무척 엄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신도의 신성함을 유지하는데 의의가 깊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섬 안의 나무 한그루 돌 한개도 모두 천연기념물로서 보존되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로시마(廣島) 현청에서도, 섬 안의 삼림을 풍치림(風致林)으로 가꾸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본민족이 정신을 굳히는 데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서양인들은 어떤 나라를 정복해 버리면 곧바로 자신들의 사정에 맞추어 그 나라의 국토를 망가트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연을 정복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살려나가는 것으로 외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무(神武)천황이 휴가(日向)의 나라로부터 동정(東征)하셔서 군흉(群凶)을 토벌할 때 병마(兵馬)공충(倥僮)<sup>152</sup>할 때에도 이 신도에 체재하게 된 것은, 이 신도는 황실국가의 진호의 신이 살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국토를 사랑하시는 어심(御心)에서 체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이코(推古)천황께서, 이 섬에 신사의 사전(社殿)을 창건하신 것도 그와 같은 어심의 발로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사전(社殿)은 이것을 숭경(崇敬)하여 받든 타이라노 키요모리(平清盛)공이 건조한 대로의 규모를 전한 것입니다. 앞서 이 신사는 상하의 존신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으나, 가장 존경해 받들었던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타이라노 키요모리를 비롯하여,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가 오우슈(奥州)정벌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원(祈願)을 치성한 것입니다. 또 장군 요리쓰네(頼經), 요리쓰쿠(頼嗣) 등이 “적국 항복”을 기원하여 기원문과 칼을 봉납한 것입니다. 이 기원문과 같은 오늘날 국보로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요시타카(義隆)는 그 신앙이 열렬해서 타이라(平) 집안 전래의 “이즈쿠시마 무악(舞樂)”이 오늘날까지 유지가 된 것은 그 분의 비호를 입은 바가 큰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사는 물론, 이 신도는 신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3, 4백년 전 매우 실례천만한 일이나, 오우치(大内) 씨와 모우리(毛利) 씨가 패권을 다투어 대규모의 결전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금기를 엄중하게 하는 이 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일대 불상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서 보니 싸움에서 전사한 시체를 섬 밖으로 끌어내어, 피로 물들은 흙은

152) 일이 많아서 바쁨.

깎아서 신도의 더러움을 맑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시간관계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 사전(社殿)내의 설명은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하기로 하고, 매우 단편적이었으나, 이상으로써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

설명은 다른 신직의 사람이 뒤를 받아 현장을 걸어가며 계속한다. 일행은 신전에서 긴장을 풀며 편한 기분으로 돌아섰다. 여기서 잠깐 경내의 모습을 적어 보겠다.

대궁(大宮) 보전(寶殿)은 중앙에 있으며, 보전 앞에 폐전(幣殿), 폐전 앞에 배전(拜殿)이 있으며, 부정을 막는 전(祓殿: 하라이텐)은 배전(拜殿) 앞에 있어서, 속된 말로 짜 넣기(組入)라고 하는 것이다. 부정을 막는 전(祓殿) 앞에 높은 무대가 있으며, 좌우에 보통무대가 있다. 연주하는 곳은 보통무대에 이어서 좌우에 두 지붕씩으로 나누어져서, 문객(門客)신사 두 지붕이 연주소(樂屋)와 나란히 좌우에 서 있다. 또 속칭 혀 끝(舌先)이라고 일컬어지는 곽취(廓嘴)는 문객신사보다 앞쪽(서북 향)으로 복도가 되고, 그 끝에 동등(銅燈)농대(籠臺) 한 기(基)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전각은 바다를 향하여, 사전(社殿)의 기초는 노사카(禰宜野坂)가 말한 것처럼 모두 다 바다가 쑥 들어간 곳(入江)에 세워졌다. 바닷물이 칠 때는 회랑의 바닥판자 밑까지 바다가 된다고 한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마침 썰물 때였기 때문에 갯벌의 마른 자욱이 보였다. 그리고 크고 작은 지붕과 누각은 꼬부라져 서로를 잇고 있고, 땅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전각의 높고 낮음도 또 제각각이다. 사전(社殿)의 주위의 풍경을 볼 때, 뒤는 비취색 산이 높이 솟고 앞쪽은 푸른 바다를 뒤로하여 자연의 정취가 듬뿍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강산과 자연의 형세에 더하여 인공의 화려와 장엄으로써 조영한 사전(社殿)은 한층 묘취(妙趣)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설명자의 말에 따라 우리가 본대로 적어보면, 이 신사의 회랑은 1백 8칸으로 지어져서 8번 꼬부라져, 기둥과 기둥사이의 칸에 깔아놓은 판자는 8장씩, 또 한 칸마다에 청동의 등이 매달리고 있다.

또 회랑은 앞쪽으로 떨어지기를 70칸 멀리 바다 속에 확실하게 보이는 붉은 홍살문은, 1875년에 중건된 것이고, 쓰인 재목은 전부 녹나무(樟)라고 한다. 큰 홍살문은 높이가 4장(丈) 4척(尺)(13미터 20)이며, 정수리의 길이는 6장 4척(19미터 20), 기둥과 기둥의 폭은 5칸(약 30미터)이나 되며, 또 큰 홍살문에 걸쳐 있는 액자는 세로 9척(약 2미터 70)이고 가로 6척(약 1미터 80)이나 되는 것으로, 원래는 고나라(後奈良) 천황의 친필인 것을, 1888년 개수할 때 아리수가와노미야(有栖川宮) 전하의 제자(題字)로 고친 것이라고 하며, 제자는 “엄도신사(嚴島神社)”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노우(能)무대가 있으며, 본 궁에서는 1월 원단·2일·3일·5일·천장절(천황 탄생일)·5월 18일·음력 6월 5일·10월 15일에 각각 무악이 연주되며, 신능(神能)은 4월 16일부터 동 18일까지 시행된다고 한다. 궁중(宮中) 외에는 지금까지 예부터 전해내려 온대로 무이악(舞以樂)을 연주하는 것은 이곳뿐이라고 한다.

또 객(客)신사 옆에 거울의 못이라고 불리는 작은 연못이 있다. 경지(鏡池)는 한편 천지(泉池)라고도 하며, 이 못은 이즈쿠시마 신사가 진좌(鎮坐)된 밤부터 자연히 생긴 것이라고 전해지며, 썰물이라 할지라도 우물이 저절로 솟아나서 마른 일이 없으며, 그 옛날부터 알아지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는 천고의 역사를 몰래 간직하고 있는 청등경(淸燈鏡)과 같이 아름다운 연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박물관에 안내 받았다. 이곳은 1897년 이래, 여러 가지 보물이 점차로 국보에 지정되어, 이제야 그 수가 1백 2십여 점에 이른다고 한다. 이곳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2, 3가지를 지적해 보자. 먼저 일본에서 최초의 유화인데, 이 유화는 에도시대의 강한(江漢) 사마준(司馬峻)의 손에 의한 것으로 고색창연한 가운데 전아(典雅)한 아름다움이 떠돌고 있다. 다음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미나모토노 타메토모(源爲朝)가 썼던 소앵함(小櫻緘) 갑주가 있으며, 더욱이 미노모토노 요시이에(源義家)가 사용했던 원지화함(元之花緘) 갑주에는 선혈이 뻗 흔적과 화살에 맞은 흔적이 옛날을 말하고 있어서 지난 옛날을 생각나게 한다. 이와 같이 당관에 소장된 백수 십 점은 하나도 남김없이 천고의 고물로서 국보에 지정되고 있다.

일행은 사전(社殿)의 경내로부터 나와서, 또다시 모리타 국민학교장에게 안내를 받았으며, 묘진(明神)이 사랑한다고 하는 신록(神鹿)과 장난치며 섬 안에 있는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런데 안내 받은 곳만 적어 보기로 한다. 다보탑(多寶塔)은 일명 이중탑(二重塔)이라고 말하며, 1521년에서 1528년 연간에 건립한 것이다. 처음에는 약사여래(藥師如來)를 안치했으나, 그 후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공의 냇을 모셨다고 한다. 또 히다노 타쿠미(飛騨内匠)의 절세의 일품이라고 말하는 오중탑(五重塔)은 카메이산(龜居山)의 동쪽 끝에 솟아있고 탑의 장려함은 주위의 나무들과 서로 비추서 그 미관은 말로 표현 못한다. 이 탑은 1407년에 건립된 것으로 총 높이가 15칸 남짓, 각 층의 지붕은 노송나무 껍질로 입혔으며, 양식은 당나라 무늬를 주로 한 것이다. 다음으로 오중탑의 바로 옆에 천첩각(千疊閣)이 있다. 이 천첩각은 타이코 히데요시(太閤秀吉)가 전쟁 병사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앙코쿠지(安國寺) 에케이(惠瓊)에게 명령하여 건설한 것으로, 각내(閣内)에는 몇 만을 헤아리는 국자에 전사자의 명복을 비는 글귀를 써서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영전(永田) 단장은 일행을 대표해서, 국자에 기(祈) 출정황군(出征皇軍) 무운장구(武運長久)라는 글귀를 써서 봉납했다. (이 국자는 이 섬의 명산물로, 일청전쟁 때부터 많이 봉납되었다고 하며, 이것은 “적을 잡는다<sup>153)</sup>”라고 하는 연유인 것 같다. 천첩각(千疊閣)으로부터 멀리 내다보면 강산과 누각이 서로 비추어 주며 무한한 정취가 있다.)

다음으로는 대성원(大聖院)을 안내 받았다. 대성원은 전 이즈쿠시마 신사의 별당사(別當寺)로서, 16세기 후반에 임조법친왕(任助法親王)이 머물렀으며, 여기에서 서거하셨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1885년 메이지대제가 이즈쿠시마에 행차했을 당시에 머문 곳이라고 전하여 진다. 그러나 1888년에 전소(全燒)하는 횡액을 맞아, 지금의 것은 대부분이 1930년대에 재건된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어수세천(御手洗川)의 맑은 흐름이나 단풍 골 공원의 경치는 지상의 낙원을 방불케 했다. 부근에 흩어져 있는 청아한 건물은 각 전하들이 묵는 곳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미야지마(宮島) 명산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이기로 한다. 이 섬에 오게 된 자는 먼저 통신용 국자가 눈에 띈 것이다. 이 국자는 1년 산출이 수십만 엔에 이른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유래는 18세기말 세이신(誓眞)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섬에 적당한 토산물이 없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또 이곳 궁민을 구제할 목적으로 발안하여 창작한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온다.

153) めしとる[메시(밥)토루(뺏는다)].

○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묵으며 읊음

海風颯颯一帆秋, 無恙清晨泊埠頭, 多少紛忙新世界, 閒情閒亦水中鷗. 남상익(南相翊)  
玄海順風起東槳, 最新活氣滿空腸, 春帆高樓衣舊否, 登臨志士應多忙. 청하달빈(清河達斌)  
下關朝雨理行裝, 萬樹秋光驛路長, 紅柿方濃黃稻熟, 田家穡事摠紛忙. 부산삼(富山森)

○ 시모노세키를 출발하며 차중에서 읊음

山有森林海有魚, 沿途百里接隣居, 堪羨國民教育熱, 一人無有不知書. 남상익

○ 야스쿠니 신사 대제 날 읊음

鸞駕清宸降至京, 宸誠慰滿庶民情, 蒼生多福皇恩重, 萬歲扶桑瑞日明. 가천구사(嘉川久士)  
今朝遺族泣東京, 一祀英靈報國情, 天顏軫慮親臨祭, 戰局風雲瑞旭明. 부산삼(富山森)

○ 이즈쿠시마 신사를 참배하며 읊음

社殿晶清接素秋, 萬千期載護神州, 水明山紫冠三景, 能使遊人一日遊. 남상익  
松杉箇箇參天立, 鹿成群甚自由, 到此方知山澤富, 農家漁屋盡名樓. 안동정회(安東正會)  
天藏勝地海之東, 古社儼然絕景中, 畫樑粉壁如今造, 千載不渝信仰風. 강본봉훈(康本鳳薰)  
儼然巖島海門前, 肇基新宮問幾年, 鳥獸繁魚皆被化, 好生天理使人傳. 청하달빈(清河達斌)  
巖島秋涼拜社前, 松楸石榻幾千年, 甲衣長劍燦然色, 天壤無窮國寶傳. 부산삼(富山森)  
海色山光碧滿前, 杉松古社幾多年, 收藏邦寶神扶護, 幸得居人永世得. 가천구사(嘉川久士)

○ 이즈쿠시마공원

名園泉石似仙鄉, 楓日新晴菊放香, 看過 多奇絕處, 平湖十里又斜陽. 가천구사(嘉川久士)

10월 19일(일) 맑음

귀에 익지 않은 신록(神鹿)의 울음소리에 눈을 떠보니 시원한 아침이다. 한 점의 구름이 없는 가을 하늘이다. 일행은 못내 아쉬움을 남기고 신도(神島) 이즈쿠시마에 작별을 고하고 오전 9시 21분발 동경행 열차에 몸을 담고 교토로 향했다. 차창에서 연선을 쳐다보니, 눈에 비치는 것 하나도 감격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은 없다. 여기에 두세 가지의 소감을 그려보기로 한다.

어제는 비 때문에 차창이 흐려서 상요(山陽) 본선(本線)의 연선풍경을 충분히 맛 볼 수 없었으나, 오늘은 가을 맑음 덕분에 연선풍경을 밝고 마음껏 바라볼 수가 있었다.

차창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파랗게 우거진 삼림이다. 내지를 방문한 자들은 입을 맞춘 듯이, 열 사람이면 열사람 모두 이구동성으로 울창한 숲을 칭찬하는데, 내지의 산은 윤택함이 흘러내리는 듯 파랗



다. 벌거벗은 산에 익숙한 우리들 눈으로서는,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가식이 없는 착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치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진 치수나 우물 정(井)자로 구획된 논들은 자연과 잘 조화하여, 문명국으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나타내고 있다. 또 수리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받은 줌처럼 찾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철도연선에 도시가 많은 것이다. 아니, 철도연선에 도시가 많다고 하기보다, 기다랗게 완연한 도시 사이를 누비며 기차가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직감적인지 모른다. 이러한 증거로서는, 번거로울 정도로 정거장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선에 보이는 집들은 일률적으로 미관을 보이며, 또 어느 집을 보더라도 후방생활의 여유로움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조선 안에서 철도연선에서 보았던 집들이 잔영으로 떠올라,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천양지차인 것이다.

다음으로 신사(神社)나 신사(神祠)가 많은 것이다. 사람집이 있으면 반드시 홍살문이 보이는 데는 놀라겠다. 이만큼 내지인들은 정신적인 신앙심이 풍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현상으로 보아도, 물질에는 여유가 있고, 마음에는 윤택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옛말에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과 마음을 윤택하게 한다(富潤屋德潤身)”라는 말이 있으나, 철도연선의 풍경을 주마등과 같이 순간에 본 것만으로, 주민들의 생활정도와 문화정도를 느낄 수가 있다.

다음은 철도연선에서 일하는 부인들의 활동상을 두 세 가지 주워 보기로 한다.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버지를 각각 전선에 보내거나 혹은 산업전사로 보내며, 후방에 남겨진 가족은 늙은이나 젊은이도, 남자나 여자도 모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논이나 밭에서 또는 거리에서 잘 볼 수가 있다. 그들은 생산력 확충이라는 귀중한 사명을 띠고 봉공하고 있는 것이다. 논 가운데서 벼를 베고 있는 여자, 삼태기를 짊어지고 물건을 파는 여자, 자전거에 “리어카”를 매달고 짐을 나르는 여자, ... 이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도록 여자들이 빈번히 오고가는 활동상은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일에 나간다는 것은 조선 안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조선에서는 이제야 각 여학교가 분기하여, 후방여성의 연성(鍊成)을 목표로 자전거 타기에 야단들이지만, 내지에서는 이미 여자가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은 실용화된 것이다. 또 삼태기를 짊어지고 물건 팔기에 나온다는 것도 후방여성의 용감한 활동의 한 면일 것이다. 이 밖에도 방공연습에 “몸빼” 모습의 토나리구미(隣組) 부인들이 잘 눈에 띄나, 조선과 별로 다르지 않다.

내지의 해돋이는 경성보다도 훨씬 빠르다. 그 대신에 해가 저무는 것도 빠르다. 기차가 오사카에 닿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을 즈음이다. 등화관제 훈련 중의 오사카는 어둠에 쌓여 조용했다. 기차가 급행으로 바뀌어졌는지, 오사카에서 단숨에 교토에 도착했다. 오후 6시 29분이었다. 역에는 교토부 협화회(協和會)의 의천이삼차(衣川利三次) 씨와 토요쿠니(豊國)신사에서 일하고 있는 반도출신의 금본영환(金本英煥) 씨가 맞이해 주었다. 일행은 두 사람의 안내로 대진옥(大津屋) 여관에 들어갔다.

저녁식사 상을 가지런히 하면서, 협화회의 의천(衣川) 씨로부터 교토부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근황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다. 이제 그 설명과 그로부터 받은 협화회 관계의 유인물에 따라 조선인의 생활 상황을 엿보기로 하자.

작년 12월 말 현재, 교토부 내 거주자 수는 67,698명으로 7만 명에 닿으려고 하고 있다. 이들 7만 명이 나 되는 반도인은 사변 발발 이래, 시국을 잘 인식하여 남녀노소 구별 없이, 애국의 열의에 불타서, 황

군의 무운장구 기원이나 상이군인의 위문 혹은 국방홍병헌금 또는 응소(應召)군인의 가정의 근로봉사 등 눈물겨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참으로 좋은 일이 되고 있는 듯했다. 지금 그 정성 상황을 2, 3개의 통계로 적시해 보면,

국방홍병헌금	48,221엔 68전	
사변국채응모	88,837엔 00전	
응소가정 기타 근로봉사 연인원	44,500명	
국방애국부인회 가맹	2,329명	
군우회(軍友會) 가맹	402명	(작년 9월 말 현재)

다음으로 내선 간의 통혼(通婚) 정황(작년 12월 말 현재)은 내지인을 처로 삼은 것이 2백 4십명, 내지인을 남편으로 삼은 자는 4명으로 합계 2백 4십 4건으로 올라 있었다.

이상과 같은 조선인의 활동의 이면에는 협화회 당사자의 활동도 불만한 것이 많이 있다. 지금 그 주요한 것을 들어보면,

① 귀향보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자 혹은 귀향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그 여비를 자기가 내는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것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② 야간 국어강습회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또는 무교육자에 대해서는 야간강습회를 3개월에 걸쳐 개최하고, 2개월을 가르쳐서 내 보낸다.

③ 보도원강습회

우수한 보도원(輔導員)을 양성하고, 술선수범하여 회원을 유도시키기 위한 강습회를 3개소에서 개최한다.

④ 강연회

일본정신 및 내선협화의 정신을 보급하며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강연회를 10개소에서 개최한다.

⑤ 중견청년강습회

조선인 청년으로서 장래 보도원 또는 지구내의 중견이 되어야 할 자의 수양 강습회를 2개소에서 개최한다.

⑥ 생활개선지도

내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부인들의 지도에 주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여교사 및 내지의 부인회 등의 협력을 받아, 예법·일본 옷 입는 방법 기타 위생에 관한 강습회를 30곳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부인 일상 예법」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발행해서, 일반적인 예의 매너의 교시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 그 소책자의 차례에 눈을 돌려보면, 방석을 권유하는 방법·차를 내는 방법으로부터, 앉는 방법·일어서는 법·걷는 법에 이르기까지 정말 세밀하게 쓰여 있다. 참고로 앉는 방법의 페이지를 베껴서 보면, “양발을 가지런히 하고, 양손을 늘어뜨리며 왼쪽이나 오른 발을 조금 당겨, 조용히 그 쪽 무릎을 꿇고, 다음에 다른 쪽의 무릎을 가지런히 하며 조용하게 허리를 잡는다.”와 같이 상세하게 알기 쉽게 쓰여 있다.

⑦ 표창

본회의 사업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자 및 선행자를 표창하는 제도가 있다.

⑧ 합의사항 36항목

합의사항 36항목이 있어서, 해야 할 일, 준수해야 할 사항, 교정해야 할 사항을 각 12세목씩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36항목은 일상생활에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금과옥조가 적혀 있다.

10월 20일 (월) 맑음

오늘은 아침 9시부터 유람버스를 타고 몸야마고료(桃山御陵)를 비롯하여 각 신사에 참배하고 시내를 시찰했다.

쿄토는 칸무(桓武)천황 서기 794년에 천도한 이래 천년 남짓의 옛 수도인 만큼, 여러 곳에 명승고적이 있으며, 명승고적이 많은 것은 전국에 그 유례가 없을 것이다.

오래된 서울 교토는 인구 1백3만을 헤아리는 대도회지이지만, 이 도회지의 3분의 2는 산림이 차지하고, 그 나머지인 3분의 1지역에는 벼논과 채소밭이 있으며, 무수한 사적과 명승지를 이루고, 또 1천 8백 남짓의 신사와 사찰의 경내가 있고, 정치도시 동경, 경제도시 오사카에 대해서 관광도시의 특이성을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오래된 고도 교토는 역사와 미술의 연충지(淵叢地)인 것이다.

여기에 안내 받은 곳을 순서에 따라 들어보고 기억을 새로이 해 보겠다. 숙소를 출발한 “버스”는 시가지를 꿰뚫고, 존엄의 영기(靈氣)가 넘치는 후시미모모야마(伏見桃山)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와 상서로운 삼나무 양쪽에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참배하는 길을 걸어가면 돌계단이 있다. 이 돌계단을 하나 둘 하고 세면서 올라가면, 여기가 메이지천황 및 쇼켄(昭憲)황태후의 양위 분의 신령이 영원히 잠드는 능이 동서에 가지런히 안치된 후시미모모야마 능인 것이다. 일행은 능 앞에서 고개를 숙여 대제의 생전의 성덕을 추모해 받들었다. 대제의 성업은 민초가 모두 다 경모해 받드는 곳이나, 이제 대제의 능 앞에 배립(拜立)하여, 대제유신의 홍업(鴻業)을 일으키신 이래, 과거 70여 년간을 공손히 돌아 볼 때, 메이지대제의 시대에는 정청(征淸)·정로(征露)의 양 전쟁을 비롯하여, 동양평화의 기초가 되는 일한병합이 성립하고, 또 앞 천황의 시대는 세계대전의 참전으로 제국의 국위를 사해에 선양했던 것이다. 쇼와(昭和)의 성대가 되어서는 만주국의 탄생·중화민국의 재건을 보고 동아공영권을 확립하며, 또 일·독·이의 삼국동맹 성립으로 세계질서가 건설하는 중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첫째로 메이지대제의 해려와 신위의 가호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성은의 무궁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일행의 얼굴에도 그와 같은 감회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모모야마 능을 물러나서 히가시(東) 능을 참배하고, 쇼켄 황태후의 생전의 유덕을 경모 해 받들었다.

다음은 군신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대장을 모시고 있는 노기(乃木) 신사를 참배했다. 이 신사는 모모야마 능의 참배하는 길 옆에 있다. 경내는 시즈코(靜子) 부인을 모시는 청혼(靑魂)신사가 있으며, 특히 모든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은 1904-1905년 전쟁 당시에 여순 공략군 제3군단사령부에 보충되어, 또 대장이 항상 기거한 남만주 우수방(柳秀房)의 민가를 그대로 이 건한 기념관이다. 이 기념관의 앞에는 대추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이 대추나무는, 소학생들이 잘 부르는 노기 대장과 패장 ‘스테셀’과의 회견

이라는 역사적인 장면을 있는 그대로 인 채로 대추나무를 분식(分植)한 것이다. 대문 밖에는 대장이 어렸을 때를 생각나게 하는 나가토노쿠니(長門國)초후(長府)에 있는 노기 저택의 모조건물이 있으며, 그 방은 살아있을 때 부모자식 세 사람의 상이 있으며, 마레스케 소년이 엄친으로부터 설교 받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노기신사를 출발한 “버스”는 후시미 이나리(稻荷)신사 앞을 지나서, 토요쿠니(豊國)신사에 도착했다. 이 신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공을 제신으로 하는 별격 칸페이샤(官幣社)이다. 이 신사의 창립 유서는,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공이 후시미성(伏見城)에서 죽게 되자 유명(遺命)으로 낙동아미타봉(洛東阿彌陀峰)[현재의 토요쿠니묘역(豊國廟域)]에 봉장(奉葬)하고, 그 산기슭에 사전(社殿)을 만들은 것이다. 다음해 1599년 4월 18일 이장이 있었으며, 외람되게도 고요우제이(後陽成) 천황께서 정1위의 신계(神階)와 호우코쿠(豊國) 다이묘징(大明神)의 신호(神號)를 주게 되었으며, 1873년에는 별격 칸페이샤에 참가하게 되었다. 참배 후 일행은 조선신궁의 권(權) 궁사(宮司)였던 이 신사의 궁사 요시다 데이지(吉田貞治) 씨로부터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들었다.

#### 요시다(吉田貞治) 씨의 인사말

멀리서 오셔서주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 멀리 조선에서 오신 여러분에게 한 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2월까지 조선에서 신세를 졌으며, 이번에 이 신사의 궁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 만큼 저도 조선사정은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쪽에 차실이 있습니다만, 이 차도라는 것은 지나<sup>154)</sup>로부터 조선에 전해지고 조선에서 또다시 일본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얼핏 보아서 형식과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 형식보다 존귀한 일본정신의 한 모서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건물을 보아서도, 그 형식은 조선에서 들어 온 것입니다. 나라(奈良)에 가보면, 그곳의 건물은 연대가 오래 된 만큼 조선의 건물과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본적인 정취가 배어 있으며 일본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조선은 지나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문화발전에 커다란 공헌이 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조선화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러분이 교토에 오셔서 감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나의 문물을 조선에 의하여 수입하고, 이것을 일본화한 것입니다. 즉, 일본의 피가 되고 살이 된 것이지요. 조선에도 교토의 라쿠야키(樂焼)에 필적하는 고려자기와 같이 조선 특유의 예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조선 특유의 문화를 창조함과 함께 일본문화에 도움을 주시고 조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문화는 겉으로만 보아서는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표면만 보고 비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토의 고쇼(御所)<sup>155)</sup>를 배관(拜觀)하면서 “매우 작구나”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이 일본과 지나가 다른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나와 같은 대규모의 성벽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 전부가 성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화(和)로써 군민일체(君民一體)가

154) 중국을 뜻함. 이하 동일함.

155) 천황의 거처.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와 같은 만리장성을 축조해서 사람들에게 위엄을 보일 필요는 추후도 없습니다. 간소한 곳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끼가 자라난 뜰이나, 차실도 모두 간소하지만, 청아한 풍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슨 곳에 여유로움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치를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수련한다는 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조선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조선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교토에 와서도 협화회의 일에 참여하고, 조선 출신의 동포를 위하여 힘이 닿는 한 힘을 다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달성하는데 힘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이상, 길전(吉田) 공사의 말에 커다란 감명을 받고 일행은 길전 씨와 헤어지며 이 신사의 북쪽 이웃에 있는 대불전(方廣寺)에 참배했다. 이 대불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6년에 나라 동대사(東大寺)의 대불을 본 따서 창건한 것이다. 여기에 도요토미 씨의 멸망이 암시되었다는 “국가안강(國家安康)”이라는 범종이 매달려 있다.

대불전을 나와서 산주상경도우(三十三間堂)(蓮花王院)를 참관했다.

이곳은 전에 고시라카와(後白河) 법황의 고쇼(御所)라고 전해지나, 법황은 불교에 귀의하여, 1169년 타이라노 시게모리(平重盛)에게 칙령을 내려서 불당을 세우고, 관음상 1천1체와 28부중을 안치하게 한 것이 본원의 기원이다. 세로길이 66칸, 2칸마다 기둥이 있기 때문에 33칸당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다음은 니시오오타니(西大谷) 북문으로부터 토리베산(鳥辺山)을 바라보면서 키요미즈데라(清水寺)에 이르렀다. 토리베산은 헤이안(平安)조 시대부터 유명한 묘지로서, “버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유명한 폭탄 삼용사의 묘도 이 산에 있다고 한다. 키요미즈야키(清水焼)를 파는 가게가 죽 늘어선 키요미즈비탈을 올라가면 붉게 칠한 높은 인왕문에 도달한다. 문을 들어가면 종루, 서문, 삼중탑, 경당, 전촌당(田村堂), 본당, 석가당, 아미타당 및 오쿠노영(奥之院) 등이 경승지를 차지하여 흠어져 있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국보로 지정된 것이다. 특히 본당은 그 양식이 현애조(懸崖造)<sup>156)</sup>로 앞 쪽에서 좌우에 걸쳐 무대가 낭떠러지에 걸쳐 있고, 139그루의 느티나무 긴 기둥을 줄 세워서 심어놓고 꺾쇠로 이것을 굳혀서 못은 한 개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참으로 일대 기관(奇觀)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본당 동쪽을 거쳐서 돌계단을 내려가면, 오토와(音羽)의 폭포가 있다. 3개의 대 홈통(窠)에서 떨어져, 단풍이 수려한 한 한경(閑境)에 미관을 나타내고 있다.

키요미즈데라(清水寺)에서 마루야마(圓山) 공원에 도착했다. 이 공원은 치웅인(知恩院)의 경내 땅에 접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름 높은 능수 벚꽃이 가운데의 조금 높은 원구(圓丘)위에 있어서, 여러 개의 지주(支柱)에 지탱되고 있다.

다음은 치웅인에 참배, 여기에서 점심을 들었다. 현재의 절 경내의 여러 법당은 도쿠가와(徳川) 씨의 귀의에 의하여 비로소 정비된 것이라고 하며, 삼문(三門), 어영당(御影堂), 집회당, 경장(經藏), 아미타당, 세지당(勢至堂), 당문, 대방장(大方丈), 소방장(小方丈), 종루 등을 구비한 참으로 규모가 굉장한 것

156) 산비탈 또는 낭떠러지 등을 이용하는 건축양식으로 무대조(舞台造)라고도 한다.

이다. 그중에서 어영당은 개조(開祖)인 법연(法然)승의 목상을 안치한 곳으로 1633년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가 건립을 시작하여, 에도(江戸) 초기의 민중적인 불전의 대표적인 유구(遺構)라고 일컬어진다. 본당의 동남쪽에 당산(唐傘)이 꽂혀있으나, 이것은 치옹인의 카라카사(唐傘)라고 말하며 히다리징고로(左甚五郎)가 잊어버리고 놓고 간 것이라고 전해 내려온다. 일행은 어영당에서 참배를 마치고, 속되게 센조지키(千疊敷)라고 부르고, 송경(誦經) 강학(講學) 등 대중 집회의 도장으로 쓰이고 있는 집회당을 보았으며, 여기부터 내부의 소방장에 이르는 “우구이스바리(鶯張)”<sup>157)</sup>의 복도 가장자리를 걸으면서 대방장을 참관했다. 이 우구이스바리는 발자국마다 피꼬리의 울음소리가 영롱하게 울린다.

대방장은 실내를 부처 칸, 비는 칸, 상단 칸, 중단 칸, 하단 칸, 국화 칸, 소나무 칸, 피꼬리 칸, 매화 칸, 버드나무 칸 등으로 칸을 막고, 각 실에는 장벽(障壁)과 장지문 및 판자문의 그림이 고색창연하게 고상하게 보인다. 그리고 상단 칸은 지존의 칸으로, 가장 장려함을 갖추어 메이지 이후에는 1875년 6월 2일, 메이지천황이 오셔서, 주찬을 드신 것을 비롯하여, 영소(英昭)황태후와 쇼켄(昭憲)황태후 양 폐하의 행차, 동궁이었던 금상폐하, 치치부(秩父)궁, 타카마츠(高松)궁, 미카사(三笠)궁 각 전하가 오실 때마다 휴게하신 영광을 입은 것이다. 또 각 실의 장벽과 장지문 및 판자문의 그림은 모두 카노우슈메노스케 나오노부(狩野主馬助尚信), 카노우 노부마사(狩野信政), 흥의(興意), 법교정신(法橋定信) 등의 화필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금박으로 극채색으로 되어 있다.

치옹인에서는 교화사업 외에 흥아 사업에도 일역을 담당하고 있다. 각지에서 시국대강연회의 개최, 각종 인쇄물의 간행과 반포, 후방 보육사업 등 외에도 가장 주목해야 할 사업은 몽고청년의 “라마” 교도의 초청훈육이었다. 본원에서는 이미 1938년 5월, 만주국 및 몽고연합자치정부의 원조를 얻어, 청년 “라마” 교도 20명을 초청하여, 훈육 만 2개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1940년 5월에 귀국시켰으나 그들은 각각 신흥 만몽의 제1선에 서서 활약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제2회의 “라마” 유학생 20명을 훈육 중이라고 한다.

다음은 헤이안신궁(平安神宮)에 참배했다. 붉고 푸른 큰 홍살문 앞에서 참배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신궁은 칸페이(官幣)대사(大社)로 1895년 교토시에서 헤이안(平安) 천도 1,100년 제를 올리는데 즈음하여, 칸무(桓武)천황의 큰 위업을 추모하고, 이 신궁을 창건한 것이다. 제신은 칸무천황과 코오메이(孝明)천황을 봉사(奉祀)하고 있다. 본전(本殿) 뒤에는 신원(神苑)이 있다. 이 신원은 조선 창덕궁의 비원을 연상시키는 곳으로, 큰 못에 물을 채우고 나무와 돌이 청초한 취향 깊으며, 정적인 명원이다.

모래 10월 22일에 시행되는 지다이마츠리(時代祭)는 시를 통틀어 번성하며, 기온(祇園)제 및 아오이(葵)제와 더불어 교토의 3대 제전의 하나이며, 이 지다이제는 1895년 이 신궁 창건 때부터 해마다 실시되어, 헤이안시대 처음부터 메이지시대까지 천년 남짓의 문물제도의 변천과 정치 변란의 연혁을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시대 순으로 가지런히 하여, 신행(神幸)에 받치는 행렬인 것이다.

다음은 헤이안신궁에서 상코(三高)와 제국대학 앞을 지나서 시모카모(下加茂)를 건너 고쇼(御所) 참관으로 향했다. 고쇼는 구 황궁이 있었던 곳으로, 주위 일대는 잔디가 훌륭하며 수목이 우거져 저절로 신성함이 느껴진다. 정면에 건례문(建禮門)이 있고, 안에 자신전(紫宸殿)과 청량전 등이 있다. 이 자신

157) 마룻 널을 까는 방법의 하나. 밟으면 휘파람새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나도록 마룻 널을 깔. 또는 그런 마루.

전은 옛날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 시행된 곳으로 다이쇼(大正)천황과 금상천황 양 폐하가 즉위의 대전도 여기에서 거행된 것이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전(殿) 위에는 천황이 등극하신 옥좌와 황후의 옥좌였던 어한대(御恨臺)가 있고, 18층의 남쪽 계단 좌우에는 유명한 사공(左近)의 뱃나무와 우공(右近)의 타치바나(楡) 나무가 있다고 한다.

다음은 키타노텐망구우(北野天滿宮) 앞을 지나서, 금각사(金閣寺)에 갔었다. 금각사는 원래 카마쿠라(鎌倉)시대에는 사이온지 킨츠네(西園寺公經)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이것을 양도받아서 사후에 유명(遺命)으로 절로 만들었다고 한다. 금각은 원내의 못에 임해서 세운 누각으로 원래는 주택과 부처전의 절충식으로 건축한 건물이라고 한다. 각은 3층 누각으로, 첫 층과 제3층 사이는 지붕이 없으며, 제3층의 지붕 안은 지금도 금박이 찬연하게 빛나고 있다. 또 아래층에는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법체(法體)의 좌상이 있다.

다음은 아라시산(嵐山)에 가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이 산은 해발 375미터에 지나지 않으나, 그 명성은 세상에 높다. 북쪽 기슭을 흐르는 오이가와(大堰川)과 아울러 자연미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부터 단풍의 명소로서 불려 왔으나, 카메야마(龜山)시대(13세기)에 요시노(吉野)뱃꽃을 이식해와서는 꽃의 명소로 이름 높은 곳이다. 일행은 대연천의 맑은 흐름에 배를 띄우고 천하의 가승(佳勝)을 감상했다. 여기에서도 기념사진을 찍고 니시혼간지(西本願寺)행은 중지하고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앞을 지나서 여관으로 돌아 왔다. 오후 5시가 지났음으로 실로 8시간 남짓이나 걸렸었다.

#### ○ 교토 도중에서

別樣山川各樣秋, 遊筇始覺到名州, 看看景物佳如此, 恨小今行一霄留. 가천구사(嘉川久士)  
壯觀古都今始知, 徘徊盡日步遲遲, 神社佛堂何事急, 戰時誠祝必勝思. 청하달빈(清河達斌)  
金閣在西清水東, 儼然豐國社其中, 松石千秋名勝地, 敬神崇佛舊邦風. 부산삼(富山森)

#### ○ 모모야마 고료(桃山 御陵)

遙拜桃山既有年, 戒心今日謁陵前, 追慕無量先帝德, 恩霑草木又山川. 강본봉훈(康本鳳薰)  
慕仰桃山瑞日紅, 東西帝業永無究, 微誠敢禱再三拜, 但願速成興亞功. 청하달빈(清河達斌)

#### ○ 노기신사(乃木神社)

帝國誰云一等功, 將軍家業卓無究, 忠著千秋超海外, 節高萬丈沖天中. 청하달빈(清河達斌)  
征露凱旋鐵血誠, 風雲際遇大功成, 騎馬讀書餘舊踰, 一家忠烈死猶榮. 부산삼(富山森)

#### ○ 호우코쿠 신사(豐國神社)

追憶當年天下猷, 偉勳赫赫卓千秋, 若使將軍今世在, 西征北伐有何憂. 청하달빈(清河達斌)

○ 범주(泛舟) 아라시산(嵐山) 아래서 읊음

雙山對翠一江流, 海國風煙最勝頭, 扁舟滿載斜陽去, 岳色波聲萬古秋. 안동정회(安東正會)

10월 21일(화) 맑음 때때로 흐림

하루만의 체재로 교토를 떠나는 것은 어쩐지 애석한 느낌이 든다. 오전 9시 24분 교토역을 출발하여 우네비(畝傍)로 향했다. 기차는 가을색이 한껏 청려한 야마토(大和)평원을 달려, 동 11시 30분에 우네비에 도착했다. 이 역은 신궁참배객을 상대로 만든 역 답게, 구내는 말끔히 청소가 되어, 건물도 무척 단정하고 우아하다. 여기서부터는 신궁참배 전차로 바꾸어 타고 약 10분만 가면 카시하라(橿原)신궁역에 도착한다. 일행은 역전 식당에 둘러, 짐을 맡기고 점심을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경양(景仰)하던 카시하라신궁 및 진무(神武)천황 능을 참배하게 된다. 참배 길은 평탄하고 광활하며, 주위는 가을 햇빛에 비단과 같이 한층 아름답고, 신궁의 영역은 삼엄한 기운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참배 길은 기원 2천 6백년(서기 1940년)의 성전기념사업으로, 신궁의 경지 내와 능의 참배 길을 확장 정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군데군데 부자연스럽고 안정이 안 된 곳이 있었다. 종이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는 참배 길을 신궁을 향하여 가면 왼쪽에 후카다(深田)못이 있고 저 멀리 천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신궁은 말할 것도 없이, 황조 진무(神武)천황 및 히메타타라이스즈(媛蹈躰五十鈴)황후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신궁은 1889년 메이지천황의 조칙을 받아 창건한 것이며, 다음 해 1890년 3월 20일 궁호(宮號)를 카시하라신궁이라고 정하고, 캄페이 타이샤(官幣大社)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경내와 외원(外苑)이 굉장히 크고 삼엄한 기운에 가득 차 저절로 엄숙함이 감돈다. 지금의 사전(社殿)은 1939년에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하며, 나무의 향기가 지금까지도 풍긴다는 사전은 굉장하고 장엄하다. 외원에는 야외 공회당을 비롯하여 대강당·궁도장·건국회관·팔굉(八紘)기숙사·카시하라 문고·야마토(大和)국사관 및 대운동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 일행은 성의를 다하여, 정식으로 참배를 마치고, 진무천황의 신령이 조용하게 내리고 계시는 우네비산의 동북능의 참배에 향한다. 이 능은 신궁으로부터 약 4, 5백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능 위에는 서송(瑞松)이 가득한 태고를 이야기 하는 것처럼 울창하고 번성하여, 경내는 광활하고 엄숙하다. 능 앞에 공손하게 선 일행의 얼굴에는 엄숙한 얼굴빛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 유구한 2천 6백여 년의 태곳적을 생각하며, 영겁의 미래에로 이어지는 때의 흐름을 명상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으로 끝이 없는 황위(皇威)를 능을 참배하면서 한층 강하게 느꼈다. 그런 후에 일행은 영전(永田) 단장의 선창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신전(神前)에서 굳게 맹서의 말을 받쳤다. 신전에서의 제창은 일반의식에서 제창하는 것보다 몇 배되는 감격이 가슴 속을 넘쳐 흘렀다. 신림(神林)에 산울림이 되어 울려 퍼진 여음이, 이제 와서도 어쩐지 그립다.

그리고 참배자는 끝임이 없다. 그중에서도 일행이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본 것은 5, 6세의 어린애가 엄마를 따라와서 참배하는 태도였다. 그 어린애가 공손하게 배례를 하고, 합장하며 머리를 숙여 서 있는 모습은 참으로 진지한 태도였다. 물론 개구쟁이기 때문에 몸짓은 단정하지 않지만 이것은 오히려



나무라지 못하는 순진한 것이었다. 좌우간 그 어린애가 합장하며 머리를 숙이고 빌고 있는 것은 천진난만한 태도로 보아서, 신국 일본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또한 소국민까지 경신(敬神)사상이 철저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일행은 그 아이의 진지한 참배 모습을 칭찬하면서 능을 사퇴했다.

삼가 되돌아 볼 때, 천자성명(天資聖明)하시고 또한 영무절륜(英武絕倫)하신 황조 진무천황께서, 천양무궁(天壤無窮)의 신칙을 봉승(奉承)하시고, 휴우가(日向)의 나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향하시는 도중 수많은 적들을 평정하셔서 야마토 나라에 도착하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황위는 국내에 떨치고, 성덕은 팔방에 빛났으므로, 천황에게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유원(悠遠)하고 숭고한 대이상을 선포하셔서, 우네비(畝傍)산의 동남 카시하라의 땅에 도읍을 정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천진일사(天津日嗣)의 황업을 무궁하게 회홍(恢弘)하셔서, 만대까지 흔들림이 없는 황국의 기초를 세우신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참배한 신궁의 땅은 천황의 지위의 홍기(鴻基)를 여신 존귀한 황궁의 성적(聖蹟)이었던 것이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회고(懷古)의 느낌이 절실하다.

우리는 오늘 카시하라신궁 및 우네비(畝傍)산 동북능을 참배하고, 엄숙한 황조(皇祖)의 만방(萬邦)에 비할 데 없는 홍기를 지어주시는 황모(皇謨)를 사모하며, 아울러 끝없는 성덕을 경모하여, 천양무궁의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고 미영(彌榮)을 빌어 받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감을 더한층 몸에 배어오며 감득했다.

카시하라신궁 및 진무천황 능에 참배한 감격을 가슴에 안고, 일행은 또 고도 나라를 찾기 위하여 오후 2시 52분 우네비(畝傍)를 출발하여 나라로 향했다. 우네비(畝傍)·미미나시(耳成)·카구(香久)의 세 산이 정립(鼎立)하는 야마토평원의 가을빛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건국 초로부터 50여 조정(朝廷), 1천 5백여 년간 역사가 전개된 이 야마토를 생각하면서 나라에 도착했다. 오후 3시 42분이었다.

7대 70여년의 제도(帝都)로서 화려했던 나라의 모습도, 오늘날에 와서는 한 고도에 불과한 정적인 작은 도회지이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옛날을 더듬게 하는 사찰이 있으며 탑이 있고 불상이 있어서, 훌륭한 광경을 보이고 있다. 또 나라와 조선은 문화교류가 있었던 곳으로서, 나라에 있는 미술공예의 유품은 아스카(飛鳥)·텐페이(天平) 양 시대의 소산이며, 이 시대에는 조선으로부터 많은 화공(畫工)·와사(瓦師)·불사(佛師)·건축공들이 초청되어 천부의 기예를 발휘했다고 하는 사실(史實)을 증거로 보면, 바로 나라의 한 사찰, 한 불상, 한 탑이 하나도 남김없이 조선과는 유사 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는 점점 더 친숙함을 느낀다.

일행은 각각 인력거를 타고 시내의 명소고적을 돌아보기로 했다. 순서대로 설명을 해 보기로 한다.

코우후쿠지(興福寺)는 남도의 7대사 중의 하나로, 이 절의 기원은 후지와라 카마타리(藤原鎌足)가 타리카노카이신(大化改新)의 성취를 몰래 기원해서 만든 석가삼존상(釋迦三尊像)을 카마타리의 사후에 부인이 이 삼상을 산카이지(三階寺)에 안치했으나, 그 후 또 다시 우마사카지(廬坂寺)에 옮겨져, 716년 헤이조(平城)천도와 함께 현재지에 옮겨져서 코우후쿠지(興福寺)가 된 것이다. 여기에 있는 오중탑은 사루사와노이케(猿澤池)의 언덕에 있으며, 높이는 165척이나 되며, 교토의 토우다이지(東大寺)에 버금가는 높은 탑으로서 우리나라 현존 탑 중에서도 높이가 둘째를 차지한다. 창건은 730년이지만, 그 후 전쟁이나 낙뢰 때문에 몇 번이나 불타고, 현재의 탑은 1426년에 재건하여 무로마치(室町)시대의 복고건

축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또 오중탑의 앞에는 8세기에 만들어진 석등의 기초가 남아있다.

다음은 토우다이지(東大寺)의 대불전에 갔다. 이 절도 남도(南都) 7대사 중의 하나이며, 이 절은 화엄종의 대본산으로 쇼우무(聖武)천황이 국가진무(鎮撫)를 위하여 건조한 대가람이다. 소위 “나라의 대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 이 대불은 높이 55자 5치(약 17미터), 얼굴길이 16자(약 5미터), 눈길이 3자 9치(약 1미터 20)라고 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이 대불상이 안치되고 있는 대불전도 목조건물로서는 세계 최대라는 자랑을 갖고 있는 건물인 것이다.

다음은 대종루(大鐘樓)를 참관했다. 현존하는 것은 카마쿠라(鎌倉)시대에 재건된 것이다. 양식은 천축(天竺) 무늬에 당 무늬와 일본 무늬를 혼용하여 기법은 매우 자유스럽다. 여기에 매달린 큰 종은 대불전 창건 당초의 것으로서, 직경 9자 1치(약 2미터 70), 길이 13자(약 4미터), 두께 8치(약 24센티)나 된다. 다음으로 니가츠도우(二月堂) 상가츠도우(三月堂)를 보았으며, 와카구사(若草)산 기슭을 지나서 카스가(春日)신사에 참배했다. 이 신사는 카스가산 기슭에 천년의 신목(神木)이 우거진 속에, 단청의 회랑 전사(殿社)가 아름다운 색조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다.

이 신사는 769년에 지금의 땅에 창건된 것으로, 제신은 히타치카시마(常陸鹿島)의 타케미카츠치노미코토(武甕槌命), 시모우사카토리(下總香取)의 이하누시노미코토(伊波比主命), 카와치히라오카(河内枚岡)의 아마츠코야네노미코토(天兒屋根命) 및 히메가미(比賣神)의 네 위의 신을 모시고 있다. 또 이 신사는 후지와라(藤原) 씨의 조상신으로서, 그 집안 절인 코우후쿠지와는 가지런히 순치(脣齒)의 관계를 가지며 항상 그 흥망성쇠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신사의 신목(神木)은 역사상 유명한 것이나, 신직(神職) 및 코우후쿠지 및 코우후쿠지의 승도(僧徒)가 무엇인가를 강소(強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목을 받들어 입락(入洛)했으며, 엔랴쿠지(延曆寺) 승도의 히요시(日吉)의 신여(神輿)와 함께 조정에 대한 압박이었다고 전해져 온다.

나라에 도착한 것이 늦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충분히 볼 수가 없었다. 카스가신사의 참배가 끝났을 때는 해가 저물어서 어두컴컴해졌다. 숙소는 사루사와(猿澤) 호반에 있는 다이문지(大文字)이며 오중탑은 바로 앞에 보이고 호반에 채녀사(采女社), 옷걸이버들(衣掛柳)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록(神鹿)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신록은 옛날 카스가묘진(春日明神)카시마(鹿島)로부터 천좌(遷座)할 때, 사슴에 이끌렸다고 전해지며 신록의 유래는 오래되었다. 현재 사슴의 숫자는 1천수백두에 이르며 해마다 6, 70마리가 태어난다고 하며, 카스가 신사의 참배길 남쪽에 신록사육장이 설치되어 있다. 신록은 낮에는 사육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공원 안을 유유히 산보하며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낸다. 사슴 모으기라고 하여, 신록보호회에 신청하면, 나팔을 불어서 사슴을 모은다고 한다. 사슴은 나팔소리를 듣고 금세 모이도록 훈련되고 있다고 한다. 또 가을 사슴뿔 베기도 세상에 알려져,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토산품을 만들고 있다.

○ 카시하라 신궁(橿原 神宮)

畝傍山下橿原前, 天命昭昭無限年, 八紘爲宇情神發, 六合成都理想傳. 청하달빈(清河達斌)

○ 카스가 신사(春日 神社)

吉社松杉白日寒, 靈山靈水護神壇, 麋鹿隨人求食餌, 呦呦溲溲惹奇觀. 남상익(南相翊)  
春日社前逢昏秋, 盡誠拜客思悠悠, 此地公園何所樂, 長生消息鹿呦呦. 청하달빈(清河達斌)

○ 대불전(大佛殿)

大佛精神救世先, 儼然在此幾千年, 東洋天地地方多事, 神力益揚保四邊. 청하달빈(清河達斌)  
杉木參天佛殿連, 觀音菩薩坐似然, 如雲土女祈冥福, 鍾落斜陽萬樹煙. 부산삼(富山森)

10월 22일(수) 맑음

오늘은 여태까지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세진구우(伊勢神宮)의 참배 날이다. 계속되는 좋은 날씨는 오늘도 계속된다. 오전 8시 34분, 나라 역을 출발하여, 카메야마(龜山) 경유 오전 11시 반 넘어서 야마다(山田)에 도착했다. 역전식당에서 점심을 들고, 곧바로 외궁 토요우케(豐受) 대신궁에 참배하러 간다.

야마다역 정면의 전차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나가기를 약 5분만에 외궁의 신역에 도착한다. 신원의 참배도의 오른 편에는 다이쇼(大正)천황이, 동궁이었을 때 손수 심어 놓은 소나무, 그 외에 일청·일로 의 양 전쟁 때의 전리품인 대포나 큰 닻이 있으며, 또 참배도의 왼편에는 청아한 풍치림이 숲을 이루며 무성하고, 나무 아래에는 눈과 같이 흰 신계(神鷄)가 모이를 쪼는 것이 보인다. 멀리 정면에 신메이주쿠리(神明造)<sup>158)</sup>의 엄숙한 첫째 홍살문을 봐왔을 때는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고, 몸도 마음도 긴장되는 기분이다. 천천히 걸음을 나아가면 오른편에 녹나무(楠)의 노목이 천여 년의 비바람을 쇠고 의연하게 서 있다. 우리는 손과 얼굴을 맑히는 곳에서 열성껏 손을 씻고, 입을 행구고 심신을 맑히며, 옥자갈 소리도 시원하게 참배도를 나아갔다. 한참 만에 오른 쪽의 나무사이에 시라키즈쿠리(白木造)<sup>159)</sup>의 제전(齋殿)이 있으며, 이것과 지붕이 이어져서 행재소(行在所)가 남서쪽에 있다. 이어서 오른 쪽에 노송나무 꺾질로 지붕을 이은 일모야즈쿠리(入母屋造)의 카구라덴(神樂殿)과 타이마(大麻)<sup>160)</sup>수여소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신전(神殿)도 가깝고 노송의 판자 담 넘어 정정하게 자란 신삼(神杉)나무 사이로 정전(正殿)의 치기(千木)<sup>161)</sup>가 보인다. 곧 토요우케 대신궁의 판자울타리 남문 앞에 당도한다. 여기부터 내문으로 들어가, 바깥 옥구슬 울타리 문 앞으로 나아가, 세상에 고마울 데 없는 신덕을 우러러 받들며 흰 비단의 가리개 앞에서 머리 숙여 배례했다.

토요우케 대신궁은 외궁 또는 오타라이노미야(度會宮)이라고도 하며, 제신은 토요우케 오우미카미(豐受姬神)이시며, 아마테라스오우미카미(天照大神)의 명령을 받고 우리 국토를 지키며, 오곡의 풍요를 보호하시는 신인 것이다. 처음에는 단바노쿠니(丹波國) 히지(比治)의 마나이노하라(真奈井原)에 진좌했

158) 망치와 못을 사용하지 않는 일본의 건축양식.

159) 꺾질을 벗긴 나무재료를 쓰는 건축양식.

160) 이세신궁이나 신사로부터 수여하는 패찰.

161) 사전(社殿) 옥상에 장식으로 붙여 놓은 나뭇가지.

으나, 제21대 유우라쿠(雄略)천황 22년(5세기 후반)부터 1,450여 년 전, 코우타이진구우(皇大神宮) 진좌한 때부터 481년 늦게 현재의 야마다(山田)의 땅에 진좌하신 것이다. 신전의 구조는, 유일한 신메이주쿠리 역새지붕이라고 하는 순 일본풍의 가장 오래된 양식인 건물로, 지붕에는 아홉 가닥의 카즈오기(鰹木)<sup>162</sup>와 그 동서의 양끝에는 투각된 치기(千木)가 있다.

외국 참배를 끝내고, 일행은 버스를 타고 내궁 참배로 향했다. 신궁 앞에서 하차하고 우지바시(宇治橋)로 향하여 나아갔다. 우지바시는 이스즈가와(五十鈴川)에 가설한 모두 노송나무로 만든 순 일본식 다리다. 길이 80미터, 폭 6미터 반이며 그 앞뒤에는 신메이주쿠리의 큰 홍살문이 서 있다. 근대에 와서는 신궁의 천궁(遷宮)<sup>163</sup>하는 해에 새롭게 설치하도록 예가 되어 있다. 현재의 다리는 1929년 9월에 놓은 것이라고 한다.

우지바시를 건너 왼쪽 신원(神苑)의 나무 사이에 커다란 포신이 있다. 이것은 일로전쟁 때, 동해의 대 해전에서 우리 연합함대가 포획한 적의 전투함 “아리올”호의 주포인 12인치 포인 것이다. 카미지산(神路山), 츠즈미가타케(鼓之嶽)의 영봉(靈峰)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이스즈가와와 청류를 옆으로 속진을 끌고 닦은 옥 조약돌을 밟으며 참배도를 나간다. 주위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되어 엄숙하고, 놓아진 백계(白鷄)가 유유히 모이를 쪼는 광경은 참으로 한적한 정취다.

이스즈가와는 미모스소가와(御裳溜川)라고도 하며 이세(伊勢)의 명승지다. 코우타이진구우를 참배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맑고 투명한 이스즈가와와 흐르는 물에 입을 행구고 손을 맑히고 신기(神氣)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스즈가와는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아서 깨끗하다. 바닥에 투명해서 보이는 옥과 같은 조약 돌, 유유히 무리를 이루며 헤엄치는 잉어는 자연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영전(永田) 단장으로부터 이세신궁의 유래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며, 일행은 이 흐름에 마음의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 맑힌 후, 참배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행은 타이마수여소 앞에서 휴식하고, 평산(平山) 간사는 사무소에 정식 참배신청을 했다.

유감스럽게도 북장관계로 정식 참배는 할 수 없었다. 카구라덴(神樂殿)을 지나서 왼쪽에 오장전(五丈殿)을 참배하고 나아가니, 참배도를 사이에 두고 하늘을 찌르는 듯 호코스기(鉾杉)의 큰 나무는 높고 엄숙하게 솟고, 밟으며 가는 옥 조약돌 소리도 신비하게 울려서 오로지 엄숙하다. 나아갈수록 참배도는 점점 골이 깊고 큰 삼나무는 엄숙해서 어쩐지 신비경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한 동안 나아가니 왼쪽에 큰 돌계단이 있으며, 이끼도 매끄럽게 옛날을 말하는 듯이 보였다.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며, 신전(神殿)을 멀리서 참배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소리높이 외쳤다. 일행은 다만 신엄(神嚴)송고함에 기를 빼앗겨, 신우(神佑)를 빌며 신은(神恩)을 사(謝)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황국신민의 서사”의 큰 소리의 여음은 천고영역에 산울림이 되어 울렸다.

코우타이진구우는 오오카미야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는 대궁으로, 이세님, 이세신궁, 이세 대묘(大廟)라고 하는 별칭이 있으나, 올바른 칭호는 간단히 “신궁”이라고 호칭할 뿐이다. 카시하라신궁, 메이지신궁, 조선신궁 등과 같이 지명 혹은 연호를 위에 붙인 신궁과는 달라서, 이세의 대신궁은 외람되게도 유

162) 신사(神社)나 궁전의 용마루위에 그것과 직각으로 늘어놓은 장식의 나무.

163) 20년마다 새로 지은 궁으로 천궁.

일절대적인 국가최고의 종사(宗祀)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간단히 “신궁”이라고 봉칭(奉稱) 해 왔던 것이다. 우리가 복장 때문에 정식참배가 안 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신궁에는 신이 수여한 거울이 받들어져 있다. 사전(社殿)도 태고의 풍모를 지켜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서 조영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보존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식년(式年)이라고 하여 20년 마다 궁을 세워서 천궁 하는 법칙이 되어 있다. 이것이 천궁(遷宮)이며, 신궁에서 가장 엄숙한 제사의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일행은 신전을 물러나서, 카구라전(神樂殿)에서 신악을 봉주(奉奏)하고, 신려(神慮)를 위로하며 받들었다. 이 신악은 태고신이며 전통이라고 하며, 신악을 연주하는 사이에는 야마토마이(倭舞)라고 불리며 소녀가 사카키(榊)<sup>164</sup>의 가치를 갖고 춤추는 것이다. 참으로 숭고하고 엄숙한 느낌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것을 마치고 오늘 일정 마지막 “코스”인 후타미가우라(二見浦)에 도착했다. 어염전(御鹽殿)이 있으며, 또 부부바위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높다. 부부바위는 바닷속에서 마주보며 서 있는데 두 개의 괴상한 바위로 높이가 큰 것은 9미터, 작은 것은 4미터 남짓이어서, 두 바위는 금줄(注連繩)로 이어져 있다. 또 수족관이 있으며 바닷속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해녀의 실연(實演)도 보이고 있다. 또 “케이블카”를 타고 후타미가우라의 전경을 전망하는 것도 재미있다.

후타미가우라의 구름에 미련을 남기고, 일행은 토바(鳥羽)에 도착했다. 해가 저서 얼마 안 된 어둠 빛이 보일 때다. 바다의 향내가 코를 찌르고, 바다는 젓빛으로 조용하다. 여관 대신관(對神館)은 해안을 따라 별장과 같이 적막한 느낌이 든다. 이 지방은 어업지로서 전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어업법에도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해녀 작업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저녁 식사 후 8시부터 다음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제1회 성지참배감상피로(披露)좌담회를 열었다. 또 각인의 존칭은 생략하고 다만 성씨만 적었다. 양해를 구한다. 또 문장 중에 잘못이 있으면 필자의 책임이다.

#### ○ 이세진구우(伊勢神宮)

伊勢神宮奠海邊, 古杉老檜不知年, 一境莊嚴清肅地, 人人瞻拜盡誠虔. 남상익(南相翊)  
倉山屹立鈴川深, 萬世皇靈一系心, 太和元氣從何出, 神樂時時降福音. 청하달빈(清河達斌)  
高倉山屹海之東, 萬世鴻氣伊勢宮, 仙娥吹樂神宮獻, 草木群生感化中. 부산삼(富山森)

#### ○ 후타미가우라(二見浦)

海雲萬里浪花秋, 無數晴帆落遠洲, 一面青山如畫裡, 尋常家屋盡名樓. 가천구사(嘉川久士)  
今日偶然到別區, 萬千其像盡難圖, 世界名勝無過此, 騷人墨客自成都. 청하달빈(清河達斌)  
碧海如天波始秋, 帆光鷺影落來洲, 魚龍背上望仙界, 更步斜陽紅葉樓. 부산삼(富山森)

164) 비쭈기나무. 예로부터 신성한 나무로서 그가지를 신전(神前)에 올림.

○ 토바(鳥羽) 가는 길에 읊음

樓下平湖湖上山, 楓枯秋色送輕寒, 經營幾日東遊意, 除却千忙糊一間. 가천구사(嘉川久士)

제1회 좌담회

일시 : 10월 22일 오후 8시부터 9시 반까지

장소 : 토바(鳥羽)해안 거리 대신관(對神館)

○ 영전(永田) 단장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탄없이 사양마시고 무엇이든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한 이후 가끔 좌담회를 열 작정이었는데, 틈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적당한 장소가 없었기에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해안이기도 하고, 또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임으로, 좌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성지 참배를 겸해서 내지를 시찰하는 것은, 당국에서도 매우 중요시 하는 바이며, 또한 유도연합회로서도 중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북명서는 여러분이 진술한 것을 기록을 해서, 북명서에 대신할 생각입니다.

성지 참배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중차대한 것입니다. 올봄에, 이 계획을 기안하고 위의 결재를 받을 때에 오노(大野) 정무총감으로부터 주의도 있고 해서 올 봄에 척무성(拓務省)을 비롯하여 각 부, 현청과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담당 계원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종류의 시찰단이 지방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총독부로서 직접 인솔하여 참배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찰이 장소라든가 내용 등에 관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요하는 점이 없다고 한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요망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처음으로 성지참배단에 참가하신 분도 있겠으며, 또 종전에 성지 참배를 마친 분도 이번에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감상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실 것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얻은 바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 윤(尹) 전남 강사(講士) 저는 15, 6년 전에 동경, 교토와 기타, 다른 지방을 보고, 그 후에는 이번 에 처음 내지에 왔습니다. 그때는 성지참배가 목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는 유림성지참배단에 참가하여, 이세신궁을 비롯해서 각 성지를 참배하게 된 것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각 신궁과 신사에 참배하고 느낀 것은, 역사적으로 세계에 비할 데 없는 신국 일본의 존엄함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천 년의 국가의 안태와 국민의 행복을 향유함은 국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느낀 것은 철도연변의 민가의 가옥과 전답이 문화적으로 급속히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내지인의 생활상태가 얼마나 풍족한가를 알았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서는 이점을 농민에게 이야기하며, 서로 손을 잡고 농촌문화향상을 도모하고자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15, 6년 전에 교토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때에 모모야마 능에도 참배했습니까.

○ 윤 전남 강사 참배했습니다.

○ 영전 단장 그때 참배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번으로 5번째입니다만, 그때마다 감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윤 전남 강사** 감상은 일반국민이 메이지대제를 어떻게 경모했느냐, 또 대제가 국민을 얼마만큼 애무했는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의 감상은 메이지대제의 성덕을 추모하고, 더 욱더 충군애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 **고산(高山) 평북 평의원** 저는 18년 전에 평북도의원 시대에 모모야마 능에 참배했습니다. 그때의 감상은 메이지대제가 일시동인의 호의 있는 의향으로 일한병합을 하고, 그 끝없는 황위(皇威)가 반도까지 미친 것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능 참배를 해서 느낀 것은, 참배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카시하라신궁, 이세신궁에서도 참배자가 많은 것을 보고, 시국이 이렇게 긴박하고 또 생산 확충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신궁 참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배자가 많은 것은 일본국민의 경신사상이 철저하며, 이렇게 하여 단결력이 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팔굉일우의 대 이상도 국민의 단결과 신의(神意)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들도 경신사상을 강하게 가지는 것과 동시에, 신도(臣道)실천, 진충보국의 열성을 받혀서 황국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봉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에 돌아가서도 특히 이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백천(白川) 황해 강사** 저는 작년 2천 6백년 기념식전에 초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참가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유림성지참배단에 참가하여 처음 내지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선이나 지나에서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의 왕조가 대체로 3백년 길어서 5백년이 계속되느냐 마느냐 하지만, 기원 2천6백년이라고 하며 한계통의 황실이 어떻게 하여 2천6백년이나 계속되었을까 하고, 남몰래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내지의 성지를 참배 해 보니, 2천6백년은 말할 것 없이 몇 만 년이라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국민의 애국심 즉, 국민이 신을 숭상하는 것은 신력(神慮)을 편안하게 받드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신위(神威)의 가호는 일본을 하여금 몇 만 년이라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또 연선의 농가를 보았을 때 농민의 부력(富力)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 **강본(康本) 평남 대표** 저는 이번으로 3번째 내지에 왔습니다. 1923년과 금년 기원절 및 이번으로 3번째입니다. 1923년에 왔을 때는, 그 목적이 1919년 만세소동 후에 총독부로부터 조선의 중견청년에게 내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오직 내지의 각지를 둘러보고 오면 되었습니다. 아무런 사무적으로 무엇을 보고 오며 복명하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과 관계가 많고 풍속도 볼 것이 많은 큐슈(九州)에 가서 40일간 도시와 촌락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의 감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낀 것은 지도망이 완성되고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일반시민이 단결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주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각 집의 호주가 회원이 되어 그 지방에서의 의논은 모두 호주모임을 열어서 결의하는 것입니다. 또 주부모임이 있어서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을 전부 맡아서 하고, 또 청년모임이 있어서 도로 수리나 신사 경내의 청소 같은 작업을 합니다. 또 처녀들은 처녀모임을 설립하여 군마(軍馬)의 사육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읍사무소를 방문했더니, 처녀모임에서 와서 차 대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선 같으면 자신의 부형의 친구가 와도 처녀가 나와서 대접하는 일이 없으나, 내지의 처녀는 풍속이 다른 40명이나 되는 우리들을 온정을 가지고 대접 해 주었습니다.

이번의 감상은 첫째로 이츠쿠시마는 일본 3경의 하나라고 하기에, 다소 유흥기분이 있는 곳으로 존

엄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가서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이즈쿠시마신사에 봉사(奉祀)하는 신들의 위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덕화로 수천 년의 이 섬의 존엄을 지켜온 것입니다.

○ **청하(清河) 함남 강사** 제가 성지참배를 하고 느낀 것은, 전시 하에 일본의 모든 점에 있어서 이만큼 여유가 있을까 하고 마음 든든하게 느꼈습니다. 북지(北支)·중지·남지에 또는 남쪽지방에 몇 십만의 황사(皇師)가 출동하여 5년간이나 전쟁하고 있는 오늘날, 후방국민의 튼튼한 활동상이나 문화적인 시설에 여유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신위(神威)의 위대함을 생각했습니다. 일청·일로의 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도 신력(神力)이라고 생각하면, 팔굉일우의 큰 이상도 이 신우(神佑)에 의하여 실현되며 세계의 신질서도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 **가천(嘉川) 경기 강사** 제가 내지에 온 것은 이번으로 4번째입니다. 맨 먼저 온 것은 경기도 평의 원으로서 1920년에 한 번과 두 번 째는 사용을 겸해서 성지 참배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것이라고 들 만한 감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성지 참배에 출발할 당초부터 책임이 중대하다는 것을 자각해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반도인으로서 훌륭한 황국신민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보아서는, 내선일체라고 하는 숭고한 이상 아래에 이번에 창씨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으나, 제가 실질적으로 황국신민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완전한 황민으로서 성지참배를 할 수 없는 것이, 내심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신정 이래 31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황국신민으로서 손색이 있는 것은 무슨 일인가요. 우리는 내선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구별을 근본적으로 뽑아버리고, 총독정치에 만강(滿腔)의 신뢰를 모으고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문패에는 가천구사(嘉川久士)라고 훌륭한 황민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조병렬(趙炳烈)이 나온다고 하는 일은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번 성지 참배를 하면서 더 한층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조선에 돌아가면 경기도 당국자와 타협하여 성지 참배로 얻은 저의 이와 같은 굳은 신념을 강연회 같은 것을 열며 지방인사에게 호소할 작정입니다. 요는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과 가슴에 담고 있는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 **부산(富山) 함북 강사** 제가 내지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모노세키에 상륙해서 우선 느낀 것은 산림이 울창하게 육어지고, 밭이나 제방이 완전히 정비되어 있는 일이나 또 농촌이 미화되어 있는 것 무엇을 보아도, 문화적으로 조선보다 훨씬 전진하고 있는 것을 실지로 볼 수 있었던 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또 이즈쿠시마신사를 비롯하여 모모야마능·노기(乃木)신사·카시하라신궁·이세신궁을 참배하고 느낀 것은 참배객이 많았다는데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마토(大和)민족의 불타는 것과 같은 애국심에는 오직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들 조선 2백만 유림을 대표하여 성지 참배에 온 이상은, 이와 같이 불타고 있는 것 같은 애국심을 감안하여 유도의 황도화(皇道化)를 도모하고, 그리하여 반도민의 황민화에 분골쇄신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촌(徐村) 충남 강사** 저도 처음으로 내지에 왔습니다. 저는 내지에 올 때는, 마음속에서 몰래 “자, 내지구경이나 하고 가지”라고 하는 불성실한 마음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즈쿠시마의 신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러한 불성실한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60년간은 살아와도 산



보람 없이, 지금까지는 두터지(토롱) 생활을 해 왔으며, 우물 속 개구리 생활을 해 왔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나이 이미 63세가 되지만, 오늘부터는 갱생해서 진충보국을 맹서하고 총독정ちに 협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굳게 맹서합니다.

○ **안동(安東) 전북 강사** 저도 처음으로 내지에 왔습니다. 원래 저는 건문이 좁기 때문에 성지 참배를 다만 내지 시찰로만으로 인식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각 성지를 참배하면서, 참다운 성지 참배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삼림이 울창하게 우거진 모양이나 하천 정리, 옛날의 우물 정자를 생각나게 하는 정연(井然)한 논, 또는 사회질서가 규칙 바르다는 것 등도 보는 것 듣는 것, 오직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자에, “五畝之宅樹之以桑五十者可以衣帛矣鷄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數口之家可以無飢矣”라고 있듯이 전국시대라도 이와 같은 왕정을 베풀었다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고 옛날부터 말하여져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맹자의 말을 염두에 두고, 내지의 산천초목을 보았을 때, 또 각지의 삼엄한 성역에 밭을 들여 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 일본의 정치는 고래의 천황에게 귀일하는 왕정이며, 제정(祭政)일치의 왕정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 **산가(山佳) 경북 강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감상은 선배 여러분이 말을 다 해버려서 저는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으나, 저는 지금부터 35, 6년 전에 소위 한국유학생으로서 무의식적으로 내지생활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로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충군애국의 의념이 국민정신에 충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문을 배우고 충군애국이라는 문구만은 알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충군애국이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으나, 그때 비로소 충군애국의 참 뜻을 깨달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감상으로서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국민이 상하 남녀노소가 통틀어 조석으로 신단(神壇)에 배례하고, 신공,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인식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국으로 보아서 여행은 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귀중한 금전을 소비하여, 소위 지도계급에 있는 중견유림으로서 선발되어, 성지 참배를 단행하신 당국의 후의에 감사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입니다. 저는 원래 비재천학하여 당국의 취지에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의문입니다만 제 식견이 미치는 한, 30년 전의 내지 사정을 추억하면서, 시찰이나 또 성지 참배를 하여 일본 정신의 존귀한 바를 파악하여, 향리에 돌아가서 민중지도에 부딪히고 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지 참배를 한 감상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저는 감격이 넘쳐서 한 마디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상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일본은 도의가 병행하는 나라인 것을 감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즈쿠시마와 나라에 갔을 때 시슴을 보아도, 또 이세신궁을 참배할 때 이스즈가와에서 떼를 지어서 헤엄치는 잉어를 보아도, 그들 동물이 자연적으로 사람과 친숙해 지는 것도 결국 그들 동물에 친숙해지는 국민도 의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금년 봄의 강연회 때에도 몇 분의 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일본은 도덕국가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느낀 것은, 아이들까지 정성을 다 하여 신궁에 참배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렇게까지 국민 각 계층에 충군애국·경신숭조의 신념과, 만세일계의 천황을 받드는 국민성이 어울려져 수양되었구나! 하고 감격했습니다. 저는 성지참배라는 중대한 책임을 짊어 진 이상은, 조선에 돌아가서는, 성지에서 감득한 국민적인 자각으로써 내선일체의 구현에 노력할 작정입니다. 조선인이 제국신민으로서 용

합된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확고한 제국신민의 자질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특히 강조해 두고자 생각합니다.

○ 정(鄭) 경남 대표 저는 1910년에 내지에 처음 와서, 그 후에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내지에 올 때마다 느낀 곳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도 내지와 같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부러운 생각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번 성지참배를 하면서 내지민중이 경신(敬神)의 신념이 강하다는데 감격했습니다. 우리도 황도정신에 입각한 황도유학을 확립하고, 동아공영권 수립에 한 역할을 맡는다는 존귀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강본(康本) 평남 대표 저는 오늘 이세신궁의 신전에서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할 때에 눈물이 나오려고 할 만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은 의식에서 국민의례로서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해 왔습니다만, 오늘이야말로 참다운 황국신민으로서 서사를 제창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맹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사람에게 무엇을 맹서하면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물며 절대 존엄한 신 앞에 황국신민이라는 것을 맹서한 이상은 아무래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영전 단장 우리들이 이세신궁의 참배를 마치고 신관(神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에, 농민이 경건한 태도로 참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리(草履)<sup>165</sup>를 신고 남루한 옷을 입은 70세 이상으로 되어 보이는 노인이, 저 멀리 머나먼 시골에서 코우타이진구우에 참배하러 온 그 정신을 우리들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밤도 야심해 졌으므로, 오늘 좌담회는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유익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좌담회 도중 충북강사 남상의 씨는 부인의 병이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고 퇴출했었다.

## 10월 23일(목) 맑음 한 때 흐림

오늘은 아츠타진구우(熱田神宮)에 참배하고 나고야 성 견학을 마치고, 제도(帝都)로 향할 예정이다. 오전 9시 14분 토바역을 출발하여 오후 1시에 나고야에 도착했다. 일행 17명중 남상의 씨가 부인이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고 귀국했기 때문에 16명으로 줄고, 또 청하달빈(清河達斌) 씨는 지병이 재발했기 때문에 나고야역 대합실에서 쉬고, 결국 나고야 시내를 견학한 단원은 15명이 되었다.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나고야역은 과연 굉장했다. 역에는 아이치(愛知)현 사적명승보존회의 주사 오구리(小栗鐵次郎) 씨가 마중해 주었다.

나고야는 옛날 나고야(那古野)라고 칭했으며, 인연(人烟)이 드문 광야였었다고 한다. 그것이 160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공이 그의 아들 요시나오(義直)를 오와리(尾張)에 전봉(轉封)하고, 제후들에게 명령하여 나고야 성을 축조시키고 그때부터, 이후 여러 대에 걸쳐 동해의 요충을 맡고, 이제야 일본의 교육을 비롯하여 산업교통의 일대 중심지가 되었으며, 6대 도시에 포함되게 되었다.

먼저 우리는 나고야 성내로 안내 받았다. 나고야 성은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한 것과 같이, 1606년 도쿠

165) 짚신.

가와 이에야스 공이 마에다(前田), 아사노(淺野) 등 22명의 대 제후에게 명령하여, 카토 키요마사(加藤清正)를 성문축조 대장으로 정하여 축조시킨 것으로 그 후 약 3백년간 오슈코우(尾州侯)의 거성이었다. 이 성은 언덕의 끝을 이용하여 축조되어, 서쪽과 북쪽의 양면은 높은 석축을 축조하고, 주위에는 수로(濠)<sup>166</sup>를 둘렀다. 남쪽과 동쪽에는 빈 수로를 설치하고 있다. 텐슈카쿠(天守閣)는 카토 키요마사가 스스로 자청하여 축조한 것으로, 굉장한 돌계단위에 백벽조(白壁造)의 5층의 누각이 의연하게 솟아 있다. 지붕은 첫 층을 제외하고 구리기와 이음으로 텐슈카쿠(天守閣) 위에는 황금 범고래(鯨)가 놓여 있다. 이 황금 범고래는 황금이기 때문에 도난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5층은 동서 약 7칸(약 12.6미터)이고 남북은 약 9칸(약 16.2미터)나 되며, 시가지의 조망은 물론 멀리 노우미(濃尾)평야를 전망하는데 좋다.

다음은 영령영(英靈永)에 진좌되고 있는 고코쿠(護國)신사에 참배하고, 아츠타진구우에 참배했다. 아츠타진구우는 칸페이타이사(官幣大社)로, 1893년 이세신궁을 본받아 개축된神明造로 쿠사나기노 츠루기(草薙劍)가 받들어 모셔져 있다. 본 궁의 기원은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의 비(妃)가 이 곳에 내려서, 신검(神劍)을 봉납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역대천황의 존숭(尊崇)이 두텁고, 무가(武家)에서도 두텁게 존신(尊信)해 받들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에도 바쿠후(幕府) 및 오와리(尾張) 번주(藩主) 등은, 신령(神領)을 기진하여, 봉폐조영(奉幣造營)을 하는 등, 숭경(崇敬)의 정성을 다 했다고 한다.

본궁의 동쪽 옆에 있는 구 도요우텐(土用殿)이 있으며, 1893년까지 신체(神體)를 받들어 모셨던 곳이다. 그리고 히토마사(一間社) 아제쿠라식(校倉式)의 구조로 지붕은 낙레즈쿠리(流造)<sup>167</sup>로 되어 있다. 아츠타신궁의 참배가 끝난 것은 오후 5시 넘어서로 이미 조금 킁킁해졌다. 시내를 충분히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었다. 밤 9시 48분발의 기차로 동경하던 제도(帝都)에 들어가게 된다.

## 10월 24일(금) 맑음

동경에 도착한 것은 오전 6시였다. 역에는 척무성(拓務省) 직원 아오키(青木寅雄), 츠지카와(土川福雄) 양씨가 마중 해 주었다. 일행의 얼굴에는 동경하던 제도에 한 걸음을 디딘 감격의 색이 무언중에도 엿볼 수가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니쥬바시(二重橋)에 가서 큐쵸(宮城)의 다이고쇼(大御所)에 지척의 사이를 두고 최경례를 하며, “황국신민의 서사”를 소리높이 제창했다. 그때 얻은 감명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조선에서도 매일 아침 7시를 기하여 실시되는 궁성요배(宮城遙拜)는 다만 궁성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동쪽을 향해서 받들어 요배하는 것만이었으나, 오늘은 성상(聖上)이 계시는 금궐(禁闕)에 용안을 뵈옵는 듯 지척 앞에서 배례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들 가슴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격이 사무치는 것을 느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방공훈련은 동경만이 야스쿠니신사 임시대제 때문에 2일간 연기가 되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일반시민의 방호단과 협력하여 침착하고 또한 민첩하게 활동하는 태도는 제도를 지키는 후방전사로서 의지가 강한 점이 있었다. 새어나온 말을 엿듣는 바에 의하면, 외람되게도

166) 호리.

167) 신사 본전의 한 유형.

궁성 내의 성역에서도 방공훈련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궁성요배를 마치고 일행은 숙소(神田區 錦町 1-35 今城館)에 들어가, 아침을 들고 오전 9시 넘어서 오늘 예정한 일정에 들어갔다.

척무성의 아오키 담당에게 안내되어 어원(御苑)을 참관하기로 했다. 어원을 참관하는 데는 궁내성(宮內省)의 허가가 필요하나, 우리는 척무성의 교섭으로 참관이 허락된 것이다. 어원에는 커다란 천막이 여러 개 쳐져있었다. 이 천막은 이번 야스쿠니신사 임시대제의 위원, 전물장병의 유가족 및 기타 관계자 9백여 명을 초대하여 위안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원은 전 나이토(内藤)다이묘(大名)의 저택이었으나, 1868년에 조정이 사들인 것이다. 어원의 면적은 실로 18만 5천 평이나 되며, 프랑스인 기사의 설계로 프랑스식 정원과 일본식 정원으로 나누어져서, 어원 안에는 낙우정(樂羽亭), 상천정(翔天亭)과 같은 단아한 건물도 있고, 대만총독이 헌상했다고 하는 양정(涼亭)이 있다. 또 골프장을 만든 잔디는 비단과 같고, 데이지(雛菊)는 예쁘게 색깔로 피어 있고, 7개의 연못에는 오리가 한가하게 노닐고 있다. 또 단풍이 된 겹 벚꽃나무가 있으며, 사변 전까지는 연중행사로서, 4월에 벚꽃 관람회, 11월에 관국회(觀菊會)가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그날은 황공하게도 천황·황후 양 폐하가 각 왕 공족이나 사신·민간 유력자를 초청하는 것이나, 일행 중에는 정순현(鄭淳賢) 씨가 관국회 참가를 지명 받아서 이 영광을 입은 사람으로 그는 황송하고 감격을 새로이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원의 참관을 마치고 우리는 메이지신궁 참배에 나섰다. 방공훈련의 정보는 끊임없이 울리며, 몇 번이나 세워졌다. 신주쿠(新宿)에서 쇼센(省線)을 타고 요요기(代代木)에서 내렸다. 넓은 참배도를 양옆에 끼고 양쪽에는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보기만 해도 엄숙하다.

메이지신궁은 관幣대사(官幣大社)로서, 메이지대제·쇼켄(昭憲)황태후의 두 분의 신령을 받들어 모신 것이다. 1915년 10월 지진제(地鎮祭)가 실시되어, 5개년의 세월을 거쳐서 준공된 것으로, 본전, 배전, 누문 등의 건축양식이 장중하고 내실을 주로 하여 축조된 것이다.

우리는 정식으로 참배하여, “황국신민의 서사”를 공손하게 제창하여 신 앞에 맹서했다. 신궁 참배자는 다른 신궁보다 눈에 띄게 많으며, 문자 그대로 뒤꿈치를 서로 대며 운집한 것을 본다. 이 현상은 국민이 메이지대제의 성덕을 얼마나 경모하며 받들고 있는지를 증거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엄숙한 경내를 사퇴하고, 오후 0시 반부터 척상(拓相) 관저에서 열리는 토고(東郷) 척무대신 초대 오찬회에 향했다. 정변 직후였기 때문에, 정무에 다망한 척무대신은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 키타지마 켄지로우(北島謙次郎), 관리국장 야마코시(山越道三), 비서관 후쿠지마(福島四雄三), 행정과장 카시와바라(柏原依郎), 사무관 노구치(野口俊一)의 여러분이 주인을 대신하여 맞이해 주었다. 예를 들어 키타지마 차관의 인사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키타지마(北島) 차관의 인사 말

오늘 조선의 유립단의 성지 참배자 여러분과 함께 일당(一堂)에 모이게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이조 5백년간에는 유교가 국교라고 하는 전성시대가 있었으며,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인격을 도야하고, 풍교덕화를 도우는 바가 적지 않았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교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국민사상 및 국민도덕의 진전에 기여한 바가 참으로 절대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들도 얼마간의 유학을 수학한 한 사람이며, 또 현재 학교교육에서도 공자의 가르침은 하나의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마도 유학은 장래 오랫동안 우리 국민도덕의 발전상 가장 중요한 부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유학을 수득하고 공자를 존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지만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국민이라는 것은, 그 종교나 학문 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교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라고 말해도, 물론 일본국민다운 본분을 지키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만약에 이 본분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제국 내에서는 절대로 그 존립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외정세는 참으로 중대해서, 제국은 신동아 건설을 위하여 만단을 배제하고 상하 일치협력, 성전 관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종결해서 동아에 있어서 참다운 낙토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후 얼마만큼의 고난을 견디고, 나아가서 한층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조선 내에서 총독부의 지도 아래, 경학(經學)을 강론함으로써 민중의 미풍덕화에 노력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어서 영전 단장으로부터 답사가 있었다.

#### 영전 단장의 답사

우리 일행을 위하여 이와 같은 성대한 오찬회를 열어주셔서, 우리들로서는 분에 넘치는 광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동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조선유림에 대해서는 신정 이래 역대의 총독각하들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신중히 고려를 해 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신정 이래 유림은 민중에게 모범을 보이며, 또는 민중을 숭선하여 총독정치에 성의를 가지고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총독정치에 반대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내심으로 불복하는 움직임을 품고 있는 유림도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향토에는 일부 유림층에 고루하고 완고하며 신시대에 눈뜨지 못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영향은 홀로 불평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형에 절대복종을 최선의 신념으로 하는 청소년 자제에 미치는 파문은 상상 외로 큰 것입니다. 진정으로 총독정치를 이해하는데 까지 익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문제에 관해서는, 당국의 수뇌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결과 점차로 그 완고한 사상은 이완되어 왔으나 특히 지나사변을 계기로 해서, 그들 유림은 동아의 신 사태에 눈을 뜨고, 변연히 일어서서, 시국을 잘 인식하고, 간난을 극복하며 용감하게 매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절대다수의 유림이 그와

같이 신 사태에 대처하게 된 것은 기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나미(南) 총독, 오노(大野) 정무총감 각하께서는, 그들의 성의에 부응하여, 전 조선적으로 유림을 통합하겠다는 일대 결의를 가지며, 전 조선 2백만 유림을 하나의 산하에 넣는 조선유도연합회 같은 것을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노 정무총감 각하께서는, 친히 총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도연합회의 주된 목적은, 미나미 총독각하의 시정방침의 강목(綱目)인 국체 명징(明徵), 내선일체의 구현, 인고(忍苦)단련이라고 하는 삼대 정강을 기초로 하여, 종래의 유교를 황도정신에 입각하는 황도유학을 재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종래의 유림정신을 황도정신에 귀일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 제2회 유림대회는 10월 15일 추계석전제를 마치고, 다음날 16일에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선유림대표가 경성에 모이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으므로, 그중에서 중견유림을 선발해서 성지 참배를 피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국체명징, 내선일체의 구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내지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은, 무척 의의가 깊은 것입니다. 아울러 성지 참배를 하는 한편, 내지의 황도유학의 진수를 연구하고, 조선 내에서의 황도유학의 확립에 역할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내지 체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으로, 내년도 성지 참배 행사를 겸하여 황도유학의 연구를 하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일행은 이즈쿠시마신사를 비롯하여 모모야마능·카시하라신궁·이세신궁을 참배하고, 토바에서 감상을 피로하는 좌담회를 열며, 단원 여러분의 감상을 들었습니다만, 그중에는 몇 차례 내지에 왔던 분도 몇 명이 있었으나, 일본정신의 숭고함을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온 분도 다만 일본정신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상담을 기록해서 미나미 총독각하에게 복명할 작정입니다. 단원 여러분도 내지의 성지를 참배하여 체득한 일본정신을 자제에게 전하여 이후부터는 일본정신에 살아나가고자 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정성어린 성연을 베풀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하 및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이와 같이 오찬회는 주객이 서로 터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그리고 일행은 척상(拓相) 관저를 물러나서, 의사당을 견학하고, 이왕(李王)전하 저택에 문후를 여쭙었다. 여기에서부터 일행을 대표하여 영전 단장 외 2, 3명은 본부 출장소에 동상(東上) 인사로 가고, 그 외는 숙소로 돌아갔다.

○ 도쿄

疎星汽笛倒東京, 碧樹黃禾千里程, 滿苑菊花香馥馥, 微忱拜向五雲城. 부산삼(富山森)  
三十年前遊此邊, 一新面目舊山川, 六合成都興亞日, 二重橋外拜皇天. 청하달빈(清河達斌)

○ 메이지신궁

一億臣民總一心, 至誠禱拜是何心, 四十八年先帝業, 北支今日繼成心. 청하달빈(清河達斌)

## 10월 25일(토) 맑음

오늘은 제도에서 제2일째다. 예정은 유시마(湯島) 성당 참배, 우노(宇野) 박사 강연의 청강과 코마(高麗)신사 참배 등이다.

일행은 오전 9시 넘어서 여관을 나와, 유시마 성당 참배로 향했다. 유시마 성당은, 1632년 오와리(尾張)의 번주(藩主) 도쿠가와 요시나오(德川義直)가 하야시 도춘(林道春, 羅山)으로 하여금 우에노(上野)의 시노부가오카(忍之岡)에 선성전(先聖殿)을 조영한 것이 그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화재를 만나자 1690년 쇼군(將軍) 츠나요시(綱吉)가 이것을 오늘날의 이곳에 옮겨서 대성전(大成殿)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이다. 1798년 대성전 및 행단(杏壇), 앙고(仰高), 입덕(入德)의 여러 문을 재건하고, 메이지유신의 즈음에 대학을 이 땅에 두게 되며, 알단 공자 이하의 여러 상을 철거한 일도 있으나 그 후에 복원한 것이다. 건축물은 한동안 동경박물관의 일부로 사용한 일도 있으나,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때문에 입덕문(入德門) 및 수옥(水屋)<sup>168</sup>을 제외하고 남김없이 불탄 것을 1935년 4월 4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원형대로 복원한 것이다. 성당에 이르면 먼저 ‘앙고’라는 액자가 걸린 앙고문(仰高門)이 보인다. 이문을 들어가 보면, 입덕문이 있고, 입덕문을 들어가면 오른쪽에 만주국황제폐하의 친배(親拜) 기념수로 심은 비쭈기나무(榲<sup>169</sup>)(1940년 4월 13일 식수)가 있으며, 왼쪽에는 사문회(斯文會) 총재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오우(伏見宮博恭) 전하가 손수 심은(1940년 4월 4일) 매화가 있다. 여기서부터 더 계단을 올라가면 행단이 있으며, 대성전은 행단으로부터 들어가서 한층 높은 곳에 있다. 대성전의 오른쪽에는 곡부(曲阜)로부터 이식이 된 해나무(楷<sup>170</sup>)와 떡갈나무가 있다. 대성전 안에는 공자 성상을 비롯하여 좌우에는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의 사위(四位)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이들 성상은 명나라부터 전해 온 것으로, 제실(帝室)의 소유였던 것을 성당을 복구할 즈음에, 그 도를 권장하라는 말씀으로써 사문회에 하사한 것이다. 또 성당에는 강당의 설비가 있어서 황도유학의 진흥에 노력한다고 말하며, 황족의 청강석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성감(聖龕)<sup>171</sup>을 연다고 한다.

오전11시경 우노 박사의 ‘황도정신에 기초하는 유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들었다. (별도 항목 강연 요지 참조).

유시마 성당에서 점심을 들고, 오후 1시 넘어 코마(高麗)신사에 향했다. 일행은 전철을 타고 또 이케부쿠로(池袋) 역에서 무사시노(武藏野) 전차에 바꾸어 타고, 드디어 역사의 고장, 내선영화의 정신적인 성지, 그리고 출세의 신인 고려신사(코마신사)가 진좌하고 있는 코마무라(高麗村)로 향했다.

이 고려촌(코마무라)은 옛날 고려가 당나라와 싸워서 멸망할 즈음에 그들은 일본정부에 투화(投化)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그들을 우대하여 호의로써 그때의 조정으로부터 내리신 고려군의 중심지이다. 고려의 군령(郡令)에 임명된 고려왕은 마을의 서북 푸른 산을 배경으로, 맑은 흐름을 낀 경승지인

168) 차실.

169) 상록수.

170) 옷과의 낙엽고목, 곡부의 공자묘의 식수.

171) 신주를 모셔두는 곳.

현재의 오우미야(大宮)에 거처를 판단해서 정하여 진 군을 통제한 것이다. 고려왕은 조정으로부터 중5 위하에 서품되어, 또한 왕의 성을 받는 등 총우(寵遇)가 매우 두터웠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달을 원치 않고 일신을 희생하여 한뜻으로 군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있었으나, 드디어 이 땅에서 서거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부(慈父)로 사모한 수장 고려왕의 부음을 전해들은 고려군민은 귀천노약 할 것 없이 모두 좇아와서 그의 서거를 슬퍼하며 유해를 고려산 승낙사(勝樂寺) 인왕문(仁王門) 곁의 오래된 못가에 장사지낸 것이다. 고백노삼(古柏老杉)의 곳에 있는 이끼가 난 다중탑이 고려왕의 묘소이다. 그리고 고려왕의 신령은 저택 뒤 언덕에 영묘를 건립하여, 여기에 봉사(奉祀)한 것이다. 처음에는 코마모진(高麗明神)이라고 숭상해 받들었으나, 뒷날 고려신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창건은 멀리 나라조의 옛날, 1천 2백 년 전의 일로 참으로 칸토(關東) 유수의 길사(吉社)인 것이다. 고려왕의 자손은 대대로 고려신사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 사장(社掌) 코마(高麗明津) 씨는 고려왕 58세의 적손(嫡孫)이다.

출세명신의 유래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고려명신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출세명신, 개운(開運)의 신이라고 말하게 되어, 매일 각지에서 참례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재계 방면, 특히 주식관계자나, 시험지옥을 돌파하고자 원하는 학생 등이 참배하고 있는 것 같다. 정계에서도 고려신사를 참배하여 영진한 분이 많이 있다고 한다. 전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었던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씨는 1922년 6월 7일 알맞게 고려신사에 참배하자 얼마 안 있어 그달 12일에 카토(加藤)내각이 성립, 미즈노 씨는 곧바로 내무대신에 취임했다고 알려졌으며, 또 와카츠키 레이지로우(若槻禮次郎) 씨는 1925년 9월 13일 그 신사에 참배, 다음 해 1926년 1월 30일에는 내각총리대신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씨,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자작의 양씨도 그 신사에 참배하여 얼마 안 있어서 빛나는 재상의 인수(印綬)를 차게 되었다고 한다.

일행은 고려신사를 참배하고, 오후7시 반 경에 숙소에 돌아와서, 매일신보 동경지국장 초청의 만찬회에 출석했다.

#### ○ 유시마(湯島) 성당

東巡聖駕仍東遊, 後學林林教化中, 瞻仰千秋多感慕, 青衿蕭杏灑壇風. 가천구사(嘉川久士)  
鐵樑銅葺出巖然, 東儒至誠能感天, 大道情神何處在, 仰高主德兩江前. 청하달빈(清河達斌)

#### 우노(宇野) 박사 강연 요제[일본정신으로 본 유교, 유시마(湯島) 성당에서]

오늘 조선에 계시는 중견 유림여러분이 멀리 내지에 성지참배의 장도에 오르며, 그 도중에 유시마 성당까지 참배하게 되신 것은 이 길을 위하여 경축해야 할, 의의가 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조선의 유림 여러분을 직접 뵈옵게 된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마음 든든하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어도 유교를 숭상하고 있는 자는, 이 유시마의 성당을 중심으로, 현재의 혼돈과, 그 귀추를 모르는 세계의 동란에 대응해야 할, 또한 오고야 말 세계의 신 사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시기에 와 있는 것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유교를



송봉하는 자들은, 적어도 동양의 여러 민족이 향해야할 정신기준을 수립하고, 그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국책에 협력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양 여러 나라의 국민정신에 침투하고 있는 유교로써, 동양 여러 민족의 지도정신으로 삼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층 단결을 굳게 하여, 불퇴전의 결의로써 유교를 진작함으로써, 세계정세의 변전에 대처할 준비가 없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국면에 처하고 있는 오늘날, 적절하게 이번이 여러분이 이 성당을 참배하게 된 것은 단지 우연한 내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후 우리는 더욱더욱 긴밀하게 제휴하여 유도의 선양에 전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저의 심경은, 공자가 말한 것처럼, '有朋自遠方來不亦悅乎'라고 하는 부자(夫子)의 심경과 방불해서 유쾌한 것입니다. 이 기쁨의 나머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에 계시는 동지 제군에게 일본정신으로 본 유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평소부터 생각해 온 바의 사회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편한 마음으로 잠깐 동안 청청(淸聽)있으시기 바랍니다.

유교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공자의 가르침으로, 사람이 밟고 나가야 할 길을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의 길을 설명한 것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하늘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이 밟아 나가야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길이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대체로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부모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게 됩니다. 즉 이것이 인도(人道)의 처음이며 도덕의 원천입니다. 가족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서로 화목하고, 부모에게 효도, 형제의 우애, 부부가 화목하다든가 하는 것이, 사람의 길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길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한 가족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넓은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사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은 군주나 통치자의 덕분으로, 평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군주나 통치자에 대한 충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의 길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길을 가족생활·사회생활·국가생활의 세 방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를 수양하고, 완전한 인격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기(修己)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己)를 수득하고 기(己)의 인격을 완성하면, 이것으로써 만족할 수가 있느냐 하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과 같이 개인주의라면 혹시 모르지만, 동양에서는 자기수양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나를 잊고 봉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즉 치인(治人)의 길인 것입니다. 유교에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이 즉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子思)가 이것을 가장 주장한 것입니다.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인(仁)이며, 공자문중의 여러 제자는 모두 인으로써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로 삼은 것입니다. 논어에도 증자(曾子) 왈(曰), "土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

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己. 不亦遠乎.”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공자문화의 제자(諸子)는 인으로써 인심의 전덕(全德)으로 하고, 신(身)으로써 인을 역행(力行)하기에 임중(任重)하다고 하였으며, 또 죽고 난 후 자기가 인을 체득하기에는 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자문화의 제자(諸子)의 말이며 또한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을 구하며 나아가는 목표는 같다고 해도, 그 인을 구하는 수단은 학파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단순히 논어의 해석수단으로 보아도, 주자(朱子)학설, 왕양명(王陽明)학설, 기타 여러 설 등이 있으나, 결국 인을 행하고 인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점에 귀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학파가 달라도 인을 추구하고자 하는 점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을 추구하고, 덕을 갖추게 되면, 집에서는 제가(齊家), 국가 혹은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는, 사제(師弟)·부모·형제 간에 있는 길을 밀고 나가면서 확대해 가면, 이것이 나라를 통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교는 이와 같이 충과 효를 중하게 여기지만, 사회도덕은 충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사회 사람들은, 경박(經博)에는 사회도덕에 관해서는 관여한 것이 적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봉우(朋友)의 교섭에 믿음으로써 하라”라고 하는 한마디를 보아도, 이 한 구절이 사회생활에 가장 적절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교가 사회도덕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우에 대한 마음가짐을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사회에 미친다면 훌륭한 사회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예기(禮記)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공덕(公德)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 곳에서 고향쳐서는 안 된다든지, 사회공중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든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거나, 혹은 두 사람 사이를 제쳐서 지나가서는 안 된다든지, 신발이 두 켤레 있는 방에는 들어가서 안 된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밀고 넓혀 나간다면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도덕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의명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자가 춘추를 편찬한 것도 전국시대에 문란한 대의명분을 명백히 하고, 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지만, 이러한 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은 것에 비해서는 후세의 우리들로서 찬탄(讚嘆)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혁명이 거듭 일어나고, 공부자(孔夫子)가 춘추를 편찬한 대 이상은 충분히 발양(發揚)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일본이 천손(天孫)연면하여 황통을 이어 받으며, 대의명분도 일본 국민정신에 투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토학(水戸學)도 대의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발생한 학파이기도 하며, 그러한 점을 보아서도, 유교는 일본에 들어와서 비로소 참다운 정신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의 문물이 들어오고, 각 방면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반면에는 매우 위험을 수반하는 사상도 있어서, 국민정신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한 사상은 구미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일본말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여 영어를 가지고 일본국어로 삼기로 주장하는 것도 있고, 혹은 일본인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미

인과의 혼혈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극론마저 나온 처지였습니다. 또 충과 효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기 때문에 낡았다 라든가, 공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는 쓸모없다고 하여, 완전히 서구화 사상에 물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지대제께서는, 이와 같은 걱정스러운 사태를 진념(軫念)하셔서, 간곡한 교육에 관한 칙어를 환발(渙發)<sup>172)</sup>했던 것입니다. 이 칙어에 의하여 국민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이 칙어를 보게 되면, 전부가 유교정신과 합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정신이 향해야 할 기준이 교육칙어의 환발에 의하여, 확고부동해 짐으로서, 국민정신의 지도기관인 사문회(斯文會)는 해산해도 될 것이라는 논의가 대두되게 되고, 또 교육칙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유교가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문회의 설비는 동경제대에 기부하면 어떻겠느냐는 논의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하니, 또 구미의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보다 우수하거나 열등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위험한 사상이 국민정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문회의 책임은 더욱 더 가중되어서, 해산한다는 논의보다도, 내용을 더욱더 충실하게 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문회의 설비를 동경제대에 기부하고자 했던 것도 중지하여, 젊은 사람을 많이 넣은 것입니다. 저도 그때 젊은 사람으로서 입회한 것이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오늘날에 와서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도 사상관계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제2차 유럽전쟁이 발발해서, 더욱 세계는 통틀어서 동란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도, 우리는 더한층 정신방향을 선도해서, 국민이 위험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유교정신을 잘 추궁하여, 일본본래의 사상을 복돋우는 것이 긴요하다고 믿는 바입니다.

조잡한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서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문책은 필자에게 있습니다)

## 10월 26일(일) 맑음 때때로 흐림

오늘 예정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롯하여 각 명소의 견학이다. 우리 일행은 관광 안내소로부터 온 안내계의 소녀에 이끌려 먼저 쿠단사카(九段坂)의 야스쿠니신사로 향했다.

쿠단사카를 소연하게 걸어가면 신기(神氣)가 넘치는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는 참배도의 양쪽에 전황을 전시한 “파노라마”가 줄지어 있다. 이것은 신 제신의 유족으로서 전국으로부터 모셔져 온 3만 여의 참배자나 다른 일반 참배자에게 황군의 충용 무쌍한 위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 “파노라마”를 보고, 시원스런 옥 조약들을 밟으며, 대군의 방패가 되어 꽃처럼 흩어진 용사의 영혼에 영원히 모셔지는 사전(社殿)에 숙연히 나아가서 참배했다.

올해도 국화 향기가 그윽하게 풍기는 가을, 야스쿠니 임시대제는 15일 밤 초혼제에 뒤이어 앞 뒤 6일

172) 임금의 명령을 세상에 널리 알리던 일.

간에 걸쳐 실시된 것이다. 이번 임시대제에 새로이 합사된 호국영령은 15,013로, 유신 때 권왕의신(勤王義臣)을 비롯하여, 그 후의 전쟁에서 영장용사와 함께, 지금부터 이 신사에 모셔져서 만대에 국가의 수호신이 되어, 국민의 귀감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 새로이 합사된 영령을 합치면 메이지유신 이래 신사에 모셔진 신위는 223,789주가 된다고 한다.

되돌아 보건대, 지나사변 발발 이래 이미 4년 남짓, 그 동안 황군은 능위(稜威) 아래에 혁혁한 대 전과를 올렸으며, 또 우리 제국의 국시인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상에 입각하여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에 드디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오로지 이들 충렬한 장병의 용전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이 유종의 미를 발휘하기까지는 전도가 아직 요원하며, 거기에다가 더하기를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점점 제국의 진전을 가로 막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배례하며, 이제 한층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쿠단(九段)에 모셔진 순국의 영령을 위로함과 동시에, 미증유의 국난에 대처하고, 사변 완수를 위하여 용사들의 유지를 이어서 한층 호국의 단심(丹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해서 얻은 숭고한 감격을 가슴 가득히, 사전(社殿)의 옆에 있는 유슈칸(遊就館)과 국방관을 견학했다. 유슈칸에는 군신(軍神) 노기(乃木) 장군의 유품을 비롯하여, 히로세(廣瀨) 중령이 진중에서 쓴 칠생보국(七生報國)의 시 등이 있었으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웃음을 여미게 했다. 또 국방관에는 제국의 무적 육해공군의 정수(精髓)를 전시하고 있다.

우리는 또다시 전철을 타고 요요기(代代木)에서 하차, 메이지신궁 경내에 있는 쇼토쿠(聖德)기념회화관을 참관했다. 본관은 메이지대제가 신으로 모시게 됨으로서, 국민은 대제의 성덕이 고금을 통하여 탁절(卓絶)하고, 그 치적은 광대무변, 혁혁하여 국사 상에 더 한층 빛내게 했다는 것, 또 당시 부도(婦道)의 전형, 인자(仁慈)의 권화(權化)로서 아홉 겹의 깊음에서 잘 성업을 내조하신 쇼켄(昭憲)황태후의 곤덕(坤德)을 기리며 받들어서, 생전의 성덕을 일본식과 양식으로 벽화로서 그려 냈다.

우리는 또다시 전철을 타고 센가쿠지(泉岳寺)에 도착했다. 센가쿠지는 세상에 이름 높은 아코우기시(赤穂義士) 오우이시 요시오(大石良雄) 외 47사(士)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묘는 석옥(石玉) 울타리로 두른 곳에 있으며, 묘석은 은연하게 피어오르는 분향의 연기에 경내는 흐리며, 어쩐지 엄숙하다. 또 묘의 부근에는 유물관과 목상(木像)당 등이 있으며, 또 오시오 요시오(大石良雄)의 동상이 있다. 특히 피로물든 돌과 피로 물든 매화는 보는 사람을 하여금 소연하게 한다.

다음은 진재(震災) 기념당의 참배였다. 이곳은 구 육군성 피복창의 터였었다. 이 피복창이 철거된 뒤 빈터로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1923년 9월 1일 뜻하지 않는 지진이 관동을 엄습하고, 수만의 이재민은 이 공터에 피난했으나, 여기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다 타 죽었다고 한다. 지금부터 멀리 20년 전을 상상해 보면 몸이 으스스해 지는 피비린내 나는 참사가,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직 피난민이 연출했을 그 비극—부모자식이 서로 껴안고 죽음이 절박하는 공포의 비명, 또는 부모를 잃은 자식의 죽음에 허덕이며 내는 비명, 또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애, 혹은 불을 피하며 쓰라림을 견디지 못하여 수미다가와(隅田川)에 뛰어드는 비참한 모습, 이렇게 영킨 눈물겨운 비극이 환상으로 눈에 떠오르고, 측은한 정감을 누르기 힘들며, 내 몸을 한동안 잊어버리고 망연자실했다. 이 처참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먼저 우리는 비상시 즉, 피난을 해야 할 경우는, 군중이 밀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감지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난을 만나면 침착해야 할 것이다. 듣는 바에 의하면 관동대진재는 오전 11시 58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가 마침 식사준비시간이었다. 식사 준비시간이었기 때문에 숯불이나 가스를 집집마다 쓰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만약에 숯불이나 가스를 쓰고 있었던 주부가 침착하게 자신이 쓰고 있었던 숯불이나 가스를 완전히 끄고 피난했었다고 하면 그러한 비참한 경우에 빠지지 않았을지 모르는 것이다. 이제야 시국은 날이 갈수록 긴박해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적의 공습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관동대진재의 경험을 감안하여, 어떠한 적의 공습이 있어도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5만 8천 명의 조난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이 기념탑에 배례했다. 안내자 말에 의하면, 납골당에는 두 말들이(二斗入) 항아리 2백 6십 개에 조난자 유골이 납골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는 나아가서 구 야스다(安田) 저택의 정원을 거쳐서 수미다가와(隅田川)에 이르러, 증기선 통통 배를 타고 아사쿠사(淺草)관음으로 유명한 아사쿠사에 갔다. 노점이 즐비한 참배도를 나아가면 인왕문이 있고, 인왕문을 들어가서 북쪽으로 나가면 늙은 은행나무 몇 나무에 둘러싸인 관음당이 있다. 본당은 1649년 3대 장군 투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의 조영에 관계되는 것이며, 내부 중앙의 수미(須彌)단상에 궁전을 설치하고, 1치 8푼의 금상이라고 전해오는 비불(秘佛)관음보살을 안치하고 있다.

우리 일행은 우에노공원(上野公園)을 더 견학하고 숙소에 돌아왔다. 또 단원 중에 안동정회(安東正會) 씨는 가정 사정으로 귀국했다.

#### ○ 야스쿠니 신사

人人崇拜是何事, 萬古忠魂萬古昂, 興國臣民今日事, 國防館入國防知. 청하달빈(淸河達斌)

#### ○ 코마(高麗) 신사

此社由傳聞幾時, 同根同祖自然知, 老婆爲我歡迎說, 第一故鄉貴家思. 청하달빈(淸河達斌)

### 10월 27일(월) 맑음

오전 9시 10분 우에노역 출발, 열차로 역사의 서울, 매화의 서울로 유명한 미토(水戸)를 방문했다. 미토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42분이었다.

미토는 에도 바쿠후(江戶幕府)의 신판(親藩)인 미토한(水戸藩)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으로, 통우호쿠(東北) 제번(諸藩)에 대한 첫째 방어지로서 요충지였던 것이다. 오늘날은 이바라기(茨城) 현청의 소재지로 역사의 서울에 걸맞은 조용한 작은 도회지다.

우리는 먼저 토우쇼우(東照)신사에 참배하고, 유서 깊은 코우도우칸(弘道館)을 방문했다. 코우도우칸은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齊昭)(烈公)가 창설한 것으로, 한시(藩士)에게 문무를 강론한 곳이다. 그리고 렛코우(烈公)가 코우도우칸을 창설한 동기는, 선대의 통치자인 기코우(義公)가 국학을 설치할 의지가 있었으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을 렛코우(烈公)는 조상의 의지를 잘 승계하여, 이것

의 실현을 유신(儒臣)들에게 자문을 얻어 코우도우칸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친히 기문(記文)을 찬(撰)하여 건학의 큰 뜻을 서술한 것이다. 그것과 관련 된 기문을 들면,

弘道者何,人能弘道也,道者何,天地之大經,而生民不可須臾離者也,弘道之館何爲而設也,恭惟,上古神聖立極垂統,天地爲焉,萬物育焉,其所以照臨六合,統御宇內者,未嘗不由斯道也,寶祚以之無窮,國體以之尊嚴,蒼生以之安寧,蠻夷戎狄以之率服,而聖者神孫,尚不肯自足,樂取於人以爲善,及若西土三代之治教,資以贊皇猷,於是斯道愈大愈明,而無復尚焉,中世以降,異端邪說,誣民惑世,俗儒曲學,捨此從彼,皇化陵夷,禍亂相踵,大道之不明於世也,蓋亦久矣,我東照宮,撥亂反正,尊王攘夷,允武允文,以開太平之基,吾祖威公,實受封於東土,夙慕日本武尊之爲人,尊神道,善武備,義公繼述,嘗發感於夷齊,更崇儒教,明倫正名,以藩屏於國家,以來百數十年,世承遺緒,沐浴恩澤,以至今日,則苟爲臣子者,豈可弗思所以,推弘斯道,發揚先德乎,此則館之所以爲設也,抑夫祀建御雷神者何,以其亮天功於草昧,留威靈於茲土,欲原始報基本,使民知斯道所由來也,其營孔子廟者何,以唐虞三代之道,折衷於此,欲欽其德資其教,使人知斯道之所以益大且明,不偶然也,嗚呼我國中之士民,夙夜匪懈,出入斯館,奉神州之道,資西土之教,忠孝無二,文武不岐,學問事業,不特其効,敬神崇儒,無有偏黨,集象思宣群力,以報國家無窮之恩,則豈徒祖宗之志弗墜,神皇在天之靈,亦將絳鑿焉,健斯館,以統其治教者誰,權中納言從三位,源朝臣齊昭也.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바로 미토학(水戸學)의 기원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황도 유학의 확립이 부르짖어 지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는 이 기록을 귀감으로 하고, 재삼 음미하여, 미토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는 노매화가 그 옛날을 말하듯 서 있다. 이 노매화의 사이를 자세를 낮추어 지나가면서 관 흔적을 거니는 것도 어쩐지 풍류가 있었다. 먼저 공자묘가 보였다. 여기에는 공자 한 좌만 모시고,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미루어 보아도, 렛코우가 얼마나 유도의 진흥에 정성을 바쳤는지 엿볼 수 있다. 또 카시마(鹿島)신사가 있었다. 여기에는 공의 보도를 수납하여, 신체(神體)로 삼았다고 한다. 관의 기념비는 이 사(社)쪽에 있으며, 공의 붓에 관계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관내의 문무교장의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장은 문무 두 관으로 나누어져서, 무관은 다시 병학(兵學), 군용, 검술, 창술, 이아이(居舍),<sup>173)</sup> 나기나타(薙刀),<sup>174)</sup> 자루가 긴 칼, 유도, 마술(馬術), 포술 등 여러 분야에 나누어졌으며, 문관은 거학(居學), 강습, 구독(句讀), 기숙(寄宿) 등의 네 개의 기숙사를 두고 있다.

다음은 코우도우칸이 있었던 터 참관을 끝내고, 석유(碩儒) 후지타 도코(藤田東湖)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 토키와(常盤)공원으로 향했다. 고래로 일본의 세 공원으로서, 오카야마(岡山)의 코우라쿠엔(後樂園)과 카나자와(金澤)의 켄로쿠엔(兼六)공원 및 미토의 토키와 공원이 나란히 불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공원의 내력을 살펴보자. 1832년 번주(藩主) 렛코우가 이곳의 풍광을 사랑하여, 유식소(遊息所)로

173) 한 쪽 무릎을 세우고 있으면서 빨리 칼을 뽑아서 적을 베는 기술.

174) 칼끝이 휘어진 칼로 긴 손잡이를 붙인 칼.

정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하여 랫코우는 매화나무를 수천 본을 원내에 심고, 또 잔디밭에는 싸리(萩)나 철쭉을 심어서, 스스로 카이라쿠엔(偕樂園)이라고 명명하여, 널리 서민의 유람에 제공하고 함께(偕) 즐겼다고 전하고 있다. 수천 주나 되는 늙은 매화나무는 생전의 랫코우를 생각나게 하고, 노송은 그 사이사이에 점철하며, 또 싱싱한 이끼는 그 뿌리들을 뒤덮어서 원내의 심오함을 더하여 한층 고아(古雅)한 취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고아진진(古雅津津)한 원내를 소요하는 일행은 장도의 곤핍도 잠시 잊은 듯 유유자적하며 시상이라도 떠 올리는 듯 보였다. 우리는 먼저 그 이름에 걸맞은 토옥천(吐玉泉)의 맑은 물로 입안을 행구고, 몸을 한층 맑혔다. 그리고 호문정(好文亭)에 이르렀다. 카이라쿠엔의 가경(佳景)은 여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亭上)에 올라가서 선파호(仙坡湖)의 벽파여려(碧波麗麗)한 흰 돛배를 띄운 경치를 바라보면 몸이 도원의 선경에 있는 듯한 느낌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그 미경의 형용에 괴로워할 것이다. 오직 한 편의 시나 다름없다. 한 폭의 그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천(嘉川) 씨는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상찬하여,

好文亭上客徘徊，滿目平湖一鏡開，秋色橋村仁樹暮，漁郎一一貫魚回。

라고 읊었다. 또 이 호문정에는 선제(先帝)폐하가 동궁이었을 때 계시던 때의 옥좌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별격 관폐사(官幣社) 토키와(常盤)신사에 참배했다. 이 신사는 카이라쿠엔의 동쪽 구석에 있으며 1931년에 건조된 것이다. 제신은 구 변주인 미나모토노 미츠크니(源光圀, 義公)와 미나모토노 나리아키(源齊昭, 烈公)의 두 분 신이다. 메이지대제께서는, 두 공이 앞뒤로 서로 이어받아, 황도의 천명, 강상(綱常)<sup>175</sup>의 뿌리박음을 했기 때문에, 메이지유신의 융성이 열림과 동시에,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한 것은 실로 천고에 탁월한 공덕을 가상하시어, 1869년에는 종(從) 일위(一位)를 보내시고, 1873년에는 두 공의 사당에 토키와신사라는 호를 주신 것이다. 또 다시 기코우(義公)에게는 1900년에 마찬가지로 정(正) 일위를 주신 것이다.

다음은 쇼우코우칸(彰考館)을 참관했다. 쇼우코우칸은 토키와신사의 남쪽 낭떠러지 아래에 있으며, 도쿠가와가(家)의 문고가 있다. 그리고 유신 이전에는 성중(城中)에 있었으며, 대일본사의 편찬소였던 것이다. 이 창고(彰考)라는 두 글자는 좌전서(左傳序)에 창왕고래(彰往考來)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것으로서, 현재 있는 쇼우코우칸의 액자는 서산공(西山公)의 필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옆에 있는 문고진열실에는, 대일본사(大日本史)의 초고가 있으며, 고인(古人)의 위업을 생각나게 한다. 이 외에도 대일본사의 판목, 의편공집(義編公輯)의 예의류전(禮儀類典), 코우도우칸 학생의 답안 등이 참관자의 눈을 끌고, 특히 독일병서와 난독(蘭獨)자전의 사본 같은 것은, 오직 고인의 노고에 다만 머리가 숙여질 뿐이다. 우리는 쇼우코우칸의 참관을 끝내고, 선파호반에 있는 숙사 청향정(清香亭)에서 몸을 풀었다.

또 밤 8시부터는 토키와신사 사무실에서, 당지의 중학교교장 혼다(本多) 씨의 미토학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 ○ 미토 도중에서

好文亭上客徘徊，沸目平湖一鏡開，秋色橋村紅樹暮，漁郎一一貫魚回。 가천구사(嘉川久士)

175)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른다. 삼강오상.

萬千景物一束收, 白首萍鄉作遠遊, 湜興付吟忘旅苦, 畫中看過幾名州. 가천구사(嘉川久士)

○ 미토 카이라쿠 공원을 전망하면서

玉泉湧出瑞龍山, 梅樹清香衣不寒, 蘆鷹沙鷗無數下, 千波斜日一帆閒. 부산삼(富山森)

○ 미토 토키와(常盤) 신사

義烈兩工崇拜時, 尊王大道自然知, 水戶古蹟何處見, 忠碑文庫在於斯. 청하달빈(清河達斌)

○ 미토 공자 묘(廟)에서

水戶文明何事施, 先崇萬世帝王師, 藏書七萬誰知否, 皇道精神儒學思. 청하달빈(清河達斌)

‘미토학(水戶學)의 진수(眞髓)’[토키와(常盤)신사 사무소(社務所)에서]

이바라키(茨城)중학교장 혼다 후미오(本多文雄)

저는 지나 각지는 여기저기를 걸어서 보았습니다만, 불행히도 아직 조선은 본적이 없기 때문에 조선에 관한 사정은 완전히 장님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한 점을 언제나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 그때는 잘 부탁드립니다.

또 조선에는 친구도 많이 있고, 천하의 명승인 금강산도 있음으로,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지에 오셔서, 성지참배를 한다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이곳은 유교와 관계가 깊은 곳임으로 조선의 유림 층의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하신 것은 의의가 더한층 깊은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대일본사 편찬을 중심으로 미토학이란 어떤 것이냐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토는 도쿠가와 막내를 책봉하여 미토한(水戶藩)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이바라키(茨城)현청의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5백년전에는 아시카가(足利)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문교 방면은 비교적 일찍 열렸던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1천년도 전에 츠쿠바산(筑波山)에 덕일(德一)이라는 법사가 있었는데 이 스님이 불교를 이곳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금 지나서 카시마(鹿島)에 있는 덕일의 친구 최선(最仙)이라고 하는 스님이, 최선사(最仙寺)를 건립하여 크게 문화를 열게 된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미토문화를 여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선은 사회사업을 크게 벌여서 지방 개발에도 적지 않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또 덕일도 걸식을 하면서 불교전도에 전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고인의 신고(辛苦)가 무르익어서, 여기에 츠쿠바(筑波)의 문교가 발달하고, 또 미토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것입니다.

불교가 차차 포교되어감에 따라 유교문화도 겨우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해도 불교



의 경문이 한문인 관계로 불교가 들어오면 자연의 추세로 유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오래 된 곳은 불교가 앞서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7백 년 전에 흥간지(本願寺)의 신란쇼닝(親鸞上人)이 츠클바 아래에 암자를 갖추고 벽에는 교행신증(敎行信證)이라고 하는 문구를 쓰고, 여기에서 정토진종(淨土眞宗)을 연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근처에 도서관 같은 책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카마쿠라(鎌倉)까지 가서 대장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불교에 이어서 유교가 미토에 들어왔습니다만, 정말로 유교가 미토에 들어온 것은 지금부터 3백년 전입니다. 즉 도쿠가와와 막내인 도쿠가와 요리후사(德川頼房)가 초대 번주(藩主)에 봉해졌을 때부터입니다. 이코우(威公)는 35만석으로, 부가 충분하지 않는 성주로서 미토한의 통치를 담당했으나, 그 당시에는 번민(藩民)의 사기도 부력도 불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코우는 경신사상이 강하고 또 학문을 좋아 했기 때문에 번민의 환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점점 문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코우(義公, 光圀)의 대가 되어서는, 번민의 사기는 높아지며, 번민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코우를 미토 코우문(水戸黃門)으로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토학은 바로 기코우 대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9대의 렛코우(烈公, 齊昭(나리아키))가 번주가 되면서부터는, 미토학은 최성기가 되어, 번민은 물론 널리 국민이 기레츠(義烈) 두 공을 아울러 호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공이 미토 번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레츠 두 공은 국민숭배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메이지 초년 조정에서는, 두 공의 사당에 토키와신사의 호를 하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쇼우코우칸은, 기코우의 대에 세운 것으로서, 대일본사를 편집할 때 수집한 7만여 책의 일한서(日漢書)의 사료가 장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진귀한 책이 있으며, 숫자로 보면 동경제대의 도서관에는 떨어지지만, 그 질로 보아서,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미토학은 기코우의 힘에 의하여 토대가 만들어졌으므로 미토라고 하면 기코우, 기코우라고 하면 미토를 생각나게 할 만큼, 미토와 기코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코우는 대일본사의 편찬에 몰두한 것일까,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동기는 대일본사의 서문에도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코우는 18세 때 백이전(伯夷傳)을 읽고, 결연하게 그 높은 충절을 사모하게 되고, 그 절개에 완전히 감화되어 대의명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주(周)의 무왕(武王)이 은(殷)의 주왕(紂王)을 치고 천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기 때문에, 백이숙제의 두 사람 형제는 무왕의 거사에 분개하여 주숙불식(周粟不食)을 결심하여, 수양산에 은거해서 고사리를 먹으며 절개를 지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기코우는 백이숙제의 주검을 걸고 대의에 순사(殉死)한데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일본사를 만들게 된 첫째 동기인 것입니다.

또 내면적인 사정으로서, 기코우는 일본 천하에 장군이 나서서 전제정치를 하는 것은 일본의 국체에 비추어 불합리가 천만부당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에야스(家康)공이 장군이 되어 정권을 쥐고, 천자는 은거하여 천황친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본국체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군을 넘어서려 국체의 본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로 말하면 진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당시의 정세로 보아서

말씀드리면, 격론 중의 격론이었던 것입니다.

기코우의 역할은 동북지방의 여러 번(藩)을 방어하고, 장군을 보좌해야 할 미토 번주로 있으면서, 대의멸친(大義滅親)을 하지 않으면 참다운 일본의 모습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 대일본사를 만들 결심을 한 것입니다. 혹시 다른 수단을 써서 전쟁을 일으키고, 장군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전국시대가 계속할 걱정도 있으며, 또 조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의(內意)를 내시(內示) 하였으므로 현재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장래의 실현을 기대하여, 자연스럽게 해결을 기다린다는 온건한 수단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을 사상적으로 선도하여, 막정(幕政)의 잘못됨을 설명하고, 국체를 명징(明徵)하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첩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일본사 편찬의 동기인 것입니다.

기코우는 63세에 은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동경대학의 아카몬(赤門)의 북쪽 제1고등학교가 미토 번주의 저택이 있었던 곳입니다. 매우 검소하고 보잘것없는 저택이었으나, 여기에서 은거생활을 하며, 또 모친을 위하여 구창사(久昌寺)를 건립하고, 그곳에 부속학교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도장 같은 것입니다.

대일본사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를 본받아서, 기전체(紀傳體)(입체적)라고 하는 체제를 채택한 역사입니다. 역사자료는 역역(歷歷)한 학자를 전국에 파견하여 수집한 것입니다. 그중에는 조선역사 동국통감 50권이 복간된 것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코우가 얼마나 학문을 즐겼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동국통감의 활판본을 한 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일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천의 사기를 본받아 만든 것이지만, 그 내용은 진무(神武)천황부터 고코마츠(後小松)천황에 이르는 사이의 천황기(天皇紀)(本紀)와 제신전(諸臣傳)(列傳)으로 되어 있어서 기코우가 재세 중에 엮은 초고는 기코우의 사망 후 15년에, 본기(本紀)와 열전(列傳)의 교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교정에 즈음하여서도 학자 간에 이론이 많아서 좀처럼 결착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고인의 자손이 고충이나 항의를 신청 해 오기 때문에, 그 교정은 일대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부로부터는 대일본사의 편찬은 미토번으로서는 쓸데없이 재미없는 일이라고 미움을 받고, 또 조정에서도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반대를 했기 때문에, 기코우가 재세 중에 정리한 초고도 교정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진척되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4대, 5대, 6대의 약 7십년간은 대일본사 편찬의 침체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를 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수사(修史)의 책임을 맡고 있던 학자들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낮잠이나 자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학자의 실력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분코우(文公)의 때에 이르러서는 대일본사 편찬 열이 부흥한 것입니다. 타치하라 수이켄(立原翠軒)(東里)이 후지타 유우코쿠(藤田幽谷)와 함께 일본사의 교감(校勘)<sup>176)</sup>을 하게 됨으로서, 이 편찬 사업은 순조롭게 진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뒷날 수이켄과 유우코쿠와는 학문상 의견과 태도를 달리하여 양립하게 되어, 드디어는 유우코쿠는 수이켄의 문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양 선생의 주론은, 수이켄은 공리공론이나 영시(英詩) 서화를 좋아 하는 이른바 하이갈라 문예방면에

176) 비교해서 생각함.

치달은 면이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우코쿠는 이와는 반대로, 실학을 주장하고, 학문은 모두 다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의 세태는 유우코쿠의 실학을 환영했기 때문에, 실학파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유우코쿠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세이란샤(靑藍社)에는 아이자와 세이시사이(會澤正志齋)와 토우코(東湖)의 양 선생이 중진이었으나, 이때 나리아키(齊昭)(烈公)가 번주가 되어, 이들 존황론자(尊皇論)와 존황양이(尊皇攘夷)를 부르짖은 것이다. 그러나 바후쿠(幕府)는 기코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견제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의 바후쿠는 여러 번의 강경정책에는 완전히 반대하여 수용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정세였기 때문에, 드디어 존황양이론자의 일당은 모조리 유폐되었던 것입니다. 유폐된 기코우는 관복을 단정히 입고 종일 변하지 안 했다고 전해지지만, 그렇게도 기코우는 청렴고결한 분이었습니다. 후지타 토오코 선생도 마찬가지로 유폐되어, 저 유명한 정의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유명한 존황론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일본사의 편찬도 마침내 순조롭게 진척하게 된 것입니다. 미토학은 대일본사 편찬 외에도 코우도우칸을 개설하여, 일본 정신과 유교를 나란히 강구하여, 번정(藩政)에 도움 되게 함과 동시에 문교 향상에 기여한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조정에서 미토번에 대해서 해방(海防)을 명령했기 때문에, 렛코우는 번정의 경비를 절약하여 이것을 군비에 충당함과 동시에, 통치구역 내의 사원 분증을 징발하여 대포를 주조, 혹은 우옥통(又玉筒)(현재 동경의 유슈우칸에 보존) 등을 제조해서 해방에 힘을 기울인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천하정세는 아래다 위다 하고 들쭉날쭉이였기 때문에, 여론은 렛코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비방하는 것은 물론, 바후쿠는 영, 미, 러 등의 여러 나라가 침략함에도 불구하고, 렛코우를 중심으로 하는 양이론을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해방을 위한 군비를 바후쿠는 렛코우가 모반한다는 혐의로 렛코우를 유폐한 것입니다.

좌우간 미토번에서 일어난 미토학은 대일본사의 편수와 왕정 부흥을 일으킨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유신이 되어 도쿠가와 바후쿠(德川幕府)가 대정(大政)을 봉환한 다음으로는, 도쿠가와가의 사업으로서, 대일본사의 편수를 계속하기로 하여, 쿠리타 히로시(栗田寛), 시미즈(清水正健) 등의 학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본기(本紀) 열전(列傳)은 모두 지(誌)와 표가 있어서, 본기의 지에는 진무(神武)천황으로부터 고코마츠(後小松)천황에 이르는 2천년간의 조정의 의식, 제도, 법률, 식산과 농업 등의 자세한 것을 한문으로 쓴 것입니다. 여기에 또 공적이 있었던 사람은 아사카 단파쿠(安積澹泊)입니다. 단파쿠(澹泊)는 대일본사 논찬(論纂)을 지은 사람입니다.

또 기코우의 대에 도요타 텐코(豊田天功)라는 대학자가 나와서 많은 지(誌)를 썼다는 것은 특필할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모든 책을 독파하여, 예를 들면 1500년 전의 무슨 천황의 시대에는 조세제도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산업상태는 어떻게 되었나를 일일이 자세히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도중에서 붓을 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려 놓고 싶은 것은, 역사편찬의 전기는 주위의 정세를 보아서 침체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만, 이 시기를 조금 지나서 어느 해에 불의의 화재가 일어나서, 중요사료를 태우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일본사 편찬을 더욱 더디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자들도 열심히 연구하지 않게 되고, 다만 놀면서 녹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유우코쿠(幽曲) 선생 때에 와서 비로소 역사편찬사업은 발흥되었으나, 아이자와(會澤泊民)나 도요타 텐코 등의 학자들이 지(誌)를 많이 쓰고, 메이지에 들어와서는 쿠리타 히로시, 시미즈(清水正健) 등의 유명한 학자가 담당하여 수사(修史)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표가 완성됨으로서 비로소 대일본사는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정으로부터 대일본사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황송하게도, 일본의 천자님 중에는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분이나 사실(史實)이 불명했던 분이 있었으나, 이러한 분은 렛코우가 열심히 사신(史臣)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구황후(神功皇后)가 역대천황에 보태져서, 15대에 나열되어 있었던 것을 황후는 천조(踐祚)한 사실(史實)이 없기 때문에 황비전(皇妣傳)에 넣은 일, 오우토모오우지(大友皇子)를 본기(本紀)에 든 일 등이 이러한 것입니다. 즉 오우토모오우지는 신기(神器)를 받고 즉위한 사실이 명료하기 때문에, 텐지(天智)천황의 다음 자리에 서열한 것입니다. 또 6백년 전의 남북조의 정운(正閏)문제를 정확하게 판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운론은 지나의 한(漢)나라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오행설에 의하여, 예를 들면 금생수(金生水)이기 때문에, 금(金)의 천자 다음은 수(水)의 천자가 즉위한다고 하는 오행설에 표준을 두고 정운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력이 강한 쪽이 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러한 이치로써 정운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는 삼종(三種)의 신기(神器)가 있어서, 이것이 황실의 증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신기는 신대(神代) 이래 천재 불마(千載不磨)의 대전(大典)이기 때문에, 이 신기가 있는 곳이 정위(正位)이며, 신기가 없는 곳이 윤위(閏位)입니다. 이것은 이치가 아닙니다. 일본국체의 숭고한 나타남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천자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삼종의 신기가 있는 황실에 천자님의 적자(赤字)로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황실의 전범(典範)이 있기 때문에, 신기가 있었던 남조(南朝)를 정통으로 받들고, 북조를 윤위(閏位)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일본사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전국의 일본의 한학자를 불러 모아서 연구하게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은 주순수(朱舜水)라는 절강성(浙江省) 여요(餘姚) 사람으로 왕양명과 동향사람입니다. 명(明)나라가 망하고 청조(淸朝)로 바뀌니, 주순수는 청나라 좁쌀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나가사키에 건너와서 명나라의 재건을 도모한 사람입니다. 이때 기코우는 주순수의 그 현명함을 듣고 주순수를 초빙하여 빈사(賓師)로 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친히 제자의 예를 갖춘 것입니다. 주순수의 묘는 즈이류우산(瑞龍山)에 있습니다만, 약 15년 전에 자손이 와서 묘에 참배한 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장도의 여행에 피곤하시리라 믿고,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경청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책은 필자에게 있습니다)

## 10월 28일(화) 맑음

오전 9시 51분에 미토역을 출발하여 천하의 명승지 닛코(日光)에 향했다. 우츠노미야(宇都宮)에서 닛코선으로 바꾸어 탔다. 기차는 삼(杉)나무 가로수가 울창하게 우거진 칙사(勅使)가도를 따라서 달린다.

이 삼나무는 지금부터 3백년 전에 마즈다이라 마사츠나(松平正綱)가 심은 것이라고 알려져, 지금은 구름을 찌르듯이 성장하여 옛일이 생각난다. 기차는 바야흐로 후바사미(文挾)역을 지나 이마이치(今市)에 도착한다. 이 근처부터 닛코의 산용(山容)은 산뜻하게 나그네의 눈에 비친다. 드디어 기차는 해발 6백미터의 지점에 있는 닛코역에 다다랐다. 역에서 전차를 타고 카미하시(神橋) 조금 앞에서 내려서 점심을 들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면 다이야가와(大谷川)의 맑은 흐름이 있고, 왼쪽에 카미하시를 바라본다. 카미하시의 주란(朱欄)금주(金珠)는 푸른 물에 비치고, 화려한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카미하시의 닛코샤지(日光社寺)의 입구 및 닛코국립공원의 관문에 해당하며, 다이야가와는 케곤(華巖)의 하류가 된다.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의 긴 비탈을 오르면 오른쪽에 린노우지(輪王寺)가 있다. 린노우지는 고훈보우(御本坊)라고 불리며, 닛코 제불(諸佛)도장의 총괄지인 것이다. 절에서 나와, 노 삼나무 사이를 한동안 가면, 눈앞에 돌로 만든 홍살문이 높이 솟아있고, 정면에는 별격 관폐사(官幣社) 토우쇼우구우(東照宮)가 있다. 토우쇼우구우의 제신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공(德川家康)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공을 합사이며, 이러한 유래를 문헌에 따라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161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공이 순푸(駿府)에서 서거하자, 그 유해를 수루가노쿠니(駿河國) 쿠노우산(九能山)에 장사를 지냈으나, 유명(遺命)에 따라서 또 다시 그 묘(廟)를 시모츠케노쿠니(下野國) 닛코산(日光山)에 점을 쳐서, 사전(社殿)을 세워서 봉천(奉遷)하고, 비로소 토우쇼다이곤겐(東照大權現)이라고 불렸으나, 얼마 안 있어 선하(宣下)로 토우쇼우구우(東照宮)로 고쳐져서, 1873년 별격 관폐사(官幣社)에 참가하게 되었다. 지금의 사전(社殿)은 3대 장군 이에미츠(家光)공이 스스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개축한 것으로 낙성한 1636년부터 금년으로 마침 306년이 지났으며, 본전(本殿), 배전(拜殿), 요우메이문(陽明門)을 비롯하여 홍살문, 깔은 돌 등 수백에 이르는 조영물이 전부 국보로 지정되고, 금을 입히고, 단청을 했으며, 그림이나 조각 등 모든 예술의 극치를 다 하고 있다.

참배 순서에 따라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한다. 돌 홍살문 서쪽에 오중탑이 있다. 먼저 이 홍살문은 1618년 쿠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후작이 멀리 치쿠젠(筑前)의 땅으로부터 운반하여 봉납한 것으로, 높이 27척 남짓, 중앙의 토우쇼다이곤겐(東照大權現)이라고 적은 고미즈노오(後水尾)천황의 친필이 있다. 오중탑은 1650년 사카이 타다카츠(酒井忠勝) 후작이 기증한 것으로, 1815년 벼락불로 타 없어져서 현재의 건물은 1818년 그의 집안에서 봉납된 것으로 높이는 25척에 달한다. 홍살문을 들어가, 국보인 깔은 돌길을 통과하면 표문(表門)에 도착한다. 표문을 들어가면 삼신고(三神庫)가 있다. 어느 것이나 아제쿠라(校倉)식으로, 이 안에는 춘추의 도어제(渡御祭) 때에 사용하는 만물 갖춤 천인행렬의 제기와 도구가 격납되고 있다고 한다. 몇 걸음 걸어가면 금벽(金碧)이 현란한 요우메이문(陽明門)이 있다. 이 문은 가장 이름이 높은 건물이다. 삼수선조(三手先造) 사방당풍조(四方唐風造)로, 이 기둥은 모두 느티나무의 둥근기둥을 써서, 천장의 오르는 용, 내려오는 용은 카노우 탕유우자이(狩野探幽齋)의 화필로 묵흔(墨痕)임리(淋漓)<sup>177)</sup>가 천하의 일품(逸品)인 것이다. 기타 동식물의 조각이 있으며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일명 히구라시몬(日暮門)이라고 불리는 것도 참배객이 이 문의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해가 지는 것도 잊어버린다고 하는데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또 히다리 진고로(左甚五郎)의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177) 묵흔은 필적을 뜻하고, 임리는 그림 등이 힘이 넘치는 모양을 말한다.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보지 말고의 세 마리 원숭이도 있다. 다음은 요우메이몬에서 수 칸 떨어져서 당문이 있으며, 사방의 건물이 당파풍(唐破風)으로 정면의 파풍 위의 집, 동(棟)에 당동(唐銅)으로 만든 털 진드기(恙)라고 하는 벌레의 모양을 장식하고 있다. 문 좌우에 한 가락의 낮은 울타리가 있으며, 길게 본전(本殿) 및 배전(拜殿)을 둘러싸고, 도금(鍍金)으로 접은 5단계의 계단이 배전에 통하고 있다.

배전은 그 구조가 장려하여, 검은 납색의 고란(高欄) 및 빈상(濱橡), 흘금(惣金) 접이의 전내(殿內)의 기둥, 고조(高彫)금으로 채색한 승진(承塵)당초(唐草)의 시회(蒔繪)를 그린 당문 등 그 교치(巧緻)한 아름다움은 참으로 현란한 것이 보인다. 당문에서 나오면 고양이 문이 있으며, 그 위에 조각한 네무리네코(眠猫)는 히다리 진고로우의 작품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돌계단을 올라가면 토우쇼우구우의 오키야(奥社)가 있다. 보탑은 그 배전의 정면에 있으며, 이에야스(家康) 공의 신령은 영원히 잠들고 있는 것이다.

토우쇼우구우를 나와서 서쪽으로 백 미터 쯤 가서, 우리들은 후타아라(二荒)신사에 참배했다. 이 신사는 국폐중사(國幣中社)로 오우나무치노미코토(大己貴命)를 제사 지내는 1천년의 역사를 갖는 오래된 신사이다. 다음으로 3대의 이에미츠(家光) 장군의 유골을 장사지낸 타이유우인묘(大猷院廟)를 참배하고, 보물관을 배관했다. 보물관에는 제신의 재세 중 사용한 물품과 신보(神寶)를 비롯하여, 아악 용구와 고문서 등 많은 국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후타아라신사 및 린노우지(輪王寺)의 귀중한 보물도 진열되어 있었다.

우리는 또다시 전차에 탔다. 전차는 다이야가와(大谷川)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 우마가에시(馬返) 고개까지 갔다. 그 사이의 산의 모양이나 물의 경치의 아름다움은, 그 진수를 모아서, 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었다. 봉우리와 폭포의 수려함은, 금강산을 방불케 하였다. 우마가에시고개에서 케이블카에 바꾸어 탈 때는 날은 이미 어두워졌으며, 산의 정기가 몸에 와 닿는 느낌이었다. 케이블카에서 또다시 버스로 바꾸어 타고, 추우젠지코(中禪寺湖)호반에 있는 숙소 미전(米田)여관으로 향했다. 숙소에 들어가면 앞에는 추우젠지코가 바라보이며, 동쪽에는 난타이산(男體山)의 웅장한 모습이 어두컴컴하게 떠올라 온다.

밤이 되니 한기가 방 안에 스며들어 상당히 몸이 차가워 왔다. 일행은 저녁을 먹고 난 후 화로를 둘러싸고 좌담회를 열면서 오늘까지 몸으로 체득한 것을 화목하게 이야기하며, 밤이 새는 줄도 잊었던 것이다. 또 좌담회의 내용은 별도 항목에 적은 것과 같다.

## 제2회 좌담회

일시 : 10월 8일(오후 8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장소 : 닛코 추우젠지코 추우구우지 우타가하마(日光 中禪寺湖 中宮祠 歌々濱) 미전(米田)여관

○ 영전(永田) 단장 계속되는 여행에 여러분이 피곤하시겠지만 예정대로, 지금부터 제2회 좌담회를 열겠습니다. 전회에 이어서 허심탄회하게 소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성(竹城) 씨와도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번 성지참배가 끝나서, 고장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성지참배에서 체득한 바의 감상을 고향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많이 들려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으로부터 라디오

방송에 의하여 감상담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경성, 대구, 평양, 함흥 등지의 방송국에 부탁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 15분간 동안의 시간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래에서 열리는 좌담회에서, 그 구체적인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뜻을 포함해서 오늘밤의 좌담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날에 이어서, 카시하라(樺原)신궁, 진무(神武)천황 능 참배로부터 오늘까지의 감상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가(山佳) 경북 강사 성지를 참배하여 감득한 것은 누구나 갖게 된 커다란 감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하기 보다는 각자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 죽성(竹城) 사성 이세(伊勢)신궁과 카시하라신궁을 참배할 때 마다 느낀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카시하라신궁과 진무천황 능은 이세신궁, 모모야마(桃山)능에 비하여 너무나도 겸소한 것을 느낌을 가져왔으나 다행히도 이번에 대규모의 건조가 시행되어 참으로 고마운 극치가 되었습니다.

○ 영전 단장 저도 1938년 3월에 카시하라신궁, 진무천황 능에 참배했으나 죽성 씨와 같은 느낌을 품었습니다. 카시하라신궁은 메이지천황의 세대에 와서 1890년, 카시하라황궁이 남긴 터에 관폐대사(官幣大社) 카시하라신궁을 창건했으나 그 신전은 메이지천황의 예려(觀慮)로 교토 어소(御所)의 내시소(内侍所) 건물에 기증한 것으로 국보 건조물인 것입니다. 제신은 진무천황과 히메타타라이스즈히메(媛蹈躰五十鈴媛)황후의 두 분이십니다. 기원 2천 6백년의 봉축사업으로서 1937년부터 대규모 사전(社殿) 축조에 착수함과 동시에 능의 참배도도 확충정비된 것입니다. 물론 카시하라신궁이 이세신궁보다 규모로 보아 작다고 하는 것도, 한편 이세신궁이 신궁의 종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바른 도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이지유신 초를 맞이하여 경신존왕(敬神尊王)의 사상을 양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메이지대제의 명령으로, 카시하라신궁을 건조했으나, 그 당시는 조정의 재정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사전(社殿)을 건조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배찰(拜察)하는 것입니다.

○ 가천(嘉川) 경기 강사 저희들은 과거 20년간 진무천황제에 나무심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진무천황 능을 참배하여 그 능역에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것을 보고 더 한층 감격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유립단이 성지를 참배하는 것은 당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일단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 성지참배유립단은 소위 향토의 지도계급으로서 당국에 지목되어, 향토민중을 지도하는데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지참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모두 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가 당국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오로지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선은 경신사상이 철저히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혼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내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정신통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선일체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도민중의 정신통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선일체의 구현은 50년 혹은 백년이 지나도 바라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런히 내지의 경신사상을 반도민중에게 선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30여 년간 내지의 성지참배를 한 사람은 백 명·천 명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성지를 참배하여 과연 반도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저는 이것이 의문입니다. 어찌하여 더 내지의 그 숭고한 경신사상을 고무한 향토의 인사에게 선전하지 않았는지, 저는 반도의 정신통

일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성지참배가 끝나면, 미력이나마 곧바로 향토민중에게 내지의 경신사상을 선전하고, 사회의 정신통일에 미력을 다 하고자 하려고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이야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선일체의 구현은 50년이나 백년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구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의 완전한 실현도 머지않은 장래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만주사변 이래, 가깝게는 지나사변 이래 특히 미나미 총독각하가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 교학쇄신 등을 제창한 이래, 조선인의 사상은 호전해 왔습니다. 그 한 예를 말씀드리면, 조선신궁참배자를 조사 해 보면 1938년에는 267만 9304명, 1939년에는 그 추세를 보아도 알 수 있는 246만 5918명, 1940년에는 215만 8859명으로서 아마도 금년에도 2백 수십만을 헤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추세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강본(康本) 평남 대표** 저는 카시하라신궁을 참배하여 가슴에 와 닿은 감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국된 이래 유구 2천 6백년 이것을 기념해야 할 신궁을 대대적인 규모로 조영한 것은, 위에는 황실부터 아래에는 신민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황조의 신령을 편하게 받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무천황 능을 참배하고 오는 도중에 참배도의 양쪽에 잔디를 심고 있는 부녀자를 보았습니다만, 그들의 태도가 경건하였으며 신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얻은 영광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들의 진지한 활동상은 오직 감격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진무천황의 성덕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저는 이세신궁, 카시하라신궁을 비롯하여 각 성지를 참배하고 더한층 신국일본의 위대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토(大和)민족의 정신통일 즉 경신사상이 국민 전반에 침투하고 위 황실에 봉공하는 신념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도민중이 신정 이래 황국신민화 했다고 말해도, 내지의 황민화에 비교하면 그 정신적인 면에서 천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도민중 중에는 가끔, 내선일체 운운은 입술에 발린 소리다, 실제로는 내선 차별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고충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인(私人) 관계를 보아도,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 중에 부모로부터 받는 애정의 두텁고 얇음은 스스로 달리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효도를 다 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애정이 두텁고, 난폭한 자식에게 대해서는 애정은 물론 얇게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가 황국신민이 되었다고 해도, 내지의 황민이 될 때는 훨씬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선인이 차별이 있는 것은, 조선인이 완전한 황민이 되기까지에는 어쩔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총량한 천황폐하의 적자(赤子)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도 우리는 별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 성지참배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 **가천 경기 강사** 저도 완전히 동감입니다. 조선인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정신통일이 긴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유감인 것은 조선인에게 아직 민도가 낮은 것입니다. 즉 생활안정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옛 말에 있는 것 같이, 의식이 족하여야 예절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민중의 정신을 선도하여 통일해 나가는 한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활안정의 확보입니다. 내지인은 의식에 불안이 없기 때문에 경신숭조의 관념이 강한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단정해서 말하고자